

국립국어원2009-01-43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131-14
----------------------

# 2009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최 명 옥

■ 연구 보조원 : 최 창 원

■ 조 사 지 역 :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 **최 명 옥**

##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9년 8월 18일부터 9월 02일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다시 북쪽의 <연천>과 남쪽의 <평택>을 연결하여 동과 서로 나누면, 2005년에서 2008년도까지의 조사는 경기남부의 서해안어(<화성>)와 경기북부의 서해안어(<파주>)와 내륙어(<포천>) 그리고 경기중부 내륙어(<양평>)에 대한 것이었다. 2009년도 조사지인 <이천>의 언어는 경기남부의 내륙어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는 두 분의 제보자가 참여하였으며, 주제보자인 최 씨는 어휘, 음운, 문법, 그리고 대부분의 구술발화를 담당하였고, 보조제보자인 김 씨는 자연발화를 담당해 주었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51시간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운 차원에서 전사되었으며, 약 19 시간의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4시간 분량의 전사가 완료되었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조사지점인 대월면 군량1리의 마을 소개, 그리고 주제보자 최 씨의 개인 생활과 농사 등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경기 대월,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 전사

2009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4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9
제 2 편 어휘 .....	164
제 3 편 음운 .....	218
제 4 편 문법 .....	264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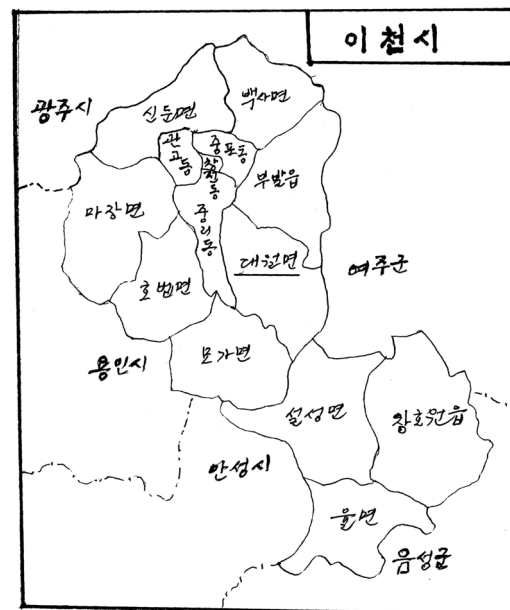
## 1.1 조사 지점 개관

2009년도 경기도 지역어 조사지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를 선정하였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다시 북쪽의 <연천>과 남쪽의 <평택>을 연결하여 동과 서로 나누면, 2005년에서 2008년도까지의 조사는 경기남부의 서해안어(<화성>)와 경기북부의 서해안어(<파주>)와 내륙어(<포천>) 그리고 경기중부 내륙어(<양평>)에 대한 것이었다. 2009년도 조사지인 <이천>의 언어는 경기남부의 내륙어에 해당한다. 2008년도까지의 조사는 경기남부의 서해안어(<화성>)와 경기북부의 서해안어(<파주>)와 내륙어(<포천>) 그리고 경기중부 내륙어(<양평>)에 대한 것이었다. 2009년도 조사지인 <이천>의 언어는 경기남부의 내륙어에 해당한다.

이천시는 경기도 남동부에 있으며 면적이 461㎢이고 인구는 19만 2364(2003) 명이다. 동쪽은 여주군, 서쪽은 용인시, 남쪽은 충청북도 음성군, 남서쪽은 안성시, 북쪽은 광주시(廣州市)와 접하고 있다.

2009년도 경기도 지역어 조사지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를 선정하였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다시 북쪽의 <연천>과 남쪽의 <평택>을 연결하여 동과 서로 나누면, 2008년도까지의 조사는 경기남도의 서해안어(<화성>)와 경기북도의 서해안어(<파주>)와 내륙어(<포천>) 그리고 경기도의 중부 내륙어(<양평>)에 대한 것이었다. 2009년도 조사지인 <이천>의 언어는 경기남도의 내륙어에 해당한다.

이천시는 경기도 남동부에 있으며 면적이 461㎢이고 인구는 19만 2364(2003) 명이다. 동쪽은 여주군, 서쪽은 용인시, 남쪽은 충청북도 음성군, 남서쪽은 안성시, 북쪽은 광주시(廣州市)와 접하고 있다.



이천시는 삼국시대 백제영토였으나 477년 고구려에 귀속되어 남천현(南川縣)이 설치되었다. 568년(진흥왕 29) 신라군에게 점령된 뒤 남천주(南川州)가 되었다. 신라가 당(唐)나라와 연합하여 백제·고구려를 공격할 때 그 근거지가 되었고, 경덕왕 때는 황무현(黃武縣)으로 개칭되어 한주(漢州)에 속하였다. 그 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를 칠 때 이곳 주민 서목(徐穆)의 도움으로 남천(지금의 북하천)을 무사히 건너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어원은 <이섭대천(利涉大川 ; 강을 건너감이 이롭다)>이다. 1257년(고종 44)

영창현(永昌縣)이라 하였고, 1389년(공양왕 1) 다시 남천현으로 되었다.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1393년(태조 2) 이천현 감무(監務)가 부임하였으며, 1444년(세종 26)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 때 충주부(忠州府) 이천군이었던가, 1914년 충청북도 음죽현(陰竹縣) 일부를 합병하여 경기도 이천군으로 독립되었다. 1938년 이천면이 이천읍으로 승격되었고, 청미면(淸溪面)이 장호원읍(長湖院邑)으로 승격되었다. 1966년 대월면(大月面)에 초지출장소(草芝出張所)가 설치되었으며, 1991년 부발면(夫鉢面)이 부발읍(夫鉢邑)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시로 승격되었다. 행정구역은 2개 읍 8개 면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천시의 자연환경은 다음과 같다. 광주산맥의 줄기가 뺨어내려 북부에 여러 구릉을 기복시키고, 남부는 차령산맥에 연결하므로 북·서쪽은 산맥들로 이루어져 높고, 남·동쪽은 점점 낮아진다. 북·서쪽은 천덕봉(天德峰, 630m)·정개산(鼎蓋山, 461m)·양각산(羊角山, 386m)·설봉산(雪峰山, 394m)·건지산(乾芝山, 411m)·마옥산(磨玉山, 445m) 등이 솟아 있으며, 남·동쪽에는 마이산(馬耳山, 472m)·팔성산(八星山, 378m)·백족산(白足山, 402m) 등이 뺨어 있다. 중앙부에는 복하천(福河川)이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남동부에는 청미천(淸溪川)이 음성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들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구릉지대가 발달하여 관개가 용이하며, 특히 충적토로 이루어진 하천유역의 논은 매우 기름져서 벼농사에 적합하고 구릉지대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 연평균기온 11.1℃, 1월평균기온 -5.3℃, 8월평균기온 24.5℃이고, 연평균강수량은 884.9mm이며, 서리는 10월 초순부터 다음해 4월 초순까지 내린다.

이천시의 산업과 교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전인구의 64%가 농업 인구이다. 최근에는 벼농사 중심의 영농형태에서 과수·채소·특용작물 등의 영농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수리시설의 확장, 품종개량, 영농의 기계화 등으로 벼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계절무·산수유(山茱萸)·도자기 등이 산출되는데, 특히 자기는 청자·분청백자·철채(鐵彩) 등 전통자기의 원형을 재현하고 있으며, 그 명성이 높아 외국에까지 수출되고 있다. 시장은 정기시장 2개, 일반시장 2개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통은 영동고속도로가 군 중북부를, 중부고속도로가 서부를 지나는데, 고속도로는 서울~충주간 국도와 함께 시내의 간선도로로서 산업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천시의 교육기관은 1389년(고려 공 양왕 1) 세워진 안흥리(安興里) 안흥정사(安興精舍)에서 비롯하여 1401년(조선 태종 1) 이천향교, 1428년(세종 10) 음죽향교 등이 설립되었다. 근대교육기관으로는 1907년(순종 1)에 설립된 양정여학교(養貞女學校)·특신학교(特信學校)가 있고, 1911년에 창립된 음죽공립보통학교가 있다. 2003년 현재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설립, 운영하는 유네스코청년원 <젊음의 집>이 있으며, 주요 복지시설로는 <성모어린이집> <성 안드레아병원> 등이 있다. 문화활동은 이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0월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가 열린다. 매년 9~10월경 개최되는 이천 도자기 축제는 문화관광부 집중축제로 선정되었고, 이를 비롯해 장호원 복숭아 축제, 산수유꽃 축제,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주요 문화재로는 설봉산의 영월암마애여래입상(映月庵磨崖如來立像, 보물 822)·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 보물 982)·이천중리삼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106)·이천장호원읍미륵불상(경기도문화재자료 41)·이천어석리석불입상(경기도유형문화재 107) 등과 울면(栗面) 산성리(山城里)의 어재연(魚在淵)장군생가(중요민속자료 127), 백사면(柏沙面) 내촌리(內村里)의 안동김씨고가(古家) 및 백사면 신대리(新垈里)에 이천의 백송(천



연기념물 253)이 있다.

이번 조사지점은 대월면 군량1리이다. 대월면은 면적이 31.44km<sup>2</sup>이며 인구는 14,928명이고 5,263세대이다(2009년 1월 현재). 그리고 특산물은 쌀·축산물·배·복숭아·사철채소 등이다.

군량리(郡梁里)는 원래 ‘군들 마을’이라 했다. 군들은 열두 군들 중의 한 마을로서 고려 때부터 이천 고을 월량촌(月良村)에 속하였으며 조선 효종7년(1656년) 경에 ‘면’(面)이 도입되면서 이천도호부 월량촌면 그리고 영조36년(1760년) 월량촌면 하군량리(下郡梁里)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되어 있다. ‘하군량리’의 ‘군량’이라는 명칭은 ‘군들다리’(돌다리)에서 유래한다. 그러다가 고종32년(1895년) 이천도호부가 이천군으로 되었고 그 후 광무(光武)9년(1905년) 월면(月面) 군량리(郡梁里)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4월 21일 대월면 초지(草芝) 출장소 군량리였다가 1996년 5월 1일 면사무소가 초지리로 옮겨지면서 출장소가 폐지되었다.

‘군들’이란 명칭은 ‘양녕대군이 있는 곳과 그의 장인인 김한로의 유배지인 죽산(竹山)이 30리 거리였다’는 점으로 보아 양녕대군이 이 마을에 살면서 무정(마을 이름)에서 풍류를 즐겼던 연유로 ‘양녕대군들’이라 부르던 것을 짧게 부르는 동안에 뒷부분의 ‘군들’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이천시의 기록과 군량1리 마을연혁 기록 비문(碑文)에 의함)

## 1.2 제보자 선정 과정

2009년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반의 정기 학술조사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과 장호원읍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실시 이전에 사전조사를 통하여 제보자를 미리 선정해 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보자 중에서 이천지역어의 제보자를 미리 선정해 두고자했다. 그런데 학술조사 당일에 예정된 제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이장과 연락하여 다른 제보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복숭아 열매 봉지 씌우기에 전 주민이 동원되어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천시는 특수작물로서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매년 5월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복숭아 단지 소재에서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80대 노인까지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고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이천시에서 조사대상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곳은 모두 복숭아 재배지였으므로 여전히 제보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8월 중순은 아주 덥기 때문에 그래도 제보자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천시 청사로 가서 조사목적과 적당한 제보자 조건을 말하고 그런 제보자가 있을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였더니 모가면의 노인회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 노인회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여전히 복숭아 농사에 총동원이 되어 제보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간 곳이 이월면 군량1리의 노인 회관이었다.

노인 회관으로 갔지만 문이 잠긴 채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 한 참 지난 뒤에 회장이 도착하여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목적과 제보자 조건을 말하고 그런 제보자를 소개해달라

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왔다. 인사를 나누면서 회장이 그 분을 소개했다. 작년에 위수술을 하고 지금 요양 중인 분이라고 했다. 새로 온 분과의 인사가 끝나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 온 분이 관심을 보였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되풀이 하자, 모두 복숭아 따느라고 동원되고 있으므로 그런 제보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가 괜찮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게 하여 선정된 분이 8월 17일에 만난 주제보 최 씨이다.

## 1.3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2009년 8월 18일에서 9월 02일까지 진행되었다. 9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조사가 끝나야 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요양 중이므로 하루에 긴 시간에 걸쳐 조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세 시간 정도로 조사 시간을 정하고 구술발화부터 실시하여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구술발화와 어휘 부분, 구술발화와 음운 부분과 문법 부분을 조사하여 9월 02일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 1.4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최
- 성별: 남
- 나이: 72세(1938년 생)
- 출생지: 경기도 이천시
- 거주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 선대거주지: 경기도 이천시
- 직업: 농업
- 경력: 3대째 거주
- 학력: 초등학교 5학년 중퇴
- 병역: 의가사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경로당에서 노인회장과 제보자에 대해 의논하는 중에 초씨가 경로당으로 왔음. 이천시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복숭아 재배지이므로 일손이 딸려 제보자 구하기가 어려운데, 최 씨는 수술 후에 요양 중이므로 제보자가 되어 주기로 하였음.
- 제보자의 특기사항: 병역 기간 외에는 외지로 나간 적이 없으며, 조사지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조사지의 언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음. 집 앞에 있는 교회의 장로로 있으면서 목회활동을 한 때문인지 처음에는 표준어에 매우 가까운 말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약화되었음.
- 제보자의 음성특징: 음성이 맑고 말의 속도의 조금 느려서 식별하기 쉬움.

## (2) 보조 제보자

- 이름: 김
- 성별: 여
- 나이: 70세(1942년 생)
- 출생지: 경기도 이천시 산성면
- 거주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 선대거주지: 경기도 이천시 산성면
- 직업: 농업
- 경력: 결혼 전에 선대거주지에서 5대째 거주
- 학력: 초등학교 4학년 중퇴
- 병역: 해당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제보자의 가족 사항에 대해 문의하던 중에 부인이 이천시 출생이라는 것을 알고 부제보자로 도와주도록 부탁하여 정함.
- 제보자의 특기사항: 가사(家事)나 여성 일 그리고 가족사에 밝아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의 언어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음.
- 제보자의 음성특징: 말의 속도가 약간 빠르기는 하지만 음성이 밝고 맑아 식별하기 쉬움.
- 연락처: 주제보자와 동일.

## 1.5 조사 일정

- (1) 조 사 자: 최 명 옥(서울대 교수)
- (2) 조사 일시: 2009년 8월 18일~9월 02일
- (3) 조사 장소: 주제보자의 집 앞에 있는 교회
- (4) 조사 내용:

### ① 실제조사 내용

번호	일시	파일명 및 내용	조사 시간
1	8/18	(구술1)1.1-1.2.4	2:00
2	8/19	(구술2)1.2.6-1.2.7 (구술3)1.3.1-1.3.3	1:27 1:11
3	8/20	(어휘1)20601-20842 (어휘2)20901-21103 자연발화1	1:33 1:08 1:56
4	8/21	(어휘3)21104-21443 (구술4)1.3.4-1.6.1	2:14 1:57
5	8/22	(어휘4)20101-20533	2:19
6	8/23	(구술5)1.6.2-1.7.2 (구술6)1.8.1-1.8.2	1:56 1:43

7	8/24	(구술7)1.8.3-1.9.4 (어휘5)21501-21741 (어휘6)21801-22136 (어휘7)22201-22258	1:06 1:55 1:29 0:40
8	8/25	(어휘8)22301-22379 (어휘9)22401-22604 (음운1)31001-32060	1:42 1:21 2:22
9	8/26	(음운2)32061-32123 (음운3)32124-32186 (음운4)32187-32256 (음운5)32257-32331	1:26 1:06 1:05 1:26
10	8/27	자연발화2	1:09
11	8/28	자연발화3	1:31
12	8/29	자연발화4	1:33
13	8/30	자연발화5	1:33
14	8/31	(어휘10)22605-22828 (어휘11)22901-23121 (음운6)32332-32362	1:09 1:06 2:04
15	9/1	(어휘12)23201-23441 (문법1)40101-40357	1:10 3:01
16	9/2	(문법2)40401-41116	1:22
		합계	50:40

## ② DVD 수록 내용

파 일	제보자	영역 순서	조사 시간	항목 번호	비고
SKK_IC_01	최용규	구술1	2:00	1.1-1.2.4	전사
SKK_IC_02	최용규	구술2	1:27	1.2.6-1.2.7	미전사
SKK_IC_03	최용규	구술3	1:11	1.3.1-1.3.3	미전사
SKK_IC_04	최용규	구술4	1:57	1.3.4-1.6.1	전사
SKK_IC_05	최용규	구술5	1:56	1.6.2-1.7.2	미전사
SKK_IC_06	최용규	구술6	1:43	1.8.1-1.8.2	미전사
SKK_IC_07	최용규	구술7	1:06	1.8.3-1.9.4	미전사
SKK_IC_08	최용규	자발1	1:56		미전사
SKK_IC_09	김복동	자발2	1:09		미전사
SKK_IC_10	김복동	자발3	1:31		미전사
SKK_IC_11	김복동	자발4	1:33		미전사
SKK_IC_12	김복동	자발5	1:33		미전사

SKK_IC_13	최용규	어휘1	1:33	20601-20842	전사
SKK_IC_14	최용규	어휘2	1:08	20901-21103	전사
SKK_IC_15	최용규	어휘3	2:14	21104-21443	전사
SKK_IC_16	최용규	어휘4	2:19	20101-20533	전사
SKK_IC_17	최용규	어휘5	1:55	21501-21741	전사
SKK_IC_18	최용규	어휘6	1:29	21801-22136	전사
SKK_IC_19	최용규	어휘7	0:40	22201-22258	전사
SKK_IC_20	최용규	어휘8	1:42	22301-22379	전사
SKK_IC_21	최용규	어휘9	1:21	22401-22604	전사
SKK_IC_22	최용규	어휘10	1:09	22605-22828	전사
SKK_IC_23	최용규	어휘11	1:06	22901-23121	전사
SKK_IC_24	최용규	어휘12	1:10	23201-23441	전사
SKK_IC_25	최용규	음운1	2:22	31001-32060	전사
SKK_IC_26	최용규	음운2	1:26	32061-32123	전사
SKK_IC_27	최용규	음운3	1:06	32124-32186	전사
SKK_IC_28	최용규	음운4	1:05	32187-32256	전사
SKK_IC_29	최용규	음운5	1:26	32257-32331	전사
SKK_IC_30	최용규	음운6	2:04	32332-32362	전사
SKK_IC_31	최용규	문법1	3:01	40101-40357	전사
SKK_IC_32	최용규	문법2	1:22	40401-41116	전사
총 50시간 40분					

(5) 조사 시간 : 총 50시간 40분

(6) 녹음기 : 마란츠 PMD 660

(7) 마이크 : SURE SM11

## 2. 전사 원칙

### 2.1. 구술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원칙적으로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다음에는 (=X)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예, “거기에다 여글 하는데(=만드는데).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주제보자) “@”(책임조사자), “@2”(보조조사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생략된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경우 (xx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⑤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문법 형태(예. -이니?)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이용된 어간(예. 생일)이 표제 항목의 것(예. 집)과 다를지라도, 전사에는 표제항목의 어간으로 대치하였다. 예. 조사: 생이리냐, 전사: 지비냐
- ③ 표제 항목에는 없지만 표제 항목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는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l]’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 또는 “:::”으로 표시하였다.
- ⑤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예 그럼 지금부터 그 맨까지 말쓰를 여쭙게습니다.{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말쓰를 여쭙겠습니다.}

10101 # 예{예}

10101 @ 이 마을 이르미 어떠케 댐니까?{이 마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10101 # 옴:날 말로는 군:드리고,{옴날 말로는 군들이고,}

10101 @ 네.{네}

10101 # 옴:재론 굴량일립니다.{옴재로는 군량1립니다.}

10101 @ 아{아}

10101 @ 혹시 그, 마을 그, 이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드리 인는지요?{혹시 그, 마을 그, 이름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요?}

10101 # 그, 마을하고 관계 되는 얘기는 굴:량이라는 데가 여기가 그, 고을군짜 돌다리양짜를 쓴다고 그래요.{그, 마을과 관계 되는 이야기는 군량이라는 데가 여기가 그, 고을군(郡)자 돌다리 양(梁)자를 쓴다고 그래요.}

10101 @ 네.{네}

10101 # 그래는데 굴량:리에 가며는 옴:날 군들 장터가 이썸습니다. 별떠네{그러는데 군량2리에 가면 옴날 군들 장터가 있었습니다. 별편(하천 독 옆의 잡초가 나 있는 터)에}

10101 @ 예, 예.{예, 예}

10101 # 별떠너지요.{별편이지요.}

10101 @ 네?{네?}

10101 # 지끄른 다 풀바치 돼:썸요.{지금은 다 풀밭이 되었어요.}

10101 @ 돌:{돌}

10101 # 풀밭.{풀밭}

10101 @ 네네.{네네}

10101 # 그런데 거기 인제 보를 치러 올라가며 옴날 어른드리 여그가 장터여썸파 장터여썸파 그런데,{그랬는데 거기 인제 보(洑)를 치러 올라가면서 옴날 어른들이 “여기가 장터였었다.” “장터였었다.” 그랬는데.}

10101 # 집썸기 신포 노인네들 다니고 그럴 땐걸 까태요.{짚신포 노인네들 다니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10101 @ 네네.{네네}

10101 # 그래서 거기 뭐 건너시는데 뭐 다리가 이썸노라 뭐 이런 전서를 이썸요.{그래서 거기 뭐 (어른들이) 건너시는데 뭐 다리가 있었다는 뭐 이런 전설은 있어요.}

10101 @ 예예.{예예}

10101 # 인제 자세한 내용은 왜 그랜는진 모르고,{인제 자세한 내용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10101 # 굴량 일:리는 조:: 건너 벌떠네 가며는 무::정마으리라는 그런 마을이 이썸파는 데,{굴량1리는 저 건너 하천 독 옆에 가면 무정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데,}

10101 @ 네.{네}

10101 # 그 옴:날 농사짓는데 노인네들 말씀하시기는 뭐{그 옛날 농사짓는데 노인네들 말씀하시기는 뭐}

10101 # 그 고기서 한 집 한 집 [...] 이사와서 드리오다가 이리 드러완노라고, 그래서 여기와 자리자퍼서 여게 살고 이썸니다.{그 거기서 한 집 한 집 이사 와서 들어오다가 이리 들어왔노라고, 그래서 여기 와 자리 잡혀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10101 @ 예예.{예예}

10101 @ 그..{그...}

10101 @ 어르신 그 뭇때에는... {어르신 그 뭇대에는...}

10101 # 네.{네}

10101 @ 언제 여기에 드리오셔슴미까?{언제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10101 # 우리가 여기 드러옹거 연대수는 자세 모르게썸요.{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 연대 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10101 @ 예.{예}

10101 # 우리 아버님들 세대를 너머서서 하라버지 세덴데,{우리 아버님들 세대를 넘어서서 할아버지 세대인데,}

10101 # 하라버지는 내가 칠남매에 망내기때메 몰:: 뵈:꺼든노.{할아버지는 내가 칠남매의 막내기 때문에 못 보았거든요.}

10101 @ 네.{네}

10101 #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도 우리 큰아버님은 주로는 누어 알코 그럴 때만 뵈:찌 내가 조끄매썸꺼든노.{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도 우리 큰아버님은 주로 누워 앓고 그럴 때에만 보았지 내가 조그마했었거든요.}

10101 # 그래구선 인제 우리 형님들 그러케 봐:쓰니까 연도수는 모르게썸요.{그리고서는 인제 우리 형님들. 그렇게 보았으니까 연도 수는 모르겠어요.}

10101 @ 예.{예}10101 # 워나게 오래돼:서 연도수는 전 모릅니다.{워낙 오래 되어서 연도 수는 저는 모릅니다.}

10101 @ 그럼 하라버지::는 여기 드리오시가지고 뭇: 하썸파고 드러슴미까?{그러면 할아버지는 여기 들어오셔서 무얼 하셨다고 들었습니까?}

10101 # 하라버지::는 여기 오셔가지고 농사를 그냥 하신걸 가태요.{할아버지는 여기 오셔서 농사를 그냥 하신 것 같아요.}

10101 @ 네.{네}

10101 # 와서 농사를 하신걸 깍꾸,{와서 농사를 지으신 것 같고,}

10101 # 우리 아버님이 한:옥을 진는 목수여썸썸니다.{우리 아버님이 한옥(韓屋)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10101 @ 예예.{예예}

10101 # 그래서 이 마을에 요 아페찜마냥 이러케 큰: 집뜨른 거의 다 땡기며 지언는데 지그른 다 혈:고서 인제 새로들 직꼬 그래서 마니 업써전쪼요.{그래서 이 마을에 요 앞의 집처럼 이렇게 큰 집들은 거의 다 다니면서 지었는데, 지금은 다 혈고서 인제 새로들 짓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지요.}

10101 @ 그르른 아버님 미테 슬하에는? {그러면 아버님 밑에 슬하에는?}

10101 # 칠남매가 이썸쪼요.{칠남매가 있었지요.}

10101 @ 아 어르신이 쥔 막 망내여슴미까?{아, 어르신이 제일 막, 막내였습니까?}

10101 # 그러게 아들로는 망내고 전체저그로는 따리 하나 내 미테 이썸쪼요.{그러게, 아들로는 막내고 전체적으로는 딸이 하나 내 밑에 있었어요.}

10101 @ 그르른 그 형제 자매드른 지그른 다 여기에 안 삼미까?{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은 지금은 다 여기에 살지 않습니까?}

10101 # 예.{예}

10101 # 지금 큰형님 손주는 여기 살고 이꼬,{지금 큰형님 손자는 여기 살고 있고,}

10101 # 둘:째 형님::드른 부친가서 애드리 다 살:고 이꼬,{둘째 형님들은 부친 가서 애들이 다 살고 있고,}

10101 # 우리애:들도 서울가 이꼬 인제 나하고 우리 집싸람하고 이 살고 이꼬 망내하고{우리 애들도 서울 가 있고 인제 나와 우리 집사람과 이, 살고 있고 막내와}

10101 @ 자 아까 말씀하셧는데,{자, 아까 말씀하셧는데,}

10101 # 예.{예}

10101 @ 이 마으::리 이제 이 마으레 대해서는 알고 좀 알고 계신거시 이슴미까? 언제 마으리 생기고 성:씨드리 어떤 성:씨들로 구성되인는지.{이 마을이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알고, 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언제 마을이 생기고 어떤 성씨(姓氏)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10101 # 이 마으::리 운:제 생깁거는 자세 몰라요.{이 마을이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몰라요.}

10101 @ 네.{네}

10101 # 예, 여기 테마마으리 드리와서 그 기로글 좀 아러넬라구 하는데두 그글 잘 모르쥔 떠라구요.{예, 여기 테마(theme) 마을이 들어와서 그 기록을 좀 알아내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쥔더라고요.}

10101 # 그러이칸 우리나라:: 형편상 그 개인저그로 무신 정리해놓:거나 이렇게 업써 그런지는 몰라도{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편상 그 개인적으로 무슨 정리해 놓은 거나 이런 것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10101 # 그건 모르더라고요. 운:제 이 마으리 형성뵐:는지는.{그것은 모르더라고요. 언제 이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10101 @ 주로 성:씨드른 어떠케 됩니까? 여기 마을 성:씨드른{주로 성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을 성씨들은}

10101 # 예, 성씨드른 순:천 김씨드리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이꼬,{예, 성씨들은 순천 김씨들이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고,}

10101 # 고기 한 서씨네가 한 열 까정 열한 가정잉가 살고 이꾸요.{거기 한, 서씨네가 한

열 가정 열 한 가정인가 살고 있고요.}

10101 # 그리고 그 다메는 인제 여러 성드리 (@ 각썩) 각썩드리 살고 이썩니다.{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제 여러 성들이(@ 가성,各姓) 각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10103 @ 이 저 굴랑 응, 그 주버네 사니나 강 저수지 뭐 이런거뜨::른 어떠썩니까? 사니 특별하게, 사니 이썩니까?{이, 저, 군랑 응, 그 주변에 산이나 강,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썩니까? 산이 특별한 것이, 산이 있썩니까?}

10103 # 이:천 지여게는{이천 지역에는}

10103 # 이:천 지여게는 이:천 뒤부악사네서버터 장호원 백죽썩까지 야 칸 한 팔썩니정도 되는데 그 아네는 도:리 업썩요.{이천 지역에는 이천 뒤 부악산에서부터 장호원 백준산까지 약 한, 한 80리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돌(石)이 없어요.}

10103 @ 예.{예} 10103 # 도:리{돌이}

10103 # 그 도:리 업따능거는 큰:: 사니 업따는 거거등뇨.{그, 돌이 없다는 것은 큰 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10103 # 대:개 평야지라 이고세는 큰:: 바라미 업:꼬,{대개 평야지라 이곳에는 큰 바람이 없고,}

10103 # 또 큰:: 비가 온대도 큰:: 수해가 업:꼬,{또 큰 비가 온다해도 큰 수해가 없고,}

10103 @ 아.{아}

10103 # 이 농사 짓기는 아주 적절한 그런 고씨::지. 뭐.{이, 농사 짓기는 아주 적절한 그런 곳이지 뭐.}

10103 # 특별히 사니나 무슨 모시 인따든지 이런 방죽까튼 이렇게 업썩니다.{특별히 산이나 무슨 못이 있다든지 이런 방죽 같은 이런 것이 없썩니다.}

10103 @ 어 그르믄 저 뭍미까 그냥 천수다비어썩미까?{어, 그러면 저, 뭍니가, 그냥 천수답이엇썩니까?}

10103 # 예.{예}

10103 # 그래 완전 천수다비어서 옛날에는 저 길건너로 개울 건너로 접썩 그 드:른 모를 시물라고 모만 부어날따 모꺼지타서 그 논빠다게서 푸리 낭게 그 이듬해 그걸 글거다 때:고 그래썩요.{그래, 완전 천수답이어서 옛날에는 저 길 건너로 개울 건너로 저쪽 그 들은 모를 심으려고 모만 부어놓았다가 모까지 타서 그 논바닥에서 풀이 난 것이 그 이듬해에 그것을 굶어다 (불을) 때고 그랬어요.}

10103 @ 아 예.{아, 예}

10103 # 아주 엄청나게 힘드런데,{아주 엄청나게 힘이 들었는데,}

10103 # 한 육썩년도 지나면서버터 인제 하:내대책 그 일본서 그 저거 드리오면서버터 인자 기계가 드리오면서 저 근내다 인제 개울 빠다글 파구서{한 60년도 지나면서부터 인제 한해대책(旱害對策)이 그, 일본에서 그, 저거, 들어오면서부터 인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저 건네다가 인제 개울 바닥을 파고서}

10103 # 어 기계를 해 안처서 무를 퍼 올리는 바람에,{어, 기계를 설치해서 물을 퍼 올리는 바람에} 10103 @ 예예.{예예} 10103 # 거기가 인제 개발이 되고,{거기가 인제 개발이 되고,} 10103 @ 아.{아} 10103 # 그 후:로 인제 경지정리되면서 전:기가 느러나니까 여기는 어디든지 바그믄 무리 나요.{그 이후로 인제 경지 정리가 되면서 전기가 늘어나니까 여기는 어디든지 (관을) 박으면 물이 나요.}

10103 @ 예.{예}

10103 # 무리, 무리, 마:니 나요.{물이, 물이, 많이 나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그래서 그걸까지고 농사를 인제 마음대로 지니까 농사는 마음대로 할 쑈 인쪼.{그  
래서 그것으로 농사를 인제 마음대로 지으니까 농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10103 @ 지하수는 풍부한 모양이군요.{지하수는 풍부한 모양이군요.} 10103 # 예.{예}

10103 @ 그 주로 인제 요쪼근 아 그 저 벼농사지요?{그, 주로 인제 요쪼근 아, 그, 저, 벼  
농사지요?}

10103 # 예, 벼농사를 마:니 진짜.{예, 벼농사를 많이 짓지.}

10103 @ 복숭아::는 언제부터 해שמिका? 옛날부터 해שמिका?{복숭아는 언제부터 했습니  
까? 옛날부터 했습니까?}

10103 # 아니예요, 복숭아 드러운 제는 불과 한 심년돼:쫄까 그러쫄니다.{아니예요. 복숭아  
들어온 진 불과 한 10년 되었을까 그렇쫄니다.} 10103 @ 예예.{예예}

10103 # 그 장호원보다도 여기 드러운 제가 쫄 느저요, 여기가.{그, 장호원보다도 여기 (복  
숭아가) 들어온 지가 쫄 늦어요, 여기가.}

10103 @ 네.{네}

10103 # 늣꼬, 그러케 확산된지는 그저 그 근: 한 심년 정도 이러케 볼 쑈 인쪼요.{늣고,  
그러케 확산된 지는 그저 그, 약 한 10년 정도 이러케 볼 수 있지요.}

10103 @ 복숭아::는 어떠שמिका?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바쁘고 또 복숭아 수확시기는  
언제까지 됴미까?{복숭아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바쁘고 또 복숭아  
수확시기는 언제까지 됩니까?}

10103 # 복숭아는 인제 보메 사뮐따래 꼬치 피게되면{복숭아는 인제 3월 달에 꽃이 피게  
되면}

10103 @ 네.{네}

10103 # 인제 그때서버터 인제 야글 주는데 지금 대:개 인제 거르믈 가으레 준다구 그래  
요. 그저넌 보메 주더니 가으레 주능게 조타라구 인제 교유글 바다서 가으레 주고,  
{인제 그때부터 인제 약을 주는데 지금 대개 인제 거름을 가을에 준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봄에 주더니 가을에 주는 것이 좋다고 인제 교육을 받아서 가을에 주고,}

10103 # 지금 인제 보메는 인제 그 야글 나무에도 주어야 되고 해서 이걸 잘 마치노쿠선,  
{지금 인제 봄에는 인제 그, 약을 나무에도 주어야 되고 해서 이것을 잘 맞추어 놓고  
서는,}

10103 # 꼬치 지면 인제 야글 주어서 버러지가 그 열매쫄게 드러가지 양케 만드러 놔:따가  
{꽃이 지면 인제 약을 주어서 벌레가 그 열매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가}

10103 # 이노미 크면 워나게 꼬치 마:니 퍼서 마니 달리니까 적파를 해요.{이놈이 크면 워  
낙 꽃이 많이 피어서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적과(摘果)를 해요.}

10103 @ 네네.{네네}

10103 # 키울놈만 냉겨노코 이러케 따내거드뇨.{키울 것만 남겨놓고 이러케 따내거든요.}

10103 # 그랜 다투메 오:월딸 되며는 이걸 봉지를 하나씩 싸:요. 또.{그런 다음에 5월 달  
되면 ○이것을 봉지를 하나씩 싸요.}

10103 @ 네.{네}

10103 # 이래가지구 아마 유:월까지는 안가지만 오:월딸 늣게 하는 사라믄 유월초반꺼지도  
가나 그러케 가요.{이렇게 해서 아마 6월까지는 안 가지만 5월 달, 늣게 하는 사람은

6월 초반까지도 가나? 그렇게 가요.}

10103 # 그런데 이제 유:월말 지나가면 치월초순 올:복숭아를 따기 수확하기 시작하면{그런데 이제 6월 달이 지나가면 7월 초순에 올복숭아를 따기, 수확하기 시작하면}

10103 @ 네.{네}

10103 # 복숭아 종자를 여러가지를 해가지고,{복숭아 종자를 여러 가지를 해서}

10103 # 한사라미 농사를 직:게 되며는 모미 바쁘니까 사를 마니 어들쭈가 업쓰니까,{한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몸이 바쁘니까 사람을 많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10103 # 인제 여러가지 종자를 해가지구 올:복숭아 따고 고 다음 따고 고 다음 따고 그래니까,{인제 여러 가지 종자를 해서 올복숭아(를) 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복숭아를) 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복숭아를) 따고 그러니까,}10103 @ 아 종류가 ...{아, 종류가 ...}10103 # 예 종류가 다양하게 쭈웅 나가면서 나오게 되지요.{예, 종류가 다양하게 쭈 나가면서 (여러 종류의 복숭아가) 나오게 되지요.}

10103 @ 예.{예}

10103 # 그러게 됩니다.{그렇게 됩니다.}

10103 @ 그:은 지금 한참 저 따는 때지요?{그러면 지금 한참 저, (복숭아를) 따는 때지요?}

10103 # 예.{예}

10103 @ 언:제까지 따니까?{언제까지 따니까?}

10103 # 이게 인제 그 황도가 딸르든 파월말까지 따 따야 돼:요. 근데 추 대:개가 추석 음녀그로 추석 명절까지는 가는 집또 이꼬 그 아네 해결되는 집또 이꼬 그래더라고요. {이것이, 인제, 그, 황도(黃桃)가 따려면 8월 달까지 따, 따야 되어요. 그런데 추, 대개가 추석 음력으로 추석 명절까지는 가는 집도 있고 그 안에 해결 되는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10103 @ 아 예.{아, 예}

10103 # 그 인제 거름에 딸라서 차이가 좀 인능거 가태요.{그, 인제 거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0103 @ 파월 뭐 말까지는 팡자이 바쁘시게끔요.{8월 뭐, 말까지는 팡장히 바쁘시겠군요.}

10103 # 그러치요 인제, 파월말 되며는 여긴 인제 올 올:벼가 만키 때무네 자채마당들도 시작하지요.{그렇지요. 인제 8월 말 되면 여기는 인제 올, 올벼가 많기 때문에 자채마당들도 시작하지요.}10103 @ 또 또 벼농사{또, 또, 벼농사}

10103 @ 예:. 그러며는 요즘 이제 지방마다 서로 이제 그 마으레 험넉하는 그 모임드리 인는데,{예, 그러면 요즈음 이제 지방마다 서로 이제 그 마을에 협력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10103 # 예{예}

10103 @ 서로 여기:는 어떤 모임드리 이슴미까?{서로, 여기는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10103 # 여기에는 먼년 되쓸라나? 테:마가 선정이 돼:가지고,{여기에는 몇 년 되었을가? 테마가 선정이 되어서,}

10103 @ 네.{네}

10103 # 어 험너글 이루어서 인제 그 급썸그로 이를 하구 이꼬,{어, 협력을 이루어서 인제 그,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10103 # 개인저그로는 별로 험똥돼:인능거시 그리 만치 아나요.{개인적으로는 별로 험똥 되어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인제 마을 아네 청년회가 이꼬,{인제 마을 안에 청년회가 있고,}

10103 @ 네{네}10103

# 부녀회가 이꼬, 저 저저 대동회가 이꼬 인제 그르게 되는데{부녀회가 있고, 저, 저, 저, 대동회가 있고 인제 그렇게 되는데}

10103 # 대:개 인제 청년회나 부녀회는 마으레서 혼대사나 큰닐이 이러나쓸 경우{대개 인제 청년회나 부녀회는 마을에서 결혼이나 큰일이 일어났을 경우}

10103 @ 네{네}

10103 # 전:체저그로 인제 동위니 돼:서 험녀캐서 인제 그 이를 하고{전체적으로 인제 동원이 되어서 협력해서 인제 그 일을 하고}

10103 # 그러케 해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제 장례문화도 좀 바뀌어가는{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제 장례문화도 좀 바뀌어가는}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그런 실태라{그런 실태라}

10103 @ 예{예}10103

# 나가서 인제 하게 되면 그 어 장례식장 가튼데 가서 하게되면 음 그 대부분 인제 먼뽕들 가서 친지에서 이러케 돕꼬 이런 형태로 가고 지금 그러케 변화돼:가고 인뽕이라구요. {나가서 인제 초상을 치게 되면 그, 어, 장례식장 같은데 가서 하게 되면 음, 그 대부분 인제 몇 분이 가서 친지에서 이렇게 돕고 이런 형태로 가고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대동회::는 뭐어 함미까?{대동회는 무엇을 함니까?}

10103 # 대동회는 인제 대동 전체에서 대동 전바늘 인저 움직이게 되지요. 대소사 일:하능게 울코 그릉거를 해:서 인제 이야기해:서 이러케 하자고.{대동회는 인제 대동 전체에서 대동 전바늘 이제 움직이게 되지요. 대소사(大小事) 일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해서 인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10103 @ 아 그건 동네 전체?{아, 그것은 동네 전체?}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예예 그 대동회구뇨.{예예, 그 대동회군요.}

10103 @ 그 아까 테마:라고 하는 거슨 이 마을 테마는 뭘:미까?{그, 아까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테마’는 무엇입니까?}

10103 # 이 마을 테:마에는 내가 관계자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겐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침시:도할제는 우리나라에 아:홉개 마으를 헐파고 그래요.{이 마을 테마에는 내가 관계자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겐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아홉 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10103 @ 네.{네}

10103 #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고기서 다소 아마 지워늘 바다서 그 현장을 만드려노코 어리니드리 인제 대개 와서 체험하고 그릉거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해서 거기서 다소, 아마 지원을 받아서 그 현장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인제 대개 와서 체험하고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10103 @ 근데 인제 어리니들 와서 체험할 때 뭘: 체험하는 걸로 돼:이슴미까?{그런데 인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때에 무엇을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0103 # 체험하능게 대:개 보니까는 그 어리니드리 경운기를 타거나 지그몬 트랙타에 추레라를 만드러서 그글 태와가지구 저 뒤:루 가르는 널븐 드:레 농노를 한바꾸 돌몬 그 도:는 자리가 장소가 조아요.{체험하는 것이 대개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경운기를 타거나 지금은 트랙터에 트레일러(trailer)를 만들어서 그것에 태워서 저 뒤로 가면 넓은 들에 농로(農路)를 한 바퀴 돌면, 그 도는 자리가 장소가 좋아요.}

10103 @ 예예.{예예}10103

# 그걸또 하고,{그것도 하고,}

10103 # 또 인제 미:꾸리 잡는 체험도 하고,{또 인제 미꾸라지 잡는 체험도 하고,}

10103 @ 아.{아}

10103 # 또 저:기 저 찹쌀로다 인절미 해서 먹꼬,{또 저기, 저, 찹쌀로 인절미 해서 먹고,}

10103 @ 예.{예}

10103 # 아니면 인제 때되면 감자캐능거나 옥수수 따능거 머 여:러가지로 각종 인제 거 어떤 복숭아 가통건또 때로는 하고,{아니면 인제 때가 되면, 감자 캐는 것이나 옥수수 따는 것 머, 여러 가지로 각종 인제 그, 어떤 복숭아 같은 것도 때로는 하고,}

10103 # 다양하게 이러케 이:를 꾸며서 하더라구요.{다양학 이렇게 일을 꾸며서 하더라고요.}

10103 @ 주로 인제 주로 농사체허미군노.{주로, 인제 주로 농사 체험이군요.}

10103 # 그러치요. (@ 예::) 농사체허므로 마니 하구.{그렇지요. (@ 예) 농사 체험을 많이 하고.}

10103 # 그리고 인제 농사체험 아닝거는 활쏘기::도 하고,{그리고 인제 농사 체험 아닌 것은 활쏘기도 하고,}

10103 # 침: 시작할제는 우리 동네가 장:치기라고 그래는데 골프 비스탄 그런 형태거든 노.{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동네가 장치기라고 그러는데 골프 비슷한 그런 형태거든요.}

10103 @ 예.{예}

10103 # 어머니들 말씀 드리보든 머어 노인네드리 산비트를 그글 치고 너머가게 서루 내:기를 해다 머 장:꿍에 어더마저서 누늘 다치고 그랜따던데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머, 노인네들이 산비탈을 그것을 치고 넘어가게 서로 내기를 하다가 머, 장꿍에 얻어맞아서 눈을 다치고 그랬다던데...}

10103 # 소:나무 그 가지 마니 치는 옹도라지를 이러케 까껴가지구 그걸 친대요.{소나무 그, 가지 많이 치는 옹두리를 이렇게 깎아서 그것을 친다고 해요.}

10103 @ 예.{예}

10103 # 그런데 인제 우리 마을에 이썬가지고 서울서 그 찌기 공지게 일따가 퇴직칸 부니 김씨네가 한분 인는데,{그런데 인제 우리 마을에 있어서, 서울에서 그, 저기,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이 김씨네가 한 분 있는데,}

10103 # 여기 이 마으레 오셔서 여기저기 그 지정된 장소에 그 머 해:농:걸뜨리 마니 이썬요.{여기 이 마을에 오셔서 여기저기 그 지정된 장소에 그, 머, 해농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10103 @ 예.{예}

10103 # 그런데 그 인제 그부네으해서 그런거시 이따고 그래서 그 장:치기라고 그래가지구 나무를 벼:서 이러케 채를 만드러가지구 좀 꾸브러진노를 넘쳐카게 까껴서, 치능거

요.{그런데 그, 인제 그 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장치기라고 그래서 나무를 비어서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좀 꾸부러진 것을 넓적하게 깎아서 치는 거예요.}

10103 @ 뭘: 침미까?{무엇을 침니까?}

10103 # 그 인제 지비루 맨든 공 가통거.{그, 인제 짚으로 만든 공 같은 것.}

10103 @ 아, 집 지비루,{아, 집 짚으로,} 10103 # 예.{예}

10103 # 거 하구 그래쎄지요.{그, (공치기를) 하고 그랬었지요.}

10103 @ 아까 그 그 치는 막때 소나무 가튼 뭘 장:도라지라 그랜습미까?{아까 그, 그, 치는 막대, 소나무 같은 무엇을 장도라지(‘웅도라지’를 잘못 말한 것임)라고 그랬습니까?} 10103 # 장:뽕이라구 그래 그래쎄요.{장뽕이라고 그래, 그랬어요.}

10103 # 노인네드리 부르기는 장:뽕이라고 그래더래요. 장, 장:뽕이라구.{노인네들이 부르는 장뽕이라고 그러더래요. 장, 장뽕이라고.}

10103 @ 이거 치는거를요?{이거, 치는 것을요?}

10103 @ 아.{아}10103 # 그,그,그 웅:두라지 까꿍거를.{그, 그, 그, 웅두리 깎은 것을.}

10103 @ 웅도라지?{웅두리?}

10103 # 예.{예}

10103 # 그기 이 소낭 소나무 웅두라지 이러케 마:니 가쟁이 칭걸 뽕::돌려 까끄른 단단하게 요러케 공가치 되자나요.{그것이 이, 소낭, 소나무 웅두리 이렇게 많이 가지가 친 것을 뽕 돌려 깎으면 단단하게 요렇게 공 같이 되잖아요.}

10103 @ 네네네.{네네네}

10103 # 그거를 인제 치는거지.{그것을 인제 치는 것이지.}

10103 @ 그거를 웅 웅도라지?{그것을 웅, 웅두리?}

10103 # 그르치요. 소나모 웅:도라지구 그르케 불러꺼든뇨.{그렇지요. 소나무 웅두리고. 그렇게 불러꺼든요.}

10103 @ 네네네 알게습미다. 예.{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10103 @ 아아 아, 그런거시 전통저그로 이서꾸뇨.{아아 아,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군요.}

10103 @ 그니깐 그건, 저 들파네서 하능게 아니고 언덕빠기로 하는검미까?{그러니까 그것은, 저 들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덕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10103 # 그래::서 그걸 내가 어려서 못 받꺼드뇨. 어른 노인네드리 해쓰니까.{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려서 못 보았거든요. 어른, 노인네들이 했으니까.}

10103 @ 네 예예.{네, 예예}

10103 # 그랜는데 어머이드리 말씀하시는 소릴 드리보면 접:짜게 그 살쌍둥이라는 그 비타리가 한 사:십오도가 더 야틀텐데,{그랬는데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쪽에 그 살쌍둥이라는 그 비탈이 한 45도가 더 얄을 텐데,}

10103 # 그 묘:지가 이러케 있으면 잔디밭에서는 그글 쳐서 냉기구 그랜따구 그래요.{그 묘지가 이러케 있으면 잔디밭에서는 그것을 쳐서 넘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10103 @ 아.{아}

10103 # 그러케 해썬는데.{그렇게 했었는데.}

10103 # 어::편 방씨기로 헐는지는 모르게쎄요.{어떤 방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103 @ 방씨근 편짜가지고 하능게 아니고{방식은 편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103 # 편짜가지고 행건 까태요.{편을 짜서 한 것 같아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그래니깐 상대방에 어:더막꾸 그랜따 그래지요.{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맞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10103 @ 아, 아 그런데요.{아, 아 그런데요.}

10103 @ 아 그런거시 이서꾼뇨.{아, 그런 것이 있었군요.}

10103 # 예 이 마으레{예, 이 마을에}

10103 @ 그 게가튼거슨 이썸미까? 무슨 게, 무슨 게.{그 게(契)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10103 # 게:요?{'게'요?}

10103 @ 게모임 게모임.{게모임, 게모임}

10103 # 이 농초네는 게가 그 육썸년대 지내면서 칠썸년대 초반 우리가 생화리 상당히 어려울 켜는{이 농촌에는 게가 그 60년대 지나면서 70년대 초반 우리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10103 @ 예.{예}

10103 # 종중께:가 이썸꼬,{종중께가 있었고,}

10103 @ 종?{중?}10103 # 종중.{종중(宗中)}

10103 @ 아 종중께.{아, 종중께.}

10103 # 종중께:가 이썸꼬,{종중께가 있었고,}

10103 # 때로는 인제 그 친구들끼리 연하패서 만드려 논{때로는 인제 그 친구들끼리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10103 @ 예{예}

10103 # 그런 게:형텐데 대:개가 보른 그게 쌀:겹미다.{그런 게 형태인데 대개가 보르면 그게 쌀겹니다.}

10103 @ 아.{아}

10103 # 그래서 쌀를 처메 움마큼씩 거더서 모아가지구{그래서 쌀을 처음에 얼마큼씩 건어서 모아서}

10103 # 그건 기보니로 해:서 이거를 논:는데 이제 심든 사람드리 간따 먹꼬 이:자를 가져 오자나요.{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놓는데, 이제 힘든 사람들이 갖다먹고 이자를 가져 오잖아요.}

10103 @ 네네.{네네}

10103 # 그러케서 하는 방시기루 초:네서는 게:가 이썸는데,{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촌에서는 게가 있었는데,}

10103 # 지그른 인제 대개 농혀비 활달하게 되니까,{지금은 인제 대개 농협이 활달하게 되니까,}

10103 # 농혀베서 인제 간따 쓰구 간따 갑꼬 이런 형태루 되기 때메,{농협에서 인제 갖다쓰고 갖다 갖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10103 # 개인 쌀:께는 쌀리래능게 그저네는 쌀를 주종을 이루니까 워나게 히미 조코 그모:든 물가가 쌀루 이루어지자나요? 여기서도 쌀 한 저 논 한평에 쌀 서:되다 단되다 품갑씨 쌀 한마레 푸미 다서시다 이래 이랴평거 지금 쌀른 워:나게 갑씨 싸니 그러케 되구{개인 쌀께는 쌀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쌀이 주종을 이루니까 워낙에 힘이 좋고 그 모든 물가가 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쌀, 한, 저, 논 한 평에 쌀 서 되다

다섯 되다. 품값이 쌀 한 말에 품이 다섯이다. 이래, 이랬던 것이 지금 쌀은 위낙에 값이 싸니 그렇게 되고}

10103 # 그러기때메 계:는 별로 그렇게 심:하질 앙코,{그렇기 때문에 계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를 앓고,}

10103 # 인제 서로 동창회나 무슨 친구들 친:목계나 이런 쪼그로 인제 일녀네 한번씩 모여서 인제 이러케 가치 대화하고 이제 퍼:가구 그렇거 하지요.{인제 서로 동창회나 무슨 친구들 친목계나 이런 쪽으로 인제 일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인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제 퍼가고 그런 것을 하지요.}

10103 @ 그 옰:나레는 그 동네 고:사가튼 거시 이서슴미까?{그, 옛날엔 그, 동네 고사(告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10103 # 고:사요?{고사요?}

10103 @ 예{예}

10103 # 고:사래능게 인제 그 실절찌그로 무신 그 무녀나 아니며 그 굳타는 사람드를 데려다가 하능거 이렇거라기 보다는{고사라는 것이 인제 그 실질적으로 무슨 그, 무녀(巫女)나 아니면 그 굿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10103 # 우리 어려쉴 켜 이 부라기 농아그로 좀 유명해써썬요. (@ 예예) 그래서 그 수원까지 가는데 이:천 대표로 여기서 나가고 그랬던 마으리거드뇨?{우리 어렸을 때 이 부락이 농악으로 좀 유명했었어요. (@ 예예) 그래서 그 수원까지 가는데 이천 대표로 여기서 나가고 그랬던 마을이거든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그때는 인제 정월 초순 인제 지나가게 되면 인제 그 농아글 가지고 이러케 집찌비 도라다니면서 인제 고삐빼늘 합니다. 고사를 고사를 하면.{그때는 인제 정월 초순 인제 지나가게 되면 인제 그 농악을 가지고 이렇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인제 고사뻔(고사 뒷풀이)을 합니다. 고사를, 고사를 하면.}

10103 # 인제 그 상:쇠하는 분 고 미테 하는 부니 그거를 잘해요 입따미 조아서.{인제 그 상쇠재비와 그 밑에 하는 분이 그것을 잘해요, 입담이 좋아서.}

10103 @ 네네네.{네네네}

10103 # 그냥 동네 부닌데.{그냥 동네 분인데.}

10103 @ 예.{예}

10103 # 그래서 인제 도 도라가며 하면 쌀말씨기나 이러케 노쿠 이러케 해가지구 해서 그 글 봐:서 이제 청년단 재정으로 쓰거나 이러면서 고사를 땡기며 마니 헐:썬요.{그래서 인제 도, 돌아가면서 하면 쌀말씨이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장리(長利))를 놓아서 이제 청년단 재정으로 쓰거나 이러면서 고사를 (하러) 다니며 많이 했지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그거 할찌게는 인제 마당에 움물 이썬 고기서도 하고, (@ 그른,) 인제 부어케 가셔도 하고{그것을 할 적에는 인제 마당에 우물이 있으면 거기서도 하고, (@ 그른,) 인제 부엌에 가셔도 하고}

10103 @ 예, 조왕신.{예, 조왕신(竈王神)}

10103 # 인제 두끄테 가게 되믄 장:뚝때에 가서 하고,{인제 뒤꼍에 가게 되면 장독대에 가서 하고,}

10103 # 그집 마당에서 인저 놀:고 일하고 약쭈들 잡쭈꼬 옮겨가고 이러능거슬.{그 집 마

당에서 인제 놀고 일하고 약주들 잡수고 옮겨가고 이르는 것을.)

10103 @ 예예예.{예예예}

10103 # 저네는 정월따리몬 마:니 해썸미다. 마:니 해썸.{전에는 정월 달이면 많이 했습니  
다. 많이 했어.}

10103 @ 지금은 농악, 농아기 이슴미까?{지금은 농악, 농악이 있습니까?}

10103 # 지그른 농하기 잘 안돼요.{지금은 농악이 잘 안 돼요.}

10103 @ 그런, 그러케꾼요.{그런, 그렇겠군요.}

10103 # 그게 왜 그렇가해몬 인제 일:력짜워니 부조캐요.{그게 왜 그런가하면 인제 인력  
자원이 부족해요.}

10103 @ 마썸미다.{맞습니다.}

10103 # 다:: 서울로 가고,{다 서울로 가고,}

10103 # 그거슬 할려면 지금 칠썸때된 거이 이런 사람드리 거기에 해지 절몬 사람드론 아  
예 거:리가 멀거든요.{그것을 하려면 지금 70대된 것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농악  
을) 하지 젊은 사람들은 아예 거리가 멀거든요.}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근테 그게 안되더라구요.{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10103 # 지금 그 노인회장허는 이 사라미 복치능건 잘해요.{지금 그, 노인회장한니 이 사  
람이 복치는 것은 잘 해요.}

10103 @ 예.{예}

10103 # 그리구 이 접:짜게 인는 사라미 썸메기 치구 해서 해볼라는데 안:되더라구요.{그  
리고 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썸과리 치고 그래서 해보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10103 @ 그러네요. 자꾸 이러케 사람드리 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그러네요. 자  
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그게 우선 사:무리 마자야 되구 거기 인제 색:씨 꾸미구 따, 따르는 사람드리 이  
씨야 되는데,{그것이, 우선 사물(四物)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인제 색씨를 구미고 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10103 @ 예.{예}

10103 # 그게 그거시 인제 바뀌어지니까 그 아쉬운 걸뜨리지.{그것이, 그것이 인제 바뀌어  
지니까 그 아쉬운 것들이지.}

10103 @ 그러네요. 전, 전통 가튼 거시 다 하나씩 업써저가네요.{그러네요. 전, 전통 같은  
것이 다 하나씩 없어져 가네요.}

10103 # 예, 예, 예 예 그건뚜 사라, 사라저가더라구요.{예, 예, 예, 예, 그것도 사라, 사라  
져 가더라고요.}

10103 @ 그 전, 전통민속노리로 이 마으레서 들 쭉 인능거슨 농아기 되게꾼요.{그, 전, 전  
통민속놀이로 이 마을에서 들 수 있는 것은 농악이 되겠군요.}

10103 # 예{예}

10103 @ 다른 걸, 뭐 이슴미까?{다른 것, 뭐 있습니까?}

10103 # 그저네 인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드리 노능거보몬 아주머니드론 강:강수울래  
를 마니 해:썸요, 여기도.{그 전에 인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노는 것을 보  
면, 아주머니들은 강강술래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10103 @ 아, 여기서요?{아, 여기서요?}

10103 # 그러믄뇨.{그럼은요.}

10103 # 농촌씨여계서는 아마 어디든지 해:썰꺼요.{농촌지역에서는 아마 어디든지 했을 거예요.}

10103 # 그걸 이제 마니 여러:시 나와서 인제 서로 쏬무니를 붙잡꼬 이러케 돌믄서 하고,  
{그것을 이제 많이 여럿이 나와서 인제 서로 쏬무니를 붙잡고 이렇게 돌면서 하고,}

10103 # 그래고 인제 늘:뛰기가튼 거또 하고,{그리고 인제 널뛰기 같은 것도 하고,}

10103 @ 예.{예}

10103 # 이 정월딸이믄 아주 풍, 풍조카지요. {이 정월 달이면 아주 풍, 풍족하지요.}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이제 농초네는.{이제 농촌에는.}

10103 # 농초네는 마:리 보름 보름명절만 지나가믄 마:리 주카고 일:만 나만따고 그래능 거예요.{농촌에는 말이, 보름, 보름 명절만 지나가면, 말이 죽과 일만 나맏다고 그러는 거예요.}

10103 @ 예{예}

10103 # 그래니까 정월따레는 아주 큰 행사지요. 최대하니로 인제 기쁘게들 노느라고.{그러니까 정월 달에는 아주 큰 행사지요. 최대한으로 인제 기쁘게들 노느라고.}

10103 # 여러가지 노리드리 마니 이썬지요.{여러 가지 놀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10103 # 지끄믄 그렇게 전부 다 사라지고 테레비 안자 보느라구.{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사라지고, 텔레비전 앓아 보느라고.}

10103 @ 그 테레비 보능거.{그, 텔레비전 보는 것.}

10103 @ 이 동네 이 마으레 문화재 가튼거시 이슴미까? 주요문화재.{이 동네 이 마을에 문화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10103 # 문화재 가튼거::는 잘 모르게썬요.{문화재 가튼 것은 잘 모르겠어요.}

10103 # 잘 잘모르게꼬, 지끔 우리 부라게{잘,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부락에}

10103 # 기어기 안 나네요. 무슨. 하 요:름 생가기 안나네. 무슨 왕. 그 유배지가 인따고 그래요.{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하 요놈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왕? 그 유배지가 있다고 그래요.}

10103 @ 양녕, 양녕대군.{양녕, 양녕대군.}

10103 # 양녕대군 유배지가 인따고 그런 서리 일떠라구요.{양녕대군 유배지가 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10103 # 그건 워낙 거:리가 머러서 우린 모르게꼬.{그것은 워낙 거리(=시대)가 멀어서 우리는 모르겠고.}

10103 @ 예.{예}

10103 # 무신 증건무리래도 이썬 조은데 증건무리 업썬요.{무슨 증거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거물이 없어요.}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이썬 조은데 유배지니까 아마 그랜뎡거 가태요.{있으면 좋은데, 유배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0103 @ 그럼 이 마으레서 나는 특산물::로는 어떻 거시 이슴미까?{그러면 이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103 # 특산물로는 별:로 업썰요.{특산물로는 별로 없어요.}

10103 @ 농사 쌀.{농사 쌀}

10103 # 예, 쌀인데, 옛날에 우리 어려썰썰는 인제 워나게 인제 배고픈 때자나요.{예, 쌀인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인제 워낙에 인제 배고픈 때이 잦아요.}

10103 @ 예.{예}

10103 # 그러든 인제, 농사 지어서 겨울게 한꺼번에 방알 찌어가지구 싸두거든뇨, 그때는.  
{그러면 인제,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 한꺼번에 방아를 찧어서 쌓아두거든, 그때는.}

10103 @ 예.{예}

10103 # 지그든 제때 제때 이 저기 방아를 찧는데,{지금은 제 때 제 때 이, 저기, 방아를 찧는데,}

10103 # 그때는 한꺼번에 찧어서 이러케 싸아두구선,{그때는 한꺼번에 찧어서 이렇게 쌓아두고서는}

10103 # 고고를 이제 빼:서 멍는거지요. 그러니깐 어:른들 마리 곡간 곡씩마냥 빼:머그든  
뭇: 먹꼬 사냐 그런 얘기거든뇨.{그것을 이제 빼어서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곡간 곡씩마냥 빼어 먹으면 뭇 먹고 사냐?” 그런 얘기거든요.}

10103 @ 네네.{네네}

10103 # 그래든 그 싸든 가:래썰 싸든 여름까지 가도 벌레가 나거나 변지리 잘 안됩니다.  
{그러면 그 쌀은 가을에 찧은 쌀은 여름까지 가도 벌레가 나거나 변질이 잘 안 됩니다.}

10103 @ 단단하니까.{단단하니까.}

10103 # 그러치요. 하이튼 왜 그런지 가:래썰거는 그래요. 그런데 요새 봄치는 여름치는  
썰:든 며칠 양가든 변질되구 그런 이리 생기자나요.{그렇지요. 하여튼 왜 그런지 가을에 찧은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요새 봄 치(=봄에 찧으려는 벼)는, 여름 치는 찧으면 며칠 안 가면 변질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10103 @ 네네.{네네}

10103 # 그래서 인제 그르케 해 두는데, 그거를 먹:꾸 나서 보리가 나기 저네 그제 썰리  
떨러지자나요.{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 두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보리가 나기 전에 그것이, 쌀이 떨어지잖아요.}

101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3 # 그래가지구 인제 보리 나며는 그때 인제 감자 나능거 캐:서 보리하구 이러케 머그  
든{그래서 인제 보리가 나면 그때 인제 감자 나는 것을 캐어서 보리와 이렇게 먹으면}

10103 # 우리네도 그 호:밀바블 마니 머건꺼든뇨.{우리네도 그 호밀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10103 @ 예예.{예예}

10103 # 호미든 잡썰판는지는 모르지만 호미리 바블 해든 빨가썰니다.{호밀은 잡썰보았는  
지는 모르지만 호밀이 밥을 하면 빨갱습니다.}

10103 @ 예.{예}

10103 # 그리구 미끼러워요. 사라미 머그면 호밀 그대로 나옵니다.{그리고 미끄러워요. 사람이 먹으면 호밀 그대로 나옵니다.}

10103 @ 아하, 소화가 안되고.{아하, 소화가 안 되고.}

10103 # 소화가 안:돼요.{소화가 안 돼요.}



10103 # 호미리라능게 그렇거예요. 인제 그렇거를 먹꾸 사는데 그걸 머글라니까 악씨리니까 거기 감자가 드러가고 또 그 요새는 다시 바꾸어진 그 신형 강낭콩이 나와서 여기서도 강낭콩을 마:니 출하를 하는데, 강낭콩 가통 걸 노꾸 먹꾸 해 먹꾸 그랜져요.{호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제 그런 것을 먹고 사는데, 그것을 먹으려니까 억세니까 거기에 감자가 들어가고 또 그, 요새는 다시 바꾸어진 그, 신형 강낭콩이 나와서 여기서도 강낭콩을 많이 출하를 하는데, 강낭콩 같은 것을 놓아먹고 해 먹고 그랬지요.}

10103 @ 그러게요. 그 때는 뭐 보릿꼬개가 이서스니까.{그러게요. 그때는 뭐,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

10103 # 예. 그래도 그게 인제 떠러지머는 요맘때쯤 돼:요. 요맘때쯤. 음력 칠월 초순경 요러케 될 제 옰:날에 외자채라 그래는 올:벼가 이씨썩요. 그게.{예, 그래도 그게 인제(양식이) 떨어지면 요맘때쯤 되어요. 요맘때쯤. 음력 7월 초순경 이렇게 될 때에 옛날에 외자채라 그러는 올벼가 있었어요. 그것이.}

10103 @ 예.{예}

10103 # 근데 지금 그 종잘 구헬래두 묻꾸해는데,{그런데 지금 그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데,}

10103 # 배가 고파 그랜는지도 몰르지만 그 싸리 미지리 무:지니 조아요.{배가 고파 그랜는지도 모르지만, 그 쌀이 미질(米質)이 굉장히 좋아요.}

10103 # 바블 해노른 기르미 흐르고 얼마나 조은지 몰라요. 그래서

10103 # 내가 생각카기에도 우리 둘:째 형님 생시니 치월 초이튼나린데 올마냥 윤:다리 드는 해는 고평때쯤 올, 올벼가 나올똥 말똥 해요.{내가 생각카기에도 우리 둘:째 형님 생신이 7월 초이튼날인데, 금년처럼 윤달이 드는 해는 고평때쯤 올, 올벼가 나올 똥 말똥 해요.}

10103 @ 네.{네}

10103 # 오늘 내가 짐 드:레 도라보니께 벼가 지금 누:르케 인제 누룬 방우리 배겐는데 얼마 아니른 하게 되는데,

10103 # 나슬 가져가 비:는데 비다가 그냥 묻:빠구 물러나구 여구와서 비:다가 이래다 한 두어단 비어가지고 오면,{낫을 가져가서 베는데, 베다가 그냥 못 베고 물러나고 여구와서 베다가 이러다가 한 두어 단 베어서 오면,}

10103 # 요고를 홀테바씨미리구 요로케 땡거에다 홀터서 소테다 이 싸를 찢:니다.{이것을 홀테바썩(=벼훑이)이라고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된 것에다 훑어서 솔에다가 이 쌀을 찢니다.}

10103 # 찢가지고 인제 말려서 절구지를 해:서 그걸로 인제 생이를 한때 해먹꼬 이래는 올:자채가

10103 # 이:천찌방엔 다 그래썰테지만 이 마으리 들:도 찢기 저 쌀알도 조아요. 이마을 찢리.{이천 지방에는 다 그랬을 테지만 이 마을이 들도 저기, 저 쌀알도 좋아요. 이 마을 쌀이.}

10103 @ 예예, 유명하지 안썩미까?{예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10103 # 이 한버는 저 청와대에서도 그 지정도 뵈:꾸 그랜뎌 마으린데{이, 한 번은 저, 청와대에서도 그, 지정도 되었고(=하였고) 그랜던 마을인데}

10103 # 그래서 올:쌀로 유명하지요.{그래서 올쌀(=일찍 나는 쌀)로 유명하지요.}

10103 # 지금도 여기 농허베 대:는 올:벼 계약재배가 꽤 마니 이썸니다. 여기.{지금도 여기 농협에 대어주는 올벼 계약재배가 꽤 많이 있습니다.}

10103 @ 예예.{예예}

10103 @ 아까 말씀하신 그 품종이 무슨 종이었따구요?{아까 말씀하신 그 품종이 무슨 종이었다고요?}

10103 # 우리가 일반 부르기론 그냥 외자채라구 그런데,{우리가 일반 부르기로는 그냥 외자채라고 그랬는데.}

10103 @ 외자채?{외자채?}

10103 # 예, 외자채라구 그냥 그런데, 그게 찌기 자채벼라구 그러면 될꺼예요. 여기 자채 방아 마을로 이르미 부터쓰니까. 자채, 자채라고 그러믄 알꺼예요.{예, 외자채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것이 저기, 자채벼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10105 @ 지금 마을 이 마으른뇨. 옛날 어르신 어려쓸 때와 비교할 때 무어써 어떠케 마니 달라져슴미까?{지금 마을, 이 마을은요, 옛날 어르신이 어렸을 때와 비교할 때에 무엇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10105 # 우리 어려쓸때와 달리전따고 하능 거는 제일 천빠넌 도로가 바뀐꾸요.{우리 어렸을 때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에는 도로가 바뀌었고요.}

10105 @ 네.{네}

10105 # 이게 옛:날에는 니아까도 업써꺼드뇨.{이게, 옛날에는 손수레도 없었거든요.}

10105 @ 네.{네}

10105 # 끌:구덩기능진. 굴:러 가능거는.{(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것은, 굴러 가는 것으.}

10105 @ 네.{네}

10105 # 왜 그렇가 하면{왜 그런가 하면}

10105 # 기리 논트레다 폐짱노쿠션 건너뛰야 되니까 다 사람 바리 돼:야되지.{길이 논틀길 에다가 뗏장을 놓고서 건너뛰어야 되니까 다 사람 발이 되어야 되지.}

10105 # 그래서 소로 산:꺼나 사라미 지구 다니지 아느믄 안되기 때메 해썌는데 인제 농촌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기리 달려저쓰니까 동네 고살꺼지 다 달려지고,{그래서 소에 싣거나 사람이 지고 다니지, (그렇지) 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인제 농촌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길이 달라졌으니까 동네 고살까지 다 달려지고,}

10105 # 그래고 인제 지붕이 초가지붕이었떤 거시 (@ 네.) 인제 지그믄 스라부지비나 옛:날 스투뜨지부루 인제 다 서이꾸,{그리고 인제 지붕이 초가지붕이었던 것이 (@ 네) 인제 지금은 슬래브(slab) 집이나 슬레이트(slate) 집으로 다 서 있고}

10105 # 그러케 변화가, 변화가 돼:이꾸,{그렇게 변화가, 변화가 되어 있고,}

10105 # 생활선: 그러썸니다. 그래구.{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05 # 그 옛:날에 쓰던 노인네드리 하던 벼트리나 소가 지구 땡기던 질마나 이령건 다 업써지고, 업써요.{그, 옛날에 쓰던 노인네들이 하던 벼틀이나 소가 지고 다니던 질마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없어요.}

10105 @ 그러 그러치요.{그러, 그렇지요.}

10105 # 그러건 다: 업써지고,{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10105 # 그렇 거시 주로 변화지요.{그런 것이 주로 변화지요.}

10105 @ 부엌 구조는 어떠슴미까?{부엌 구조는 어떻습니까?}

10105 # 부엌 구조는 전, 전보더는 지금 신형으로 거의 다 바뀌어져썌요.{부엌 구조는 전,

전보다는 지금 신형으로 거의 다 바뀌어졌어요.}

10105 @ 다 바뀌었쎄요?{다 바꿨지요?}

10105 # 예, 가스를 쓰기 때문네. 거진 다 바뀌어져쎄요.{예, 가스를 쓰기 때문에, 거진 다 바뀌어졌어요.}

10105 @ 인구 구성은 어떠습니까? 그걸 또 마니 바뀌었쎄요? 주민들{인구 구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바뀌었지요?}

10105 # 그러치요. 주민드리 지금 전체 우리 주민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데,{그렇지요. 주민들이 지금 전체 우리 주민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데,}

10105 # 야칸 배코치고 한, 한 가정에 세씨나 네씩 친대도 한 사:뱅명정도 될라나 모르게 쎄요.{약 한 100 호 치고 한, 한 가정에 셋이나 네 썩 친다고 해도 한 400명 정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10105 @ 네.{네}

10105 @ 그 다음 인제 그 옛날에는 대가조그로 그냥 이쎄는데{그 다음 인제 그,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그냥 있었는데}

10105 #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5 @ 그거 또 달라졌꾼뇨.{그것도 달라졌군요.}

10105 # 그러믄뇨.{그럼은요.}

10105 # 뭐 지금 지금 한, 한두가정 이러케 한 이삼대 사는 가정드리 이쎄라나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마니 바뀔쎄요. 그건{뭐, 지금, 지금 한, 한두 가정 이렇게 한 이삼대 사는 가정들이 있을라나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요, 그것은.}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그럼 이제 그 어:르신 태어나서 지금까지 쪽 사라오신 내력 그쪼글 잠깐 말쓰믄 해주시조.{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 태어나서 지금까지 쪽 살아오신 내력 그쪽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10201 @ 그러니까 출생지가 어디고, (# 예.) 현재 나이는 일흔 (# 두리요.) 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지 뭐 학교 관계 이런, 이렇거.{그러니까 출생지가 어디고, (# 예) 현재 나이는 일흔 (# 둘이요.) 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지 뭐, 학교 관계 이런, 이런 것.}

10201 # 네.{네}

10201 # 그거는 그 굴:량리 오일리 번지로 돼: 이꺼든뇨, 출생지는. (@ 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그것은 그, 군량리 512 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출생지는. (@ 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10201 # 일:굽쌀쎄게 그땐 국민학교라구 그랜쎄요. (@ 그러습미다.) 그때 해방되기 저넘니다.{일곱 살 때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지요. (@ 그렇습니다.) 그때 해방되기 전입니다.}

10201 @ 네네.{네네}

10201 # 그때 인제 궁민학교를 드러가가지고 어 궁민학교 유캉년 올라가가지고 유:기오가 나서{그때 인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어, 국민학교 6학년 올라가서 6·25가 나서}

10201 # 회복된 뒤에 다시 다녀야 되는데 난 유캉년 마추길 모태썩요. 졸업장은 업썩니다.{회복된 뒤에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나는 6학년을 마치지 못했어요. 졸업장은 업썩니다.}

10201 @ 네네.{네네}

10201 # 그러케 되구 그 뒤:로는 여기서 그냥 쪽 농사를 지어쓰니까요.{그렇게 되고 그 뒤로는 여기서 그냥 쪽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10201 @ 네.{네}

10201 # 농사이를 하는데 어려썩제 자라온 과정은 인제 우리 동갑네드리 한, 한 시보명정도 되고{농사일을 하는데 어렸을 때 자라온 과정은 인제 우리 동갑네들이 한, 한 15명 정도 되고}

10201 # 한 살 더 머근 사람들까지 하며는 상당히 이뉜니 마는 이뉜니 여기서 살면서{한 살 더 먹은 사람들까지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인원이 여기서 살면서}

10201 # 인제 나:제는 대:개 인제 가을썩 되며는 장대에 가며는 자:치기하지요.{인제 낮에는 대개 인제 가을썩 되면 장대에 가면 자치기를 하지요.}

10201 @ 예예.{예예}

10201 # 자:치기 해서 인제 쳐서 나가능거하고 인제 드리오능거 인제 바더치고 이러는 그런 노리하구,{자치기를 해서 인제 쳐서 나가는 것과 인제 들어오는 것을 인제 받아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10201 # 보미 되며는 인제 땅이 어련따 노그니까 사네가서 막때기 이 마:낭거 까껴다가 까껴서 인제 모:치기 하게 해게 되고. 모꼬치기. 예 그거 그거 인제 하게 되구,{봄이 되면 인제 땅이 얼었다가 녹으니까 산에 가서 막대기 이만 한 것을 꺾아다가 꺾아서 인제 못 치기를 하게, 하게 되고. 못 치기, 예, 그것, 그것을 인제 하게 되고,}

10201 # 예, 인제 당가튼데서 놀제는 인제 딱찌, 딱찌치기하고{예, 인제 당(堂) 같은 데에서 놀 때에는 인제 딱지, 딱지치기하고}

10201 # 이래는데 인제 여:르메는 한참 노:능거시 숨바꼭질 저너게 하능게{이러는데, 인제 여름에는 한참 노는 것이 숨바꼭질, 저녁에 하는 것이.}

10201 # 상::당히 그게 인제 세지요. 그게 인제 그 한 두어 사라미 서너 사람 찬게 만드려 노코{상당히 그게 인제 세지요. 그게 인제 그 한 두어 사람이 서너 사람을 찾게 만들어 놓고}

10201 # 수물 테가 업쓰만 낭구에 올라가서 인제 바메 드러가 숨꾸 찬꾸 인저 그래문서 인제{숨을 테가 없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인제 밤에 들어가 숨고 찾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10201 # 숨바꼭질 상당히 심:하게 (@ 예.) 이러케 인제 자라가지요. 인제 유:기오때는 뽕별장난 다했썩요.{숨바꼭질을 상당히 심하게 (@ 예) 이렇게 인제 자라가지요. 인제 6·25 때에는 뽕 별 장난을 다 했썩요.}

10201 # 탄:필 주서다 그거가지구 인제 서로 때려서 먹끼하고{탄피(彈皮)를 주워다가 그것가지고 인제 서로 때려서 먹기 하고.}

10201 @ 아, 그러켄네요.{아, 그렇썩네요.}

10201 # 예, 그래면서 잘, 자란썩요.{예, 그러면

서 잘, 자랐지요.}

10201 # 에 노는게 바깥 나가 노는게 상당히 다양하죠. 여기 초:네는 그런데{에, 노는 것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지요. 여기 촌:네는 그런데}

10201 @ 그러지요.{그렇지요.}

10201 # 지금 그게 다 업써져떠라구요.{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10201 @ 깡통차기 가튼 거또 핸שמिका?{깡통 차기 같은 것도 했습니까?}

10201 # 예, 그러지요. 깡통차기하고,{예, 그렇지요. 깡통 차기 하고,}

10201 # 겨울에 썰매는 인제 송판쪽 요고만한데다 막대기 요로케 대:가지고 만드러서, 인제 타구서 여러시 한꺼번에 몰려 땡기며 타구,{겨울에 썰매는 인제 송판 조각 요고만한 데에다가 막대기 요렇게 대어서 만들어서, 인제 타고서 여럿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며 타고,}

10201 # 이 드:레 내려가면 이 그냥 전부 얼음인데 지그른 농사지른 가으레 무를 짹 빼며는 경지정리 해:끼때때에 쪽 빠져서 무를 대:논 노니 엄는데,{이, 들에 내려가면 이, 그냥 전부 얼음인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물을 짹 빼면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이) 쪽 빠져서 물을 대어놓은 논이 없는데,}

10201 # 그 때는 그냥 내려가며 무리 내려가며 다 얼어 버리니까는 빙판이 다:: 내려지기 때때{그때는 그냥 내려가면서 물이 내려가면서 다 얼어버리니까 빙판이 다 내려지기 때문에}

10201 @ 아, 그러케꾸뇨.{아, 그렇겠군요.}

10201 # 그 겨울되든 먹꾸 나쁜 거그가서 도러땡기구 그러자나요.{그 겨울이 되면 먹고 나면, 거기로 가서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10201 @ 아까 그 모치기라고 하셴짚씀िका?{아까 그, 못 치기라고 하셴잖습니까?}

10201 # 네.{네}

10201 @ 그걸 어떻게 하는 겁िका?{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201 # 나무를 벼:다가 요걸 까껴서 빠쭈카게 까껴가지고 세:시나 네:시나 이걸 땅에다 꼬바요. 요러케 꼬버노코,{나무를 베어다가 요것을 깎아서 뽕죽하게 깎아서 세 개나 네 개나 그것을 땅에다가 꽂아요.}

10201 # 한 사라미 이러나서 쳐서 내건 꼬치고 판게 너머가든 그걸 내가 명는거거든뇨.{한 사람이 일어나서 쳐서 내 것은 꽂히고 다른 것이 넘어가면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거든요.}

10201 @ 아, 네.{아, 네}

10201 # 그래서 그걸 빼:끼가능거지요. 예예, 그렇거를 해:써요.{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하는 것이지요. 예예, 그런 것을 했어요.}

10201 @ 그러면 그 그 무려베는 저 뭇िका 농약도 안 치고 하니까 이 물 냇가가통거 고기가통거시 마니 이서께꾼뇨.{그러면 그, 그 무렵에는 저, 뭇िका 농약도 안 치고 하니까 이, 물, 냇가 같은 것에 고기 같은 것이 많이 있었겠군요.}

10201 # 내:까에 고기 만:치요. 인제 지금마냥 장마 지게 되면 물쏘게 드러가서 인제 그거 썰 이러게 자브른 그 동자게라구 그래는놈 인짜나요? 노:랑거. 노:랑게 동자게. (@ 동자게.) 동자게라 그래구.{냇가에 고기가 많지요. 인제 지금처럼 장마가 지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인제 그것을 이렇게 잡으면 그 동자게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노란 거. 노란 것이 동자게. (@ 동자게) 동자게라고 그러고.}

10201 # 그 저기 그노미 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빠가사리라구두 그래구 그래는 놈드리  
여기도 마니 올라왔거든요, 여주 강에서. 그런데 지끄른 시넨무리 오염되니까 (@  
네.) 그거를 모:태요.{그, 저기, 그 놈이 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빠가사리(=동자  
개)라고도 그러고 그러는 놈들이 여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주 강에서. 그런데 지  
금은 시냇물이 오염이 되니까 (@ 네) 그것을 못해요.}

10201 # 그래서 그 아순: 거시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인제 오후에 세:시쯤 돼:서 나리 몹씨  
뜨거우면{그래서 그 아쉬운 것이 이맘 때입니다. 이맘 때 인제 오후에 3시쯤 되어서  
날이 몹시 뜨거우면}

10201 # 네:시나 다설씨쯤 나가서 모교카고 드러오면서 돌: 둘러보고 이라구 저너그 와서  
저녕먹꼬 일하는데{4시나 5시쯤 나가서 목욕하고 들어오면서 돌을 들어보고 이라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일하는데}

10201 # 지끄른 내:에 가서 모교글 모타자나요. (@ 그러치요.) 오염미 돼:서 그래서 지끔  
도 고기가 올라서 어제도들 자버다가 저 저 치리가통거 자버다가 인제 마당에서 튀겨  
서들 여러시 먹꾸 그래씨요.{지금은 내에 가서 목욕을 못하잖아요. (@ 그렇지요.) 오  
염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고기가 올라와서 어제도 (고기를) 잡아다가 저, 저, 치리  
같은 것을 잡아다가 인제 마당에서 튀겨서들 여럿이 먹고 그랬어요.}

10201 # 애:들 낙씨질로 하고 그러더라우요.{애들이 낙씨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10201 @ 낙씨질 할 쑈 인는데가 이슴미까? 요 근처에{낙씨질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  
까?}

10201 # 예예.{예예}

10201 # 그 이 쪼기 여기 하처리 양화처리 꽤 큰데 (@ 아.) 널벽씨가 한 칠썸메다돼요.  
(@ 네.) 거기 인제 낙찰 공사를 해가지고 그 우이에 인제 무리 마니 이썸씨요.{그,  
이, 저기, 여기 하천이 양화천이 꽤 큰데 (@ 아) 넓이가 한 70미터 돼요. (@ 네.) 거  
기 인제 낙찰 공사를 해서 그 위에 인제 물이 많이 있었지요.}

10201 @ 뭐:가 칠썸메타썸 된다구요?{뭐가 70미터썸 된다고요?}

10201 # 그 하천 널벽씨가요. 입썸 제방하구 접썸 제방하구 그래니깐 꽤 커요.{그 하천 넓  
이가요. 이쪽 제방과 저쪽 제방과. 그러니까 꽤 커요.}

10201 @ 널 널벽씨. (# 예.) 네네.{널, 널벽지. (# 예) 네네.}

10201 # 그랜꾸 그랜씨요.{그랬고, 그랬지요.}

10201 @ 미꾸리가튼 겐또 마니 이슴미까?{미꾸라지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10201 # 미:꾸리가튼 거::는 그러케 혼치를 아나요.{미꾸라지 같은 것은 그렇게 혼하지 않  
아요.}

10201 @ 저 노네 물: 대고 인제 노네 물 뽕때 그 물 저 내리는 그 미테 뭐 마니 이서짚습  
미까?{저, 논에 물을 대고 인제 논에 물을 뽕 때에 그, 물, 저, 내리는 그 밑에 무엇  
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10201 # 그랜는데 옴:나레는, 옴:나레는 그 물꼬라고 그래요 그게 인제 운노네서 아랜노니  
로 물 내려가는 데 꽤인 데 (@ 네네.) 물꼬라능게 이썸씨서 그러케 헐는데,{그랬는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물꼬라고 그래요, 그게. 인제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내려  
간 데에 꽤인 데 (@ 네네) 물꼬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10201 # 지끄른 경지정니를 썸 해노코 보니까 배수로로 콩코리루 다 하자나요? (@ 아, 네  
네.) 그래가지구 그걸 썸:: 빼는데{지금은 경지정리를 썸 해놓고 보니까 배수로로 콘

- 크리트로 다 하잖아요? (@ 아, 네네.) 그래서 그것을 짝 배는데}
- 10201 #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게 저 무리 오염이 안: 되든 마니 올라올텐데 마니 올리오들 모태더라고요.{그렇거나 저렇거나 저게 저, 물이 오염이 안 되면 많이 올라올 텐데 많이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 10201 # 엔:나레는 비가 쏘더지든 이런 마당꺼지에서도 봐:써꺼든뇨. (@ 네네.) 그래서 그, 그 용마냥 올라간다고 날라간다고 그런 설도 이꼬 그래쥔는데{옛날에는 비가 쏟아지면 이런 마당꺼지에서도 (미꾸라지를) 보았었거든요. (@ 네네) 그래서 그, 그 용처럼 올라간다고 날라간다고 그런 설도 있고 그랬었는데}
- 10201 # 지그든 그르케 미꾸리가 혼:치를 아나요.{지금은 그렇게 미꾸라지라 혼:하지를 않아요.}
- 10201 # 근데 미꾸리가 그 대다난 노민 거시 들:로네 빠작 말런따가 보메 여기 무를 대고 노:타릴 치든 그때도 나오거든뇨. (@ 예예.) 그러니까 장마지든 그놈드리 모여서 엄청 마는 양이 올리오게 되든 그:물도 업써 그 갈따리로 만든 큰::채반가지고 와서 이러케 건져서 그냥 미꾸리를 초롱으로 자버오고 그랜는데 (@ 예) 지그든 그게 업써요.{그런데 미꾸라지가 그, 대단한 놈인 것이 들 눈에 바작 말랐다가 봄에 여기 물을 대고 노타리(?)를 치면 그때에도 (미꾸라지가) 나오거든뇨. (@ 예예)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그 놈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양이 올리오게 되면 그물도 없이 그 갈대로 만든 큰 채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건져서 그냥 미꾸라지를 초롱으로 잡아오고 그랬는데 (@ 예) 지금을 그것이 없어요.}
- 10201 @ 강물 따라서 참게 가통 것또 마니 이서습니까?{강물 따라서 참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 10201 # 게: 가통거는 업써요. (@ 아, 업습니까?) 엔:나레는 벽서레 이러케 구녀기 이쓰든 손 너보든 씨:크몽거 (@ 네) 그 아페 두:발 무능거에 털 이러케 달린 노든 더러 이써서 가:꿈 그걸 자버다 먹꾸 그랜는데 지그든 그 게:를 잘 모:뽕게떠라구요.{게 같은 것은 없어요. (@ 아, 업습니까?) 옛날에는 벽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손을 넣으면 시커먼 것 (@ 네) 그, 앞에 두 발 무는 것에 털 이렇게 달린 놈은 더러 있어서 가끔 그것을 잡아다가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게를 못 보겠더라고요.}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10203 @ 으, 결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으, 결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 10203 # 결혼니요?{결혼요?}
- 10203 @ 네, 어떻게 하셔썸니까?{네, 어떻게 하셨습니다?}
- 10203 # 우리 세대썸게는 결혼:이 그 {우리 세대 썸에는 결혼이 그}
- 10203 # 나 결혼한 경우는, 이러케 머야 어깨 나닝구 입꾸 바자마 입꾸선 고 아페 친구들 노는텔 가인따 지빌 오라래서 완떠니 어떤 어떤 할머니가 한분 와 안전떠라구요.{나 결혼한 경우는, 이렇게 머야, 어깨 러닝(=소매 없는 러닝셔츠) 입고 파자마 입고서 그 앞에 친구들 노는 데를 가서 있다가 집예를 오라고 해서 왔더니 어떤,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와 앉았더라고요.}
- 10203 @ 예.{예}

10203 # 그래구선 이야기해구 보구가면서 오라구 그래더라고요.{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보고 가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0203 @ 예.{예}

10203 # 그래서 어머니하구 중신하구 그지비 가보고 이래구선 결혼을 해썬요.{그래서 어머니와 중신애비와 그 집으로 가 보고 이려고서 결혼을 했어요.}

10203 #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지 안쿠 인제 중, 중신한 부니 그 고종사춘 처형되는 부닌데 그부니 나를 잡떠라고요. (@ 네.) 그래서 불씨루 한달 돼:썰까? 그러케 나를 자버가지고{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인제 중, 중신을 한 분이 그, 고종사춘 처형이 되는 분인데, 그 분이 날을 잡떠라고요. (@ 네) 그래서 불시로 한 달이 되었을까? 그렇게 날을 잡아서}

10203 # 그때는 결혼씨글 하게 되믄 추러글 하나 불러가지고 운전하구 저 채소니 여페 타고 실랑 타고 (@ 네.) 이라구 인제 우인 대표라고 실랑 청구드리 뒤에 타고 이라구서 인제 가자나요.{그때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트럭을 하나 불려서 운전하고 저 상객이 옆에 타고 신랑이 타고 (@ 네) 이려고 인제 우인 대표라고 신랑 친구들이 뒤에 타고 이려고서 인제 가잖아요.}

10203 @ 예.{예}

10203 # 그럼 거기 가서 인제 예 대:개 인제 구씨기로 하든지 여러가지로 하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 집싸라미 인제 장호원 교회예를 나가고 이씨끼때메 (@ 네.)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지메 마당에서 그러니깐 인제 그 교회시기로 (@ 네네.) 그, 그러케 하고 와썬니다.{그러면 거기로 가서 인제 예, 대개 인제 구식으로 하든지 여러가지로 하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인제 장호원 교회예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 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식으로 (@ 네네) 그, 그렇게 하고 왔습시다.}

10203 # 그 때 올제, 올제는 그, 군인드리 그 기동훈련 나와썬 때라 (@ 네.) 아, 그 신장노에 사목 그냥 골목골목 군인드리 인는 그런 데 그냥 그트미로 오느라구 그러케 완썬요.{그대 올 때, 올 때는 그, 군인들이 그. 기동훈련을 나왔을 때라 (@ 네) 아, 그 신작로에 사뭇 그냥 골목골목 군인들이 있는 그런 데를 그냥 그 밑으로 오느라고 그렇게 왔지요.}

10203 # 그땐 결혼씨기 거의 다 우리 친구드룬 거의 다 그러케 헐기 때무네 (@ 네.) 친구들끼리 서로 가고 오구가구 그러케 땡기구 이런 그렇겄 마:니 햐:썬요.{그때는 결혼식이 거의 다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네) 친구들끼리 서로 가고 오고 가고 그렇게 다니고 이런, 그런 것을 많이 했지요.}

10203 @ 그럼 중매하고 신부를 보게 된거슨, 중매하자마자 보시게 돼:슴미까?{그러면 중매하고 신부를 보게 된 것은, 중매 하자마자 보시게 되었습니까?}

10203 # 그러치요. 인제 그 중매씨비 그 색씨 어머니가 오셨따가 중매하구 그 색씨 어머니하구 와서 장모님하구 와서 나를 보구 (@ 아.) 이라구서 인제 오라구 그래서 또 중매하구 인제 우리 어머니하구 나하구 거기 가서 보구서 이라구 인제 결쩍이 나서 인제 결혼을 햐:썬요.{그렇지요. 인제 그 중매한 분이 그, 색씨 어머니가 오셨다가 중매하고, 그 색씨 어머니와 함께 와서 장모님하고 와서 나를 보고 (@ 아.) 이려고서 인제 오라고 그래서 또 중매하고 인제 우리 어머니와 나와 거기 가서 보고서 이려고 인제 결쩍이 나서 인제 결혼을 했지요.}



10203 @ 그럼 슬하에는 {그러면 슬하에는}

10203 # 제게는 오:남매가 이쁩니다.{저에게는 5남매가 있습니다.}

10203 @ 오남매요?{5남내요?}10203 # 네.{네}

10203 @ 네.{네}

10203 # 야 칸 칠십세 된 분드론 그러케 한 사오남매{약 한 70세 된 분들은 그렇게 한 4,5남매}

10203 @ 그러, 그러습미다.{그러, 그렇습니다.}

10203 # 예, 한 용남매 둔 분도 이꼬.{예, 한 6남매 둔 분도 있고}

10203 @ 예.{예}

10203 @ 그럼 아드님은 뎨뎨 됴미까?{그러면 아드님은 몇 분 됩니까?}

10203 # 예, 아드리 두:리거든요. 따:리 세시구.{예, 아들이 둘이거든요. 딸이 셋이고}

10203 @ 인제 다 이제 출가해서{인제 다 이제 출가해서}

10203 # 예.{예}

10203 @ 바깥서 삼미까? 웬지에 삼미까?{밖에서 삼니까? 외지에서 삼니까?}

10203 # 예, 애:드론 다 외:지에 살고 망:내는 현:재 지배 이썬요.{예, 애들은 다 외지에 살고 막내는 현재 집에 있어요.}

10203 @ 아, 네, 이 지배 일따고 그래썬썬.{아, 네, 이, 집에 있다고 그랬었지요.}

10203 # 예.{예}

10201 @ 어, 성하미?{어, 성함이?}

10201 @ 강능 최씨라고 그러셔썬?{강릉 최 씨라고 그러셨지요?}

10201 # 예.{예}

10201 @ 최?{최?}

10201 # 용급니다.{용급니다.}

10201 @ 용짜는 무슨?{용 자는 무슨?}

10201 # 용용짜예요.{용 용 자예요.}

10201 @ 예예.{예예}

10201 @ 규는뇨?{규는요?}

10201 # 규는 흑토 다:랭거 홀:규짜라 그래던데.{규는 흑 토 덜한 것 홀 규 자라 그러던 데}

10201 @ 예예.{예예}

10201 # 그게 우리 돌림짜거드뇨. 규짜가.{그것이 우리 돌림자거든요. 규 자가.}

10201 @ 아, 규, 규짜돌림임미까?{아, 규, 규 자 돌림입니까?}

10201 @ 칠십 이썬고 그 면년생이 됴미까? 그러면{72세고 그, 몇 년생이 됩니까? 그러면}

10201 # 삼십팔녀니요. 삼팔년 파월 이십유길썬.{38년이요. 38년 8월 26일 생.}

10201 @ 아까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썬파구요?{아까 군대생활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10201 #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몬해썬요.{군대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10201 @ 예.{예}

10201 # 내가 열여덟살썬 이러케 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워네를 몬까고 지배서 주춤주춤하다가 이게 썬 심헨 정도라{내가 열여덟 살썬 이렇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를 못 가고 집에서 주춤주춤하다가 이게 썬 심한 정도라}

10201 # 그 우트케 해서 난:는데 군대를 갈떠니 이거썬 다시 발뺌을 해가지고{그,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군대를 갔더니 이것이 다시 발병을 해서}

10201 # 한 일년만에 군대 그 병위네 인따가 거기서 제대해꺼드뇨.{한 일 년 만에 군대, 그 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제대했거든요.}

10201 @ 아, 의가사 제대하셧꾸뇨.{아, 의가사 제대를 하셧군요.}

10201 # 그 하기는{그, 하기는}

10201 # 제일훈련소 논산훈련소를 나와가지고 부산 병기핵표를 나와가지고{제일 훈련소 논산 훈련소를 나와서 부산 병기학교를 나와서}

10201 @ 네.{네}

10201 # 그래가지구 어 부사네 인는 영오일창에 배속땡:서 거기서 일:하다가 다시 병이 나가지고 오육꾼병위를 통해서 마산 삼심늑꾼 병위네 와서 한 일련 인따가 재:근무하기가 심들게따 그래서 거기서 (@ 아, 네.) 의가사 제대가 땡:쨌요.{그래서 어, 부산에 있는 051창에 배속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시 병이 나서 5육군 병원을 통해서 마산 30육군 병원으로 와서 한 일 년 있다가 재근무하기가 힘들쨌다고 그래서 거기서 (@ 아, 네) 의가사 제대가 되었쨌요.}

10203 @ 그러쿤뇨.{그렇군요.}

10203 @ 그 아까 그 부인은 그 여 여주라고 그러서썸미까?{그, 아까 그 부인은 그 여, 여주라고 그러셧습니까?}

10203 # 아니요.{아니요.}

10203 # 그 이처니요. 이천 장:호위닌데.{그, 이천이요. 이천 장호원인데.}

10203 @ 아, 이천 장호원 출썸임미까?{아, 이천 장호원 출신입니까?}

10203 # 예.{예}

10203 @ 성장은 완전히 그쫘게서만 출썸해가지고 계속 거기만 게서썸미까?{성장은 완전히 그쪽에서만 출생해서 계속 거기만 계셧습니까?}

10203 # 예 예, 진주 강씨들 거기 저 대성으로 살고 이쓰니까뇨.{예,예, 진주 강 씨들 거기저, 대성(大姓)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요.}

10203 @ 아, 네. 지난버네 그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간 데도 진주강씨 집썸초니얼꺼드뇨.{아, 네, 지난번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간 데도 진주 강 씨 집썸촌이었거든요.}

10203 # 어. 나래린데요.{어, 나래린데요.}

10203 # 장호원 나래리.{장호원 나래리.}

10203 @ 마 맞썸미다. 나래.{마, 맞썸니다. 나래.}

10203 # 아.{아}

10203 @ 아, 글로 간땡:랜썸미다. 그래서 땡:복썸아 저 그 일때무네 바빠서 그 조사를 모땡:쨌요.{아, 그곳으로 갔땡:랬썸니다. 그래서 땡:복썸아 저, 그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조사를 못했어요.}

10203 # 예, 거기도 복썸아 고시.{예, 거기도 복썸아 곳이}

10203 @ 아, 그러쿤뇨.{아, 그렇군요.}

10203 # 네.{네}

10203 @ 그러면 나중예 그 아 저 매일 저 일하러 나가썸미까?{그러면 나중예 그, 아, 저, 매일 저, 일하러 나가썸니까?}

10203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03 # 이 농초네는 쉬:는 나리 업씀미다.{이, 농촌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10203 @ 그 뭐 뭐냐며는 사네 나는 나무리니 이 저 의복 관계 이런 거슨{그, 뭐, 무어나 하면, 산에 나는 나물이니 이, 저, 의복 관계 이런 것은}

10203 @ 아무래도 남자드른 잘 모르지 안씀미까?{아무래도 남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10203 # 예.{예}

10203 @ 그래서 곁쪽 말씀 좀 해주시든 조켄는데.{그래서 곁쪽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0203 # 나무른 인제 나물?{나물은 인제 나물?}

10203 @ 산나물.{산나물}

10203 # 예, 산나물 산나무른{예, 산나물, 산나물은}

10203 # 아까 말씀드린거와 가치 가을에 농사진거는 겨울게 다 먹꼬 머글께 업짜나요.{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가을에 농사지은 것은 겨울에 다 먹고 먹을게 없잖아요.}

10203 @ 예예.{예예}

10203 # 어چه피 그걸 뜨더다 먹찌 아느른 살쭈가 업썌요.{어차피 그것(=산나물)을 뜯어다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0203 @ 네.{네}

10203 # 그건 그 양씨기로다 반찬닌걸 가찌만 거의 다 양씨기예요.{그것은 그, 양식으로다가 반찬인 것 같지만 거의 다 양식이예요.}

10203 @ 예.{예}

10203 # 죽쭈는데 드러가서꺼지 다 하는데.{죽 쭈는데 들어가서까지 다 하는데}

10203 # 엄청나게 마는데 제일 제일 천뻔째로 죽 쭈는데 드러가는데 뚜까리래는 거예요. 뚜갈.{엄청나게 많은데 제일, 제일 첫번째로 죽 쭈는데 들어가는 것이 뚜갈이라는 거예요, 뚜갈.}

10203 @ 뚜갈?{뚜갈?}

10203 # 예.{예}

10203 # 뚜까리라구 그래요. 이 이파리가 두툼한게 뉘쩍한게 인는데 그 저 책자에 나오는 이르른 모르는데 여기서 불르킨 그르케 불러요.{뚜갈이라고 그래요. 이, 이파리가 두툼한 것이 뉘쩍한 것이 있는데 그, 저, 책자에 나오는 이름은 모르는데, 여기서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요.}

10203 @ 예.{예}

10203 # 그래구 인제 캐는거는 밤저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인제 이름드리 이썌요. 상당히 마:는게 인는데{그리고 인제 캐는 것은 밤젓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이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10203 # 그때는 인제 나무를 까꺼서 때는 때니까{그때는 인제 나무를 깎아서 때는 때니까}

10203 @ 네.{네}

10203 # 이 사늘 전체를 싸아칸번 누구네든지 자기산 자기산 다 까꺼다 해 싸커든뇨.{이산을 전체를 싹 한 번 누구네든지 자기 산, 자기 산 다 깎아다가 (나무를) 해 썰거든요.}

10203 @ 예예.{예예}

10203 # 그리구 난 다으메 인제 봄되므는 나겍 떠러진 걸 다시 글거다가 그걸 민다지라구

그래요.{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봄이 되면 낙엽 떨어진 것을 다시 굽어다가 그것을 밟다지라고 그래요.}

10203 @ 민: ...{민 ...} 10203 # 민다지. 여그선 그러케 불러쎄요. 갈:키나무지요. 인제 갈:키로다 이파리 떠러진걸 살살 글거다가 땀미다.{민다지. 여기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갈퀴나무지요. 인제 갈퀴로다가 이파리 떨어진 것을 살살 굽어다가 (불을) 땀니다.}

10203 # 그랜는데 가쁜 인제 진포 위에 나는 거시 전:부 나무리에요. 처메 소사나는게{그랬는데 (산으로) 가면 진포(?) 위에 나는 것이 전부 나물이에요. 처음에 솟아나는 것이}

10203 @ 예{예}

10203 # 그걸 인제 ...{그것을 인제 ...}

10203 @ 아{아}

10203 # 마니 뜨더왈쎄요.{많이 뜯어 왔지요.}

10203 # 그러이게 아주마이드리 보구이 들고도 가지만 압치마를 이러케 폭 뜨러매서 이러케 해구 해가지구 이 저 노:냥 그걸 해다 땀쎄요.{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바구니 들고도 가지만 앞치마를 이렇게 폭 뜯어매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이, 저, 노상 그것을 해다 때었지요.}

10203 # 그게 인제 지금 인제 살면서 이러:케 생각해보든 여러가지 복합된 문제드리 이쎄요.{그게 인제 지금 인제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있어요.}

10203 # 나:물 캔다는 거씨 싱냐때메 캔는데 사시른 일거리가 업쎄서 버리가 업쓰이간 또 하는거자나요.{나물을 캔다는 것이 식량 때문에 캐었는데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벌이가 없으니까 또 하는 것이잖아요.}

10203 @ 그런걸또 인쎄. 예.{그런 것도 있지요. 예}

10203 # 버리가 이쎄쓰는 그걸 또 해서 머 사다먹꼬 살든 되는건데 그게 업쓰니까 천쎄 그 사라미 먹꼬 사는 방버비 그런걸 노냥 가서 해다 그래도 먹꼬 그랜쎄요.{벌이가 있으면 그것을 또 헛 머, 사다가 먹고 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천신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 그런 것을 노상 (산에) 가서 (나물을) 해다 그래도 먹고 그랜지요.}

10203 @ 예.{예}

10203 # 그 의복까튼거는 찌끔 애드른 바지저고리를 이퍼도 이블쥬 모르더라고요.{그 의복 같은 것은 지금 애들은 바지저고리를 입혀도 입을 줄 모르더라고요.}

10203 @ 그러쎄미다. 예.{그렇습니다. 예}

10203 # 예. 제니물 쳐줄쎄도 쳐주야 되고{예, 다님을 쳐줄 때에도 쳐주어야 되고}

10203 # 늘그니드른 인제 그 한벌씩 이쎄서 명저레나 이런때는 한번씩 입꼬{늙은이들은 인제 그 한 벌 씩 있어서 명절에나 이런 때는 한 번 씩 입고}

10203 # 그러케들 대:개 인제 지금 시장에 나가서 사다 이브니까 재봉틀도 다: 인제 드러가는 때구 그러기때메 온까튼건 거의 다 지금 저 지금 세대임는꺼들 그냥 입쎄요.{그렇게들 대개 인제 지금은 시장에 나가서 (옷을) 사다가 입으니까 재봉틀도 다 인제 들어가는 때이고. 그러기 때문에 옷 같은 것은 거의 다 지금 저, 지금 세대들이 입는 것들 그냥 입지요.}

### 1.2.3. 전통 혼례식

10207 @ 예예. 그 아까 결혼하실때{예예, 그 아까 결혼하실 때}

10207 # 예.{예}

10207 @ 예, 전통저긴 그 사주 혼수 궁합 이런거는{예, 전통적인 그, 사주, 혼수, 궁합 이런 것은}

10207 # 그거는 인제 약쑈기 되며는 사:주를 써서 가지구 가는데 운:제 가나 하므는 예:무를 좀 하나 해가지구 가서 완저니 인제 그 양쪽집에서 인제 와서 보구 가서 보구 그 랜짜나요.{그것은 인제 약속이 되면 사주를 써서 가지고 가는데 언제 가냐 하면 예물을 좀 하나 해가지고 가서 완전히 인제 그 양쪽 집에서 인제 와서 보고 가서 보고 그 랐잖아요.}

10207 @ 네네.{네네}

10207 # 그래가지구 하계 하니까 인제 그 사:주를 써서 걸 가지구 가라 그래서 대:개 인제 누굴 시키기두 우리찌게도 그래썬요. 판사랴를 시키기도 헐는데 우린 내가 가지구 가서 그냥 갑다 주고{그렇게 해서 하계 하니까 인제 그 사주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대개 인제 누구를 시키기도 우리 때에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시키기도 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가서 그냥 갑다 주고}

10207 @ 네.{네}

10207 # 이라구서 어 왁썬요.{그렇게 하고 어, 왔썬요.}

10207 @ 그 때는 주로 뭐 저 어 예:물 가튼 거슨 뭘 너어썬미까?{그때는 주로 뭐, 저, 어, 예물 같은 것은 무엇 넣었썬미까?}

10207 # 예:물 가튼 거는 인제 대개 반지하썬요. 금반지.{예물 같은 것은 인제 대개 반지를 하썬요. 금반지.}

10207 @ 네네.{네네}

10207 # 그저 처 금반지 한 서:돈 하면 마:니 할따 그래구 좀 잘하는 집뜨른 인제 신부 시계도 사주고{그저 처 금반지 한 서돈 하면 많이 했다고 그러고 좀 잘하는 집들은 인제 신부 시계도 사주고}

10207 @ 예예.{예예}

10207 @ 온갎가튼거슨뇨?{옷갎 같은 것은요?}

10207 # 예?{예?}

10207 @ 온갎.{옷갎}

10207 # 온갎가튼거는 인제 그 함:쑈게 드러가는거 그걸 팔레바치미라구 그래는 그래케 불런는데 그 함쑈게다 인제 그 치마저고리 입꼬 업꼬 한벌 해서 느서 가지구 가구{옷갎 같은 것은 인제 그 함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판레바침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 함 속에다 인제 그 치마저고리 입고 없고 한 벌 해서 넣어서 가지고 가고}

10207 @ 음, 결혼하고 난 뒤에 신:행이라는 거시 이썬썬썬미까?{음, 결혼하고 난 뒤에 신행이라는 것이 있었썬썬미까?}

10207 # 여:기서는 그거를 자:양 간다구 그래요. 자양간다고.{여기서는 그것을 자양간다고 그래요. 자양간다고.}

10207 @ 자양.{자양}

10207 # 예.{예}

10207 # 자:양간다고 그랜는데 삼:밀마네 인제 처가예를 가자나요.{자양간다고 그랜는데 삼일만에 인제 처가예를 가잖아요.}

10207 @ 가치. 예.{(부인파) 같이. 예}

10207 # 예. 가치 가지요. 가치 가서 인제 이 인사드리고 이라구선 하룻밤자고 오거나 그러지요.{예, 같이 가지요. 같이 가서 인제 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서는 하룻밤을 자고 오거나 그러지요.}

10207 @ 네.{예}

10207 @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사위 완따고 반찬이 특별한게 이썸미까? 뭐.{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위 왔다고 반찬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뭐.}

10207 # 반:찬가튼거 특별히 해준거는 잘 기억이 안나요.{반찬 같은 것, 특별히 해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10207 @ 닥 닥 잡아 주시던가요?{답, 닭을 잡아 주시던가요?}

10207 # 예. 그런거는 해주지요. 그런건 해주고{예, 그런 것은 해주지요. 그런 것 해주고}

10207 @ 그 실랑 실랑쪼게서 준비하는 결혼 예물 예무른 아까 반지하고{그 신랑, 신랑 쪽에서 준비하는 결혼 예물, 예물은 아까 반지하고}

10207 # 예.{예}

10207 @ 그 치마저고리에{그, 치마저고리에}

10207 # 예{예}

10207 @ 이불 가튼 거슨 인제 신부쪼게서 준비하는 검미까?{이불 같은 것은 인제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10207 # 그때는 이불 쟁도고 이런거꺼지는 업써썩쇼.{그때는 이불 정도이고 이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10207 @ 네. 간 간단하게 해썸미까?{네, 간, 간단하게 했습니까?}

10207 # 예, 업썩썩쇼.{예, 없었고.}

10207 # 신부가 인제 자기네들 우리 실랑 신부 덩꼬 잘 이불가튼거는 해가지고 오지요.{신부가 인제 자기네들 우리 신랑, 신부 텃고 잘 이불 같은 것은 해가지고 오지요.}

10207 @ 네.{네}

10207 # 네, 그건 해가지고 오고{네, 그것은 해가지고 오고.}

10207 # 그리고 인제 그때는 뭐 이 당 당에 이러케 커텐마녕 치는 수놔서 치는거{그리고 인제 그때는 뭐, 이 당, 당에 이렇게 커튼처럼 치는 수를 놓아서 치는 것.}

10207 @ 네{네}

10207 # 이런거나 아니믄 본인이 인제 이불꺼 여 어디갈제 이 인제 나드리뽕기래든가 아니믄 부어까튼데 드러가서 일헬제 임는 오시라든가 이런 뭐 적삼 이렇거는 좀 마니 해가지구 와요.{이런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인제 입을 것. 여기 어디로 갈 적에 이, 인제 나들이복이라든가 아니면 부엌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할 때에 입을 옷이라든가 이런 뭐, 적삼 이런 것은 좀 많이 해가지고 와요.}

10207 # 그때는 뭐 마니 햐따 햐믄 뭐 한 주벌햐네 뭐 어짜고 그래쓰니까 그저 한 열 썰썩또 하구 그게 가져와봐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모타더라구요.{그때는 뭐, 많이 했다고 하면 뭐, 한 주벌햐네 뭐 어찌고 그랬으니까 그저 한 열 벌썩또 하고 그게 가져와보아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10207 @ 네네.{네네}

10207 @ 그러면은 인제 저 어르신 결혼할 때에 하고는 말고 일바저그로{그러면 인제 저, 어르신 결혼할 때에 하고는 말고 일반적으로}

10207 # 네{네}

10207 @ 우리 지방에서 전통홀례시기라는게 인제안씀미까?{우리 지방에서 전통혼례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207 # 예.{예}

10207 @ 그거는 어떤시그로 하는 겁미까?{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10207 # 전통 홀례시글 지금 현재로는 하능거를 모르겐는데{전통혼례식을 지금 현재로는 하는 것을 모르겠는데}

10207 @ 네, 그 당시.{네, 그 당시}

10207 # 네, 그 당시는{네, 그 당시는}

10207 # 인제 거 전통홀례식카는데 딸려가는 엔:말로 하이니라고 여기서 그러케 마른 그 그때도 그러케 불러써요.{인제 그, 전통혼례식을 하는 데에 딸려가는 옛말로 하인이 라고 여기서 그렇게 말은, 그, 그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10207 @ 네.{네.}

10207 # 동네 청년다니 가더래도{동네 청년단이 다더라도}

10207 # 하이니라고 그랜는데 대:개 인제 가:마 밀싸람들하고 짐지고 올싸람들하고 가면 그조게서 지를 지구 가치 오게 오게 되니까 인제 가자나요.{하인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인제 가마를 밀 사람들과 짐을 지고 올 사람들과 가면 그쪽에서 짐을 지고 같이 오게, 오게 되니까 인제 가잖아요.}

10207 # 가게 되면 인제 거기서 인제 예 실랑방이 따로 인꼬 인제 그 하인들방이 따루 이 써서 인제 간따 메기 명는데 인제 그 신발배끼미라구 그 초벌 메기고 고 다:으메 인제 또 저 술쌍나온다으메 인제 국쭈쌍이 나와서 이래서 머근 다으메 가마를 미구 인제 드러가게 되면 재끄레미라구 아주 그게 엄청 심해써써요.{가게 되면 인제 거기서 인제 예, 신랑 방이 따로 있고 인제 그 하인들 방이 따로 있어서 인제 갖다가 먹이, 먹는데 인제 그 신발 벗김이라고 그 초벌 먹이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저, 술상이 나온 다음에 인제 국수 상이 나와서 이래서 먹은 다음에 가마를 메고 인제 들어가게 되면 재끄럼(?)이라고 아주 그것이 엄청 심했었어요.}

10207 @ 머라구요?{무엇이라고요?}

10207 # 재끄러미라구{재끄럼이라고}

10207 @ 재?{재?}

10207 # 재끄러미라구{재끄럼이라고}

10207 @ 예, 예, 네.{예, 예, 네}

10207 # 이 재를 봉지에서 싸서 실랑한테다 막 지버 던 던집니다. 그걸.{이 재를 봉지에 싸서 신랑에게다 막 집어 던, 던집니다, 그것을.}

10207 # 학 지버던지믄 실랑이 그냥 그 즈{확 집어 던지면 신랑이 그냥 그, 즈}

10207 @ 뒤지버 써{뒤집어 써}

10207 # 그냥 재터미 쏘게서 내려서 이냥 통통 털고 이러구 서서 인제 에이 저를 하고 이 쓰면 신부가 인제 나오지요.{그냥 잣터미 속에서 내려서 이냥 통통 털고 그러고 서서 인제 에이, 절을 하고 있으면 신부가 인제 나오지요.}

10207 @ 네.{네}

10207 # 그래가지구 인제 인제 마주 인제 저를 시켜서 근 요즘 테레비에도 나오데요. 하는 방버븐.{그래서 인제, 인제 마주 인제 절을 시켜서 그것은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오데요. 하는 방법은}

10207 # 이러케 되니까 뭐 누구 절해라 이래는 그런 소리는 업꼬 여페서 인저 신:부는 부추겨서 저를 시키고{이렇게 되니까 뭐, 누구가 절을 해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없고 옆에서 이제 신부는 부추겨서 절을 시키고}

10207 @ 네.{네}

10207 # 실랑은 그냥 자기가 하는 수도 이꼬 이러케 해서 인제 에 저를 다: 마친 다으메 인제 신부는 드러가고 실랑은 도로 실랑 하는 저 방에루 오구 그랜져. 그러케 하지요.{신랑은 그냥 자기가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제, 에, 절을 다 마친 다음에 인제 신부는 들어가고 실랑은 도로 실랑 하는 저 방에로 오고 그랬지. 그렇게 하지요.}

10207 @ 그때는 뭐 상에는 다기니 오리니 이런거또 이썸미까?{그때는 뭐, 상에는 닭이니 오리니 이런 것도 있습니까?}

10207 # 오:리는 아니고 달기예요. 닭.{오리는 아니고 닭이에요. 닭.}

10207 @ 예.{예}

10207 # 다글 인제 붙들고 인따가 {닭을 인제 붙들고 있다가}

10207 @ 예.{예}

10207 # 인제 팔 팔 빨간 팔 너쿠 콩도 너쿠 그래고 용띠기라고 그래가지고 신:띠글 해서 인제 그러케 그 용아리라고 이러케 똥글똥글한걸 이러케 만드러서{인제 팔, 팔 빨간 팔을 넣고 콩도 넣고 그러고 용 띠이라고 그래서 신 띠을 해서 인제 그렇게 그 용 알이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10207 @ 아.{아}

10207 # 사바레다 해서 이러케 딱 노쿠 이쓰든 그거를 인제 머:그라구 이러케 메:기지요. {사발에다가 해서 이렇게 딱 놓고 있으면 그것을 인제 먹으라고 이렇게 먹이지요.}

10207 @ 예예.{예예}

10207 # 그랜따가 인제 그사라미 확 날려보내든 인제 날라가구{그랬다가 인제 그 사람이 확 날려 보내면 인제 날아가고}

10207 # 그, 그래요.{그, 그래요.}

10207 @ 아.{아}

10207 @ 그 저 결혼 천날{그, 저, 결혼 첫날}

10207 # 네.{네}

10207 @ 천나:레도 뭐 저 바깥에서 뭐 무늘 문 뚫러서 본다거나 이런건또 이썸찌요?{첫날에도 뭐, 저, 바깥에서 뭐, 문을 문 뚫어서 본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요?}

10207 # 그거는 인제 그 실랑찌비를 와서{그것은 인제 그, 신랑집으로 와서}

10207 @ 네{네}

10207 # 대개가 우리쪼게는 인제 거기서 자는게 아니구 차가 갈따가 차로 이러케 와서 지베 와서 인제 자:게 되든 장냥드를 하지요.{대개가 우리 쪽에는 인제 거기서 자는 것이 아니고 차가 갔다가 차로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인제 자게 되면 장난들을 하지요.}



10207 @ 예.{예}

10207 # 그런데 이제 그 그 실랑이 인제 온 빼끼는거 그저 온꼬름 풀르고 뭐 이런거 해주구 이라구 인제 상을 하나 간따 놔서 그때 술먹꼬 그런데 난 그런걸 몰라쎄요.{그런데 이제 그, 그, 신랑이 인제 옷을 벗기는 것. 그저 옷고름 풀고 뭐, 이런 것 해주고 이려고 인제 상을 하나 갖다가 놓아서 그때 술을 먹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10207 @ 네네.{네네}

10207 # 수를 조아해가지고 친구들하구 요래 수를 먹따가 그냥 চে가지고 그냥 자빠려쎄요.{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술을 먹다가 그냥 취해서 그냥 자버렸어요.}

10207 @ 예.{예}

10207 # 그런데 이제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술 담배를 안하니까{그랬는데 이제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10207 @ 아{아}

10207 # 한 사십년동안 술 담배를 안하고 사라쎄요.{한 삼십년 동안 술, 담배를 안 하고 살았어요.}

10207 @ 네.{네}

10207 # 그 우리집 애들까지 전부가 다 기독교인이네요.{그, 우리 집 아이들까지 전부가 다 기독교인이네요.}

10207 @ 아, 그러군요.{아, 그렇군요.}

10207 # 시낭쟁화를 다 잘 해요.{신앙생활을 다 잘 해요.}

10207 @ 장:노시니까 저 더욱 그러케 그러케꾸뇨.{장로시니까 저, 더욱 그렇게, 그렇겠군요.}

10207 # 예.{예}

10207 # 그리고 인제 미드프로 이러케 잘쎄 아니러날쎄도 기도해주면서 잘: 해주면 그애드리 좀 정서저그로 평아늘 받꼬 잘 하더라구요.{그리고 인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때나 안 일어날 때에도 기도해주면서 잘 해주면 그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평안을 받고 잘 하더라고요.}

10207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07 @ 예.{예}

10207 # 애들도 뭐 우리지벤 술담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토장냥이라든가 이런건 저년 아예 근접또 업쓰니까요.{애들도 뭐, 우리 집에는 술, 담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투 장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예 근접도 없으니까요.}

10207 @ 예예.{예예}

10207 # 그림자도{그림자도}

10208 @ 그 전통홀례식 때에는 그 어떤 음식드를 준비하는지요?{그 전통혼례식 때에는 그, 어떤 음식들을 준비하는지요?}

10208 # 대:개가 보며는 국쭈잔치여.{대개가 보면 국수 잔치여.}

10208 @ 예.{예}

10208 # 국쭈잔치하고 그때는 인제 결혼쎄게 인제 돼지 한마리 자바따 하며는 큰 잔치고 {국수 잔치하고 그때는 인제 결혼식에 인제 돼지 한 마리 잡아다 하며는 큰 잔치고}

10208 @ 쫘 큰잔치고 예.{쫘 큰 잔치고 예.}

10208 # 그리구 인제 그 저기 저 찌끄미로 말해튼 그 꼬쟁이라구 그래나? 그 여:러가지를 해서 이러케 꼬여서 던는{그리고 인제 그, 저기, 저, 지금으로 말하면 그 꼬지라고 그 러나? 그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꿰어 넣는}

10208 @ 예예.{예예}

10208 # 조치개라구 {조치개(=산적, 散炙)라고}

10208 @ 적{적(炙)}

10208 # 예, 그러케 하는거 그거하구 인제 절편가튼거 이러케 해서 국쭈잔치를 마니 하지 요.{예, 그렇게 하는 것, 그것과 인제 절편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국수 잔치를 많이 하지요.} 10208 @ 아.{아}

10208 @ 아까 여러개 쏘는걸 머라고 한다구요?{아까 여러 개 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고요?}

10208 # 조치개라구 그래 그{조치개라고 그래. 그}

10208 @ 조치개{조치개}

10208 # 그랜저 가타요.{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208 @ 네.{네} 10208 # 근데 그 접씨 전체를 조치개 접씨라구 그랜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거뜨리{그런데 그 접씨 전체를 조치개 접씨라고 그랬는지 그 것 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10208 @ 네네.{네네}

10208 # 인제 마니{인제 많이}

10203 @ 이 마으레서 그 전통홀레식 할 때 이써편 재민는 이얘기드리 뭐 이썸미까?{이 마 을에서 그 전통 혼례식 할 때 있었던 재미 있는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까?}

10210 # 전통홀레식 헬써게 특빠리 재미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게써요.{전통 혼례식 할 적 에 특별히 재미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10210 @ 네.{네}

10210 # 그랜는데 그 사:미레 오게 되튼 자:양온다 그래자나요? 사:라미 오게 되면.{그랬 는 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자양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게 되면.}

10210 @ 네 자양.{네, 자양}

10210 # 이제 실랑을 무게를 달자나요.{이제 신랑을 무게를 달잖아요?}

10210 @ 예.{예}

10210 # 그게 인제 무게 단다는 거시 인제 여러시 안자서 실랑 하나 노쿠 인제 이러케 다 러매가지구 이러케 발빠당 때리구 이래튼서 하는데 그 하는거시 찌끔 알고 보면 사실 썩 그 사라의 무게거드뇨.{그게 인제 무게를 단다는 것이 인제 여럿이 얹아서 신랑 하나를 놓고 인제 이렇게 달아매어서 이렇게 발바닥 때리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한느 것이 지금 알고 보면 사실상 그 사람의 무게거든요?}

10210 @ 예. 아.{예, 아,}

10210 # 이사라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기능이 일때던지 지능이 이때던지 머리가 깨이 때던지 인제 그걸 다리본다고 그래튼서 그런 장난하는거 보튼 어른들께 하는거 보튼 그거는 좀 일반저그로는 좀 썸할정도지요.{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기능이 있다든지 지능이 있다든지 머리가 깨었다든지 인제 그것을 달아본다고 그러면서 그런 장난을 하는 것 보튼 어른들께 하는 것을 보튼 그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좀 심할 정도 지요.}

10210 @ 네.{네}

10210 # 금 그르케 하는 그런거는 마니 봐썬요.{그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많이 보았어요.}

10210 @ 어느 정도 심하게 함미까?{어느 정도로 심하게 함니까?}

10210 # 심하게 할제는 두:리나 이러케 다러매구선 방맹이가튼걸로 발빠당을 치니깐요.{심하게 할 때는 둘이나 이렇게 달아매고서는 방망이 가튼 것으로 발바닥을 치니까요.}

10210 @ 예예.{예예}

10210 # 쫘 심하지요.{쫘 심하지요.}

10210 @ 근데 인제 실랑이 무게가 저 저근 경우에는 싸움도 나고 이러켤꾸뇨.{그런데 인제 실랑이 무게가 저, 적은 경우에는 싸움도 나고 이러겠군요.}

10210 # 그러:치는 안치요. {그렇지는 않지요,}

10210 @ 네.{네}

10210 # 그 실랑 체며니고{그 실랑 체면이고}

10210 @ 예.{예}

10210 # 인제 마을 청년드리 다 모였는데 대:개 실랑보더는 우이에 사람드리 마니 가지더 라구요. 보니까 나이가{인제 마을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대개 실랑보다는 위의 사람들이 많이 가게되더라고요.}

10210 @ 예 예예.{예예예}

10210 # 그러게 되는데 인제 신부츠게선 아 실랑오른 이들은 인제 애타게 소리도 질르고 근데{그렇게 되는데 인제 신부 측에서는 아, 실랑이 모면 이들은 인제 애타게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10210 @ 예예.{예예}

10210 # 그러기도 하구.{그러기도 하고.}

10210 @ 아, 그런게{아, 그런 것이}

10210 @ 자기보다 나이 마느니까 함부로 모타켤꾸뇨.{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겠군요.}

10210 # 예.{예}

10210 @ 부뉘기가{분위기가.}

10210 @ 그 어르신 결혼한 후에 신혼살림은 어떠케 시작을 하셔썬미까?{그, 어르신 결혼한 후에 신혼 살림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 신:혼살림은 우리 형님드리 세부니고 내가 네:째아드린테 우리 형님드리 연세가 나하구는 차이가 마니 나거드뇨.{신혼 살림은 우리 형님들이 세 분이고 내가 넷째 아들인데 우리 형님들이 연세가 나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211 @ 네.{네}

10211 # 근데 내가 보기로는 이냥반드리 술도 조아하구 놀길 조아해요.{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이 냥반들이 술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해요.}

10211 # 그래서 이:를 잘 안하구 그래가지구 그때 지베 이썰찌게는 전농싸를 내가 마타해 다시피해썬요.{그래서 일을 잘 았하고 그래서 그때 집에 있을 적에는 모든 농사를 내

가 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10211 @ 아.{아}

10211 # 품아씨를 해서 그러게 해다시피 했는데{품앗이를 해서 그렇게 하다시피 했는데}

10211 # 인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중에 인제 하니까{인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중에 인제 하니까}

10211 # 그 어린 마메 가정 형편이 원만하질 모타니까 그 난 반지가튼 이런것도 생가글 모텐꺼뜨노. 이랬더니{그 어린 마음에 가정 형편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나는 반지 같은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10211 # 둘째 형니미 글 헨거 가태요.{둘째 형님이 그것(=반지)을 한 것 같아요.}

10211 # 누:니미 헨는지 해서{누님이 했는지 해서}

10211 @ 음.{음}

10211 # 그걸 하구서 그냥 간소하게 인제 이르믄 지어서 결혼을 했는데{그것을 하고서 그냥 간소하게 인제 이름을 지어서 결혼을 했는데}

10211 # 살리를 나는데 인제 도니 업짜나요.{살림을 나는데 인제 돈이 없잖아요.}

10211 @ 네.{네}

10211 # 그래 찌끔 사는 지비 내가 교회 아페 찌비 사는거 그저 사는데 그때 그게 사니루 돼:인데 화장실도 업꼬 그냥 집만 삼칸 이러케 먼처 사람두 그럼 옴나레는 찌끔마 녀 직장이구 업꾸 농사가 다양해서 바쁘질 아느니까{그래 지금 사는 집이 내가 교회 앞에 집에 하는 것. 그저 사는데 그때 그것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그냥 집만 삼칸. 이렇게 먼처 사람도 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직장이 없고 농사가 다양해서 바쁘지를 앓으니까} 10211 @ 네.{네}

10211 # 모 시머노쿠 공가니 이꼬 논매노쿠 공가니 이꼬 농사진꼬 끄드러노믄 겨울기 공가니니까 그 공가니 전부 점잔케 사는 사람드른 점자는데 심한 사람드른 장냥이 심하 니칸 마니 소비를 해요.{모를 심어 놓고 공간이 있고 논을 매어놓고 공간이 있고, 농사를 짓고 수확해 놓으면 겨울이 공간이니까 그 공간이 전부 점잔케 사는 사람들은 점잔데 심한 사람들은 장난이 심하니까 많이 소비를 해요.}

10211 @ 네.{네}

10211 # 개서 생화리 그럭저럭{그래서 생활이 그럭저럭}

10211 # 그래 난 어려서 그게 이 몬마땅해서 엄:청나게 쪼차댕기며 그냥 애걸도 해보구 그 램편 사라미기때메 우리 두리 나가살믄 그냥 손잡꼬 살자 그런 맘 먹꼬 이썸는데{그 래 난 어려서 그것이 이, 못 마땅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니며 그냥 애걸도 해보고 그랬 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나가서 살면 그냥 손 잡고 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 었는데}

10211 # 그런 초가 삼칸찌블 하나 사주더라고요.{그런 초가삼칸 집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10211 @ 네.{네}

10211 # 그랜는데 그때 노니 천 한 백뽕정도 단마지기 쟁도 돼:씨요.{그랬는데 그때 논이 천 한 백뽕 정도 다섯 마지기 정도 되었어요.}

10211 @ 네.{네}

10211 # 그거를 가지구 그 집 한채에다가 싸를 큰지베서 너:마를 줘서 가지구 나가꺼드 뇨.{그것을 가지고 그, 집 한 채에다가 쌀을 큰집에서 너 말을 주어서 가지고 나갔거 든요.}

10211 @ 네.{네}

10211 # 그런데 그땐 내가 수를 머그니까는 왜 그런지 속또 아프고 그래서 뭐 그 술 약뚜 좀 사먹꾸 또 저기 그 사랑까네 가서 또 뽕도 점 하구 이래니깐 또 두어말 두어말 퍼내니깐 그냥 다 겨우겨우 하구 써지더라구요.{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술을 먹으니까 왜 그랬는지 속도 아프고 그래서 뭐, 그, 저, 술약도 좀 사서 먹고 또 저기, 그 사랑 간에 가서 도 뽕(=놀이)도 좀 하고 그러니까 또 두어 말, 두어 말을 퍼내니까 그냥 다 겨우 겨우 하고 써지더라고요.}

10211 @ 네.{네}

10211 # 그래니깐 그때는 며:네서 먼:빠라구 그래서 보리싸를 주며는 가:래 쌀로 한 말로 갈따 갑길두 하고{그러니까 그때는 면에서 먼 벼라고 그래서 보리쌀을 주면 가을에 쌀로 한 말로 갖다 갖기도 하고}

10211 # 또 인제 쌀로 주며는 인제 가:래 가서 인제 공판해서 갈따 갑기도 해썬요.{또 인제 쌀로 주면 인제 가을에 가서 인제 공판을 해서 갖다 갖기도 했어요.}

10211 # 그런거를 머그면서 농사를 처태 지:니깐 쌀 단마지기해서 쌀 한 열까마 정도 나와 나오니까{그런 것을 먹으면서 농사를 첫 해 지으니까 쌀 닷 마지기 해서 쌀 한 열까마 정도 나와, 나오니까}

10211 @ 네.{네}

10211 # 그때는 모를 시무면 쌀랑씩짜리로만 시머 달라구 그래 그래케 노래를 해쓰니까 그런거를 쌀 두가마빠겐 몬나요.{그때는 모를 심으면 쌀 양식 자리로만 심어 달라고 그래. 그렇게 노래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쌀 두 가마밖에 못 나요.}

10211 @ 예예.{예예}

10211 # 그래니깐 단마지기래야 사람 대여써시 모여서 벼가지구선 그날 터러가지구 드려 오고 그런꺼드뇨.{그러니까 닷 마지기래야 사람 대여섯이 모여서 베어서는 그날 털어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10211 # 지그른 뭐 기계가지고 하루쟁이라 하구 그래니깐 그러는데{지금은 뭐, 기계를 가지고 하루쟁이(=하루에 일을 끝내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10211 # 그래가지구 인제 그거가지구 살림 시작하면서 그저 송아지를 하나 또 비슬 내서 사가지고 메기면서 또 집싸라미 그걸 거들구 내가 일 다니면서 순전히 일 땀기때 품 갑빠다가지고 인제 그 비용은 다 살림비용을 쓰고{그래서 인제 그것을 갖고 살림을 시작하면서 그저 송아지를 한 마리 또 빗을 내어서 사서 먹이면서 또 집사람이 그것을 거들고 내가 일 다니면서 순전히 일을 다니면서 품값을 받아서 인제 그 비용은 다 살림 비용으로 쓰고}

10211 # 농사진걸를 봐가지구 이러게 생활하다가 {농사 짓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10211 @ 아.{아}

10211 # 그래케 생활하다가 그 우리 바치 사백오십평짜리가 하나 그게 나오는데 그 바칠 그 우리 형니미 또 판 판다구 그래요.{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우리 밭이 450 평 짜리가 하나 그게 나오는데 그 밭을 그, 우리 형님이 또 판, 판다고 그래요.}

10211 # 그래이게 형수가 또 와서 쪼차와서 그걸 판다고하고 그래서 내가 쪼차와서 우리 어머 아버지가 도라가셔서 바테다 우리 바테다 큰집빠테다 모션는데{그러니까 형수가

또 와서 쫓아와서 그것을 판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쫓아와서 우리 어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밭에다 우리 밭에다가 큰집 밭에다가 모셨는데}

10211 # 그때는 뭘 보며는 예 안된다구 그러든 잘 모타재나요.{그때는 무엇을 보면 예, 안된다고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10211 @ 네네.{네네}

10211 # 그래서 어무이 도라가시든 우리가 객찌니까 여그서 사들 참 준비를 모타기때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객지니까 여기서 산을 참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10211 # 어떻게 할찌를 수가 업씨 내가 근 내가 산다구 그래게 동네뽕드리 물러나더라고요.{어떻게 할 지를 수가 없이 내가 그것은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물러나더라고요.}

10211 @ 네.{네}

10211 # 그래 그걸 사고 여그서 송아지를 하나 또 메겨가지고 이 소가 새끼를 나서 내가 메기고{그래 그것을 사고 여기서 송아지를 한 마리 또 먹여서 이 소가 새끼를 낳아서 내가 먹이고}

10211 # 이거슬 남한테 갈따 메기라구 줘서 거그서 일:해주구 인제 도저오게 하구 해서 한 서너마리 된 다음메{이것을 남에게 갖다 먹이라고 주어서 거기에서 일해주고 인제 도지(賭地) 오게 해서 한 서너 마리가 된 다음에}

10211 # 노들 사는데 그때만 해도 논깍씨 싸가지고 그 천쭈다빈데 삼천평짜리가 서른 여섯 까마인가 나와서 그걸 산썰요. 내가{논을 사는데 그때만 해도 논값이 싸서 그 천수답인데 삼천 평짜리가 서른여섯 가마인가가 나와서 그것을 샀어요.}

10211 @ 예예.{예예}

10211 # 그 인제 그 천쭈다과는 싸람드른 하 고생이 되니까 사지 말라 그랜는데 나는 바:는 내버리구 반:만 해머거도{그, 인제 그, 천수답을 하는 사람들은 하도 고생이 되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반은 내버리고 반만 해먹어도}

10211 @ 음.{음}

10211 # 가버치루 따지든 그건 되니까 내가 산다 그래가지구{값어치로 따지면 그것은 되니까 내가 산다고 그래서}

10211 # 그때 인제 하:내대채글 일본서 기계가 나오는 바라메 그거갈따가 밭에 본물 퍼, 퍼올려서 농사지어서 이래서 인제 도라가기 시자카니까 생화리 꽤차나가지구 찌끄든 노니 한 오천이백평정도 되고{그때 한해 대책을 일본서 기계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밭에 붓물을 퍼, 퍼 올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인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생활이 괜찮아지고 지금은 논이 한 오천이백 평정도 되고}

10211 @ 네네.{네네}

10211 # 바치 한 사백오십평 되고 이래는데{밭이 한 사백오십 평 되고 이러는데}

10211 # 우리 애들 공부가리키느나구 우리 집싸람하구 나하구 두리 농:살 지어가면서 그 생산해서 판매를 근 한 썸년해썰요.{우리 대들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집사람과 나와 둘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생산해서 판매를 근 한 10년 했어요.}

10211 # 조그만 차를 하나 사가지고 호박, 가지, 오이 뭐 그냥 이런거 되는대로 해서 싼꼬 나가서 직접 파르니까{조그마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호박, 가지, 오이 뭐, 그냥 이런 것 되는대로 해서 싼고 나가서 직접 파니까}

10211 @ 네네.{네네}

10211 # 아침 여섯시에 밥먹고 나가서 수화캐가지구 점심때 이걸 따껴서 싼꾸 나가서{아침 여섯 시에 밥 먹고 나가서 수확을 해서 점심 때 이것을 따아서 싼고 나가서}

10211 # 시장에 가 팔면 한:나젠 뜨거워서 매매가 안되는데 저녁때쯤 돼:서 다서씨 너머야 직장에 간 분드리 드려오는 길 또 저녁먹고 나와서 인제 한:데 나와서 쉬는 할무니들 만나서 팔게됨 지비 오른 야칸 열한씨 정도 돼:요.{시장에 가 팔면 한낮에는 뜨거워서 매매가 안 되는데 저녁 때쯤 되어서 다섯 시 넘어야 직장에 간 분들이 들어오는 길 또 저녁을 먹고 나와서 인제 한 데 나와서 쉬는 할머니들 많아서 팔게 되면 집에 오면 약 한 11 시정도 되어요.}

10211 # 그럼 저녁먹고 이 생화를 우리가 두 내우가 한 썸년 또 막캐썸요.{그러면 저녁 먹고 이 생화를 우리가 두 내외가 한 10 년 또 막 했어요.}

10211 @ 예.{예}

10211 # 그래가지구 지금 애들 다: 저들 자리 잡꼬 살고 그냥 밤명꼬 살고 그래는데{그래서 지금 애들 다 저들 자리 잡고 살고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러는데}

10211 # 내가 모:미 좀 안조아서{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10211 @ 예예.{예예}

10211 # 쪼끔 그 그래요.{조금 그, 그래요.}

10211 #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운데 잘: 치러왓썸요.{그래도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왔지요.}

10211 @ 네, 그러치요.{네, 그렇지요.}

10211 @ 농초네서 그러케 안 하려는 논: 파라서 교육시키려며는 다 업썸지지요?{농촌에서 그렇게 안 하면 논 팔아서 교육시키려면 (논이) 다 없어지지요.}

10211 # 농초네서는 별 도리업씨 노를 파라야 되거드노.{농촌에서는 별 도리 없이 논을 팔아야 되거든요.}

10211 @ 그러게요.{그러게요.}

10211 # 예.{예}

10211 # 그때만 해도 도를 지그든 뭐 정부에서 줘서 뭐 저드리 버려서 양중에 가퍼라 이런 소리도 저 농민신문보든 나오는데{그때만 해도 돈을 지금은 뭐 정부에서 주어서 뭐. 저들이 벌어서 나중에 갚으라고 이런 소리도 저, 농민 신문을 보면 나오는데}

10211 # 그때는 어떻게 할끼리 업꼬 농협도 지금마냥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때가 아니었기 때메{그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농협도 지금처럼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10211 @ 예예.{예예}

10211 # 그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루 그 종종쌀 {그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종종 쌀}

10211 @ 예.{예}

10211 # 청년회쌀 뭐 이런게 그 그러이간 사채노리지요.{청년회 쌀 뭐, 이런 것이 그, 그러니까 사채놀이지요.}

10211 @ 그러썸미다.{그렇습니다.}

10211 # 썸께 말해자르든{쉽게 말하자면}

10211 # 그거씨 성 성장해쓰이간 그걸뜨를 어더 쓰구 가:레 농사 해지어서 또 왓따 가구 그냥 그래썸는데 지그든 좀 팬찬치.{그것이 성, 성장했으니까 그것들을 얻어 쓰고 가을에 농사 해지어서 또 왔다가 가고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팬찮지.}

10211 # 에 그 애들 보탬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애드리 잘 키워서 그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 저들 학교 갈때 오다가 만남 저드리 가지구 땡기며 팔기두 하구 {예, 그 애들 보탬 하는 데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 커주어서 그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 저들 학교 갔다가 오다가 만나면 저들이 가지고 다니며 팔기도 하고}

10211 @ 네.{네}

10211 # 그래서 지그은 그래두 팬찬케 사려요.{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팬찮게 살아요.}

10211 @ 네.{네}

10211 # 둘:째딸 마 맏딸만 고등학교 나오고 내가 말하긴 저들 저들한테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와쓰니깐 느들 고등학교 정도는 내가 가르킬게 느 자씩뜨른 대하글 가르쳐라 그래 구선 내가{둘째 딸 마, 맏딸만 고등학교 나오고 내가 말하기는 저들, 저들에게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너희들 고등학교 정도는 내가 가르칠게. 너희 자식들은 대학을 가르쳐라 그러고서는 내가}

10211 # 살림 시자글 헐는데{살림 시작을 했는데}

10211 # 맏따리 인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구 인제 서울 이모찌베서 그 매장을 크게 해요.{맏 딸이 인제 고등학교 나와서 인제 서울 이모 집에서 그 매장을 크게 해요.}

10211 @ 네.{네}

10211 # 온까게를{옷 가게를}

10211 # 거기 가서 일해믄서 좀 버러가지구 그 제동상들 공부하는데 그 보텐는데{거기에 가서 일하면서 좀 벌어서 그, 제 동생들 공부하는데 그, 보텠는데}

10211 # 둘:째따리 인제 공부를 하는데 그 저 단국대학교 나와가지구 일본어파를 나와서 {둘째 딸이 인제 공부를 하는데 그, 저, 단국대학교 나와서 일본어과를 나와서}

10211 @ 음.{음}

10211 # 그 가이드를 하는데{그 가이드를 하는데}

10211 @ 네.{네}

10211 # 그게 지금 팬찬터라구요. 일본서 마니 오는 바라메.{그것이 지금 팬찮더라고요. 일본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바람에.}

10211 # 잘하구 그러네요.{잘하고 그러네요.}

10211 # 가이드를 하게 되믄 너는 우리 나라의 얼구리다. 그 사람드리 오믄 느들 먼치 뵈 니까{가이드를 하게 되면 너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그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 먼치 보니까}

10211 @ 음.{음}

10211 # 잘하구 모태는건 난 잘 모르고 실러기니까 난 모르고 양시믄 바로 세워서 가거 라.{잘하고 못 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고 실력이니까 나는 모르고 양심은 바로 세워 서 가거라.}

10211 # 그래야 니가 오디 가든지 슬 짜리가 인찌. 그거 안 해가지고 당정 누네 보이는거 에 잘못 싹뜨는 너는 실패자다. 잘해요.{그래야 너가 어디 가든지 설 자리가 있지. 그 것을 안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잘못 살면 너는 실패자다. 잘해요.}

10211 @ 예.{예}

10211 # 아주 잘해터라구요.{아주 잘 하더라고요.}

10211 # 손님드리 와서 잘해주믄 저도 손님 사서 공향에가 보내구 그랜다구 얘기 해써꺼



드노.{손님들이 와서 잘해주면 저도 손님 사서 공항에 가서 보내고 그런다고 얘기했  
었거든요.}

10211 @ 음. 그런데요.{음, 그러네요.}

10211 # 마:다들 하나는 명지대학교 나와가지고 현대개발 지금 과장에루 본사에 가서{만아  
들 하나는 명지대학교 나와서 현대개발 지금 과장으로 본사에 가서}

10211 @ 네네.{네네}

10211 # 근무하구 이꼬.{근무하고 있고.}

10211 # 실:째 따를 뭐냐 저기 저 적씩짜 간호대 나와가지고{셋째 딸은 뭐냐 저기, 저, 적  
십자 간호대를 나와서}

10211 @ 네.{네}

10211 # 영동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이쓰면서{영동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있으면서}

10211 @ 아, 그러쥬미까?{아, 그렇습니까?}

10211 # 거기서 인제 대학원 나올래니깐 안되니깐 삼년짜리가 안된대요. 그건{거기서 인  
제 대학원을 나오려니까 안 되니까 삼년짜리가 안 된대요, 그건.}

10211 @ 네.{네}

10211 #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해가지구 조립짱을 가지구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해썌  
요.{그랫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졸업장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했어요.}

10211 @ 하이고.{아이고.}

10211 # 그래서 지금 개 개는 인제 개드른 팬찬케 사라요. 두 내우가 다 직장 튼튼하게{그  
래서 지금 개, 개는 인제 개들은 팬찬게 살아요. 두 내외가 다 직장 튼튼하게}

10211 # 지끄른 직장이 상당히 어려워 애를 쓰면서나 인제 그대로 살구{지금은 직장이 상  
당히 어려워 애를 쓰면서 인제 그대로 살고}

10211 # 망:내노미 하나 고등학교만 나완는데 선생님한테 좀 부끄러운 소리지마는 그 강남  
음씩 쓰레기를 저녁에 이게 끄지버 내다가 여기저기저{막내놈이 하나 고등학교만 나  
왔는데 선생님에게 좀 부끄러운 소리지만 그 강남 음식쓰레기를 저녁에 이게 끄집어  
내어다가 여기저기 저}

10211 # 읍:며네 인는 그 종합처리장에{울면에 있는 그 종합처리장에}

10211 @ 예예.{예예} 10211 # 거기다 갑따 인제 부려노쿠 와서 나제 자구 저녁에 가서  
하구 그런 자거를 해는데 그건또 인제{거기다 갖다 인제 부려놓고 와서 낮에 자고 저  
녁에 가서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인제}

10211 # 처으메는 팬찬타 그래서 팬찬타 그래더니 그 사설로 하는 사람드리 또{처음에는  
팬찬다 그래서 팬찬다고 그러더니 그 사설(私設)로 하는 사람들이 또}

10211 @ 아.{아}

10211 # 하구 그래는지 하이튼 일거리가 자꾸 준다구 그래요. 좀 심들다구 그래요.{하고  
그러는지 하여튼 일거리가 자꾸 준다고 그래요. 좀 힘들다고 그래요.}

10211 # 지금 아직 결혼은 했는데 지블 몬 마련해쥬썌요.{지금 아직, 결혼은 했는데 집을  
못 마련해주었어요.}

10211 @ 네.{네}

10211 # 그래 인제 며느리 아이는 홍성 애인데 거기 직장에서 이를 하구 인꼬 {그래 인제  
며느리 아이는 홍성 애인데 거기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10211 @ 네네.{네네}

10211 # 애:는 여기서 직장을 하구 인는데 지금 드렐 갑파 오면서도 걱정이 돼:요.{애는 여기서 직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에 갔다가 오면서도 걱정이 되어요.}

10211 @ 어.{어}

10211 # 얼른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서 살게 해줘야 헬텐데.{얼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서 살게 해주어야 할 텐데}

10211 # 이거시 참 쯤 심드러가지구 어찌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이썬요.{이것이 참 쯤 힘들어서 어찌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10211 # 누나들 형드른 원만치 나가서 바람도 쏘고 공부도 하니까 저끼리 내우 얘기해서 {누나들과 형들은 웬만큼 나가서 바람도 쏘고 공부도 하니까 저희끼리 내외가 얘기해서} 10211 @ 네.{네}

10211 # 방어더서 이러케 사는데 이노문 내가 얼마 줄게 느들 그르케 하라 그랜떠니 모태 더라우요.{방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데 이 높은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10211 # 그럭저럭 지나온게 한 이삼개워리 지난꺼드노. 벌써{그럭저럭 지나온 것이 한 이삼 개월이 지났거든요, 벌써.}

10211 @ 음.{음}

10211 # 얼릉 이거를 해결 해줄라구 그 내 아드리 완킬래 그랜떠니 이처네 전세로는 언마 나오구 뭇 어터게 되구 이런걸 제이게 애:기해주고 그냥 가더라우요.{얼른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 내 아들이 왔기에 그랬더니 이천에 전세로는 얼마가 나오고 뭇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저에게 얘기해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10211 # 조금 개:때메 조금 걱정이예요. 그 방 마련해주는. 저드리 뭇 알마치 아니칸 살게 켜요.{조금, 개 때문에 조금 걱정이예요. 그 방을 마련해주는. 저희들이 뭇, 알만큼 아니까 살겠지요.}

10211 @ 그럼노. 지금 인제 뭇 그르케 직쨍 쯤 힘들게 하니까 {그럼요. 지금 인제 뭇, 그렇게 직장 쯤 힘들게 하니까}

10211 # 네.{네}

10211 @ 아, 여러가지 생가기 또 일썬쨌요.{아,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겠지요.}

10211 # 네.{네}

10211 # 성실해요. 애는 10211 @ 예.{예}

10211 # 뭇 쯤쨌도 저기 저기 해거나 뭇 그런거는 아닌데 열썬미 하는데도 인제 잘 안되는가 봐요. 뭇 이런게 안되나 보더라우요.{뭇, 조금도 저기, 저기 하거나 뭇, 그런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도 인제 잘 안 되는가 봐요. 뭇, 이런 것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10211 # 내 애:기만 그냥 쯤웁 헨거 아닌가요?{내 애:가만 그냥 쯤 한 것 아닌가요?}

10211 @ 예 계속 계속 그냥 예{예, 계속 계속 그냥 예}

10211 # 아니 이야기가 우리 애:기를 쯤 해놔서{아니,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를 쯤 해놓아서}

10211 @ 아, 그 그쯤게는 그 문제될꺼는 업쓰니까요.{아, 그, 그쯤에는 그,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요.}

10211 # 네.{네}

10211 @ 예예.{예예}

10216 @ 그 애들 기를 때에 기억까튼 거뜨른 어떤게 이썸미까?(그, 애들 기를 때에 기억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216 # 애:들 기를때 기어기라는 거는 그런 생가글 해요.{애들 기를 때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요.}

10216 # 우리 하라버지가 엄:청나게 심해때요.{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했다고 해요.}

10216 # 그러니까 그 초다를 마니 헨나봐요, 매지를.{그러니까 그 초달(楚撻)을 많이 헨나 봐요, 매질을}

10216 @ 아, 예.{아, 예}

10216 # 이 인제 근 들리는 소리여.{이, 인제 그것은 들리는 소리예요.}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래가지구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드른 한:번두 매를 안드러때요.{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은 한 번도 매을 안 들었다고 해요.}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래서 내가 어린 마메 조금 부끄러운 소리지만 형님드리 저러케 방탕하게 사는 거 보른 방탕한거는 아닌데 농촌생활리 그뻐 그래쓰니까.{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조금 부끄러운 소리지만, 형님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면 방탕한 것은 아 닌데 농촌생활이 그때는 그랬으니까.}

10216 @ 네네.{네네}

10216 # 사는게 나는 내소겐 마리 말찌두 아나가지고 때려주질 안코 가리켜서 그런가 그 러케 생가글 해꺼든뇨.{사는 것이, 나는 내 속으로 (하는) 말이,“맞지도 않아서 때려 주지를 았고 가르켜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0216 @ 예.{예}

10216 # 그래서 우리 애:드른 매지를 내가 마니 해썬요.{그래서 우리 애들은 매질을 내가 많이 했어요.}

10216 @ 예.{예}

10216 # 조금 틀려썬제는 틀림업씨 아니다.{조금 틀렸을 때는, 틀림없이 아니다.}

10216 # 그냥 때려주구 그랜는데 지끄른 즈드른 즈드른 그게 그래두 그뻐 그르케 마즌게 팬찬타구 생가글 해요.{그냥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게 그래 도 그뻐 그렇게 맞은 것이 팬찮다고 생각을 해요.}

10216 @ 네네.{네네}

10216 # 애:기를 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216 # 나는 그게 지금 걸리더라고요.{나는 그것이 지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10216 # 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미드며 성경을 보니까 때리지 안쿠도 길르는 방버비 참 만터라고요.{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보니까 때리지 았고도 기르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10216 # 요글 잘 사랑으루 감싸서 사라미 되게끔 만드는 방법뜨리 엄청나게 마는데{이것 을 잘 사랑으로 감싸서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0216 @ 예.{예}

10216 # 그때는 그냥 내가 몰라서 때린게 조금 마:미 아프더라고요.{그때는 그냥 내가 몰 라서 때린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216 @ 예, 그래두 그게 뭐 저 에 조:은 마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쓰니까 그건 뭐 그건 보닌드리 나중에 어뜨케 느끼냐에 달라지조.{예, 그래도 그게 뭐, 저, 예, 좋은

마음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뭐, 그것은 본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10216 # 예.{예}

10216 # 그저 애드론 즈들도 이를 열씨미 해서 즈 엄마가 그래요.{그저 애들은 저희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제 엄마가 그래요.}

10216 # 내가 맨날 바쁘니까 느들도 그르케 바쁘냐고 그래요.{내가 늘 바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요.}

10216 @ 네.{네}

10216 # 또 즈들이 또 나름대로 또 교회를 다 다니니까 주일날 만나기도 쪼끔 심들고 그 런거는 이썬요.{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또 교회를 다 다니니까 주일날 만나기도 쪼 금 힘들고 그런 것은 있어요.}

10216 # 토요일날 만날때 주일날 즈들 보러가구{토요일 날 만났다가 주일날 저희들 보러 가고}

10214 @ 그 아이들 나온 후에 산후조리는 어뜨케 하던가요?{그 아이들 낳은 후에 산후조 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10214 # 산후조리요?

10214 @ 네네.{네네}

10214 # 산후조리든 지끔 사람들 애:기 드르든 깜짝 놀래요.{산후조리라면 지끔 사람들 애 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10214 # 저: 뒤꼐 사네가서 이러케 나물 해든 이짜나요. 나무를 겨울게 땔라구 나무를 하 면{저 뒤꼐 산에 가서 이러케 나무를 하면 있잖아요. 나무를 겨울에 때려고 나무를 하면} 10214 @ 네네.{네네}

10214 # 하루 아침나질 한짐하구 한짐해는데 하루 석찌믈 햐러든 점시믈 내오거드뇨.{하루 아침 나절에 (나무) 한 짐을 하고 한 짐 하는데 하루 석 짐을 하려면 점심을 내어오 거든요.} 10214 @ 네네.{네네}

10214 # 그럼 점시믈 내오든 그때 기영나는게 배가 아주 이러케 만싸캐썬요.{그러면 점심 을 내어오면 그때 기억 나는 것이 배가 아주 이러케 만삭을 했어요.}

10214 @ 예예.{예예}

10214 # 그래서 점시믈 내와서 점시믈 머건는데 그날 저녁게 나는 썩썩 자는데 이사라든 뭘을 이러케 긴꾸 안자썬요.{그래서 점심을 내어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게 나는 썩썩거리고 자는데 이 사람은 뭘르 이러케 긴고 앓았어요.}

10214 @ 네.{네}

10214 # 그래, 왜 그러나 햐떠니 그날 자정즘 되니까{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날 자정 쯔 되니까}

10214 @ 아.{아}

10214 # 그 기미가 보이는거예요.{그,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10214 @ 예.{예}

10214 # 그래가지고 처대는 인제 어른드리 와서 처대라 얼릉 순사를 모태서 어른드리 와 서 쯔 고생을 해다 난는데{그래서 첫 애는 인제 어른들이 와서 첫 애라 얼른 순산을 못해서 어른들이 와서 쯔 고생을 하다가 낳았는데}

10214 # 두번째 애부터는 애들 네썬 다 내가 그 저기를 햐썬요.{두 번째 애부터는 애들 넷

을 다 내가 그, 저기(=산과역)를 했어요.}

10214 # 저 배를 바더썌요, 내가.{저 배(=애)를 받았어요, 내가}

10214 @ 네네.{네네}

10214 # 그래서 심주라 그래구 이러케 나가지구 난 뒤에 내가 뛰어내려가서 큰지배 아주 머니 보구 오셔서 삼갈 너줘서 이러케 하구{그래서 힘을 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낚아서 (애를) 낚은 뒤에 내가 뛰어 내려가서 큰집의 아주머니 보고 오셔서 삼가(?)를 넣어주어서 이렇게 하고}

10214 # 그랬찌. 뭐 {그랬지 뭐.}

10214 @ 아.{아}

10214 # 그러케해구 나며는 그 사:누조리 뭐 한 삼사일 지나믄 바패묵꼬 도러댕기구 그래썌요.{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산후조리 뭐, 한 삼사 일 지나면 밥해 먹고 돌아다니고 그랬지요.}

10214 @ 엔나레는 산후조리할 트미 업썌지요?{옛날에는 산후조리를 할 틈이 없었지요?}

10214 # 그럼 예, 예 그라무뇨. 그르케 지나썌요.{그럼, 예, 예, 그럼은요. 그렇게 지났어요.}

10214 # 썌끔 사람들 하는거 보고 우리 지난거 보믄 아주 애:기가 안돼:요, 그거는.{지금 사람들 하는 것 보고 우리 지난 것 보면 아주 애기가 안 돼요, 그것은}

10214 @ 맞썌미다.{맞습니다.}

10214 # 그럼 애:기도 안돼:요.{그럼, 애기도 안 돼요.}

10214 # 우리 망내노믄 네:살짜린가 아장아장 거러댕길썌게 이우지 하라버지한테 갈따 요로케 노쿠썌 애썌 봐요 이러고 두리 그냥 나메 일가빠리믄 저녁때나 도라오자나요. {우리 막내놈은 네 살짜린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적에 이웃 할아버지에게 갔다가 요렇게 놓고서는 애 썌 봐요 이러고 둘이 그냥 남의 집 일하러 가버리면 저녁때에나 돌아오잖아요.}

10214 @ 네.{네}

10214 # 썌카마니 동네방네 혼자 도라댕기믄서 자라구 그래썌요.{새카마니 동네방네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라고 그랬어요.}

10214 # 그러케 썌따구요.{그렇게 썌다고요.}

10214 # 뭐 제대로 봐주고 어버주고 뭐 이런거 그런거 업썌썌요.{뭐, 제대로 봐주고 업어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없었어요.}

10214 @ 그래두 저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는 미역꾸근 그때는 머거썌요?{그래도 저,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는 미역국은 그때는 먹었지요?}

10214 # 그러믄뇨. 예예. 그 인제{그럼은요. 예예. 그, 인제}

10214 # 배가 만썌카게 되면 장에 가서{배가 만삭이 되면 장에 가서}

10214 @ 준비{준비}

10214 # 그때는 인제 상:가기라고 그래지요, 그거를.{그때는 인제 상각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10214 # 상:가기라구 그래요.{상각이라고 그래요.}

10214 @ 상:각.{상각}

10214 # 예. 그래 이러케 인제 그런 얘기를 해믄 거기서 아주 부러지지 안케 자알 저버서 휘어서 이러케 뿌뜨러매서 기:뜨란거를

10214 @ 예예, 미역{예예, 미역}

10214 # 예예.{예예}

10214 # 그럼 인제 그걸 이러케 휘어서 부뜨려 매친걸 그를 어깨에다 미구 가라나 그래믄 서 가져써 해날따 멩는데 인제 잘해주면 한 한넙 더 사다 해주고 모태주믄 그거 먹꾸 끝나구 그래쥬. 뭐.{그럼 이제 그걸 이러케 휘어서 붙들어 매친 것을 어깨에다가 매 고 가라나 그러면서 가져와서 해놔다가 먹는데 이제 잘해주면 한 입 더 사다가 해주고 못해주면 그거 먹고 끝나고 그랬지 뭐}

10214 # 그 별도로 고 고기라든가 뭐 달기라든가 이런거는 옴나옴 또 뭐 머그면 나쁘니 조으니 이런 소리가 마나가지구 {그 별도로 고기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또 뭐 먹으면 나쁘니 좋으니 이런 소리가 많아가지고}

10214 @ 예예.{예예}

10214 # 잘들 해지도 모타구. 그래쥬쥬. {잘들 하지도 못하고 그랬었쥬}

10215 @ 그럼 그때는 애들 배길이니 돌잔치 이런건 어떠케 해쥬미까? {그럼 그때는 애들 백일이니 돌잔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쥬니까?}

10215 # 배길: 가튼거 우리 사대로는 그 인제 그 쥬쥬 내가 잘못 쥬쥬했거지요. 부담되는 쥬쥬도 인꼬 그래기 때무네 {백일 같은 것은 우리는 그 이제 그 쥬쥬 내가 잘못 쥬쥬했던 거지요. 부담되는 쥬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215 @ 네.{네}

10215 # 마니 안해쥬요. {많이 안했어요}

10215 @ 예.{예}

10215 # 안해구 {안하고}

10215 # 이제 지베서 인제 그 팔단주 가튼거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팔단주 같은거 해서}

10215 @ 예.{예}

10215 # 이래서 인제 소소하게 식꾸끼리 모이거나 인제 저 사초니나 친지들 모이라구 그래서 이러케 하구 그래쥬요. {이제 소소하게 식꾸끼리 모이거나 저 사촌이나 친지들 모이라고 해서 이러케 하고 그랬지요.}

10215 @ 팔단주는 어떤걸 말함미까? {팔단주는 어떤 것을 말함니까}

10215 # 팔단주는 인제 그 수쥬가 이쥬요. 수쥬. {팔단주는 이제 그 수쥬가 있어요. 수쥬}

10215 @ 예예. {예예}

10215 # 쥬쥬믄 인제 수쥬가 농사가 안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쥬가 농사가 안되는데}

10215 # 옴날 농사는 인제 보리를 갈게 되면 망쥬때 올:때 인제 이게 누:러케 되요. 망쥬때가 되믄 {옴날 농사는 이제 보리를 갈게 되면 망쥬 때 올 때 이제 이게 누렇게 되요. 망쥬 때가 되면}

10215 @ 예예.{예예}

10215 # 보리 한가지 인제 다 되서 그때 다 쥬서 타자글 해면 {보리와 같이 이제 다 쥬서 그 때 다 쥬서 타작을 하면}

10215 # 그때 인제 소로다 갈믄 네가우쥬기루 두러기 딱 나옴미다. {그때 이제 소를 가지고 갈면 네 말 반지기의 두력이 딱 나옴니다.}

10215 @ 예.{예}

10215 # 나오믄 거기다 인제 콩을 심꾸 그 새새이 들개하구 {나오면 거기에 이제 콩을 심

고 그 사이사이 들깨하고}

10215 @ 수수 예예. {수수 예예}

10215 # 수수를 심씀미다. {수수를 심습니다.}

10215 # 그림 수수는 복판네다 드문드문 심꾸 {그림 수수는 복판에다 드문드문 심고}

10215 # 들깨는 양쪽 두조게다 {들깨는 양쪽 두 쪽에다}

10215 @ 아.{아}

10215 # 이러케 심머서 인제 여러가지로 복합찌그로 이걸 딱 키우몬 {이렇게 심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것을 딱 키우면}

10215 # 콩은 콩대로 뽀버 타자카고 들깻 들깨대로 하고 해는데 {콩은 콩대로 뽀아 타작 하고 들깨는 들깨대로 하고 하는데}

10215 # 수썰 찢라가지고 이걸 터러서 베껴가지고 빠뜨는 가루가 되자나요. {수수를 찢라 가지고 이걸 털어서 벗겨가지고 뺏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10215 @ 예예.{예예}

10215 # 그걸루 떠글 해요. {그걸로 떡을 해요.}

10215 @ 예.{예}

10215 # 그라몬 요르케 똥그라케 요르케 요르케 똥그라케 해서 찢가지구 빨간 파슬 찢서 굴립미다. {그러면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찢가지고 빨간 팔 을 찢서 굴립니다.}

10215 @ 예예.{예예}

10215 # 그걸 판단주라구 그래요. {그것을 팔단주라고 그래요.}

10215 @ 아. {아}

10215 # 그리씀미다. {그렇습니다.}

10215 # 그거를 인제 해줘서 백설기하구 판단주를 주로 그저 돌찌는 해서 먹찌요. {그것을 이제 해줘서 백설기하고 팔단주를 주로 돌 때는 해서 먹찌요.}

10215 @ 예.{예}

10215 @ 백설기는 어뜨케 {백설기는 어떻게}

10215 # 백설기는 인제 쌀:로만 방아르 찢어서 하얗게 해가지고 찢는 거시 그게 백설기 {백설기는 이제 쌀로만 방아를 찢어서 하얗게 해가지고 찢는 것이 그게 백설기}

10215 @ 아 쌀까루를 그냥 그대루 {아, 쌀가루를 그냥 그래로}

10215 # 예 예예. 찢끔두 그걸 마니 해먹찌요. {예. 지금도 그것을 많이 해먹찌요.}

10215 @ 네네.{네네}

10215 # 설기라구 그래서. {설기라고 그래서}

10215 # 저 찢 어떤때는 거기다 콩도 너코 뭘 그러기도 헨는데 {어떨 땐 거기다가 콩도 넣고 뭘 그러기도 헨는데}

10215 @ 그걸 저 뭍미까 백설기라고 안 하고 무슨 떠기라고 하기도 함미까? 혼떡? {그걸 저 뭍미까 백설기라고 안하고 무슨 떡이라고 하기도 함니까? 흰떡?}

10215 # 아니요. 흰떠근 정위레 멍는 가래떠글 {아니요. 흰떡은 정월에 먹는 가래떡을}

10215 @ 아, 네네.{아, 네네}

10215 # 흰떠기라고 불러꺼드뇨. 예예. 가래떠글 흰떠기다 흰떠기다 그래고 {흰떡이라고 불려거든요. 예예. 가래떡을 흰떡이라, 흰떡이라고 그랬고}

10215 # 하얗케 떡 떡까루 찢어서 이러케 치 위에다 찢 올려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백설

기라 그러고 {하얇게 떡가루 찢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썬 올려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백설기라 그러고}

10215 @ 그건 폭썬폭썬하이 그러치요? {그것은 폭신평신평하게 그렇지요?}

10215 # 그러치요. 예. 인제 그노든 대가 폭썬폭썬해서 인제 근 인저 물하구 먹꼬 인제 그러케 되요. {그렇지요. 예, 이제 그놈은 대가 폭신평신평해서 이제 물하고 먹고 이제 그렇게 되요.}

10215 @ 네 아.{네 아}

10215 # 힌떠근 인제 쓰러서 구글 꼬려야 먹게 되고 그러치요. {힌떡은 이제 썰어서 국을 끓여야 먹게 되고 그렇지요.}

10216 @ 그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또 쏘 말씀해주시지요. {그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해주시지요.}

10216 # 해해 해해 예. {해해 예.}

10216 # 며느리는 사우는 천째따리 사운데 {며느리는 사위는 첫째 딸이 사원데}

10216 @ 예{예}

10216 # 그 사돈냥바니 목싸예요. {그 사돈 양반이 목사예요.}

10216 @ 예.{예}

10216 # 예 우리가 산쌍찌페 갈따가 우리 교회 목싸니미 평양뿌닌데 공농진 목싸니미라고 아주 사람 그냥반하구 늦게까지 이씨른 사라미 더쫘 잘배워쥬텐데 하는 그런 생가글 해요. {예, 우리가 산상 집회에 갔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평양분인데 공농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사람 그 양반하고 늦게까지 있으면 사람이 더 쫘 잘 배웠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216 @ 네.{네}

10216 # 그 아버니미 목싸여썬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였었는데}

10216 # 그 목싸님 말씀대로는 목싸여썬는데 그 신도들한테 도장을 바더서 학교를 지언때 요. {그 목싸님 말씀대로는 목사였었는데 그 신도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학교를 지었 데요.}

10216 @ 아, 네.{아, 네}

10216 # 그랜는데 그게 비씨 되가지고 비쥬 안꼬 도라가시면서 니가 가파라 그랜때요. {그 랐는데 그게 빛이 되어서 빛을 안고 돌아가시면서 너가 갇아라 그랬대요.}

10216 @ 네.{네}

10216 # 그 냥바니 도니 업썬서 그 소를 가지고 뽀무를 떠서 평양갇따 내서 파러서 갑꼬 그랜때요. {그 양반이 돈이 없어서 그 소를 가지고 매물을 떠서 평양 갇다 내서 팔아 서 갇고 그랜대요.}

10216 @ 오 {오}

10216 # 그랜느라구 이제 나와서 여기서 장노를 서울 큰 교회 장노를 이러케 대니시다가 한 오썬 너머서 시신하글 해가지고 {그러느라 이제 나와서 여기서 장로를 서울 큰 교회 장로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한 오십 넘어서 신학을 해가지고}

10216 @ 예.{예}

10216 # 목싸가 되서 우리교회 가치 일편 부니거드뇨. {목사가 돼서 우리교회 같이 있던 분이거든요.}

10216 # 그래 그분하구 어드게 가치 이쥬썬썬게 거기 산쌍찌페를 간는데 {그래 그분하고 어



뭇게 같이 있을 적에 거기 산상 집회를 갔는데}

10216 # 인제 그 그부니 내가 그땐 좀 절머써꼬 그레이칸 이 갠찬케 뵈나봐요. {이제 그 분이 내가 그땐 좀 젊었었고 그러니까 갠창게 뵈나봐요.}

10216 @ 네.{네}

10216 # 이 인무리고 사라믈 그러니까. {인물이고 사람을 그러니까}

10216 # 아 그기 그 최장노만 그런게 아니라 딸도 잘 뵈따구 그레이칸 소개해달라 구래는 바라메 그 인제 소개가 되서 직접 저날 행떠라구요. {거기 그 최장로만 그런게 아니라 딸도 잘 뵈다고 그러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소개가 돼서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10216 # 그래 마만나가지고 저 출가를 해써요. 그랜떠니. {그렇게 만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10216 # 사실 뭇 교회하는 분드른 재정저그로 농촌모캐하믈 심들지 안믈미까? {사실 뭇 교회하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농촌 목회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1021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6 # 어렵게 저드리 시자글 행는데 시월똥에서 그 아가방으로 해구 이써요. {어렵게 저들이 시작을 했는데 신월동에서 그 아가 방을 하고 있어요.}

10216 @ 네네.{네네}

10216 # 인제 교회 다닐쥬 주일 학교를 해믈서 애드를 다루고 그래쓰니까 {이제 교회 다닐 때 주일 학교를 하면서 애들을 다루고 그랬으니까}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 인제 결혼씩행쥬도 고 애드리 엄청 마니 와서 이러케 호응해주구 그랜는데 아가방을 해구 이꾸 {결혼식 할 때도 애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랬는데 아가 방을 하고 있고}

10216 # 그 저 사우는 직짱엘 다니구 인꾸 {사위는 직장엘을 다니고 있고}

10216 @ 네.{네}

10216 # 이러케 하는데 두 아드리 이써요. {이렇게 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10216 # 아드리 인는데 하나는 성녕이라구 진꾸 하나는 호영이라구 지언는데 지금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성녕이라고 짓고 하나는 호영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10216 # 큰 아들 문제가 이누미 머:리가 이 판사람간쥬 아나요. {큰 아들 문제가 이 녀석이 머리가 다른 사람 같지를 않아요.}

10216 # 이 성경을 뭇 한 마태보금 한 두장 쥬도 일그믈 오이거나 막 이래던 앤데 {이 성경을 마태복음 한두장 정도 읽으면 외거나 막 그랬던 아인데}

10216 # 이게 커가니깐 머리가 월래 인제 비상해가지고 컴퓨터가지고 공부를 하구 이래서 빨리 가더라고요. {이게 커가니까 머리가 월래 비상해가지고 컴퓨터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서 빨리 가더라고요.}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래서 기대를 행는데 제 말로는 서울대하글 나와가지구 뭇 미구게 무어를 하구 이러케 쥬 계사늘 행나 본데{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제 말로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뭇 미국에 뭇를 하고 이렇게 쥬 계산을 행나 본데}

10216 # 시험을 한 번 보는데 무슨 일이 이쥬나 하면 저런 일이 이쥬때요. 그 {시험을 한 번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런 일이 있었데요.}

10216 # 다반지가 녀짱이라나 석짱인데 맨 똥짱을 몰르고 압페꺼만 다해구 다해구서 갇다 뉘때요. {답안지가 녀 장이라나 석장인데 맨 똥짱을 몰르고 앞에 것만 다하고 다하고 서 갇다 뉘때요.}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래가지구 그거 때메 그 무슨 점수라나 그 점수가 안나오게 된다고 이노미 학교를 그만 뉘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무슨 점수라나 그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고 이노미 학교를 그만 뉘썸요.}

10216 @ 아, 네.{아, 네}

10216 # 그래가지구 지베서 이러케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216 # 개때메 걱정이 자꾸 되는 거씨 그래가지구 시험을 보러 간는데 그때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구 다 잘 뉘는데 영어엔가 뭐가 {개 때문에 걱정이 자꾸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다 잘 뉘는데 영어인가 뭐가}

10216 @ 아아. {아아}

10216 # 점수가 제대로 안나와서 점수는 상당히 마니 나완는데 서울대학교에 진학 그 저거가 안 된게 그냥 포기를 해터라고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점수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 진학 그것이 안 된 게 그냥 포기를 했터라고요.}

10216 # 그래가지구 지금 나와서 올 보메 음 아니 지난 가을엔가 또 한번 두번 볼건데 두번째 갈제는 모미 완전히 안조아가지구 의사한테 면담해서 공부할 그런 데까지 안되다 그래가지구 모뉘꺼드뇨.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올 봄에 음 아니 지난 가을인가 또 한 번 두 번 볼 건데 두 번째 갈 때는 몸이 완전히 안 좋아서 의사한테 면담해서 공부할 그런 데까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10216 # 그래가지구 지금 애가 피아노를 해서 시냇똥 무슨 교회가 그 교회가니깐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마니 쓰이는가 봐요.{그래가지고 지금 애가 피아노를 해서 시냇똥 무슨 교회가 그 교회가니깐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가 봐요.}

10216 # 그럼 우리 교회에도 와 보더니 요번에 장년 칠년도에 새로 진 교회 피아노가 새로 드러완는지 쳐보더니 하라버지 이거 저의 다시 해가제때라 그러터라고요.{그럼 우리 교회에도 와 보더니 이번에 작년에 새로 지은 교회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는지 쳐보더니 할아버지 이거 저희 다시 해가자고 그러터라고요.}

10216 @ 예.{예}

10216 # 그러니깐 어디를 가나 여기 보는 분드론 보구선 그래는데 댄 사람드론 자꾸 끄러서 이걸또 시키구 저걸또 시키구 그러는가본데 그 목싸니미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여기 보는 분들은 보고서 그러는데 댄 사람들은 자꾸 끌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는가 본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10216 # 끄 찌가 확실히 밝힌대요. 난 재썸생이구 이런이런 형편에 인는 사라미니까는 이러타구 {꼭 지기가 확실히 밝힌대요. 난 재썸생이고 이런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다고}

10216 # 그런데두 자꾸 뉘 이름을 제 이저버려썸요. 뉘 뉘를 함전따가 그걸 시키구 막 그 그래가지구. {그런데도 자꾸 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뉘 뉘를 함 뉘었다가 그걸 시키구 막 그래가지고}

10216 # 교회 큰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구 {교회 큰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고}

10216 @ 피아노 반주 시키는군요. 자꾸 {피아노 반주 시키는군요. 자꾸}

10216 # 예.{예}

10216 # 그래 인제 요버네도 완파가 토요일날 저녁먹꾸 바루 가더라구요. 그래서 오래는 시허를 어떠케든지 봐서 갈라구 그래는데 {그래 이제 이번에도 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먹고 바로 가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을 어떻게든지 봐서 갈려고 그랬는데}

10216 @ 예예.{예예}

10216 # 개때메 걱정이예요. 인제 기도 제모기지요. 뭐. {개 때문에 걱정이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지요.}

10216 # 그 그러쿠 {그렇고}

10216 # 둘째따른 둘째따른 나이가 마니 머거서 출가를 해썬요. {둘째 딸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출가를 했어요.}

10216 # 내가 인제 아까 말씀대루 가이드를 하는데 그 농초네 인는 애자나요. {내가 아까 말씀대로 가이드를 하는데 그 농촌에 있는 애잖아요.}

10216 # 처으메 인제 현대가 여기 드러오면서 그때 양:정고등학교 조립쟁드를 일:기로 바다가지고 교유글 시켰꺼드뇨.{처음에 이제 현대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때 양정고등학교 졸업생들을 1기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10216 @ 네네.{네네}

10216 # 그래가지구 인제 그애들 쓸라구 교육또중에 애가 인제 나도 모르게 가서 시허를 봐가지고 인제 단국대학교 합껴글 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 쓸려고 교육도중에 애가 이제 나도 모르게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단국대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10216 @ 네.{네}

10216 # 끄래 우리는 인제 지 엄마는 못보낸다고 내하구 싸우고 드러눕꼬 나도 인제 못보낸다고 그래믄서도 욱씨메 기하나네 내가 도니 되면 갇다 대는 거고 안되믄 못때는 거다 이래가지구 {그래 우리는 이제 자기 엄마는 못보낸다고 나하고 싸우고 드러눕꼬 나도 이제 못보낸다고 그러믄서도 욱심에 기한 안에 내가 돈이 되면 갇다 내는 거고 안 되면 못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10216 # 그냥 인는데 된마을서 우리 큰누님 생지리 오더니 어디 아프세요? 이래서 {그냥 있는데 뒷마을에서 우리 큰 누님 생질이 오더니 어디 아프세요? 이래서}

10216 # 애 애가 합껴기 줌 합껴기 된는데 도니 업써서 그 못보낸다고 저라고 인는거다 {애가 합격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고 저라고 있는거다.}

10216 # 그래니깐 그라모 내가 주께 그래서 농허베 그날 가서 차저줘가지고 그날 가서 저 개봉동 가가지구 큰딸한테 그 종이를 차저서 읍찌로 가가지구 저녀게 후:무느루 드러 가서 그걸 내가지구 드러간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서 농협에 그날 가서 찾아줘서 그날 가서 저 개봉동 가서 큰 딸한테 그 종이를 찾아서 읍지로 가서 저녁에 후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 가지고 들어갔는데}

10216 # 우리가 잘때가 이썬요? 땡길때가 이썬요? 고생마니 헨썬요. {우리가 잘 때가 있어요? 다닐 때가 있어요? 고생 많이 했지요.}

1021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6 # 그러니까 저도 가서 뭐 별거 다 헨나봐요.{그러니까 저도 가서 뭐 별 것 다헨나봐요}

10216 # 커피판매기 땀기며 땀는 거또 하고 찌기 차장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 공부해쥬요.  
{커피 판매기 다니면서 땀는 것도 하고 차장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했지요.}

10216 @ 예.{예}

10216 # 그런데 인제 한다는 그 찌기 선배가 그 졸업만꼬 취직글 해니까 잘 안되니까  
안되다 시프니까 그냥 휴학계를 내구선 일보너 공부를 해가지구 일본대사관네 드나드  
는 공부해서 그때는 그때는 어마 한 삼천명하는데 뭐 열땀명뵈는대요. 기도해조. 뭐.  
{그랬는데 선배가 그 졸업 하고 취직을 하니까 잘 안되니까 안된 싶으니까 그냥 휴학  
계를 내고서는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드나드는 공부해서 그때는 아  
마 한 삼천명 중 열땀명을 뵈는데요. 기도했지요.}

10216 # 그래 그래 어뜨케 합격기 되쥬요. {그래 어떻게 합격이 뵈어요.}

10216 @ 네네.{네네}

10216 # 그래가지구 {그래가지고}

10216 # 그거가지구 지끔꺼지 사니까 개는 잘되쥬요. {그거가지고 지금까지 사니까 개는  
잘뵈어요}

10216 @ 예네.{예네}

10216 # 아드른 그 명지대학교 거거기서 용이네 인는데 드나들면서 대학글 가지고 지가  
시험쳐서 개두 개두 증말 하나님 은혜로 잘 되쥬요. {아들은 그 명지대학교 거기 용  
인에 있는데 드나들면서 대학을 가지고 자기가 시험쳐서 개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뵈지요.}

10216 # 저 춤에 합격쥬 가지구선 어떤 회사에 넌는데 그 회사에서 떠러절따 그래요. {처  
음에 합격쥬 가지고서 어떤 회사에 넣는데 그 회사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10216 @ 네.{네}

10216 # 그래서 그런데 이 현대 시험글 받떠니 현대 종합쥬그로 보는데서 인제 합격되  
가지구 현대개발로 완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 현대 시험글 뵈떠니 현대 종합쥬으로  
보는데서 이제 합격되가지고 현대 개발로 왔는데}

10216 # 먼쳐 널땀 데는 외러 부도가 날따 그러더라고요. {먼저 넣던 데는 도리어 부도가  
났따 그러더라고요.}

10216 # 현대개발바른 여태꺼지 그래도 말어쥬 지나면서 {현대 개발은 지금까지 그래도 말  
없이 지나면서}

10216 @ 그러치요. 예. 그러치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10216 # 성실하게 여기 이천서 어 저 용인서 또 저기 저 성동 종합 저기 저 성동구청종합  
청사 질꾸 이러는데 도라댕기더니 {성실하게 여기 이천에서 용인에서 저기 성동 종합  
청사 짓고 이러는데 돌아 다니더니}

10216 # 어뜨케 해서 지금 본사를 드러가가지구 근무하구 아들딸 남매 나아서 개두 저 며  
누리두 시낭 생활해서 저기서 저기 즈 금호 제일교회 {어떻게 해서 지금 본사를 들어  
가지고 근무하고 아들딸 남매 낳아서 개도 저 며느리도 신앙 생활해서 저기서 저기  
금호 제일교회}

10216 @ 예.{예}

10216 # 꼬 둘째말때메 내 방 어드러 도러뵈끼믄 방이 그냥 뭐 그 당신 여프로 드러가 잠  
만 자믄 되는데 인제 도니 업쓰니까{둘째 딸 때문에 내 방 얻으러 돌아다니면 방이  
그냥 뭐 그 당신 옆으로 들어가 잠만 자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10216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16 # 애들 둘하구 나하구 세씩꾸가 쟁일 도러 대니다가 교회우에 거길 어더가지구선 거기 들구 오늘 찌너게 여그와서 청년 청년부에 이제 등로캐라 그래가지구 {애들 둘하고 나하고 세 식구가 종일 돌아 다니다가 교회 위에 거길 얻어가지고 거기 들고 오늘 저녁에 여기와서 청년부에 이제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10216 # 그 금호 제일교회 어 목싸니미 아주 대단한 부니거더뇨.{그 금호 제일교회 어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

10216 @ 네.{네}

10216 # 거기서 자라니까 애드리 자라니까 애드리 반드타더라고요.{거기서 자라니까 애들이 반듯하더라고요.}

10216 @ 네{네}

10216 # 내두 머냥 가문 거가서 예배드리구 그리구 이래문서 말씀 마니 드러완는데 {나두 가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러면서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10216 # 반드타게 자라니까 그래두 어디가든지 그래두 그냥 그대루그대루 그냥 더 번게 나더라고요.{반듯하게 자라니까 그래두 어디가든지 그래두 그냥 그대로 그냥 더 번게 나더라고요.}

10216 # 그래 인제 망내따른 인저 그러케 되서 간호사로 인는데 {그래 이제 막내딸은 이제 그렇게 돼서 간호사로 있는데}

10216 # 사우는 여기 저기 현대 여 저기 저 지킴 거길 머라 그러나? 예 {사위는 여기 현대 저기 저 지금 거길 뭐라 그러나?}

10216 @ 하이닉쓰{하이닉스}

10216 # 하이닉쓰 생가기 만나서 하이닉쓰 과장예루 와서 이씨면서 또{하이닉스 생각이 만나서 하이닉스 과장으로 와서 있으면서 또}

10216 # 머 어떠니 어떠니 해도 그럭저럭 여태까지 그냥 그 이떠라고요.{뭐 어떠니 어떠니 해도 그럭저럭 여태까지 그냥 그 있더라고요}

10216 # 두리 직장생활을 하니까 괜찬케 사려.{둘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괜찬게 살어}

10216 # 망내만 이저 나이는 멉는데 결혼을 안해서 내가 저 사겨서 대니긴 다니면서도 안해서 애를 논는데 장녀네 내가 병:이 나서 병위네 이쓰니깐 거길 데려왔떠라고요.{막내만 이 저 나이는 먹는데 결혼을 안해서 내가 저 사귀어서 다니긴 다니면서 안해서 애를 낳는데 작년에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있으니까 거길 데려왔떠라고요}

10216 #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사랑해느냐?{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사랑했느냐?}

10216 # 그뿐떠니 조아한다 그래요.{그랬떠니 좋아한다 그래요.}

10216 # 결혼이라구 하는 거슨 두리 모여 그냥 사는게 아니고{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모여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10216 # 두사람이 한몫을 이루면 한사람의 부조칸거슬 채워줄쑈인은 보충해줄쑈인은 이런 사람드리 되야 끝까지 완고부동한 그런 가정이라네 채기물 가지고 사는거다 가고할쑈인냐? {두 사람이 한몫을 이루면 한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야 끝까지 확고부동한 그런 가정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사는 거다 각오할 수 있냐?}

10216 @ 예.{예}

10216 # 그러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러서 {그러더라고요}

10216 # 이제 그러면 오래가지 말고 이왕에 우리 부모니미 양부모가 만나서 인사는 하자  
그래가지구선{이제 그러면 오래가지 말고 이왕에 우리 부모님이 양부모가 만나서 인  
사는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10216 # 상견례를 하구서 이라구서 결혼씨글 해줘지요.{상견례를 하고서 이리고서 결혼씨  
글 해줬지요.}

10216 @ 네.{네}

10216 # 올 오월따래 사월따래 해써요.{올 오월 달에 사월 달에 했어요.}

10216 # 사월따래 해서 결혼씨캐가지구 지금 현재로는 그래 아드른 우리씨베 인꼬 {사월  
달에 해서 결혼식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 아들은 우리집에 있고}

10216 # 저 며느리는{저 며느리는}

10216 @ 허 떠러저 인썸미까? {떨어져 있습니까?}

10216 # 며느리는 친정에서 직장다니고 인꼬 {며느리는 친정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10216 @ 예예.{예예}

10216 # 그래서 주말부부예요. {그래서 주말부부예요}

10216 # 그러썸미다.{그렇습니다.}

10216 @ 아. {아}

10216 # 조금 쉬었따가 예. {조금 쉬었다가 예}

10222 # 에 우리지비 형님드른 그르케 살다가 다 일찍 세상을 떠써요. {우리 집이 형님들  
은 그렇게 살다가 다 일찍 세상을 떴어요.}

10222 @ 예. {예}

10222 # 약썸들 잡썸꼬 이래니깐 {약주를 잡숯고 이러니깐}

10222 # 우리 아버지는 예순여서세 도러가션는데 내가 이른두리자나요.{우리 아버지는 예  
순 여섯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일흔둘이잖아요.}

10222 @ 네.{네}

10222 # 그래서 살만치는 살안는데 지금 세대는 또 뭐 더 살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 도러  
가실썸께 내 쪼끄마서 이러케 봐두 더 사실썸 이인는데 끄썸카게 그냥 애달타헸는데  
{그래서 살만큼은 살았는데 지금 세대는 또 뭐 더 살기도 하고 그 때 아버지 돌아가  
실 적에 내가 쪼그매서 이렇게 봐도 더 사실 수 있는데 끄썸카게 그냥 애달프다고 했  
는데,}

10222 # 지금도 보면 사는 사람드른 뭐 보통 만치도 안치만 십년 이썸년 이러케 더 살구  
덜 살구 이런 차이가 인썸 안썸미까? {지금도 보면 사는 사람들은 뭐 보통 만치도 않  
지만 십년 이십년 이렇게 더 살고 덜 살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22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2 # 짐 칠썸썸에 우리 나이썸 인썸 주근 친구들도 며딘꼬 그런데 {지금 칠십썸에 우  
리 나이에 이제 죽은 친구들도 몇있고 그런데}

10222 # 산걸 이르케 도라다보니까{산걸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10222 # 내: 생각보다는 나미 부타칼썸께 드러주는 거시 유이기 되는 그런 과정드리 마나  
요.{내 생각보다는 남이 부탁할 적에 들어주는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  
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언제 언제 이거를 사거라 그럴썸께 그냥 비싼거 가타서 안사서 그냥 흘갑 너머가

그고 이런 과정드리 나메 권고해서 이리케 할찌게 그저 순수하게 너머가쑈 그 이리  
잘된게 아니난 그런 생각뜨리 참 마니 떠올르더라구요, {언제, 언제 이거를 사거라.  
그럴 적에 그냥 비싼 거 같아서 안사서 그냥 이런 과정들이 남에 권고해서 이렇게 할  
적에 그저 순수하게 넘어갔음 그 이리 잘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오  
르더라고요}

10222 # 그래 그 애들가리키는 과정에서두 그 우리 {그래 그 애들 가리키는 과정에서도  
그 우리}

10222 # 철썰 아드리 즈 누나 하나 대학까구 이꾸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 되가  
는데 중학교 나와가지고 이노미 뭐래는고 하니 수위니루 간대는 거예요. 수원 무슨,  
무슨 입법학뿐가 뭔가 안양인가 수위니루 간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자기 누나 하나  
대학가고 있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 되어가는데 중학교 나와서 이놈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 수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원 무슨 입법학교인가 뭔가 안양인가  
수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10222 # 에 아버지 형퍼느론 느들 두 군데를 살릴쑈가 업짖냐? 모텐떠니 {아버지 형편으  
로는 너희들 두 군데를 살릴 수가 없잖냐? 뭐라고 했더니}

10222 # 이노미 공부를 안해구 방황하구 그래니깐 이제 그{이놈이 공부를 안하고 방황하  
고 그러니까 이제 그}

10222 # 학교에서 선생님이 쪼쳐오고 그래더라구요.{학교에서 선생님이 쫓아오고 그랬더라  
구요}

10222 @ 네.{네}

10222 # 또 그런 과정드를 시켜내서 사라미 이게 이게 예:사네 먼저 죽지 말고 {또 그런  
과정들을 시켜나서 사람이 이게 예산에 먼저 죽지 말고}

10222 # 내가 살면서 활용하는 거니까 {내가 살면서 활용하는 거니까}

10222 # 심드려서들 제 해서 그 과정을 지켜서 미리쥬쓰른 더 나:쓸텐데{힘들어서들 제 해  
서 그 과정을 지켜서 밀어줬으면 더 나왔을 텐데}

10222 # 고만 잘모텐꾸나 하는 {그만 잘못했구나 하는}

10222 # 이런 지난 과거에 대한 내 내 내 과정에 사러온데 잘모탄거 끄런데 {이런 지난  
과거에 대한 내 과정에 살아온데 잘못된 거 같은데}

10222 # 사라른 사람사는게 다 초면이지 안쑈미까? {사람은 사람 사는 게 다 초면이지 않  
습니까?}

10222 @ 그러쑈미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10222 # 처음 사는거는 다 설거드뇨.{처음 사는 것은 다 낯설거든요}

10222 # 선진구게서 그 후진구게 오며는 돈뻘리가 마:는걸 누네 보이는 것처럼{선진국에서  
그 후진국에 오면 돈벌이가 많은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10222 # 사람 사는 겐또 살만치 사른 사라른 사라를 다 아는데{사람 사는 것도 살만큼 산  
사람을 다 아는데}

10222 # 애들한테 아르켜 줄래니깐 그게 메켜드리가지도 안코 알지도 모타고 {애들한테  
가르쳐 줄라니까 그게 먹혀들어가지도 앓고 알지도 못하고}

10222 # 또 받찌도 안터라구요.{또 받지도 앓더라고요}

10222 @ 그러쑈미다. 예.{그렇습니다. 예}

10222 # 그게 그러케 되더라구요. 그 사람 사는 과정이 그런가봐요.{그게 그렇게 됐더라고

요. 그 사람 사는 과정이 그런가 봐요}

10222 @ 그러게요.{그러게요}

10222 # 성경을 기:피 이러케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는 거기서 깨다르를 주어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는 거기서 깨달음을 주어서}

10222 # 생각하믄서 사라미 댜지 이런거를 어 생각하며 이러케 해보면{생각하면서 사람이 댜지 이런거를 생각하며 이렇게 해보면}

10222 # 그췌 사라믄 순췌하고 자그만 말 한마니래도 남한테 더글 끼칠췌 인는 이런췌그로 사라가는게 평췌 그게 순췌하게 사라따라{그저 사람은 순수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살아가는 게 평생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다.}

10222 @ 예예 바른췌그로 사는게 그래도 제일 낫췌요.{예 바른 쪽으로 사는게 그래도 제일 낫췌요}

10222 # 그러는 수바께는 업떠라구요.{그러는 수 밖에는 없떠라구요}

10222 # 그이 혹 혹까다가 혹까다가그로 술가튼거 머거가지구 인제 고치지 모탈 그러데꺼지 중독자들 이러케 보면 {그이 혹 가다가 술 같은 거 먹어가지고 이제 고치지 못할 그럴 때까지 중독자들 이렇게 보면}

10222 # 사라믄 백까지로 다: 췌찬는데 조은 사라민데 고 한가지거드뇨.{사람은 백까지로 다 췌찬는데 좋은 사람인데 그 한 가지거드뇨}

10222 @ 네.{네}

10222 # 인제 췌고 한가지를 내가 내 췌가그로 이견 아니다 내가 이결 안해야지 내가 사람노르타구 제대루 살췌따라구 {인제 그거 한 가지를 내가 내 췌각으로 이견 아니다 내가 이결 안해야지 내가 사람노릇하고 제대로 살췌다라고}

10222 # 고 췌강만 머그믄 되는데 안되거드뇨.{그 췌각만 먹으면 되는데 안되거드뇨}

10222 @ 그게 잘 안되췌요.{그게 잘 안되췌요}

10222 # 그래 내가 어떤 사람 붙들고도 그래췌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 붙들고도 그랬어요}

10222 # 백췌짜리여 남한테 시뻘받췌 인정받췌 말하믄 드리주고 이럴 췌라르로 살텐데 {백췌짜리요. 남한테 신임 받고 인정받고 말하면 들어주고 이럴 사람으로 살 텐데}

10222 # 그거 때메 그랜떠니 그건 아니라구 {그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10222 # 안 머그게 이래니 무얼 안머거 또 먹췌.{안 먹을게 이러니 무얼 안먹어 또 먹지}

10222 # 내가 한 삼췌보세꺼지 수를 머거본 사라미기때메 수를 먹췌 이는걸 잘 알아요. {내가 한 35세까지 술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이런 걸 잘 알아요}

10222 @ 예.{예}

10222 # 절때루 그건 몬 끈꺼드뇨. 예 교훔 갠따가 특뻘란 이를 당해가지고 아니다 이 믿기 췌자카면서 {절대로 그건 못 끊거드뇨. 교회를 갔다가 특별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니다 이 믿기 시작하면서}

10222 # 그날서부터 교회나가기 시작해면서 술하고 담배하고 배 아파서 먹뻘 약까지 세가지를 췌너췌요.{그날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술하고 담배하고 배 아파서 먹뻘 약까지 세 가지를 끊었어요.}

10222 @ 예.{예}

10222 # 그래가지구 버티구 나오다가 나이가 머그니까 어떠케 이러케 병이 오네요.{그래가



지고 버티고 나오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이 오네요.}

10222 @ 그런 계기는 구체저그로 어떤 거써어씀미까? {그런 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0222 # 저기{저기}

10222 @ 술꾼꼬 이제 담 담배꾼꼬 이러케 된 계기가{술끓고 이제 담배끓고 이러케 된 계기가} 10222 # 술꾼쿠 담배꾼쿠 그래는거는 그 시낭쟁화를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술끓고 담배끓고 그러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222 # 칠십년대 초바는 교회에서 부흥지뽀라구 {70년대 초반은 교회에서 부흥집회라고}

10222 @ 네.{네}

10222 # 마니 해썌요. {많이 했어요}

10222 @ 네. {네}

10222 # 인제 지 {인제}

10222 # 산성패도 이썌꼬 오일룩팡장에서 그 저이 {산성패도 있었고 516팡장에서 그}

10222 @ 예.{예} 10222 # 궁미녀납 지뽀또 이썌꼬 이런 지뽀드리 이썌는데 {국민연합 집회도 있었고 이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10222 # 그 지뽀에서 가머는 그 {그 집회에서 가면 그}

10222 # 목싸님드리 영썌그로 확썌하게 티인 분드리 말썌를 전하거드뇨.{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확썌하게 트인 분들이 말썌를 전하거드뇨.}

10222 @ 예.{예}

10222 # 근데 이거썌 나에게 제대로 바다드려질썌게는 나라는 자체가 완전히 속까지 깨다르미 오자나요. 이견 아니다라는 그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적에는 나라는 자체가 완전히 속까지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견 아니라는 그게}

10222 # 그러니까 사라미 완전히 바끼지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요.}

1022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2 # 내가 생가카고 이거썌다라도 바라고 할뽀 거뜨리 다 인제 일반저길 보믄 도로 그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다라고 바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믄 도로 그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10222 # 나 자신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나 자신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0222 # 꼬에 인제 그거때무네 완전 주일 성썌하게 되니까 주일 성썌하면 말썌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완전 주일 성수하게 되니까 주일 성수하면 말썌를 지켜야 되는데}

10222 # 지금 지금 예 감니교인들 뽀 오천교회 썌저 백오썌만 신도니 뽀 이러케 하고 인는데 {지금 감리교인들 뽀 5천 교회 150만 신도니 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222 # 그 말썌를 지키는게 다 지키질 모타지만 할 썌인는 거들 모타는 분들도 만커드뇨. {그 말썌를 지키는게 다 지키질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분들도 많거드뇨.}

10222 @ 그러썌미다. {그렇습니다}

10222 # 예를 드려썌 {예를 들어서}

10222 # 술멍는게 죄냐 그러는데 내가 {술먹는게 죄냐 그러는데 내가}

10222 # 우리 식꾸드리 수를 마니 먹꾸나도 마니 먹뽀 사라미기 때메 성경을 노코 다 삭: 술에 대한 거썌 {우리 식구들이 술을 많이 먹고나도 많이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놓고 다 술에 대한 것들}

10222 @ 네.{네}

10222 # 뭐 성경에는 일키일키일투조기 모든 사람 살때 대헨거슨 다 그 쏘게 이쓰니까  
{뭐 성경에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 삶에 대한 것은 다 그 속에 있으니까}

10222 @ 그러썬미다. {그렇습니다.}

10222 # 사라보니까 종교로는 결국 보지도 말라는거예요. 먹찌말라는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종교로는 결국 보지도 말라는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0222 @ 네.{네}

10222 # 예:수님두 뭐 수를 머건는데 으이 저기 저 사라미 머그면 어떠냐? {예수님도 뭐  
술을 먹었는데 저기 저 사람이 먹으면 어떠냐?}

10222 # 그건 그건 편씨미구 으 자기 주장이지 아니거드뇨. {그건 편심(偏心)이고 자기 주장  
이지, 아니거든요}

10222 # 근데 이제 그거에 가서 내막찌그로 기피 파고보면 우리 일쌍생활쑈게서 무슨 이  
리 나나 하면 {근데 이제 그거에 가서 내막적으로 깊이 파고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나냐하면}

10222 # 멀쩡헨편 구고 먹꾸 먹꾸 그래다가 그 소게서 그 수레 대한 아주 몹쓸사라므로  
이러케 되서 폐인되는 사라드리 마니 이꺼드뇨. {멀쩡헨편 그거 먹고 먹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그 술에 대한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10222 @ 그 예. {그 예}

10222 # 끄림 그 사람뿌니 아니라 그 가정이 완저니 아주 으냥 엄청나게 어려움쑈게 빠저  
드는데 {그림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이 완전히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빠져드  
는데}

10222 # 그거시 뭇때메 오느냐 {그것이 뭇 때문에 오느냐}

10222 # 내가 수를 머그면서 애들보구 수를 사오라 그래가지구 {내가 술을 먹으면서 애들  
보고 술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10222 # 술쭈전자 가져오든 마시면서 가치먹꾸 이래 명는거까지는 조은데 그 소게서 그런  
사라미 나온다는 거지요. {술쭈전자 가져오면 마시면서 같이먹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는 좋은데 그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그래서 {그래서}

10222 # 병위네 가며는 술 한자는 머거도 켜찬타 그래요. {병원에 가면 술 한잔은 먹어도  
켜찬다 그래요.}

10222 @ 네 쪼끔만. {네 조금만}

10222 # 예. 그런데 나는 그거썬 그 의사는 잘못된 의사가 생가캐요. 내가 신앙썰화를 하  
기때메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 의사는 잘못된 의사라 생각해  
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10222 @ 예예{예예}

10222 # 왜냐하면 한잔 머그래는 거는 뭇냐면 의사는 감기약이든 아스피린 아스피린이구  
해열제면 해열제 이러케 먹꾸서 요고 한번 먹꾸 점심때 가서 머거라 {왜냐하면 한잔  
먹으라는 것은 뭇냐면 의사는 감기약이면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이고 해열제면 해열  
제 이렇게 먹고서 이거 한번 먹고 점심때 가서 먹어라}

10222 # 또 한번 먹꾸 저녁게 가서 머거라 아니든 아침 먹꾸 저녁게 머그라해. {또 한번

먹고 저녁에 가서 먹어라 아니면 아침 먹고 저녁에 먹으라해}

10222 @ 예.{예}

10222 # 요골 시가늘 지켜서 고 시간 내에 고계 효과가 나는거거든요. {이걸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 내에 고계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10222 # 그럼 한잔 머그래는건 따카자나. 내 내거든요. {그럼 한잔 먹으라는 것은 딱하잖아. 내가 내거든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끈디 수리래는건 도대체 아무래도 세상업는 사쌍람도 머건때문 한잔 멍는 사라미 업써요. {그런데 술이라는 건 도대체 아무래도 세상업는 사람도 먹었다면 한잔 멍는 사람이 없어요}

10222 # 그거는 왜냐하든 내 자시니 절제도 안될 뿐더러 여페 짜라미 멍는걸 알든 권한는 걸 뿌리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거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절제도 안될뿐더러 옆에 사람이 멍는 걸 알면 권한는 것을 뿌리치기도 어려울뿐더러}

1022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2 # 다 묘:한 관계가 되이써가지고 조금 기폰쪼그로 하면 이거는 그 영쪼그로 분석해 보든 이건 조치야는데서 지시하는 걸루 그러케바께는 볼쑤는 업써요. {다 묘한 관계가 되 있어가지고 조금 깊은 쪽으로 하면 이거는 그 영적으로 분석해 보든 이건 좋지 않은 데서 지시하는 걸로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10222 @ 예예. {예예}

10222 # 나는 {나는}

10222 # 그래서 그런 그건 이러케 하며는 아주 꼬 어떤 쪼게서는 뭘 어떻게 생각할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어떤 쪽에서는 뭘 어떻게 생각할른지는 모르지만}

10222 # 하여튼 그런 머네 대해서는 우리애들한테는 내가 유:언하다시피 하는거예요.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유언하다시피 하는거예요}

10222 # 절때로 여기는 아니다. 그 그게 옛날에 하:도 먹꼬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침메 한잔 갑다 대저패서 그거 반주로다 한잔 딱 잡쑤고는 {절대로 여기는 아니다. 그게 옛날에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한잔 가져다 대접해서 그거 반주로 한잔 딱 잡쑤고는}

10222 # 참 그 내놀만한거구 자랑할만한거구 위세할만한거구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사라왈찌만 {참 그 내어 놓을 만한 거고 자랑할 만한 거고 위세할 만한 거고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10222 # 실쪼쪼그로 파아캐보든 쪼끔 세대는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든 지금 세대는 아니예요.}

10222 @ 그러케 할 쑤가 업쪼. {그렇게 할 수가 업쪼}

10222 # 그래. {그래}

10222 # 그거가지고는 꺼쑤가 업써요. {그거가지고는 꺼 수가 업써요}

10222 # 그럼 모르게써요. 우리아드든 나가 멍는지는 몰러두. {그럼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나가서 멍는지는 몰라도}

10222 # 전연 우리지벤 뭘 그 {전혀 우리집엔 뭘 그}

10222 @ 예. 분위기가 지반 분위기가 그러면 또 {예,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또}

10222 # 예.{예}

10222 @ 자제하게 되지요. {자제하게 되지요}

10222 # 그 근데 사우드론 오면 뭐 {그런데 사위들은 오면 뭐}

10222 # 심썸해가나 그럴런지는 모르지요. 그리구 우리 {심심하거나 그럴런진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

10222 # 그 조카애들도 둘째 형님네 애들도 가보든 저들끼리 뭐 화투하구 뭐하구 얘기하구 그랜는데 {그 조카애들도 둘째 형님네 애들도 가보면 자기들끼리 뭐 화투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10222 # 얘기 자 자채가 아무케도 {얘기 자채가 아무래도}

10222 @ 음. {음}

10222 # 방향이 틀리지요. {방향이 틀리지요}

10222 @ 네.{네}

10222 # 저들 얘기하는거하고 우리 얘기하는거 하구 {저들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얘기하는 것하고}

10222 # 그때 그 교회나가서 생전 처음 교회를 가쥬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 나가는데 나는 안나가구 {그때 그 교회 나가서 생전 처음 교회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안나가고}

10222 # 동네 사람드리 가자구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박썰랜편 사라민지 내 대한민구기 바미 도으라도 난 교회 안간다. {동네 사람들이 가자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박썰했던 사람인지 내 대한민국이 밤이 돌아도 난 교회를 안 간다.}

10222 # 그래던 {그랬던}

10222 @ 예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10222 # 예 그래던 사라미거드뇨. {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10222 # 그랜는데 또 우에하니까 가보구 시픈 생각뚜 이꾸 사라미 이러케 되니까 한번 가쥬요. 날썰되하는데 간는데 {그랬는데 또 어찌하다 가보구 싶은 생각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갔어요. 낮집회하는데 갔는데}

10222 # 거그서 말:쓰를 듣는데 자꾸 내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아니라는 것이요.}

10222 # 내가 이제 사러온 과정들이 {내가 이제 살아온 과정들이}

10222 @ 예예.{예예}

10222 # 아니다라구 이래서 {아니다라고 이래서}

10222 # 기도하면서 이제 다 설교다하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다 설교다하면 기도하는데}

10222 # 딴 사람들 기도하구 그랜는데 나두 이제 내가 기도해봐서 내가 예수니를 만나든 믿꼬 안만나든 안 믿는다고 {딴 사람들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내가 기도해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믿고 안 만나면 안 믿는다고}

10222 @ 네.{네}

10222 # 이래면서 기도한거시 {이러면서 기도한 것이}

10222 # 그때 일:루다가 이제 그때는 막 그 지끔 말로 해든 뭐 성서저그로 방언한다구 그러구 {그때 일로다 이제 그때는 지금 말로 하면 뭐 성서적으로 방언한다고 그러고}

10222 # 그 이제 입썰한다구 그래구 막 그랜데 {이제 입신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10222 # 그 인제 어느 정도에 내가 그런 이를 당해서 {그 언제 어느 정도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10222 # 으르루 양에루 보이지 안케 하나니몬 사라메게 영향을 끼치는 무어가 일꾸나. 그래서 인제 믿기를 시작해썬요.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믿기를 시작했어요}

10222 @ 아주 짧은 시가네 바뀌게 되어꾸뇨. {아주 짧은 시간에 바뀌게 되었군요}

10222 #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예}

10222 # 그 딱 한시간또막 갈따가 믿기 시작해썬요. {그 딱 한 시간 꼬박 갔다가 믿기 시작했어요}

10222 # 그래가지구 그때는 이 굴량교회데 굴량이:리에 교회가 이썬요. {그래가지고 그 때는 이 군량 교회인데 군량2리에 교회가 있어요}

10222 @ 네네.{네네}

10222 # 교회도 초라하고 식꾸도 멸 안되요. {교회도 초라하고 식구도 몇 안되요}

10222 @ 네. {네}

10222 # 호썬가 자거요. {호수가 작어요}

10222 @ 예.{예}

10222 #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시자캐가며서 바로 노인네들한테 쫓쳐 땡기 내 도대체 그 압꼬르른 교회가 선는데 우리 큰 동네 왜 교회가 업썬냐?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 가면서 바로 노인네들한테 쫓아 다녀 내 도대체 그 앞 고을은 교회가 섰는데 우리 큰 동네는 왜 교회가 업썬냐?}

10222 @ 예.{예}

10222 # 아까 얘기한대로 고그는 장터가 이썬때요.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는 장터가 있었는데요} 10222 @ 예, 네.{예, 네}

10222 # 그래니깐 아마 사라미 모이는 데니까 선교사가 와썬나봐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선교사가 왔썬나봐요}

10222 @ 예.{예}

10222 # 장노가 되가지구 지방에 땡기며 장호원교회 이:천 중앙교회 모대 장노드리 자기네 교회드리 먼쳐 섰는거예요. 이제 {장로가 되어서 지방에 다니며 장호원교회 이천 중앙교회 장로들이 자기네 교회들이 먼져 섰다는거예요}

10222 @ 예.{예}

10222 # 그래더니 백썬년 기념메배하는 데 굴량교회가 썬 먼쳐 하자나요. 우리 이:천 지여게서. {그랬더니 백썬년 기념메배하는데 군량교회가 제일 먼져 하자나요. 우리 이천 지역에서}

10222 @ 네네.{네네}

10222 # 그래니까 선교사가 와서 거기가 시장이 서구 그래쓰니까 지얼따라구 인제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거기가 시장이 서고 그랬으니까 지었다고 이제}

10222 # 내가 판단을 하는거예요. 노인네드룬 그 시장이 섰따구그래구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그 시장이 섰다고 그러고}

10222 @ 예예{예예}.

10222 # 거기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제일 먼쳐 이:천 썬여게서 세운 이유가 그거썬 아니냐? {거기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제일 먼져 이천 지역에서 세운 이유가 그것이 아니냐?}

냐?} 10222 @ 네.{네}

10222 # 그러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222 # 그 그 지역에서 그 백주년 기념예배 드릴쨌게 {그 지역에서 그 백주년 기념예배 드릴쨌게}

10222 # 이:천 그 고등학교 김동원 목사님미 그 교장이거드뇨. {이천 그 고등학교 김동원 목사님이 그 교장이거든요}

10222 @ 네.{네} 10222 # 고등학교 교장 그부니 인제 {고등학교 교장 그분이 이제}

10222 # 에 중앙교회에서 인제 제일학교하구 이래다 인제 또 학교를 시자캤따구 그래요. {중앙교회에서 이제 제일학교하고 이래다 이제 또 학교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10222 # 그부니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때는 교통편이 안조으니까 안성서부터 거기서 오다가 여기 저기 군들장터에서 쉬어서 이 {그분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때는 교통편이 안조으니까 안성에서부터 거기서 오다가 여기 저기 군들 장터에서 쉬어서 이}

10222 @ 음, 예예.{음, 예예}

10222 # 여주로 가서 배를 타구 서우를 가는 나루를 드나드는 {여주로 가서 배를 타고 서우를 가는 나루를 드나드는}

10222 @ 네.{네}

10222 # 길또여쨌따. {길이엇었다}

10222 @ 아. {아}

10222 # 그러케 얘길해거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제}

10222 @ 네네.{네네}

10222 # 발로만 댕기구 말로 말타구 댕기구 그랴쨌 그런 얘기를 해더라고요. {발로만 다니고 말로 말타고 다니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222 @ 아. {아}

10222 @ 그랴쨌군요. {그랴쨌군요}

10222 # 아 그래가지구선 {아 그래가지고서는}

10222 # 우리가 인제 거기를 나가는데 한 한 열뎡명 되쨌요. {우리가 이제 거기를 나가는데 한 열뎡명 땀어요}

10222 # 연규태 목사님미라구 여녕은 나하구 거진 비쓰텐 부닌데 {연규태 목사님이라고 연령은 나하고 거의 비슷한 분인데}

10222 # 이냥바니 그 아주 툅 툅쨌하게 인제 교회를 잘 그러케 뭐 잘하시더라고요. {이양반이 그 아주 독실하게 이제 교회를 잘 그렇게 뭐 잘하시더라고요}

10222 # 이부니 어떤 장자꾸니 한분 이동넬 완따가 {이분이 어떤 장사꾼이 한분 이동네를 왔다가}

10222 # 우리 집싸라마고 우리 지부에 인는 두부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지부에 있는 두 분이}

10222 # 그 방에다 예수님 사지를 간따 거러노니까 아 여기두 교회댕기는 부니 인따구 그래 인제 우리 집싸라미 생전 교회는 어딘지 알지도 모타구 새 새대기니까 껌껌하다가 그래니깐 그냥 펄쩍 나시니깐 거기서 인제 가서 얘기를 해가지구 {그 방에다 예수님 사지를 갖다 걸어놓으니까 아 여기두 교회다니는 분이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생전 교회는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새댁이니까 껌껌하다가 그랬니까 그냥 펄쩍 나시니까 거기서 이제 가서 이 얘기를 해 가지고}

10222 @ 아. {아}

10222 # 거기서 인제 목싸니미 식꾸드를 데리구 대동해서 여기 이장찌비 와서 인제 예배를 드리구 말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식구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여기 이장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쓰를 해서}

10222 # 여기 추카 전도 좀 하겄따고 이래가지구 교회 전두를 헨 거시 한 대여섯까정 되가지구 거길 다녀서 한 열뎨까정 되네 그때 인제 이천중학교에서 인제 목싸니를 한분 파송해서 여기다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 축하 전도를 좀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전두를 한 것이 한 대여섯까지 되가지고 거길 다녀서 한 열뎨까지 되네 그때 이제 이천중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을 한분 파송해서 여기다 교회를 지었는데}

10222 # 교회 압찌비 교회루 고 교회 압찌비 우리 지비거드뇨. {교회 앞집이 교회로 앞집이 우리 집이거든요}

10222 @ 네네. {네네}

10222 # 고기 살면서 초가삼칸 사가지구 복판 혈구 예배드리다가 {거기 살면서 초가삼칸 사가지고 복판 혈고 예배드리다가}

10222 # 그거 혈구 인제 벌떠네 가서 벽돌로 찌거다가 {그거 혈고 이제 개울가 빈터에 가서 벽 돌을 찍어다가} 10222 @ 아. {아}

10222 # 모래 시러다가 손쭈 지어짜나요. {모래 실어다가 손수 지었자나요}

10222 @ 예.{예}

10222 # 그래구 인제 주택 진는데 주택근 {그리고 이제 주택 짓는데 주택은}

10222 # 인제 호리가다 파구선 이:천가서 가다 세: 내다가 인저 전:부 두드려 맞춰노쿠 교인들 불러다가 인제 자가를 개서 너쿠 이라구선 {이제 땅을 네모로 파고서는 이천으로 가서 세를 내다가 이제 전부 두드려 맞춰놓고 교인들 불러다가 이제 자갈을 개어서 넣고 이리고서는}

10222 # 이:천서 내 매부가 건축거블 해요. {이천서 내 매부가 건축업을 해요}

10222 @ 네.{네}

10222 # 그사라를 시키 시키니까는 그 사람들 씨킨 사람들 부리는 사람드리 와서 다 싸주구 간 뒤에 {그 사람을 시키니까는 그 사람들 시킨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다 싸주고 간 뒤에}

10222 # 시병 와서 해 저서 그래서 {지금 와서 해 줘서 그래서}

10222 # 그 사라미 진는거 마냥 지니까 인부들 와서 일 잘해주고 {그 사람이 짓는거 마냥 지으니까 인부들 와서 일 잘해주고}

10222 # 우리는 우리대루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하구 그래 그 사람한테 대까도 하나 안해쓰면서도 그러케 저찌요.{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하고 그래. 그 사람한테 댓가도 하나 안했으면서 그렇게 지었지요}

10222 # 아페 교육파는 지얼따가 허런는데{앞에 교육관은 지었다가 헐었는데}

10222 # 그거슬 허 교육관 질 때는 그 목싸님하구 나하구 다 지어짜나요. {그것을 교육관 지을 때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 지었잖아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싸서 바다카구 벼카구 {싸서 바닥하고 벽하고}

10222 # 그래 내가 일 나메 일 땡기며 뭐 한다구 그런거는 통 안해받는데 우리집 빨간 벽돌 싸쿠 그런건 그 내소니로 다 한거예요. {그래 내가 일 남의 일 다니면서 뭐 한다}

고 그런것은 통 안해봤는데 우리집 빨간 벽돌 쌓고 그런 것은 그 내 손으로 한거예요}

10222 @ 예.{예}

10222 # 웬만한 이를 전기로든 내가 다 지버너쿠 다 해요.{웬만한 일을 전기로면 내가 다 집어넣고 다 해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그러이간 소지른 좀 이찌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목쭈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소질은 좀 있지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목수라 그런지는 몰라도}

10222 @ 그러네요. 예예. {그러네요. 예예}

10222 #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 부리구 뭐 곤치고 이래는거뜰 웬만한 건 웬만한 건 다 내가 그냥 곤쳐서 쓰구 이래기 때메 {그래서 우리 이 기계 부리고 뭐 고치고 이러는 것들 웬만한 건 다 내가 그냥 고쳐서 쓰고 이러기 때문에}

10222 # 기계가튼건 보통 쓰든 문케도 한 씬년 너머가게 다 쓰구 인꾸 그러니까 {기계같은 것은 보통 쓰면 못해도 한 십년 넘어가게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10222 @ 네네.{네네}

10222 # 그래가지구 지나다가 지나다가 그 평생에 인제 교회는 하나 지어노쿠 주거야되게 따 하는 그런 마으를 가지구 인따가 {그래가지고 지내다가 그 평생에 이제 교회는 하나 지어 놓고 죽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0222 # 그 이:천칠련도에 보메 시자기 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그 2007년도 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10222 # 저 교회가 우리가 지른 저러케 물건짜나요.근데 우리 아:드리 인제 건축거블 하니까 {저 교회가 우리가 지으면 저렇게 못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건축업을 하니까}

10222 @ 예예. 현대 개발 이르프로다가 인제 어떤 회사하구 해서 인제 회사에서 와서 그걸 진는데 {예예. 현대 개발 이름으로다 이제 어떤 회사하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와서 그걸 짓는데}

10222 # 그 아이구 무슨 공빠비에요 그 소게 철사 들구 여페 저거뜨른 그 이르를 내가 이저버런네 {그 아이고 무슨 공법이에요. 그 속에 철사 들고 옆에 저것 들은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10222 # 여페는 스치로푸가 이러케 드른 이런 거슬 갑따 대서 찌거매가지구 {옆에는 스치로폼이 이렇게 든 이런 것을 갖다 대서 찍어 매가지고}

10222 @ 아. {아}

10222 # 분떠라구요. {붓더라구요}

10222 @ 네.{네}

10222 # 그래서 그 저 노출공빠비래나 그래문서 이 저거를 거테 칠도 안하고 그냥 나오게 이러케 지어서 해놔는데 {그래서 그 저 노출공법이라나 그러면서 이 저것을 곁에 칠도 안하고 그냥 나오게 이렇게 지어서 해놔는데}

10222 # 목싸님드리 와보더니 신:형이래요. 신씨그로다 농초네 이러케 잘 지었따구. {목사님들이 와 보더니 신형이래요. 신식으로 농촌에 이렇게 잘 지었다고}

10222 # 저희가 봐도 잘 지어쎄요. {저희가 봐도 잘 지었어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교회는 참 지어따구요. {교회는 참 지었다고요}

10222 # 식구가 만칠 아나요. {식구가 많지 않아요}

10222 # 장노가 부실해서 선도 쌀물 모태가지고 {장로가 부실해서 선도 쌀을 못해가지고}

10222 @ 지금 신:도가 그르믄 {지금 신도가 그러면}

10222 @ 뎌뿌니나 됩미까? {몇 분이나 됩니까?}

10222 # 야칸 오십명정도 되요. 한오십명정도 {약 한 오십명정도 되요. 한 50명정도}

10222 # 그대로 인제 교회는 인제 우녕하고 이쓰니까 {그대로 이제 교회는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10222 # 그래 그 인제 {그래 그 언제}

10222 # 아래층은 아래층은 새벽기도 하고 {아래층은 새벽기도 하고}

10222 # 주일학교들 모이고 {주일 학교들 모이고}

10222 # 또 식당점 이러케 쓰구 인꼬 {또 식당점 이렇게 쓰고 있고}

10222 # 중간 층에는 이저 교회예배실 행는데 {중간 층에는 교회 예배실 했는데}

10222 # 영상 시설로 인제 마니 부흥되믄 사방에서 볼썩 이또록 {영상 시설로 이제 많이 부흥되면 사방에서 볼 수 있고록}

10222 @ 예.{예}

10222 # 이러케 하구 인제 삼층에는 지금 삼층하나를 여서 이러케 해노쿠 그 그래 그래도 그 {이렇게 하고 이제 삼층에는 지금 삼층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3층에는 지금 3층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 그래도 그}

10222 # 건축 하는 사람드리 아무캐도 이런 초:네서 땡기며 집 진는다고 사람들 갇질 아느냐 {건축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촌에서 다니며 집 짓는다고 사람들 갇질 않으니까}

10222 @ 네.{네}

10222 # 깨끄타게 잘해놔썩요. 다. {깨끗하게 잘해놔어요. 다}

10222 # 공구리 불 찍마다 지가 와서 보구선 해라구 그래믄 해구 이러케 해쓰니까 {콩크리트를 부을 적마다 자기가 와서 보고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10222 # 곧잘 해버려두 자알 지어놔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곧잘 해버려도 잘 지어놔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10222 @ 아 뭐 쩌 중노하고 크니를 하션꾼노. {아 뭐 저 중요하고 큰일을 하셨군요}

10222 # 예, 그 교회가 인제 처소는 이씨야 되니까 {예. 그 교회가 이제 처소는 있어야 되니까}

10222 @ 그러썩미다. 예. {그렇습시다. 예}

10222 # 모여서 예배드릴 처소는 이씨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처소는 있어야 되니까}

10222 # 그러케 하믄 어제도 와서 그래요. 제 말로는 교회는 아버지 잘 지어짜나요. 아무캐도 이뱅녀는 갇텐데. {그렇게 하면 어제도 와서 그래요. 제 말로는 교회는 아버지 잘 지었잖아요. 아무래도 200년은 갇텐데}

10222 @ 예예.{예예}

10222 # 그러케 얘기를 해더라구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0222 # 그이 제일 처음에 지가 조아하는건 뭐내믄 바닥 {제일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바닥}

10222 # 그 위가 이러케 싸악 끌끄니깐 질:두 업꾸 그냥 생 생땅만 삭 나오니까 {그 위가

이렇게 싹 굵으니까 진흙도 없고 그냥 생땅만 싹 나오니까}

10222 @ 예예.{예예}

10222 # 거기다 콩크리로 해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10222 # 인제 아래층은 반지하 암며는 그냥 드러가구 된무는 지하루 해서 이층으로 해서 꾸미니까 바다기 으선 공평해게 어디든지 찌우는데 업꼬 {이제 아래층은 반 지하 앞면은 그냥 들어가고 뒷문은 지하로 해서 이층으로 해서 꾸미니까 바닥이 우선 평평하게 어디든지 기우는 데가 없고}

10222 @ 네. 이라구 인저 {네. 이려고 이제}

10222 # 그 송 내:부는 제 친구드리 뭐 설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자문바다서 쪼 처당기구 해가지구 {그 속 내:부는 제 친구들이 뭐 설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자문 받아서 쫓아 다니고 해가지고}

10222 @ 헛기때메 아기자기해게 잘 해썬요. {했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잘 했어요}

10222 # 우리 지방에두 지은 데 뻔뻔데 당기며 보니까 일반식 집집뜯 그냥 아네 벽똥싸쿠 거데 싸쿠 뭐 이런 씨기루 해서 하니까 {우리 지방에도 지은 데 몇군데 다니며 보니까 일반식 집들 그냥 벽돌 쌓고 곁에 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10222 # 갠찬키는 갠찬는데 이 전체저그로 우리 교회만 모타지요. {갠창기는 갠창은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못하지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이 교회두 갑싼 그러케 마니 안 메키쓰면서두 {이 교회도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막히면서두}

10222 @ 예.{예}

10222 # 아주 자:리 지어썬요. {아주 잘 지었어요}

10222 # 야칸 야칸 사억정도. {약 한 4억정도}

10222 @ 예.{예}

10222 @ 끄 저 뭐 꼬 대지 대지도 상당하겠꾼뇨. {그럼 저 뭐 그 대지도 대지도 상당하겠꾼요}

10222 # 대:지는 처음에 인제 맨: 즈메 교회를 인러케 다니는데 {대:지는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10222 #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지비 사는 사라미 우리 찌봐 예배를 보라구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지비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예배를 보라고 그래요}

10222 @ 예.{예}

10222 # 그래서 인제 거기 당이다 인제 거기서 보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당이다 이제 거기서 보다가}

10222 # 이부니 팔구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팔고 간다는 거예요}

10222 @ 아. {아}

10222 # 그때 인제 우리가 돈이 움씨니까 추쑈감사때 쪼끔씩 드러온걸 모으고 모으고 해서 뻔까마 된거를 인제 누가 달래몬 주어서 쫘 이자도 드러오구 이래가지구 {그 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추수감사 때 조끔씩 들어온 걸 모으고 모으고 해서 몇 가마 된 거를 이제 누가 달라면 줘서 쫘 이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10222 # 한 대여썰까마 되서 인제 그지블 산짜나요. {한 대 여섯가마 돼서 이제 그 집을 샀잖아요}

10222 # 그래서 인제 복과늘 헐고 거그서 예배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복판을 헐고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10222 # 인제 그 한승동 목사니미라구 대전모권씨나글 나와가지구 우리 교회로 천뿌이미 되서 완는데 {이제 그 한승동 목사님이라고 대전 목원 신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첫 부임이 돼서 왔는데}

10222 # 장노님 이 봉당꺼지를 물려가지구 이러케 크게 이케 해가지구 우리 집씨다 저기 예배 드립씨다. {장로님 이 봉당꺼지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거기 예배를 드립시다}

10222 # 그러케 해문 우리가 이를 파려야 본저니 나을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를 팔아야 본전이 나을텐데}

10222 @ 음. {음}

10222 # 판데다 진게 되문 그르케 되문 완전히 이지븐 가정씨비루 망그리지니까 몬 팔자나요. 그럼 진짜구. {판 데다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집은 가정 집으로만 들어지니까 못 팔잖아요. 그럼 짓자고}

10222 # 그래서 질라구 애를 씨구 대니는데 질: 터가 이씨요? {그래서 지으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지을 터가 있어요?}

10222 # 그케 하다하다 모태 그지블 헐구 거기다 그냥 지어씨요. {그케 하다하다 못해 그 집을 헐고 거기다 그냥 지었어요}

10222 @ 네.{네}

10222 # 근데 그지비 어떤 지빈가 하문 나메 터거드뇨. 이 땅은 땅은 이 동네가 씨끔도 그런 집뜨리 마니 인는데 인제 찌그문 어느 정도 해결이 될찌만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남의 터이거든요. 이 땅은 이 동네가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인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10222 # 그케 나메 땅인데 거의다 인제 우리가 지블 진꼬선 행는데 그때는 주인한테 얘기하지 안쿠 이라구두 그냥 지어두 {그케 남의 땅인데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집을 짓고 서는 했는데 그때는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러고도 그냥 지어도}

10222 # 그냥 지쌍편 가지구 인는 사라미 그냥 활용해구 {그냥 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활용하고}

10222 @ 네네.{네네}

10222 # 도지만 마즈면 되기로 일판 이러케 지언는데 {도지만 맞으면 되기로 일단 이렇게 지었는데}

10222 # 이제 세워리 가면서 도지도 더 달래요. 팔래도 팔지도 안하구 그냥. {이제 세월이 가면서 도지도 더 달래요.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안하고 그냥}

10222 # 그냥 가마니 몬 견디겜짜나요. {그냥 가만히 못 견디겠잖아요}

10222 @ 그러켄네요. {그렇겠네요}

10222 # 그래서 우리가 한 생 생가카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한, 생, 생각하기로는}

10222 # 농초네서는 도저히 목돈만드려 교회 몬찌니까 {농촌에서는 도저히 목돈만 들어 교회 못지으니까}

10222 @ 음 네. {음 네}

10222 # 건축컨그를 하자 그래가지구선 {건축 현금을 하자 그래 가지고는}

10222 # 오쳐널도 하구 마눠도 하구 이마눠도 하구 이러케 행거시 {오천원도 하고 만원도

하고 이만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10222 # 근 한 이십년이상 헨나봐요. {근 한 이십년이상 헨나봐요}

10222 @ 예.{예}

10222 # 이걸 해서 삼년짜리 분꾸서 부어 나가다가 다 차든 이걸 빼가지구 {이걸 해서 삼년짜리 붓고서 부어 나가다가 다 차면 이걸 빼가지고}

10222 # 목또니로 노쿠 또 해구 이러케 해가지구 해는 도중에 {목돈으로 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10222 # 우리 째여페 터가 하나 뱅여든아홉평짜린가 그게 하나 나와썬요. {우리 집 옆에 터가 하나 189평짜린가 그게 하나 나왔어요}

10222 # 그래서 그걸 사썬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샀어요. 우리가}

10222 @ 네네.{네네}

10222 # 마냐게 저지블 우 우리가 헐고 문 째 형편이니 찌끄른 문찌니가 주인 허라글 바더야 되니까 {만약에 저 집을 우리가 헐고 못 지을 형편이니 지금은 못 지으니까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10222 # 이걸 사드려서 산는데 그랜는데 {이걸 사들여서 샀는데 그랜는데}

10222 # 한 이년저넌가 운제 와서 주인이 그때사 팔라구 그래 사 사라구 그래더라구 {한 이년 전엔가 언제 와서 주인이 그 때 팔라고 그래 사라고 그래더라고}

10222 # 그게 {그게}

10222 @ 예.{예}

10222 # 그 노인네 목싸님 초창기에 이썬썬게 우리 첨: 다닐제 그때두 그냥바니 그 이를 제대루 하는 부니니까 지방에서도 무슨 일이 이썬든 그냥반한테 와 꼭 묻꼬 그랜꺼드뇨. {그 노인네 목사님 초창기에 있을적에 우리 처음 다닐 때 그래도 그 양반이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분이니까 지방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양반한테 와 꼭 묻고 그랜거든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아주 교회일에는 참 잘해는 부니구 목싸님 자제부니구 이러니까 {아주 교회 일에는 참 잘하는 분이고 목사님 자제 분이고 이러니까}

10222 # 끈데 그냥바니 대지를 살리해도 영 몰싸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대지를 살라고해도 영 못 사니까}

10222 # 애:를 먹꾸 기시다 판테루 가썬꺼드뇨. {애를 먹고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썬거든요}

10222 @ 예예.{예예}

10222 # 그이 그 뒤루 사문 가다가 안되가지구 멘년저네 고걸 산데 글 사라그래서 글 또 사썬요. {그 뒤로 한참 가다가 안 되가지고 몇 년 전에 그걸 샀는데 그걸 사라고 해서 그걸 또 샀어요}

10222 # 그래서 인제 우리가 썬 심 심이 되더래두 현금 줌 하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썬 힘이 되더래도 현금 줌 하고}

10222 # 농초네서는 알다시피 다: 할머니드리 꼬추바테 땀 흘려가지구 {농촌에서는 알다시피 다 할머니들이 고추 밭에 땀 흘려가지고}

10222 # 이러케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1022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2 # 참 애달푸거드뇨. 엄청나게 귀한 도니거드뇨. 하나님아페 드러지는 도니. {참 애달푸거든요. 엄청나게 귀한 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돈이}

10222 # 한푼이래두 애껴서 해가지고 쪼끄미래두 쫘 이자 나운데 간따 그 그건때메 뎨년 동안 참 신경마니 썸썸요. 이러케 그래가지고 {한푼이라고 아껴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쫘 이자 나운데 갖다 그것 때문에 몇 년동안 참 신경 많이 썸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0222 # 그래서 그걸 또 매이블 헨는데 인제 거기 진느냐 여기 진느냐 인제 {그래서 그걸 또 매입을 했는데 이제 거지 짓느냐 여기 짓느냐 이제}

10222 @ 아아. {아아}

10222 # 이라구 떠 떠들다가 아무캐도 현재 위치가 더 조터라구 {이러고 떠들다가 아무래도 현재 위치가 더 좋더라고}

10222 @ 네. {네}

10222 # 목사님들두 그러쿠 인제 동네썸 올려다보기도 그러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동네서 올려다보기도 그렇고}

10222 # 나는 큰 교회들 땡기며 뭐쫘 마전한 생각이 큰 교회들 땡김 보문 {나는 큰 교회들 다니며 뭐 쫘 막연한 생각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10222 # 대개가 다 동쫘그로 아늘 하고 이썸요. 큰 교회들 대니보면 {대개가 다 동쪽으로 안을 하고 있어요.}

10222 @ 예.{예}

10222 #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동쫘그로 아늘 하구 이꺼드뇨.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동쪽으로 안을 하고 있거든요.}

10222 @ 아. {아}

10222 # 아침햇살이 삭 드러오게끔 {아침 햇살이 삭 들어오게끔}

10222 # 그러케 되썸요. 그래서 그터가 그런터이기 때무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터가 그런 터이기 때문에}

10222 # 저 아페서 우리 노니 저 아페 드레 인는데 거기서 모미 아퍼서 나는 이라구 썸꾸 집싸라미 이를 헨는데 해가 너머가는데 {저 앞에서 우리 눈이 저 앞에 들에 있는데 거기서 몸이 아퍼서 나는 이러고 있고 집 사람이 이를 헨는데 해가 넘어가는데}

10222 # 그 장등꼭대기 부리 켜전는데 아주 번뜨타게 보여서 {그 잔등 꼭대기 불이 켜졌는데 아주 번듯하게 보여서}

10222 @ 음. {음}

10222 # 거기가 교회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썸 인제 그걸 살라구 그래서 사썸요. {거기가 교회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걸 살려고 그래서 샀어요}

10222 # 산는데 우리지배가 암만 도러보구 나를 썸꾸 그런테루 땡김보면서 썸썸 터에다 해자구 그래썸요.{샀는데 우리 집 애가 암만 둘러보고 나를 싣고 그런테로 다녀보면서 지금 터에다 하자고 그랬지요}

10222 # 그래 그래자구 그래구선 그터를 파러썸요. 진느냐고. {그래 그러자고 그러고선 그터를 팔았어요. 짓더라고}

10222 @ 예예.{예예} 10222 # 질래니까 인제 인제 건축글 지가 아는 애니까 교회가 질따가 무리 생기면 안되니까 자금 확보 해노코 {지으려니까 이제 건축을 자기가 아는 애니까 교회가 짓다가 무리 생기면 안되니까 자금 확보 해놓고}

10222 # 우리가 계약때로 시 해나가야 이기 우리가 힘을 쓰니까 {우리가 계약 때로 해 나가야 이게 우리가 힘을 쓰니까}

10222 # 그러케 하자 그래서 그걸 파러가지고 그거하구 현금 좀 헐거하구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하고 현금 좀 한거하고}

10222 # 이래가지구 해서 빚쯤 지구 헐는데 {이래가지고 해서 빚 좀 지고 했는데}

10222 # 장녀네 헐는데 오래 아마 비씨 다 되는거 가태요. 그러게. {작년에 했는데 올 해 아마 빚이 다 났는거 같아요. 그러게}

10222 @ 아이고. {아이고}

10222 # 애를 마니 썬꾸뇨. {애를 많이 썬군요.}

10222 @ 농촌교회론 아주 깨끗하게 비덥씨 그러케 잘 진꾸 잘 하나님 감사하지요. 뭐. {농촌 교회로는 아주 깨끗하게 빚없이 그렇게 잘 짓고 잘 하나님 감사하지요. 뭐}

10222 # 그래서 그이른 참 잘되썬미다. {그래서 그 일은 참 잘됐습니다.}

10222 @ 그러네요. {그러네요}

10222 # 그이 교회이리라는건 누구를 망논하고 하나님 이리지만 내일처럼 {그게 교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이러지만 내 일처럼}

10222 # 사소한 이리래두 이러케 바라보구 이러케 보구 와따가따 해튼서 이그 먼처는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먼저는}

10222 # 그 주태기 처으메 질째 개와를 올련는데 {그 주택이 처음에 지을 때 기와를 올렸는데}

10222 # 죽떠기를 갈따 이러케 더떠노쿠 누데기 씨워가지구 개와를 올리니까 {죽떠기를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누더기 씨워가지고 기와를 올리니까}

10222 # 이누미 새느라구요.{이놈이 새 더라고요}

10222 @ 예.{예}

10222 # 이 사모니미 저서 산다 그래튼서 저가서 또 올라와서 해구 그 뭐 {이 사모님의 저기서 산다 그러면서 저기 가서 또 올라와서 하고 그게 뭐}

10222 # 계쪽찌그로 아페 이씨면서 건너다보구 뭐 미쭈헐거는 다 손질해야되구 {계속 적으로 앞에 있으면서 건너다보고 뭐 잘못된거는 다 손질해야되고}

10222 # 그래되니까는 그 그러케 관썸찌그 도라보는 사람드리 마니 이썸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렇게 관심 갖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222 @ 예.{예} 10222 # 교회는 잘: 아무소리 업씨 지나가구 그르케 되지요. {교회는 잘 아무소리 없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지요}

10222 # 그래 잘 돼썸요. {그래 잘 났어요}

10222 @ 아 그런네요. 사태근 그쪽 교회 아네 이썸미까? {아 그렇네요. 사택은 그쪽 교회 안에 있습니까?}

10222 # 예.{예}

10222 @ 따로 이썸미까? {따로 있습니까?}

10222 # 대진 고 고 교회아네 안 이썸요. 그 먼처 교회에 사태기 이썸쓰니까 {대지는 교회 안에 안 있어요. 그 먼저 교회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10222 @ 예예.{예예}

10222 # 고 사태글 이버네 교회 지면서 내부수리만 썸 다시 해썸요. {그 사택을 이번에 교회 지으면서 내부수리만 썸 다시 했어요}

10222 @ 네.{네}

10222 # 몽창 {전부}

10222 # 내부수리 유리창 가튼거 그전 사씨는 그 알루미늄미루 한게 바라미 마니 통해구  
그래가지구 찌금 신행샤씨루다 다 가려서 송내부는 싹 가려서 이러케 사태글 해놔쥬  
요. {내부수리 유리창 같은거는 그전 사시는 그 알루미늄으로 한 것이 바람이 많이  
통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행 샤시로다 다 가려서 속 내부는 가려서 이렇게 사택을  
해놔쥬요.}

10222 # 그대루 생활 할쥬 이쥬겜미다. 목 모양씨른 이층에다 빼 빼서 이러케 해노쿠 그러  
케 해쓰니깐 {그래도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양실은 이층에다 빼서 이렇게 해놓  
고 그렇게 했으니까}

10222 # 그 겨울게는 인제 그 전기장판이 되 이꼬 여름메는 쪼끔 더 더운가본데 인제 {그  
겨울에는 이제 그 전기장판이 되 있고 여름에는 쪼끔 더 더운가 본데 이제}

10222 # 쪼끔 시원한걸 쫘 인저 해 봐야 되니까 {조금 시원한걸 쫘 이제 해 봐야 되니까}

10222 # 고고만 해노면 {그것만 해놓으면}

10222 @ 선풍기로 함미까? 에어컨으로 함미까? {선풍기로 함니까? 에어컨으로 함니까?}

10222 # 현재는 현재는 모양씨레는 선풍기로 하는데 {현재는 목양실에는 선풍기로 하는  
데} 10222 @ 네.{네}

10222 # 더워서 답따구 답따구 이래서서 그 에어컨을 하나 해 놀까 지끔 그라구 이쥬요.  
{더워서 답다고 이래서 그 에어컨을 하나 해 놓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10222 @ 그 예배 보는데는 좌서근 한 메딘분 정도 됴미까? {그 예배 보는데는 좌석은 한  
몇인분 정도 됩니까?}

10222 # 확실히게 기어기 잘 안나는데요. 그 의자가 아매 멘 멘께가 인는지 모르건네. {확  
실하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그 의자가 아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10222 # 근 그건 확실히 그른 모르게쥬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10222 @ 네.{네}

10222 # 우리지베는 그 의자 저 좌서카구 삼층석카구 마느른 아래층꺼지 이거를 다 {우리  
집에는 그 의자 저 좌석하고 삼층석 하고 많으면 아래층까지 이것을 다}

10222 # 척쭈를 계산해서 {척수를 계산해서}

10222 @ 네.{네}

10222 # 설계를 해서 해꺼드뇨. 그랜는데 찌금 의자가 멘갠지 모르게쥬요. 의잘 여쿠 하니  
까 {설계를 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의자가 몇갠지 모르겠어요. 의자를 넣고  
하니까}

10222 # 그래 그래두 그 그래두 요모양 저모양으로 잘 예쁘게 해쥬요. {그래 그래도 그래  
도 요모양 저모양으로 잘 예쁘게 했어요}

10222 # 미테서 보이러 서규 보이러를 떼른 거기서 부리 올라와서 {밑에서 보일러 석유  
보일러를 떼면 거기서 불이 올라와서}

10222 # 무리 올라와서 양짜게 스티를 하게 되인데 그 장치는 아무캐도 서규 보일러는  
쫘 야카구 사용해보니까 {물이 올라와서 양쪽에 스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치는  
아무래도 석유 보일러는 쫘 약하고 사용해 보니까}

10222 @ 예예.{예예}

10222 # 이제 뒤 뒤에 온풍기 하나 이꾸 에어컨 하나 노코 {이제 뒤에 온풍기 하나 있고

에어콘 하나 놓고}

10222 @ 네.{네}

10222 # 그럼 인제 중앙 냉방씨기루다가 {그럼 이제 중앙 냉방식으로}

10222 # 바라미 드리워서 복파니루 똥꾸 올라가게 만드려 낚꺼드뇨. {바람이 들어와서 복판으로 뚫고 올라가게 만들어 놔거든요}

10222 @ 네네. 아.{네네. 아}

10222 # 한: 복파네 옥썴꺼지 똥러서 {한 복판에 옥상까지 뚫어서}

10222 # 이제 거기서 환풍기가 두러서 빠러올리게 인제 그러케 좀 시원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환풍기가 뚫어서 빨아 올리게 이제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하고}

10222 @ 네, 아.{네, 아}

10222 # 겨울게는 이제 전체 유리가 되쓰니까 이제 여름 마니 바다가지구 따뜨탄 씨기루 농촌교회으 그 우녕비가 마니 들며는 쫘 골란하니까 {겨울에는 이제 전체 유리가 났으니까 이제 열을 마니 받아가지고 따뜻한 식으로 농촌 교회 그 운영비가 많이 들면 쫘 곤란하니까}

10222 @ 네.{네}

10222 # 네 그랬꺼드뇨. 우리가 마냐게 마닐 마냥 마는 비슬 지게 되며는 {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만일 만약 많은 빚을 지게 되면}

10222 # 그 귀하게 바쳐진거 이자로다 빠져나가는 건또 너무 어긋하구 {그 귀하게 바쳐진 거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10222 # 또 교회 운영비에 너무 소모되면 그건또 쫘 바리게 써지는게 아니지 안느냐. {또 교회 운영비에 너무 소모되면 그것도 쫘 바르게 써지는게 아니지 않느냐}

10222 @ 예.{예}

10222 # 최대하니루 쫘 발켜서 하도록 하자 {최대한 쫘 밝혀서 하도록 하자}

10222 # 아주 요모양 저모양 그기 조목조목 그래두 하느냐구 잘 잘 되썴요. {아주 요모양 저모양 그게 조목조목 그래두 하느라고 잘 잘 똥어요}

10222 # 그거참 잘쓸때 동네뽨들도 호응도 조쿠 바능도 조쿠 {그거 참 잘 쓸 때 동네 분들도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10222 @ 네.{네}

10222 # 그런 {그런}

10222 @ 가마이 이짜 지금 저 똥미까? 보통 점썴썴싸는 어떠케 함미까? {가만히 있자 지금 저 똥미까?}

10222 # 점썴썴싸는 대개 인제 자기 자기 지배 자기 지배 가서들 허지요. {점심 식사는 대개 이제 자기 집에 가서들 하지요}

10222 @ 네.{네}

10222 @ 이 근처에 저 식당가튼 거시 이썴미까? {이 근처에 저 식당같은 것이 있습니까?}

10222 # 업썴요. 여긴 업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10222 @ 그러며는 읍썴그로 나가야 똥미까? {그러면 읍 쪽으로 나가야 똥미까?}

10222 # 진가리 썴기루 나가야지요. 진가리로 나가면 거기 {진가리 쪽으로 나가야지요. 진가리로 나가면 거기}

10222 @ 어디요? {어디요?}

10222 # 진가리 모과면 {진가리 모과면}



10222 @ 진갈 {진갈}

10222 # 예 모과며네 이썬요. {예 모과면이 있어요}

10222 # 여기는 대:울며닌데 모과며니 여기 경계거드뇨. {여기는 대월면인데 모과면이 여기 경계거든요}

10222 @ 네네.{네네}

10222 # 여기가 경기도이면서두 충청도 비쓰탄 말씨두 나오는거 가트지요? {여기가 경기도이면서두 충청도 비슷한 말씨도 나오는 거 같지요?}

10222 @ 네네.{네네}

10222 # 충청도하구도 경계 인제 울:면하구 장호원하구 경계니까 {충청도하고도 경계 이제 울면하고 장호원하고 경계니까}

10222 @ 그러 그러태 예. {그러 그러터군요 예}

10222 # 거기 그 그래서 일기 예배하는데 쪼끔쪼끔 그래요. 충청도 찌방 카기도 경기도 찌방 인제 이제 그런데 그러케 되고 {거기 그래서 일기 예배하는데 조금 쪼끔 그래요. 충청도 지방 하기도 경기도 지방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고}

10222 # 그래구 인제 여주군:하구두 경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주군 하고도 경계가 되고} 10222 @ 네네.{네네}

10222 # 그래구 이제 면따뉘로는 요기요쪼기루 모과면 되구 저짜기루 여주가나면 {그리고 이제 면 단위로는 여기저기로 모과면 되구 저 쪽으로 여주 가남면}

10222 @ 그럼 모과면까지는 얼마나 보통 걸림니까? 차로가면 {그럼 모과면까지는 얼마나 보통 걸림니까? 차로가면}

10222 # 차로 가면 한 오부니나 한 썸뿌님 가게썬요. {차로 가면 한 오분이나 한 십분이면 가썬지요} 10222 @ 네네.{네네}

10222 # 요기서 이리 드려오썬썬요? 이 고개너머 오썬썬요? {여기서 이리 들어오썬썬요? 이 고개넘어 오썬썬요?}

10222 @ 예 고개너머 와썬미다. {예, 고개 넘어 왔습니다}

10222 # 고개너머 오셔서 여기로 와썬 요기서 쪼끔 나가면 그기로 도루 나와요. {고개 넘어 오셔서 여기로 왔음 여기서 조금 나가면 거기서 도로 나와요}

10222 @ 아. 네.{아, 네}

10222 # 그길타구 쪼끔 가게 되므는 올마 올마 안가믄 고기서 바로 인제 면소재진데 거기만 해두 {그길타고 쪼끔 가게 되면 얼마, 얼마 안가면 거기서 바로 이제 면소재진데 거기만 해도}

10222 # 여기 대월면 소재지보다 거기 식당이 더 만쿠 그러더라구요. {여기 대월면 소재지보다 거기 식당이 더 많고 그러더라고요.}

10222 @ 네네.{네네}

10222 # 대월면은 저쪽 사동리를 나가야 {대월면은 저쪽 사동리를 나가야}

10222 @ 그믄 오늘 그 점심씩썬를 가치 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지요}

10222 # 아니 저는 지배 가서 먹썬요 뭐. {아니 저는 집에 가서 먹썬요 뭐}

10222 @ 아닙니다. {아닙니다}

10222 @ 그냥 가치 가서서 {그냥 같이 가서서}

10222 # 아이구 아니예요. 지배 가서 하썬요. {아이고 아니예요. 집에 가서 할썬요}

10222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치 안씀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222 @ 아니 이 지금 사모님 안계시지요? {아니 이 지금 사모님 안계시지요?}  
 10222 # 예.{예}  
 10222 @ 일단 꺼라. {일단 꺼라}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9 @ 이:저 였나레 인제 농초네는 이 소:기르는 거시 상당한 그. 부수입이잔씀니까?  
 {이, 저, 옛날에 인제 농촌에는 이, 소 기르는 것이 상당한 그. 부수입이잔씀니까?}  
 10329 @ 예저네는 소를 어떤 시그로 길렀씀니까?{예전에는 소를 어떤 식으로 길렀습니까?}  
 10329 # 였:나레는 소를 화시기거든요. 끄려 메기능거.{옛날에는 소를, 화식이거든요. 끓여 먹이는 것}  
 10329 # 소주글 끄려 메기기때메.{소죽을 끓여 먹이기 때문에}  
 10329 @ 그러치요.{그렇지요}  
 10329 # 한:지베서 두:마리는 몬메기구 꼭 한마리여.{한 집에서 두 마리는 못 먹이고 꼭 한 마리여.}  
 10329 @ 아, 그랜씀니까?{아, 그랬습니까?}  
 10329 # 예.{예}  
 10329 # 였:나레는 그리 지끔 생가캐 보면 였나레도 여러집 방버블써서 여러마리를 메곁씨 몬 도:니달:쉴텐데. 그리구 왜 그러냐면.{옛날에는 그리,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여러 집 방법을 써서 여러 마리를 메곁으면 돈이 되었을 텐데}  
 10329 # 지극:키 살기 어려와도. 머 달글 메겨서 돼지를 사구 돼지를 메겨서 소를 산다고 그래는데.{지극히 살기 어려워도 머, 닭을 먹여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먹여서 소를 산다고 그러는데}  
 10329 # 송아지두 시장에 가보몬 조:은 너몬 비싸구 나쁜 너몬 싸:구 그래그던뇨.{송아지도 시장에 가 보면 좋은 놈은 비싸고 나쁜 놈은 싸고 그렇거든요.}  
 10329 # 그래 우리는 나:쁜 너를 썬걸 사서 일러늘 메겨가지고 줌키워서 파라가지고 조은 너를 사다 또 메기고 그런 방버블 헐꺼든뇨.{그래, 우리는 나쁜 놈을 썬 것을 사서 일러늘 먹여서 줌 키워서 팔아서 좋은 놈을 사다가 또 먹이고 그런 방법을 했거든요.}  
 10329 @ 예예.{예예}  
 10329 # 헐는데 꼭 한마리를 메기게 돼::요. 근데 한마리를 메기게 되는데.{했는데, 꼭 한 마리를 먹이게 돼요. 그런데 한 마리를 먹이게 되는데}  
 10329 # 겨울버터 시자카게 되몬 겨울부터 시자카자몬.{겨울부터 시작하게 되면 겨울부터 시작하자면}  
 10329 # 소가 겨우내 머글만한 지플 마련해서 싸:두어야 돼:요. 비를 안맞게 잘:가려 뒤야 댄다고요.{소가 겨우내 먹을 만한 짚을 마련해서 쌓아두어야 돼요. 비를 안 맞게 잘 가려 뒤야 된다고요}  
 10329 @ 예.{예}

10329 # 그래가지고 이거슬 한 사밀치 머글꺼든지 오일치 머글꺼든지 작:뚜래는 기구를 가지고.{그래서 이것을 한 삼일치 먹을 것이든지 오일치 먹을 것이든지 작두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10329 # 어 두:리서 하나는 이러케 메기고 하나는 이걸 발버가지고 요만큼 세게 씹니다.  
{어, 둘이서 하나는 이렇게 먹이고 하나는 이것을 밟아서 요만큼 세게 씹니다.}

10329 @ 예예.

10329 # 그걸 여:무리라고 그래요. 거 여무를 썬러가지구 인제 이 여물까네다 이래 싸:두구선.{그것을 여물이라고 그래요. 그, 여물을 썰어서 인제 이 여물간에다 이래 쌓아두고서는}

10329 # 소가 큰 소는 두 삼태미 저근 소는 한 삼태미 이러케 갠따 소테다 낌는데.{소가 큰 놈은 두 삼태기, 적은 소는 한 삼태기, 이렇게 갠따 솔에다 낌는데}

10329 # 아까 얘기헀대루 비지:나 그 저기 쌀 뜨무리나 이런 밥찌개기나 이러거.{아까 얘기한대로 비지나 그, 저기 쌀 뜨물이나 이런 밥찌꺼기나 이런 것이}

10329 # 좀 부지런한 분드른 나메 소 안메기는 지베 가서두 그 뜨무를 향아리르 갠따노코 바드문그 거되:서 이래서 그를 소죽 썬:서 조요.{좀 부지런한 분들은 남의 소 안 먹이는 집에 가서도 그 뜨물을 향아리를 갠따놓고 받으면 그 거되서 그래서 그글 소죽을 썬어서 주어요.}

10329 # 게 인제 저너게 썬:서 주:고 아치메 썬서 주고 소는 대개 점시른 안매겨요. 겨울 게 해가 짧브니까.{그래 인제 저녁에 썬어서 주고 아침에 썬어서 주고 소는 대개 점심은 안 먹여요. 겨울에 해가 짧으니까.}

10329 # 그래서 그 소주기 인제 새:벼게 일찍 나가서 노냥 부를 때고 그래서.{그래서 그, 소죽이 인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노상 불을 때고 그래서}

10329 # 옛날 말루 굴뚜게 연기가 일찍 올라가야 보기 내려온다라구.{옛날 말로 “굴뚝에 연기가 일찍 올라가야 복이 내려온다”라고}

10329 # 인제 그거 부지런한 얘기를 한거자나요?{인제 그것 부지런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10329 @ 예예.{예예}

10329 # 그러케서 메기구.{그렇게 해서 먹이고}

10329 # 그래구 인제 그 가마니 치구 그래믄 이 집 쓰레기를 다: 밋에 까라줘서 저녁마다 까라주고 쳐내구 이래가지고.{그리고 인제 그, 가마니 치고 그러면 이 짚 쓰레기를 다 밋에 깔아주어서 저녁마다 깔아주고 (다시 짚 쓰레기를) 쳐내고 이래서.}

10329 # 이제 그걸 메겨서 키우므는.{이제 그것을 먹여서 키우면}

10329 # 요노미 한 십팔씨기나 요리케 대믄 인저 암청을 내게 대믄 암느를 사르는.{요놈이 한 십팔 개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암내를 내게 되면 암놈을 사면.}

10329 # 교배를 해서 인제 새끼를 하므는 일너네 한 배씩 떠러져요, 고게.{교배르 해서 인제 새끼를 낳으면 일 년에 한 배씩 떨어져요, 고게}

10329 # 열딸마네 그걸뚜 난는 건데. 그게 일년 열뚜 다리기때매 새끼 메기구 또 새끼 나구 일러네하나씩 나타시피해요.{열 달만에 그것도 낳는 것인데. 그게 일 년 열두 달이기 때문에 새끼 먹이고 또 새끼 나고 일 년에 하나씩 낳다시피 해요.}

10329 # 그러믄 그게 음:청나게 가게에 보태미 됩니다.{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10329 @ 예예.{예예}

10329 # 그게 머 그어 애들 공부 갈키는 데도 그게 될쥬 인찌마는.{그것이 머, 그, 애들 공부 시키는 데에도 그게 될 수 있지만.}

10329 # 일러네 한 마리씩 떨어지는 게 그 그때는 땅깁씨.{일 년에 한 마리씩 떨어지는 것이, 그, 그때는 땅값이.}

10329 # 문 아펜 노는 쌀 서:되. 소도 서되나?{문 앞의 논은 쌀 서 되. 소도 (쌀이) 서 되나?}

10329 # 조:타고 하는 거는 달때. 저 들: 노니루 가며는 두:되. (@ 예.) 이러케 할째거드뇨.{좋다고 하는 것은 닷 되. 저, 들 논으로 가면 두 되. (@ 예) 이렇게 할 때거든요.}

10329 # 그램 그때 소함바리는 떨어지르는 아무케도 쌀 두:가마 이러케 나오거드뇨.{그러면 그때 소 한 마리는 떨어지면 아무렇게 해도 쌀 두 가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10329 @ 네.{예}

10329 #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거 나가능게 상:당이 조치요.{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10329 @ 예예.{예예}

10329 # 그리구 인제 봄 돼:서 사월말까지 거:진 이제 그러케 메기다가.{그리고 인제 봄이 되어서 사월 달까지 거진 이제 그렇게 먹이다가.}

10329 # 봄 되른 인제 이너를 코를 툴러서 인제 물:구댕기는 거니까 아주 손끄테서 자라서 마를 잘: 듣거드뇨, 이게.{봄이 되면 인제 이놈을 코를 툴어서 인제 물고 다니는 것이니까 아주 손끝에서 자라서 말을 잘 듣거든요, 이게.}

10329 # 인제 드:레다 간따 인제 고뽕이는 이러케 달구댕기는 게 요마:난데.{인제 들에다 갖다 인제 고뽕이는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요만한데.}

10329 # 바:가 또 한너던 빨짜리가 또 이썬요. (@ 네네) 그 끄테다가 말뚝글 요마:난 걸 바가가지고.{바(=줄)가 또 한 너덧 빨짜리가 또 있어요. (@ 네네) 그 끝에다가 말뚝을 요만한 것을 박아서}

10329 # 드:레나 머 곡씩 다찌 안케 간따 꼭 박꼬서 부뜨려 매두면.{들에나 머, 곡식 닿지 않게 꼭 박고서 붙들어 매어두면}

10329 # 종일 거기서 인제 지가 파리 쪼차가며 인자 풀 뜨더 먹꾸 이래자나요? (@ 예예) {종일 거기서 인제 제가 파리 쫓아가며 인제 풀을 뜯어 먹고 이러잖아요? @ 예예)}

10329 # 그래구 난 뒤에 저녁때 우리가 드러울 쟈 소쿠리에다.{그리고 난 뒤에 저녁 때 우리가 들어올 때 소쿠리에다가}

10329 # 저님 받따머기구 논따머기고 이런 데가서 인제 소 머글 마난 푸:를 비:웁니다.{저놈 받담이고 논담이고 이런 데에 가서 인제 소 먹을 풀을 베어 옵니다.}

10329 # 그게 농초네서는 이 동네 거:이가 저녁때는 다: 꼴찌게요. (@ 예예) 꼴찌게.{그게 농촌에서는 이 동네 거의가 저녁 때는 다 꼴찌게요. (@ 예예) 꼴찌게.}

10329 # 그래서 간따가 마당에다 딱 뽕쳐노쿠 저녁게 인제 하나랍씩 내려주구 저녁내 이리 먹꾸 자구.{그래서 가져다가 마당에다가 딱 뽕쳐 놓고 저녁에 인제 한 아람씩 내려주고 저녁 내 이리 먹고 자고.}

10329 @ 네네.{네네}

10329 # 이러케서 소메기는 방버븐 그러케 메겨요.{이렇게 해서 소 먹이는 방법은 그렇게 먹여요.}

10329 @ 그: 아까 소를 이제 송아지 사서 어 메겨가지고 새끼 이 이 그 가질 때까지가.  
 {그, 아까 소를 이제 송아지 사서 어, 먹여서 새끼, 이, 이, 그, 가질 때까지가.}

10329 # 야칸 한 십팔 개월 정도 이십 개월 정도 그케 돼:요.{약 한, 한 십팔 개월 정도 이십 개월 정도 그렇게 돼요.}

10329 @ 그걸 시팔 개월 하지 안코 머라고 그랜습니까? 십팔 때기 그랜습니까?{그것을 십팔 개 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랜습니까?}

10329 # 소:기라 해요 십팔 쪽. 십팔 썩? 아이 십팔.{속이라고 해요. 십팔 속. 시발 석? 아이 십팔}

10329 # 시팔 개월. (@ 예예) 예, 열여덜 따리라구 그래요. 열여덜 시팔 개월.{십팔 개 월. (10329 @ 예예) 예, 열여덜 달이라고 그래요. 열여덜. 십팔 개 월.}

10329 @ 네, 어 아 개월 말고. (# 네) 개월 말고 또 다른 말로 할쑤 인습니까? 십팔. {네, 어, 아, 개월 말고 (# 네) 개월 말고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십팔.}

10329 # 달. 열여덜 딸.{달, 열여덜 달}

10329 @ 십팔 딸.{십팔 달.}

10329 # 아니, 십팔따른 아니구. 거 인제 그러케 되믄 다를 치믄 열여덜 따리라 그래지요.  
 {아니, 십팔 달은 아니고. 그, 인제 그렇게 되면 달을 치면 열여덜 달이라 그러지요.}

10329 # 게 십육 개워래 발정을 하게 되믄 그건 송아지가 너무 작:파고 그레가지고.{그레 십육 개 월에 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송아지가 너무 작다고 그레서.}

10329 @ 예.{예}

10329 # 한두 번 경험해서 이제 십팔 개월. 한 이십 개월 되며는.{한두 번 경험해서 이제 십팔 개 월 한 이십 개 월 되며}

10328 @ 그믄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시설하고 또 도구가튼 거시 이써야 되지 안습니까?{그러면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시설과 또 도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328 # 그거는 인제 아까 나온 지븐 건 안:채 사라미 사는 지블 위주루 헨:건데.{그것은 인제 아까 나온 집은, 그것은 안채 사람이 사는 집을 위주로 한 것인데.}

10328 # 인저 농촌 지베는 여페 이르:케 부튼 행낭이라는 게 하나이짜나요.{이제 농촌 집에는 옆에 이렇게 붙은 행낭이라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10328 # 거 인제 잘 진는 사라믄 한 군데는 광:이 익꼬 한 군데는 허섭싸리기 느:두는 허까니 익꼬,{그, 인제 잘 짓는 사람은 한 군데는 광이 있고 한 군데는 허접 쓰레기 넣어 두는 헛간이 있고,}

10328 # 한 군데는 오양까니 따로 이써요. 한 칸. 그래서 거기서 메기구.{한 군데는 외양간이 따로 있어요. 한 칸. 그래서 거기서 먹이고}

10328 # 그건뚜 부시란 사라믄 그냥 구별해는데 이게 뒤에 해:서 이웅때기로 둘러가지고 그 소계서 그냥 메깁니다. (@ 아) 예, 예, 그러, 그러케 해요.{그것도 부실한 사람은 그냥 구별하는데 이게 뒤에 해서 이영 때기로 둘러서 그 속에서 그냥 먹입니다. (@ 아) 예, 예, 그러, 그렇게 해요.}

10328 # 그레 그거를 인제 전체를 오양까니다. (@ 오양간) 예.{그레 그것을 인제 전체를 외양간에다. (@ 외양간) 예.}

10328 @ 그 답 인제 저 여 여물: 주 주는 머 박끄를 가튼게 이썰꼐 아듭니까?{그 다음 인제 저, 여, 여물 주, 주는 머, 밥그릇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듭니까?}

10328 # 그거는 여물주는 박끄르근 인제 오양까네는 인제 구용이 달려 인짜나요, 쇠구용.  
{그것은 여물을 주는 밥그릇은 인제 외양간에는 인제 구유가 달려 있잖아요. 소구유.}

10328 @ 구. (# 구영) 구영{구, (# 구유) 구유}

10328 # 예, 쇠구영이 막때기루 판 거를 이르:케 인제.{예, 소구유가 막대기로 판 것을 이렇게 인제}

10328 # 엔:나렌 다: 그거예요 그이.{옛날에는 다 그것이에요.}

10328 @ 이러케.{이렇게}

10328 # 걸 여프루 까껴가지구 걸 파:서 이르:케 거리노코.{그것을 옆으로 꺾아서 그것을 파서 이렇게 걸어놓고.}

10328 # 이래구선 인제 소주글 쭈:며는 이 저 여물을 느쿠 뜨무를 너쿠 이게 때가지구 기미 푸옥 오르며는.{이러고선 인제 소죽을 쭈면 이, 저, 여물을 넣고 뜨물을 넣고 이게, (불을) 때어서 김이 폭 오르면.}

10328 # 이르:케 댄 막때기에다 이느플 저어요.{이렇게 댄 막대기에다가 이놈을 저어요.}

10328 # 우에 인는 게 소기루 드러 가구 소게 인는 게 거치루 나오게 이러케 저어가지구 더퍼노쿠.{위에 있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저어서}

10328 # 푸:옥 끄린 다메 인제 놔두면 뜨미 들른 인제 떠: 가는데.{폭 끓인 다음에 인제 놓아두면 뜸이 인제 떠가는데.}

10328 # 죽통:이 이썬요. 죽통. 인제.{죽통이 있어요. 죽통. 인제}

10328 # 대:개 그 죽통을 따로 막대기로 된걸 안 사르는 자박찌 가튼 거에다가 머 빠:게쓰나 이런거에다 이제 이걸. {대개 그 죽통을 따로 막대기로 된 것을 안 사면 자배기 같은 것에다가 머, 바케쓰(=양동이)나 이런 것에다가 이제 이것을.}

10328 @ 다마서.{답아서.}

10328 # 거 예 이 저기 저 막때기루 이르:케 이르:케 파서 만든 그 아휴.{그, 예, 이, 저기, 저,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그, 아휴}

10328 # 얼른 생가기 안나네. 그.{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10328 # 저기 저 소 소 소죽끄를. 뜯 쇠죽뜨는 그 바가지가 이썬요. (@ 예) 막대기로 까끈 거.{저기, 저, 소, 소, 소죽 그릇. 뜯, 소죽 뜨는 그 바가지가 있어요. (@ 예) 막대기로 깎은 것.}

10328 # 그녀를 드리대고 인제 머이 꺼 꺼진 막대기로 글거내서 죽통에 다머가지구 오양까네 가서 쏘:더주지요.{그놈을 드리대고 인제 머이, 꺼, 꺼진 막대기로 긁어내어서 죽통에 담아서 외양간에 가서 쏘아주지요.}

10328 # 그리구 머 요즘 보면 머 요기:서 소부를 때서 주글 쭈고 요기다 소를 메기구 그라는데도 인는데.{그리고 머, 요즘 보면 머, 여기서 소 불을 때어서 죽을 쭈고 여기서다 소를먹이고 그러는데도 있는데.}

10328 # 대:개 엔나렌 여기서는 다: 그 행낭 인는 데로 다 드러 날르기 때매 점:부 드러다 쏘더주구. (@ 아) 그러케 하지요.{대개 옛날에는 여기서는 다 그, 행낭이 있는 데로 다 들어 나르기 때문에 전부 들어다 쏘아주고. (@ 아) 그렇게 하지요.}

10330 @ 나미 집 쏘 머기는 방씨근 어떠습니까?{남의 집 소 먹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10330 # 나메 집 소요?{남의 집 소요?}

10330 # 나메 집 소 메기는 방버븐 인제 내가 도:니,{남의 집 소 먹이는 방법은 인제 내가 돈이,} 10330 @ 조꺼니라든지.{조건이라든지.}

10330 # 예?{예?}

10330 @ 어, 어떤 조꺼느로 이제 하냐? {어, 어떤 주건으로 이제 하느냐?}

10330 # 예. 내가 도:니 업썰 경우.{예, 내가 돈이 없을 경우,}

10330 # 내가 도:니 업썰 경우 이제 저쪽 지베서 송아지 한 바리를 주어요.{내가 돈이 0 바스를 경우, 이제 저쪽 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요.}

10330 # 송아지를 한 바리를 주든 그걸 갈따 내가 키웁니다.{송아지를 한 마리를 주면 그것을 갖다 내가 키웁니다.}

10330 # 그래든 이거시 다: 크게 되면 어:디 송아지라구 그래가지구.{그러면 이것이 다 크게 되면 어디 송아지라고 그래서.}

10330 # 송아지를 한 바리 더 사주구선 에미를 가져간대든지.{송아지를 한 바리 더 사주고 서는 어미를 가져간다든지.}

10330 # 아니면 아니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까가 이제 그러케 돼:요, 대개.{아니면, 아니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댓가가 이제 그렇게 되어요, 대개.}

10330 # 소 한 바리 키워서 주면 송아지 새끼 낳 때썰 거진 벨 때썰 되며는 가져가고 송아지 한 바리 사주고{소 한 마리 키워서 주면 송아지 새끼를 낳을 때썰 거의 벨 때썰 되면 가져가고 송아지 한 마리 사주고.}

10330 # 이제 어:릴 쏹아지라구 해서 그런 조꺼니루.{이제 어릿송아지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10330 @ 어릴 쏹아지? {어릿송아지?}

10330 # 예, 어:릴 쏹라요. 어우리 쏹라 어우리 쏹라구 마니 그래지요.{예, 어릿소라요. 어우릿소라, 어우릿소라고 많이 그러지요.}

10330 @ 어릴쏹?{어릿소?}

10330 # 예.{예}

10330 @ 주로 이제 어릴쏹는 송아지로 받는 겁니까?{주로 이제 어릿소는 송아지로 받는 겁니까?}

10330 # 예, 송아지루가 조:초.{예, 송아지루가 좋지요.}

10330 @ 예예.{예예}

10330 # 큰 소를 받는 방버븐 벼랑 업썰요.{큰 소로 받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10330 @ 업, 그런켄네요.{업, 그렇겠네요.}

10330 # 큰 소.{큰 소}

10330 @ 큰 소 비싸니까.{큰 소(는) 비싸니까.}

10330 # 예, 큰소는 어떠케 되냐 해문.{예, 큰 소는 어떻게 되냐 하면}

10330 # 내가 소를 길러가지구 큰: 소일 경우 나메게도 질쏘를 줘요. 부리는 걸루다.{내가 소를 길러서 큰 소일 경우, 남에게도 질쏘를 주어요. 부리는 것으로다가.}

10330 @ 예, 아, 예. {예, 아, 예.}

10330 # 네. 그럼 그 사라미 그 소가 가서 그 일해구.{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가 가서 그, 일하고}

10330 # 가:을에 쌀 두가마 쟁도 품깁썰 가져 옵니다.{가을에 쌀 두 가마 정도 품값을 가져 옵니다.}

10330 # 그러케서 소를 남 줘서 그러케 되든 인제 도:니 인는 사라문 소를 남주면 거기서

새끼 한 마리 떼러지구.{그렇게 소를 남에게 주어서 그렇게 되면 인제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남 주면 거기서 새끼 한 마리 떨어지고.}

10330 # 거기서도 짚쑈 가져오구. (@ 예) 이견뚜 그래서 마린즉쑈 그래요.{거기서도 짚쑈 가져오고. (@ 예) 이것도 그래서 말인즉쑈 그래요.}

10330 # 머 엔:나레 어디 어떤 동네 부자는 머 코뚜레가 한 마리니 무어니 해는게 그게 그 소가 여러 바리다 그랜 거지요 근데.{머, 옛날에 어디 어떤 동네 부자는 머, 코뚜레가 한 마리니 무어니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소가 여러 마리라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10330 # 지금 생각하면 그 방법또 돈 버는 방버비 상:당이 조안넌데.{지금 생각하면 그 방법도 돈 버는 방법이 상당히 좋았는데.}

10330 # 사실 엔:나렌 그러 어리서거서 잘 몰런뎌 게요. (@ 네) 근데.{사실 옛날에는 그러, 어리석어서 잘 몰랐던 거예요. (@ 네) 그런데}

10330 # 가축 한 마리 메긴다는 거슨 대단난 겁니다.{가축 한 마리 먹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0330 @ 그러켄네요.{그렇겠네요.}

10330 # 네. 내가 우리 매:형니미 우:저네 뎡기는 장사릴 헐는데,{네, 내가 우리 매형이 소 전에 다니는 장사를 했는데,}

10330 # 매형님네 소를 사야 될 텐데 내가 도니 읍씨니까 쌀도가 갑쓸 줄게시니 요거 가지고 요 돈 가지고 소를 하나 사 보내시오.{매형, (내가) 소를 사야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쌀 도가 값을 줄 것이니 요거 가지고 요 돈 가지고 소를 하나 사 보내시오.}

10330 # 내가 소를 이장 저장 사라 뎡기면 비용이 깨:지고 그나마두 내 이 돈두 주러들 테니까.{내가 소를 이 장 저 장 사라 다니면 비용이 깨어지고 그나마도 내 이 돈도 줄 어들 테니까.}

10330 # 이 돈 가지게따 사 보낸는데 송아질 조:차는 걸 사 보내떠라고요.{이 돈 가지겠다. 그래 사 보냈는데 송아지를 좋잖은 것을 사 보냈더라고요.}

10330 # 게 인제 이거 소가 조:은 소하고 안 조은 소하고 메기는 데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 예) 예, 이.{그래 인제 이거 소가 좋은 소와 안 좋은 소와 먹이는 데에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 예) 예, 이.}

10330 # 조은 거는 무시무시 커서. (@ 빨리) 예, 잘 되지만,{좋은 것은 빨리 커서, (@ 빨리) 예, 잘 되지만,}

10330 # 안 조은 거는 머 빠:쩍 마른 건마냥 이상하게,{안 좋은 것은 머, 비쩍 마른 것처럼 이상하게,}

10330 # 그래, 그래서 인제 이글 한 일리 년 매겨 가지고 어느 정도 쳐서,{그래, 그래서 인제 이것을 한 일이 년 먹여서 어느 정도 쳐서,}

10330 # 남 보기에 서랑서랑할 때 가따 파:라가지고 인제 다시 조:흔 노를 사게 되거드 뇨.{남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때 가져다가 팔아서 인제 다시 좋은 놈을 사게 되거든요.}

10330 # 그래서 인제 이거를 메기는데, 소 메긴다는 건 얼:마나 심등가 하면,{그래서 인제 이것을 먹이는데, 소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10330 # 가:레 인제 드:레 가따 내다 매자나요?{가을에 인제 들에 갖다가 내어다 매잖아 요?}

10330 # 그리며는 내가 인제 나미 마당지를 가서 인제 지를 치구 이 노멸 끌구 드러 오자



나요?{그러면 내가 인제 남의 마당질을 가서 인제 짐을 치고 이놈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10330 # 그라든 이노든 여르텐 마악 뜨더 머거서 기우니 조아저가지고 막 펄펄 뛰고 그러니다.{그러면 이놈은 여름에는 막 뜯어 먹어서 기운이 좋아져서 막 펄펄 뛰고 그러니다.}

10330 # 그 고생에 해튼 그 농촌 사람 고생이라는 거는 말로 모태요 인제. 그래.{그 고생에 하여튼 그, 농촌 사람 고생이라는 것은 말로 못해요. 인제. 그래.}

10330 # 그러케 해서 인제 그를 메 메겨 노:든 그 노미 새끼를 가짜나요?{그렇게 해서 인제 그놈을 머, 먹여 놓으면 그놈이 새끼를 갖잖아요?}

10330 # 갸 인제 이:를 가리켜서 내가 부리다가 우리 처가찌빌다 걸 부리는 소를 보내고 내가 한 마릴 메견는데,{그러면 인제 일을 가르쳐서 내가 부리다가 우리 처갓집에다 그것을 부리는 소를 보내고 내가 한 마리를 먹였는데,}

10330 # 내가 메긴 황소가 꿔: کننده 거기서도 또 송아질 하나 나아짜나요?{내가 먹인 황소가 꿔: 컸는데 거기서도 또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잖아요?}

10330 # 그래 가지구서 그래 가지구 소가 씨:바리가 된데다가,{그래서, 그래서 소가 세 마리가 된데다가,}

10330 # 아 농사진 쌀 여기 쪼금 인는 거하고 해:가지고 삼천 평짜리 논 하나 나는 거를, {아, 농사지은 쌀 여기 쪼금 있는 것과 (함께) 해서 삼천 평짜리 논 하나 나는 것을,}

10330 # 어 이 하나 나는 거를 그 소 세 마리 팔고 해가주고 그 삼천 평짜릴 사가지고, {어, 이, 하나 나는 것을 그, 소 세 마리 팔고 (쌀 파고) 해서 그 삼천 평짜리를 사서,}

10330 # 그때서부터 내 생화리 이러션 거거드뇨.{그때서부터 내 생활이 일어선 것이거든요.}

10330 # 그때는 쌀 열까마만 치머는 게:속 그거 비시예요.{그때는 쌀 열 가마만 치면 계속 그것이 빗이예요.}

10330 # 농사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10330 @ 그래 그런내요.{그래, 그러네요.}

10330 # 그거 가꾸 나면 도지 부어지고 그랜는데,{그것 갇고 나면 도지 부어지고 그랬는데}

10330 # 그르케 해가지고 그거 때메 인제 완저니 바뀌지는 거지요.{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인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10330 # 논 단 마지기 이뻐 데서 인제 열판 마지길 사니깐.{논 닷 마지기 있던 데에서 인제 열닷 마지기를 사니까,}

10330 # 한 섬지기 되니까 우리 인저 큰따라하구 세:시꾸 살면서,{한 섬지기 되니까 우리 이제 큰딸과 세 식구 살면서,}

10330 # 생화레 지출 되는 건 점:부 품파라서 쓰니까,{생활에 지출 되는 것은 전부 품을 팔아서 쓰니까,}

10330 # 인제 그게 도:니 되더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제 생화리 되가지고,{인제 그것이 돈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제 생활이 되어서,}

10330 # 논 또한 저기 저 아홉 마지기짜리 또 천팔백 평 또 사 그래가지고,{논 또한 저기, 저, 아홉 마지기짜리 또 천팔백 평 또 사 그래서,}

10330 # 한 육천 평 맨드러가지고 애들 공부 갈키면서 사라온 거거든요.{한 육천 평 만들어서 애들 공부 시키면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10330 # 그래서 소 메긴다는 거는 아주 엄청난 가게 토니 대다내요, 그거.{그래서 소를 먹인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가게 돈이 대단해요, 그것.}

10330 # 그러게 메겨찌.{그렇게 먹였지.}

10330 @ 금 보통 그런 경우에는 큰 소 키워가지고 주고 어 어리소 받고 이런 형식입니까?{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큰 소를 키워서 주고 어, 어릿소 받고 이런 형식입니까?}

10330 @ 또 새끼를 나아가지고 새끼는 가지고 큰 소는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또 새끼를 낳아서 새끼는 (기르는 사람이) 가지고 큰 소는 (소를 사준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0330 @ 암놈 인제 암 암소일 때,{암놈 인제 암, 암소일 때,}

10330 @ 대개는 암소 하조? {대개는 암소를 하지요?}

10330 # 예, 암소로 하는데,{예, 암소로 하는데,}

10330 # 암소로 해는데 우짜까나 하여튼 내가 그건똥 형편상 내가 저 저 저 사لامي 켜찬코 잘 메길 쑈 인는데,{암소로 해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그것도 형편상 내가 저, 저, 저 사람이 팬찮고 잘 먹일 수 있는데,}

10330 # 내가 친부니: 이꼬 그래두 좀 돌봐주고 시푸면 그런 소를 한 마리 주어요. 송아지를 가따 메겨라. {내가 친분이 있고 그래두 좀 돌봐주고 싶으면 그런 소를 한 마리 주어요. 송아지를 갖다 먹여라.}

10330 # 그래서 그 송아지를 한 이:십사: 서기나 한 시 십팔 개 월 이러케 키 크게 해줄 경우.{그래서 그, 송아지를 한 이십사 석(=개월)이나 한 시, 십팔 개 월 이렇게 키를 크게 했을 경우,}

10330 # 그거슬 이러케 가져오구 송아지를 하나 사:줍니다.{그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줍니다.}

10330 # 그러믄 인제 그거 메:겨준 대:까로 송아지를 하나 으:더끼 때메 사지를 안코 내가 키:우는 거지요.{그러면 인제 그것을 먹여준 댓가로 송아지를 한 마리 얻었기 때문에 사지를 앓고 내가 키우는 것이지요.}

10330 # 그런 시그로 하고. 큰 소는 하여튼 도지 쏘로 다 인제 남 주고,{그런 식으로 하고. 큰 소는 하여튼 도깃소로 다 인제 남을 주고,}

10330 # 나메 꺼 가따 소 부리고 가따주고 그래는 거고. 그런 예가 이썬썬요.{남의 것 가져다가 소를 부리고 갖다 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10331 @ 그담 인제 소를 이제 그 도진 쏘 줄라며는 길을 들여가지고 다 할 쑈 있게 해야 될 때 줘야조?{그다음 인제 소를 이제 그 도깃소 주려면 길을 들어서 다 (농사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때에 주어야지요?}

10331 # 그러먼뇨.{그럼은요.}

10331 @ 소 가:른 어떠케 드림니까?{소의 길은 어떻게 들입니까?}

10331 # 소 길 드리는 거는뇨.{소의 길을 들이는 거는요.}

10331 # 정화키는 몰르는데 송아질 가따 메겨가지고 한 한 오류 개월 메겨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송아지를 갖다 먹여서 한, 한 오류 개 월 먹여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10331 # 몽만 부뜨리 메고 두믄 하:도 나내서 이걸 감당을 모타게 되믄 인제 코를 뚜루자 나요? { 목만 붙들어 메고 (그대로) 두면 하도 난해서 이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인제 코를 뚫잖아요?}

10331 # 코릴 뚜러서 코뚜렐 해 가지고 다 부뜨리 매:서 메겨 가지고,{코를 뚫어서 코뚜렐을 해서 다 붙들어 매어서 먹여서,}

10331 # 요고 요고시 가령 한 심뉴 깨워리나 요러케 해서 어느 정도 장성해썰 쟈 너무 크면 안돼:요.{이거, 이것이 가령 한 십육 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너무 크면 안 돼어요.}

10331 # 어느 정도 장성해썰 쟈 모게 빠가 나와서 이게 구드면 심드려요, 일가리키가.{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목에 빠가 나와서 이것이 굳으면 힘들어요, 일을 가르치기가.}

10331 # 게서 쪼끔 어릴 쩌게 이제 이러:케 구부러진 남구를 하나 벼다가 여기를 앵이를 저걸 해서.{그래서 조금 어릴 적에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여기를 용이를 저것을 해서.}

10331 # 끄늘 하나 이러케 매고 요기다가 구녀글 뚫러가지고,{끈을 하나 이렇게 매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10331 # 이자 지:뜨라케 이르케 막 이러케 된 저 멩에가 이러케 돼:씨니 이러케 된 데다,{이제 기다랗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된 저, 멩에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 데에다,}

10331 # 해서 요길요길 요기다 끄늘 매가지고 이러케 해서 이걸 풀러가지고,{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여기다가 끈을 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서,}

10331 # 소한테다 이러케 끼워노코 이걸 부뜨리매서 세우다가 여기다가 부뜨리 매면,{소에 게다 이렇게 끼워놓고 이것을 붙들어 매어서 세우다가 여기다가 붙들어 매면,}

10331 # 인제 멩에가 이러케 (@ 예예) 여기 이제 결부가 되지요.{인제 멩에가 이렇게 (@ 예예) 여기 이제 결부(結付)가 되지요.}

10331 # 그르케 되면 그때 무어:슬 하나 하믄,{그렇게 되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10331 # 사네 가서 이르:케 가지 친 나모를 이러:케 가지친 나물 이러케 구을근 느믄 이러케 벼:다가,{산에 가서 이렇게 가지를 친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친 나무를 이렇게 굵은 놈을 이렇게 베어다가,}

10331 # 가지친 나모를 벼다가 여기다가 구녀글 뚫러서 막대기 하나 바겨가지고,{가지를 친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 하나 박아서,}

10331 # 이제 그 멩에다 볼쭈를 하나 매:서 여기다 부뜨리 맵니다.{이제 그 멩에에다가 붓줄을 하나 매어서 여기다가 붙들어 맵니다.}

10331 # 그래구서 인제 보메 땅이 어러따 노:거서 기리 거 거처 처곤 열고 거친 노가썰 쟈.{그러고서 인제 봄에 땅이 얼었다가 녹아서 길이 거, 거진 열고 거진 녹았을 때,}

10331 # 이때 인제 빙파니 좀 저썰썰 이제 절면애:드리 여기 한 두어서너 타:올러 안꼬서 이노믄 모려요. {이때 인제 빙판이 좀 젖을 때 이제 젊은애들이 여기 한 두어 서넛이 타 올라 앉고서 이놈을 몰아요.}

10331 # 근데 츠으멘 이게 아프니까 그냥 마약 지맘대로 이래기때메,{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아프니까 그냥 막 제 마음대로 이랬기 때문에,}

10331 # 여페 하나 인자 베썩 부터 가지고 끌:구 가자나요?{옆에 한 사람이 인제 바썩 붙어서 끌고 가잖아요?}

10331 # 그래 가지고 인제 길로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해면,{그래서 인제 길로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을) 하면,}

10331 # 양중엔 지가 모는대루 가:요, 이게. 제 길대로.{나중에는 제가 모는 대로가요, 이게. 제 길대로}

10331 # 이러케 가고 이러케 가고 그래면 또 이러케 어디어디어디해면서 이러케 가고,{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어디어디어디하면서 이렇게 가고,}

10331 #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자버 땡기고 이래거든요. (@ 예) 그러이.{이라 이라 하면서 잡아 다니고 이러거든요. (@ 예) 그러니}

10331 # 여 저 강언도는 모르 모르는데 여기서는 자부 땡기문 자부 땡기문 이리 도라오거든요, 이진 코를 자부 땡기니까.{여, 저, 강원도는 모르, 모르는데, 여기서는 잡아 다니면, 잡아 다니면 이리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코를 잡아 다니니까.}

10331 # 그래 입자게도 가는 건 인제 꼭 고삐 치면서 어디어디어디하게 되는데,{그래 이쪽에도 가는 것은 인제 꼭 고삐를 치면서 어디어디어디하게 되는데,}

10331 # 이라 하게 되면 인제 탁 때리며 이리야 하면 인제 가게 되거든요. {이라 하게 되면 인제 탁 때리며 이라 하면 인제 가게 도거든요.}

10331 # 그러케 해는 건데 그르케 하는 건데 인제 그제 마:를 마:를 어느 정도 듣게 되면,{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인제 그것이 말을, 말을 어느 정도 듣게 되면,}

10331 # 요고술 이제 바테 가서 부자든지 형제든지 가가지고.{이것을 이제 밭에 가서 부자든지 형제든지 가서,}

10331 # 쟁기를 이제 딱 매어요, 아까. (@ 네네) 여기 나와면 거 쟁기가,{쟁기를 이제 딱 매어요. 아까 (@ 네네) 여기 나왔던 그, 쟁기가,}

10331 # 거게 이제 볼썽리 이르:케 돼:가지고 거기 멩예가 인는 건데. (@ 딱, 썩워서) 소 모게다 딱 지어 가지고,{그것이 이제 붓줄이 이렇게 되어서 거기 멩예가 있는 것인데, (@ 딱 썩워서) 소의 목에다가 딱 지어서,}

10331 # 등어리 꼬:니 익꾸 이제 뒤꽁무니 꼬니 인는데다 탁탁 뜨러 매 노쿠 인저.{등어리 끈이 있고 이제 뒤꽁무니 끈이 있는데다 탁탁 붙들어 매어 놓고 인제,}

10331 # 아페서 고삐 하나 쥐구선 소를 끄:니다.{앞에서 고삐를 하나 쥐고서 소를 끄니다.}

10331 # 그럼 송아지가 츠므에는 인제 이게 막 지머때로 갈라 막. (@ 예예) 히뽉히뜨카는 데.{그러면 송아지가 처음에는 인제, 이게 막 제멋대로 갈라 막, (@ 예예) 히뽉히뜨카는 데.}

10331 # 쟁기 빠기 이로:케 너머 가니까 이러케 너머 가니까,{쟁기박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10331 # 이느미 이러케 저러케 해먹찌 안코 대게 골:로 잘 가라드려요. 이제.{이놈이 이렇게 저렇게 해먹지 않고 대개 골로 잘 가라들어요, 이제.}

10331 # 츠므에는 이력 저러케 하지만,{처음에는 이력, 저렇게 하지만,}

10331 # 그래서 며:뻔 이러케 해서 이걸 하루 이틀 이틀 해면,{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루, 이틀, 이틀 하면,}

10331 # 이제 양중엔 혼자 가서 메우가지고 머러도 이게 이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혼자 가서 메워서 멀어도 이게 일을 합니다.}

10331 # 그래가지구 나이가 좀 머그른 머 아:주 익쑤카지요.{그래서 나이가 좀 먹으면 머,

아주 익숙하지요.}

10331 # 이러:해면 탁 세워노:면 딱 돌려가지고 탁 서자나요, 인제.{이라 하면 탁 세워놓으면 딱 돌려가지고 탁 서잖아요, 인제.}

10331 # 쟁기를 가따가 노코선 보쳐릴 쟁기 위에다 톱 언저 노코,{쟁기를 갖다가 놓고서 보처럼 쟁기 위에다가 톱 얹어 놓고,}

10331 # 여기서 소를 모라가지고 돌려서어서 탁 서면 이르게 서면,{여기서 소를 몰아서 돌려 세워서 탁 서면 이렇게 서면,}

10331 # 이제 쟁기 본줄 가따가 모게다 거러서 땅: 메고 이래구선 뒤에 가서 쟁기 지구서,{이제 쟁기 붓줄을 갖다가 목에다 걸어서 딱 메고 이러고서 뒤에 가서 쟁기를 지고서,}

10331 # 코뽕이로 어디여 하면 이제 즈줄로 탁 드러서서 가게 되거든요.{고삐로 어디여 하면 이제 저절로 탁 들어서서 가게 되거든요.}

10331 # 그게 그게 그래서 그 쟁기질 하는게 소를 이 복파늬로 모는 방버비 어디요 하면 이리 가고.{그게, 그게 그래서 그, 쟁기질 하는 것이 소를 이 복판 위로 모는 방법이 어디요 하면 이리 가고,}

10331 # 에 인제 이라 하면 인제 가고. {에, 인제 이라 하면 인제 가고,}

10331 # 인제 우츠그로 인제 자바댕기면 인제 우츠기로 오는데,{인제 우측으로 인제 잡아다니면 인제 우측으로 오는데,}

10331 # 인는데 이 이 요:리 파가고 요:리 파가고 고 골 하나 요로케 нама쉴 경우,{있는데, 이, 이, 요리 파 가고 요리 파 가고 그 골 하나가 요렇게 남았을 경우,}

10331 # 소가 아:빠리 요골만 딱 딛꼬 나가야 되거든요.{소가 앞발이 요것만 딱 딛고 나가야 되거든요.}

10331 # 요 요로케 가면 그냥 요기서 쟁기가 톱 통그라져서 쫘: 나가니까.{요, 요렇게 가면 그냥 여기서 쟁기가 톱 통그라져서 쫘 나가니까,}

10331 # 요골 탁 부뜨는데 어디어디어디하면서 코삐를 이러케 자부댕김 줌 우끼는 소리지요.{요것을 탁 붙드는데 어디어디어디하면서 고삐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줌 웃기는 소리지요.}

10331 # 어디어디어디해서 해 자바댕기면 자바댕기는 건 이리가고 어디어디어디 이리 모는 건데.{어디어디어디 해서 잡아 다니면 잡아 다니는 것은 이리 가고 어디어디어디 이리 모는 것인데,}

10331 # 어디어디어디 해서 자바댕기면 복파늬로 짜:악 가자나요, 그게. {어디어디어디 해서 잡아 다니면 복판 위로 짜악 가잖아요, 그게.}

10331 # 게 인제 평상시에 지가 제 골:다려서 잘 갈때 팬차는데. {그래 인제 평상시에 제가 제 골 다려서 잘 갈 때는 팬찮은데,}

10331 # 잡장 마구리나 입자게서 돌: 모리할 짜게는 돌 모리 할짜게는.{잡장 마구리나 이쪽에서 돌 모리할 적에는 돌 모리 할 적에는,}

10331 # 틀림업씨 그런 방버블 써가지고 딱 세워서 해서 위:해가지고.{틀림없이 그런 방법을 써서 딱 세워서 해서 위: 해서,}

10331 # 쟁기 꼬테 나갈만치 쟁기가 탁 나감 딱 세워가지고.{쟁기 끝에 나갈 만큼 쟁기가 탁 나가면 딱 세워서,}

10331 # 거걸 쟁기를 딱 떠서 입짜기루 노코 소를 돌려야지.{그것을 쟁기를 딱 떠서 이쪽

으로 놓고 소를 돌려야지}

10331 # 그냥 돌리든 소가 뒤빨로 바:를 훌쩍 너먼썬.{그냥 돌리면 소가 뒷발로 바(=줄)를 훌쩍 넘었으면,}

10331 # 그 소 다릴 들고 거기다 또 지버너어야 되니까 애:멍는 이리거든요.{그 소 다리를 들고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애를 먹는 일이거든요.}

10331 @ 아, 그런데요.{아, 그런데요.}

10331 # 그래서 가리키는 방버븐 그러케 합니다.{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10331 # 그 저거를 저 체따리 가튼 걸 피워서 끈케라 그래조.{그 저것을 저, 챗다리 같은 것을 피워서 꿩게라 그러지요.}

10331 # 그걸 해가지고 올리 타서 끌:구 땡기면 가리켜.{그것을 해서 올라타서 끌고 다니면 가르쳐}

10331 # 그러니까 지금 소드른 일:하는 소가 하:나토 업썬요.{그러니까 지금 소들은 일하는 소가 하나도 없어요.}

10331 # 이걸 가리켜야 부리덜 모탈 꺼니까. (@ 그런데요) 부리덜 모탈 꺼니까.{이것을 가르쳐야 부리지를 못할 것이니까. (@ 그런데요) 부리지를 못할 것이니까,}

10331 # 가리킬래든 푸:미 마니 들고 고생을 마니 하기 때때 그 가리키질 안코 이래 일:해는 소가 업썬요.{가르치려면 품이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치지를 앓고 그래서 일하는 소가 없어요.}

10331 # 일: 잘:하는 소 하나 이심 조:초.{일을 잘 하는 소 한 마리 있으면 좋지요.}

10331 # 나이만 턱: 드른 소 이시면 인제 마차 가튼 거 달구지 가튼 거 꼬를레면.{나이만 턱 든 소 있으면 인제 마차 같은 것 달구지 같은 것 끌려면,}

10331 # 그 인제 달구지는 이르:케 돼: 이짜나요? (@ 예예) 그 체가.{그, 인제 달구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예예) 그 체가.}

10331 # 뒤에 바꾸가. (@ 예예) 마:차는 이러케 제천따가 이러케 하는 거지만. (@ 아아) 달구지는 이러케 돼:인는 건데.{뒤에 바꾸가 (@ 예예) 마차는 이렇게 젓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 @ 아아) 달구지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10331 # 이러케 이제 소를 몰면 이걸 훌:땡 너머가면 지가 탁: 드러가 서지요.{이렇게 이제 소를 몰면 이것을 훌렁 넘어가면 제가 탁 들어가 서지요.}

10331 # 그래가지고 딱 매어서 인자 한자 타고가구. 소 말 잘 듣는 너먼 참: 조썬니다.{그래서 딱 매어서 인제 혼자 타고가고. 소, 말 잘 듣는 놈은 참 좋습니다.}

10331 # 근데 츠음 가리켜가지고 속 썩길려든 드레 나가 일하든 엄:청나게 고생해요.{그런데 처음 가르쳐서 속 썩으려면 들에 나가 일하면 엄청나게 고생해요.}

10331 @ 그런, 그런데요. 그 길을 잘 드러야지.{그런, 그런데요. 그, 길을 잘 들어야지.}

10332 @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좀 말씀 하썬썬만 소:를 부릴 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좀 말씀 하썬썬만 소를 부릴 때에,}

10332 @ 인제 명령하는 소리 인제 안썬미까? {인제 명령하느 소리 있지 않습니까?}

10332 # 예. 그제 인제.{예, 그제 인제}

10332 # 가라고 하는 소리는 이랴.{가라고 하는 소리는 ‘이랴’}

10332 @ 이랴?{이랴?} 10332 # 예.{예}

10332 @ 이랴 하며는 아프로 한번만 합니까? 이랴이랴 합니까? {‘이랴’ 하면 앞으로 한번만 합니까? ‘이랴이랴’ 합니까?}

10332 # 그러치요. 이라이라 그래야지.{그렇지요. ‘이라이라’ 그래야지.}

10332 @ 예, 이라이라 두번, 예.{예, ‘이라이라’ 두 번, 예}

10332 @ 아프로.{앞으로}

10332 # 그리구 인제.{그리고 인제}

10332 @ 그담 오르.{그 다음 오르}

10332 # 말: 업씨 하는건 고삐를 인제 들어릴 탁:치는 방법또 인꼬 그래 그러치요.{말이 없이 하는것은 고삐를 인제 들어리를 탁 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그렇지요.}

10332 # 그래고 인제 엔:쪼그로 가는 거시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그리고 인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10332 @ 어리어리?{어리어리?}

10332 #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10332 #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10332 # 그 말:글씨로는 좀 그런데 하여튼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그 말을 글씨로는 좀 그런데 하여튼 ‘어디어디어디’요, 그래요.}

10332 @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10332 # 예, 예.{예. 예}

10332 @ 이게 윈쪼기요?{이게 윈쪽이요?}

10332 @ 오른쪼그론요?{오른쪽으로는요?}

10332 # 오른쪼그론 인제 꼬삐를 땡:기는 거지요.{오른쪽으로는 인제 꼬삐를 땡기는 거지요.}

10332 @ 이제 오른쪼그로. {이제 오른쪽으로}10332 # 예. {예.}

10332 @ 그 다메. {그 다음에.}

10332 @ 가다가 인제 서:라 할때. {가다가 인제 ‘서’라고 할 때.}

10332 # 예 인제. {예 인제.}

10332 # 받꼬랑을 다: 한번 논뚜령을 다:나아서 딱: 쟁기가 갇썰쨌 위: 그래믄 이너미 딱 서지요.{받고랑을 다 한번 논두령을 다 나와서 딱 쟁기가 갇을 때는 ‘위’ 그러면 이놈이 딱 서지요.}

10332 @ 위 이거는 한번만 합니까? {‘위’ 이것은 한번만 합니까?}

10332 # 아니 마럴 안 드르먼 위워워워 그 그래지마는. {아니 말을 안 들으면 ‘위워워워’ 그, 그러지만은}

10332 # 워어 그라먼 인제 이게 딱 서지요, 지가. {‘워어’ 그러면 인제 이게 딱 서지요, 자기가.}

10332 @ 예예. {예예.}

10332 # 힘들게 가던 너미니까. {힘들게 가던 놈이니까.}

10332 @ 스톱 딱. {스톱 딱.}

10332 # 아아. {아아.}

10332 @ 예. {예.}

10332 # 그계 {그계}

10332 @ 그 주로 이제 아프로, 윈쪼그로, 오른쪼그로, 정지 주로 네가집니까? {그, 주로 이제 ‘앞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정지’ 주로 네 가지입니까?}

10332 # 예, 그래요. 그. {예, 그래요. 그.}

10332 @ 음. {음.}

10332 # 이랴: 그라고 어디 어디 어디고. {'이랴' 그리고 '어디 어디 어디고'.}

10332 @ 어디 어디 어디고, 워어. {'어디 어디 어디고', '워어'}

10332 # 우츠그로는 땡기고 세우는건 워: 그래구해. {우츄으로는 당기고 세우는 것은 '워' 그라고 해.}

10332 # 인저 거기서 한 가지 마를 하자면 잘모태서 이 본쭈를 뒤따리가 너면썰 찌게. {인제 거기서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잘 못해서 이 붓줄을 뒷다리가 넘었을 적에.}

10332 # 본쭈를 이르게 밀:면서 소를 뒤따리를 이르게 디다밀면서. {붓줄을 이렇게 밀면서 소를 뒷다리를 이렇게 드러다 밀면서}

10332 # 이걸 뽀라 그럴 쟈 들버 그래요. {이것을 빼려고 그럴 때 '들어' 그래요.}

10332 @ 들버? {'들어'?}

10332 # 들버 예. {'들어' 예.}

10332 # 들버 그라문 이 이느미 뒤따릴 이르게 드러서 인자 아니로 드러너치요. (@ 아.) {'들어' 그러면 이놈이 뒷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인제 안으로 들어 넣지요.}

10332 @ 들버. (# 예.)

10332 @ 이거는 인제 예 썸. {'들어'. 이것은 인제 예 썸.}

10332 @ 꼬 꼬빠를. {고 고빠를.}

10332 # 아니 저기 저저 뒤:에 뒤:에 그 저기 저. {아니 저기 저 저 뒤에 뒤에 그 저기 저.}

10332 # 본쭈림 본쭈를 너면썰 경우 뒤따리가. {붓줄임, 붓줄을 넘었을 경우 뒷다리가.} 10332 @ 예예. {예예.}

10332 # 예. {예.}

10332 # 그러니 소 부리는 이리 시미 드러서 쉼:닐꾸니라고 그랜는데. {그러니 소 부리는 일이 힘이 들어서 쉼 일꾼이라고 그랜는데.}

10332 # 예. 쉬:닐꾸니라 그랜는데. {예. 쉼 일꾼이라 그랜는데.}

10332 # 이사라문 특:빠리 아치메 나메 이를 갈 경우 데려다 조바늘 메겨요. {이 사람은 특별히 아침에 남의 일을 갈 경우 데려다 조반을 먹여요.}

10332 # 그리구 인제 일반 일꾼들보다 쪼끔 먼저 나가서 그 소가 헬 이를 해:놔야 일꾼드리 와서 이를 하고 그러기 때메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일반 일꾼들보다 조금 먼저 나가서 그 소가 할 일을 해 놓아야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 주고.}

10332 # 이제 일꾼드른 수리 안나와도 그는 또 수를 특빠리 내다주고 그러치요. {이제 일꾼들은 술이 안 나와도 그는 또 술을 특별히 내어다 주고 그렇지요.}

10333 @그 소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이르미 다르게 저 부 부쳐질 쭈 인습니까? {그 소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저, 부, 붙여질 수 있습니까?}

10333 # 그: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이르미 달르지를 안은데. {그,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이름이 다르지가 않은데.}

10333 # 그저네는 그:키 드문데 칩소라는 게 인떠라구요. 황소 보며는. {그 전에는 그렇게 드문데 '칩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황소를 보면.}

10333 # 칩소라는 게. {'칩소'라는 것이.}

10333 @칩소? {'칩소'?}

10333 # 예. 거문 검 꺾꺼만 터리 드문드문 니러케 색 게 이떠라고여. {예. 검은, 검, 감감



한 털이 드문드문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10333 # 거른 거묻거묻 거른 터리 드문 드:문 이러케 색께 인떠라구요. {검은, 거묻거묻 검은 털이 드문드문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10333 @네. {네.}

10333 # 그리구 인제. {그리고 인제.}

10333 # 그 허:연 털 마:닌는 걸 인제 뿌:역 송아지다. {그 허연 털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제 ‘뿌역 송아지’다.}

10333 # 이러케. {이렇게.}

10333 @뿌역? {‘뿌역’?}

10333 # 예예, 뿌역 송아지다 그러케 얘기했는데. {예예, ‘뿌역 송아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333 # 별로 소 색깔가지고 말하는 건 벼락 모빠꺼든뇨. {별로 소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10333 # 암소니 황소니 머 이런 소리는 마니 해썬요. {암소니 황소니 뭐 이런 소리는 많이 했어요.}

10333 @궁까 암 암쏘 암쏘하면서 순쏘라고는 안하고? 황소. {그러니까 암, ‘암소’, ‘암소’ 하면서 ‘숫소’라고는 안 하고? ‘황소’.}

10333 # 황소. {‘황소’.}

10333 @예. {예.}

10333 # 그래 인제 한참: 말 말 말썽부리고 머 그래는 걸 갈따가 인제 황동구리라고. {그래 인제 한참 말, 말, 말썽을 부리고 뭐 그러는 것을 가져다가 인제 ‘황동구리’라고.}

10333 @황동구리? {‘황동구리’?}

10333 # 황동구리. {황동구리.}

10333 @예. {예.}

10333 # 그게 인제 그 눈까리 빨개지면 막 식파 아니루 떠구 막 이래거든뇨 이너미. {그것이 인제 그 눈깔이 빨개지면 막 식당 안으로 뛰고 막 이랬거든요. 이눔이.}

10333 @예예. {예예.}

10333 # 저 중간 쏘가. {저 중간 소가.}

10333 # 그래서 황동구리다 그르케도 얘기해. {그래서 ‘황동구리’다, 그렇게도 이야기해.}

10333 # 이제 너믄 황소라구래. {이제 놈을 ‘황소’라고 해.}

10334 @ 뿌:레 뿔모양에 따라서 저 이르미 달라지는 경우도 일썬니까? {뿔에 뿔모양에 따라서 저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10334 # 예. {예.}

10334 # 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인는데예. {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10334 # 특빠리는 모르고. {특별히는 모르고.}

10334 @ 예. {예.}

10334 # 천지가기라구 그래는게 이썬여. {‘천지각’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10334 @ 천지각? {‘천지각’?}

10334 # 예. {예.}

10334 # 그거 그게 소가 조:타고 인제 갑씨 쪼끔 치이는데. {그거, 그것이 소가 좋다고 인

제 값이 조금 쳐 지는데.}

10334 # 바른작 뿌른 위:로 올리 가썸니다. {오른쪽 빨은 위로 올라 갔습니다.}

10334 @ 예. {예.}

10334 # 근데 엔:작 뿌른 꼬치 알려 내려가요. {근데 왼쪽 빨은 끝이 아래로 내려가요.}

10334 @ 아. {아.}

10334 # 그게 뭐:가 유리한가 해른 고삐가 코를 뚫러서 빨 사이르 너머가게 대는데. {그게 뭐가 유리한가 하면 고삐가 코를 뚫어서 빨 사이를 넘어 가게 되는데.}

10334 # 천지각 쏘는 이 코삐가 빨 너머로 버서지는 방버비 업썸요. {천지각 소는 이 고삐가 빨 넘어로 벗겨지는 방법이 없어요.}

10334 @ 아. {아.}

10334 # 예. 이러케 대:서, 예, 이러케 대가지고. {예.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돼서.}

10334 # 근데 어떤 소는 인제 그냥 특빨히 이르른 내 모뜨러 받는데 이르:케 뿌리 양짜기 이르케 내려온 놈도 인꺼든요. {근데 어떤 소는 인제 그냥 특별히 이름은 내가 못 들어 봤는데, 이렇게 빨이 양쪽이 이렇게 내려온 놈도 있거든요.}

10334 @ 예예. {예예.}

10334 # 근데 그너른 이르:케 해씨른 빨과 빨 사이럴 줌: 메지거나 줌 복짜페도 이리 버서지고 그랜는데. {근데 그 놈은 이렇게 했으면 빨과 빨 사이를 줌 메어지거나 줌 복잡해도 이렇게 벗겨지고 그랬는데.}

10334 # 천지가기다 그러른 부림도 조타고 하면서도. {'천지각'이다, 그러면 부림도 좋다고 하면서도.}

10334 # 어째거나 하여튼 그 코뚜레로 해:서. {어쨌거나 하여튼 그 코뚜레로 해서.}

10334 # 코뚜레 여페는 이제 넘저칸 허리띠 가튼 가죽띠 가튼 걸로 이러:케 해가지고. {코뚜레 옆에는 이제 넓적한 허리띠 같은 가죽띠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334 # 그: 너머 가서 인제 이게 소가 쟁일 도러댕겨도 이 고삐가 웅케지 매지 안케. {그너머 가서 인제 이게 소가 종일 돌아다녀도 이 고삐가 얹혀 매지 않게.}

10334 # 도로래래는 걸 달자 도르래래는 걸 달자나여? {'도르래'라는 것을 달자... '도르래'라는 것을 달잖아요?}

10334 @ 예예예예. {예예예예.}

10334 # 감 이 제이새가 여기서 뱅뱅 도러서 여기서 부떠러매서 인제 이르:케 가게 대는데. {그럼 이 조임 쇠가 여기에서 뱅뱅 돌아서 여기에서 붙들어 매서 인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10334 # 이 너:머간 꼬:니 천지가근 이러케 댄데서 여기서 딱 걸리니까. {이 넘어간 끈이 천지각은 이렇게 된 데에서 여기서 딱 걸리니까.}

10334 # 아주 저년 요지부동이쥬. 소가 참조치요, 그래서. {아주 전혀 요지부동이지요. 소가 참 좋지요. 그래서.}

10334 # 그리구 별루 별루 빨 가지고 뭘 뭘가기다 뭘가기다 어린 거년 잘 모르게썸여. {그리고 별로, 별로 빨을 가지고 뭘, 뭘 '각'이다, 뭘 '각'이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10334 @ 그건 예. {그건 예.}

10334 # 우저네도 상당히 마:니 다녀꺼더녀. {우전에도 상당히 많이 다녔거든요.}

10334 @ 예예. {예예.}

10334 # 절머서넌 서를. {줍어서는 소를.}

10334 # 그: 그저네 우리 아버지 밋에서 내가 쪼꺼메서부터소릴 엄청:나게 여기 아페 벌떠니. {그, 그 전에 우리 아버지 밋에서 내가 쪼끄마했을 때부터 소를 엄청나게 여기 앞에 개울가 빈터.}

10334 # 저: 아페가른 한 이:만 평 짜리 벌떠린데 옴:나렌 그게 다: 케빠려써써여. 그래서. {저 앞에 가면 한 이만 평짜리 개울가 빈터인데, 옛날에는 그게 다 갯벌이었었어요. 그래서.}

10334 @ 아 갯 개빠리얼써요? {아, 갯, 갯벌이었어요?}

10334 # 예. 그래서 거가서 이제.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10334 # 노늘 개다 곧 게 아네고 장마가 지면 거냥 홀더디미를 그래쓰니깐. {논을 개다 곧 것이 아니고, 장마가 지면 그냥 홀더딴이를 그랬으니까.}

10334 # 거:서 소릴 마:네 띠끼꼬 쪼거만 게 너\*\* 그래 그래써요. {거기에서 소를 많이 뜯기고, 쪼끄마한 것이 너\*\* 그래 그랬어요.}

10334 # 해튼 소에는 머 츠나게\*\* 관시물가지고. {하여튼 소에는 대단히 뭐 관심을 가지고.}

10334 # 우리 생활도 내가 그거 가지고 마니 예 기초를 자벌따고 하는. {우리 생활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많이 예, 기초를 잡았다고 하는.}

10334 # 우리 지바페다 진꾸서 머리꺼지도 메겨 보고. {우리 집앞에다 짓고서 머리까지도 먹여 보고.}

10334 @ 예. {예.}

10334 # 냥중에는 거래꺼든뇨. 그랜는데. {나중에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0334 # 뽕가지고 무슨 소다 무슨 소다 이래는건 잘 기어기안나요. {뽕을 가지고 무슨 소다, 무슨 소다, 이러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10334 # 천지가기래서 그래 하나 생가기나는데. {천지각이라서 그래 하나 생각이 나는데.}

10334 @ 그러믄 저 암소일 경우에. {그러면 저 암소일 경우에.}

10334 # 예. {예.}

10334 @ 새끼 몬난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르미 일썌니까? {새끼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있습니까?}

10334 # 불소라 그레요. {'불소'라고 그레요.}

10334 @ 둘소? {'둘소'?}

10334 # 예. {예.}

10334 # 생가기 잘 안나는데 소 맨:뒤 콩무니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소 맨 뒤 콩무니땀}

10334 # 향무니 인는 고 빠가 하늘로 요러케 올라가라고 나온 소가 이써요. {향문이 있는 그 빠가 하늘로 요렇게 올라가라고 나온 소가 있어요.}

10334 @ 아 예. {아 예.}

10334 # 그느믄 새끼릴 몬 난다 그래구든뇨. 시장에 땡기보믄서. {그러면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시장에 다녀 보믄서.}

10334 @ 예 예. {예예.}

10334 # 아이후 머:라 그랜는데 걸 이저버려써요. 글 그 그. {아이고. 뭐라 그랬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글, 그, 그.}

10334 # 그 소를 새끼를 몬 난다 그러케 얘기를 해기도 헨는데. {그 소를 ‘새끼를 못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10335 @ 소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소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10335 @ 한살짜리 뭐 두살짜리 세살짜리 할때. {한 살짜리 뭐 두 살짜리, 세 살짜리 할때.}

10335 @ 하룻소 두룻소 사룻소 나룻소. {한 살 소, 두 살 소, 세 살 소, 네 살 소}

10335 @ 하룻 두룻 사룻 이런 시그로. {하룻, 두룻, 사룻, 이런 식으로}

10335 # 그런거능 생가기 안나요.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나요.}

10335 @ 예. {예.}

10335 # 그런거는 생가기 안나고.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나고.}

10335 # 대:게 인제 나이는 얻 얻 어떤때 그제 인제 나이 가블해나해면. {대:게 인제 나이는 어, 어, 어떤 때 그제 인제 나이 값을 하냐 하면.}

10335 # 시장에 가따 매:썰 썰 우선 나이버터 보거드뇨. {시장에 가져다가 땀을 때 우선 나이부터 보거든요.}

10335 @ 예예. {예예.}

10335 # 이제 늙은소는 인자 아주 갑썰 점 싸고. {이제 늙은 소는 인제 아주 값이 좀 싸고.}

10335 @ 네. {예.}

10335 # 이제 절문 소는 나이가 이쓰니까 인제 부림도 조코 새끼나이드 하고 그래니까 하는데. {이제 젊은 소는 나이가 있으니까 인제 부림도 좋고 새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10335 # 나:이 보는 거는 꼭 이빨 바요. 이. {나이 보는 것은 꼭 이빨을 봐요. 이빨.}

10335 @ 이 이빨 보고? {이 이빨을 보고?}

10335 # 예. {예.}

10335 @ 예. {예.}

10335 # 그 암니가 두:를 빼며는 선버지기라 그래구 가지고 고거시 이:십사 서기 너머 그며는 이제. {그 앞니를 둘을 빼면 ‘선버지기’라 그러고 가지고, 그것이 이십사 석이 넘어 그러면 이제.}

10335 # 저기 저 나이가 인자 나오는데. {저기, 저 나이가 인제 나오는데.}

10335 # 고 겨치가 인제 빠지구 겨치 전니가 다 빠졌따 덜 빠졌따 그러는 바라메. {고 겹치(=옆니)가 인제 빠지고 겹치 젓니가 다 빠졌다, 덜 빠졌다 그러는 바람에.}

10335 # 네: 사리 너머따 안 너머따 인제 이러케 인제 구분해 나가지. {네 살이 넘었다, 안 넘었다 인제 이렇게 인제 구분해 나가지.}

10335 @ 아까 말한 섬버지기. {아까 말한 ‘선버지기’.}

10335 # 예. 선버지기. {예. ‘선버지기’.}

10335 # 암니빠리 전부 다 빠진 걸. 그래서 어리내들을 급썰 짜리 이러케 이빠진 걸 도려 땡기면 인자 버저꾸나 그러지요. 어른드리 놀리느라구. {앞 이빨이 전부 다 빠진 것을. 그래서 어린애들을 놀리는 자리 이렇게 이가 빠진 것을 돌아다니면 인제 ‘버졌구나’ 그러지요. 어른들이 놀리느라고.}

10335 @ 머머 햐따고요? {뭐 뭐 했다고요?}

10335 # 버절따고여. {버졌다고요.}

10335 # 섬버지기 인저 버저따 이래는 건데 이 이 빠저따 그래는 소리. 소 이빨리 빠진 걸 섬버지기라고 그래. {‘선버지기’ 인제 ‘버졌다’ 이러는 것인데, 이, ‘이 빠졌다’ 그러는 소리. 소 이빨이 빠진 것을 ‘선버지기’라고 그래.}

10335 @ 그면 섬 섬버지:기 할 때 버지기는 저 빠절따는 뜨십니까? {그러면 섬, ‘선버지기’ 할 때 ‘버지기’는 저 ‘빠졌다’는 뜻입니까?}

10335 # 네. {네.}

10335 # 산버지기 하며는 이제 철:뻔 니가 빠절따는 거지요. {‘산버지기’ 하면 이제 첫째번 이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10335 @ 이제 고 고 고건만 이르미 인꼬 다른 업 업니 빠지거나. {이제 그, 그, 그것만 이름이 있고 다른 옆, 옆니가 빠지거나.}

10335 # 예 여페 이빠진 건 이르문 잘 모르겜쎄요. {예. 옆에 이 빠진 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10335 @ 이렇건 따로 업꼬요? 예. {이런 건 따로 업고요? 예.}

10336 @ 대개 보면 조은 소다 나쁜 소다 구벼리 됩니까? {대개 보면 좋은 소다, 나쁜 소다 구별이 됩니까?}

10336 # 그러믄뇨. {그럼은요.}

10336 @ 조:은 소는 특짱이 어떤 겁니까? 조은소 고르는 버븐뇨? {좋은 소는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10336 # 해 우:슨 얘기지요 그게. 지끄른 사람들 살찌면 아주 큰 야다니지 안씀니까? {해도 우스운 이야기지요. 그게. 지금은 사람들 살 찌면 아주 큰 야단이지 않습니까?}

10336 @ 예예. {예예.}

10336 # 근데 짐승은 짐승이기때매 사리 찌야대자나요. {그런데 짐승은 짐승이기 때문에 살이 찌야 되잖아요.}

10336 @ 네. {네.}

10336 # 그러게 되며는 소가 얼:구리 째꼬. {그렇게 되면 소가 얼굴이 짧고.}

10336 # 얼구리 째꼬 모:기 째꼬. {얼굴이 짧고. 목이 짧고.}

10336 @ 예. {예.}

10336 # 등허리가 넓쩌카고. {등허리가 넓적하고.}

10336 # 쪽: 고드면서 네 다리가 이러케 아주 따악 내려온 너미 조:아요. (@ 아.) {쪽 곧으면서 네 다리가 이렇게 아주 딱 내려온 놈이 좋아요.}

10336 # 그게 가따 메기머는 먹썰도 조쿠 크기두 잘 큼니다. {그게 가져다 먹이면 먹성도 좋고 크기도 잘 큼니다.}

10336 # 얼구리 널꼬 째븐 너믄 주둥이가 널꾸 커요. {얼굴이 넓고 짧은 놈은 주둥이가 넓고 커요.}

10336 @ 예예. {예예.}

10336 # 그래서 이게 먹썰이 조썌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성이 좋습니다.}

10336 # 그래서 사람두 똥똥하고 튼튼한 사لامي 멍는 걸 그냥 대다수 먹짜나요 안 머글라 해도 그드른 안 먹썰 모태요 머거서 사리 사리 찌는거예요. {그래서 사람두 똥똥하고 튼튼한 사람이 먹는 것을 그냥 대다수 먹잖아요. 안 먹으려고 해도 그들은 안 먹지를 못해요. 먹어서 살이, 살이 찌는 거예요.}

10336 @ 그러 그러치요. 예예. {그러, 그렇지요. 예예.}

10336 # 근데 사람도 키가 크구 모:기 길구 째쭈칸 사람드른 살 찢려두 안찢니다. {그런데 사람도 키가 크고 목이 길고 길쭉한 사람들은 살 찢려고 해도 안 찢니다.}

10336 # 소두 얼구리 찌:뜨칸게 다리가 끼:뜨칸게 등허리가 넘떠카지 안쿠 이리케. {소도 얼굴이 찌뜩한 것이, 다리가 기다란 것이 등허리가 넓적하지 않고 이렇게.}

10336 @ 좁. {좁.}

10336 # 이리케 쪼븐 소가 이썬요. (@ 예예.) {이렇게 좁은 소가 있어요.}

10336 # 그래서 여페서 보든 넓쪼칸데 뒤에서 보든 볼품 업는 소가 인꺼든뇨?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넓적한데 뒤에서 보면 볼품 없는 소가 있거든요?}

10336 # 이진 갈따 매겨두 살 안찢니다. (@ 아.) {이것은 가져가 먹여도 살 안 찢니다.}

10336 # 언머 줘두 도:저이 사란찌고 모든 성질 나쁘구 그건 큰 그래요. {얼마를 주어도 도저히 살이 안 찢고 모든 성질이 나쁘고 그것은, 그것은 그래요.}

10336 # 근데 이 얼구리 찢꾸 눈빠우리 조:으면서두 그 주둥아리가 널꾸 목 찢꾸. {그런데 이 얼굴이 짧고 눈방울이 좋으면서도 그 주둥아리가 넓고 목이 짧고.}

10336 # 등날 곧꾸 꿩:지가 인제 그 똥똥대이 소기루 이리케 척: 내려간 녀 드러간 녀미 이게 이게. {등날(이) 곧고 꼬리가 인제 그 엉덩이 속으로 이렇게 척 내려간 녀, 들어간 녀미 이게, 이게.}

10336 # 크:기두 잘 크구 모양새도 조코 성질도 온순하고. {크기도 잘 크고, 모양새도 좋고, 성질도 온순하고.}

10336 @ 예. {예.}

10336 # 먹기도 잘 먹꾸 부림새도 조꾸 그래요. {먹기도 잘 먹고, 부림새도 좋고 그래요.}

10336 @ 하하. {하하.}

10336 # 그러므뇨. {그럼은요.}

10336 # 게 이 소:는 특:빠리 시장에 나가서 골:르프는 인제 소 보는 방버비 다: 인는데. {그게 이 소는 특별히 시장에 나가서 고르면 인제 소 보는 방법이 다 있는데.}

10336 @ 예. {예.}

10336 # 거기는 인제 도:니 자공을 하지요. {거기는 인제 돈이 작용을 하지요.}

10336 # 건 비싸 비싸게 되구 싸게 되구 그러니까. {그건 비싸 바싸게 되고, 싸게 되고 그러니까.}

10336 @ 예예. {예예.}

10336 # 도:니 모잘르든 어쩔 쭈 업씨 덜 조은 소두 사고 인제 그러케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덜 좋은 소도 사고 인제 그렇게 하는데.}

10336 @ 예. {예.}

10336 # 소 조은건 그런걸 사야되요. {소 좋은 것은 그런 것을 사야 돼요.}

10338 @ 예 금 옴나레는 그 머슴사리라고 하는 거시 이썬슴? {예, 그러면, 옛날에는 그 머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10338 # 네. {네.}

10338 @ 인썬쨌켄슴니까 일종에 인자에 이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인제, 이제.}

10338 @ 그쪽 드러가서 이제. (# 예.) 생활하면서. (# 예.) 일종에 지금 가트며는 인제 취직하는 건데. (# 예.)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일종의 지금 같으면 인제 취직하는 것인데.}

10338 @ 그 그 머슴사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그, 그 머슴살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10338 # 머슴꾸나라기 보다는 누구네 일꾼. (@ 예예.) {머슴꾼이라기보다는 누구네 일꾼.}

10338 # 이러케 부르거든요. (@ 예예.) 인제 누구네 일꾸니로 드러간따 하든 그. (@ 예.) 누구네 일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인제 누구네 일꾼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 누구네 일꾼.}

10338 # 그래믄서 제다 부쳐 현대 마를 내믄.{그러면서 죄다 붙여 현대말로 하면}

10338 # 머:스미다 인제 머스믄 언제 쓰느냐믄 조:은 일꾸니다라 안 그래구 상:머스미다. {머슴이다. 인제 ‘머슴’은 언제 쓰느냐 하면 좋은 일꾼이라고 안 그러고 ‘상머슴’이다.} 10338 @ 예예예.

10338 # 이러케 할찌게 머스미 마니 드러가구.{이렇게 할 때에 ‘머슴’이 많이 들어가고,}

10338 # 이제 개인저기루 얘기할 켜.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0338 @ 누 누구네 일꾼. {누, 누구네 일꾼.}

10338 # 누구네 일꾼. {누구네 일꾼.}

10338 @ 예예. {예예.}

10338 # 이러케 인제. (@ 아) 마니 불러져요. (@ 예) 그래서 일꾸니나 머스미나 그런데 쓰기는 다 쓰는 소리지요. {이렇게 인제 많이 불러져요. 그래서 일꾼이나 머슴이나 그런데 쓰기는 다 쓰는 소리지요.}

10338 @ 그르믄 조꺼니 똑 같습니까? 드러갈 때? {그러면 조건이 똑같습니까? 들어갈 때?}

10338 # 조:꺼는 조꺼는 인제 한 부락게서 거이 다 알거든요. (@ 네네) 알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조건은 인제 한 부락에서 거의 다 알거든요.}

10338 # 그 사라미 소두 부릴줄 알구. (@ 예) 예. 우선 우선 켜:일꾼하느냐. {그 사람이 소도 부릴 줄 알고. 예, 우선 우선 켜 일꾼 하느냐.}

10338 # 켜이를 하느냐 하고 어 농사 이를 충시리 해서 제대로 할쑤 인는 사라미믄 그게 상:머스미래구 그래가지구. {쉬운 일을 하느냐 하고 어, 농사일을 충실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상머슴이라고 그래서.}

10338 # 갑씨 그때는 마:니 줘야 쌀 열뚜가마예요 일러네. {값이 그 때는 많이 주어야 쌀 열두 가마예요. 일년에.}

10338 @ 일러너지요? {일년이지요?}

10338 # 예. {예.}

10338 # 그래니깐 겨울만 빼구. 봄에 드러가서 갈:꺼지 그래니깐 한. {그러니까 겨울만 빼고. 봄에 들어가서 가을까지 그러니까 한.}

10338 # 을마나 대나 한 여덜: 딸쨍도 될까요? {얼마나 되나, 한 여덟 달 정도 될까요?}

10338 # 이러케 해서 인저 가:을 다 끄드리고 지병 다: 해: 역꾸.{이렇게 해서 인제 가을건 이 다 하고 지붕 다 해서 엮고,}

10338 # 이래믄 인제 바진찌고리 해 이:퍼서 내보는데 인제 저거를 주거든요. {이러면 이제 바지 저고리 해 입혀서 내보내는데 인제 저것을 주거든요.}

10338 # 저기 그 이랜 품까쑤 주거든요?{저기, 그, 일한 품값을 주거든요.}

10338 @ 새경이라 그러니까? 사경 새경? {‘새경’이라 그러니까? ‘사경, 새경’?}

10338 # 예, 새경이라고 그래요. {예. ‘새경’이라고 그래요.}

10338 # 새경을 줘서 나간다고 그래지요. {새경을 주어서 나간다고 그래지요.}

10338 @ 어, 그러든 주로 일련 다뉘가 댐니까? {어, 그러면 주로 일련 단위가 됩니까?}

10338 # 예, 대:개 머스른 일련 따뉘예요. {예, 대개 머슴은 일련 단위에요.}

10338 # 예, 그리구 인제. {예, 그리고 인제.}

10338 # 동네가 거:이 다 이제 보메 그파른 쌀 한 가마씩 내다 먹꾸. {동네가 거의 다 이제 봄에 급하면 쌀 한 가마씩 내어다 먹고.}

10338 # 하는거는 인제 날푸미구. {하는 것은 인제 날품이고.}

10338 @ 네. {네.}

10338 # 여기서 달:푸른 벼량 업써요{여기서 달 품은 별로 없어요.}

10338 @ 그런네요. {그렇네요.}

10338 # 여 한 달 내가 해주젠따 두 달 해젠따 이건 저냥 업꾸. {여, 한 달 내가 해주겠다, 두 달 하겠다, 이건 그냥 없고.}

10338 # 날:품이 제 품값또. {날품이 제 품값도.}

10338 @ 그러모 가튼 지베 멘 년씩 인는 경우도 인짚습니까? {그러면 같은 집에 몇 년씩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338 # 그럴쭈도 인찌요. {그럴 수도 있지요.}

10338 @ 그거는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것입니까?}

10338 # 그거는 모르젠써요. 뭐 재계약이나마나 영 하계끔 해 또 둘러든 그건 줘야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뭐 재계약이나마나 영 하계끔 해 또 두려면 그건 줘야지.}

10338 @ 그러치요 그니까 어 그 급료는 이 일러네 함 번씩?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 그 급료는 이, 일년에 한 번씩?}

10338 # 예. {예.}

10338 # 예, 그러케 해요. {예, 그렇게 해요.}

10338 # 거기 여러 해를 머 게야카구 이래는 겐뚜 업꾸해서. {거기 여러 해를 뭐 계약하고 이러는 것도 없고 해서.}

10338 # 내너네 또 일게 되구. 그냥 이러저래하니 다시 일게 이써주게 그래서. {내년에 또 있게 되고. ‘그냥 이러 저러 하니 다시 있게 있어 주게’ 그래서}

10338 # 그러타고 해지 해든 또 그러케 하는데. (@ 그) 주덩건 줘야지. {그렇다고 하지. 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10338 @ 숙씨근 그쪼게서 다 하는 거지요? {숙식은 그 쪽에서 다 하는 거지요?}

10338 # 숙씩는 대중이 업써요. {숙식은 대중이 없어요.}

10338 # 그거는 인자 외처에서 오거나 그래면 숙씩가튼 게 인찌마는. {그것은 인제 외처에서 오거나 그러면 숙식같은 것이 있지만은.}

10338 # 한 부라게서 갈 경우는 자는건 자기 지베 가서 자면서. {한 부락에서 갈 경우는 자는 건 자기 집에 가서 자면서.}

10338 # 일:만 가서 해주기도 하고. {일만 가서 해주기도 하고.}

10338 @ 일:만. 명는 거는뇨? {일만. 먹는 거는요?}

10338 # 명는건 거기서 다 먹쪼. {먹는 건 거기서 다 먹쪼.}

10338 @ 이라는 데서? {일하는 데에서?}

10338 # 예. 머 아침서부터 다 해줍니다, 명는거는. {예. 뭐. 아침에서부터 다 해줍니다. 먹는 것은.}



10339 @ 또 이제 자자기 아니고 소자가 이썬지요? 소작. {또 이제 자작이 아니고 소자가 있었지요? 소작.}

10339 # 소:자기 인제 아 내가 한 한 열여덟살 지나가면서도 그걸 헐는데. {소작이 인제 아 내가 한 한 열여덟 살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헐는데.}

10339 # 이 동네가 송재이니라는 사람하구 거 어 누군강?{이 동네가 송재인이라는 사람과 그, 어, 누군가?}

10339 # 이 이 이쳐느베 홍세우니 땅하구.{이, 이, 이천읍에 홍세운이 땅과,}

10339 # 서우레 인는 아휴 누구네 땅이랜는데. {서울에 있는 아휴, 누구네 땅이라고 했는데.}

10339 # 세: 사라미나 이런 사람들 땅이 거이 다열썬썬이요 이 동네가 다.{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땅이 다였었어요, 이 동네가 다.}

10339 @ 어 그때부터 외지에서 그냥 땅을 가지고 일썬썬뇨? {어, 그때부터 외지에서 그냥 땅을 가지고 있었군요.}

10339 # 예. {예.}

10339 # 우리 이썬 제도 그랜썬썬이요.{우리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10339 # 그랜는데 내가 장성해면서 쪼:꿈 알: 만할 썬게 그때 토지개혁이 생겼썬니다. {그랜는데 내가 장성하면서 조금 알: 만한 적에 그때 토지개혁이 생겼썬니다.}

10339 # 토지개혁이 생기면서 인제 에 우리 접작 노는 송나리 썬여기구 여기는 굴량리 썬여기엔데. {토지 개혁이 생기면서 인제 에, 우리 저 썬쪽 노는 송나리 지역이고, 여기는 굴량리 지역인데.}

10339 # 굴량미썬여근 굴량미에서 해구 송나리썬여근 송나리 가서. {굴량미 지역은 굴량미에서 하고 송나리 지역은 송나리 가서.}

10339 # 이제 어딘는 썬 썬짜리는 누가 헐다 누가 헐다 기로기 되더라구요 이제.. {이제 어딘는 썬 썬짜리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제.}

10339 # 기로기 딱 되 되고나서 농사를 지니깐 여기 상화내기라구 그랜는데. {기록이 따 되, 되고 나서 농사를 지으니깐 여기 ‘상환액’이라고 그랜는데.}

10339 # 상화내기라구 그랜는데 여:기에 대한 땅값썬 인제 정부에서 나오더라구요. {‘상환액’이라고 그랜는데 여:기에 대한 땅값이 인제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

10339 @ 네. {네.}

10339 # 이거썬 농사 지른 거:이 다 분는 거예요. {이것을 농사 지으면 거의 다 분는 거예요.}

10339 @ 아. {아.}

10339 # 그이 옐나레 고생헐게 머냐믄. {그 옐나레 고생한 게 뭐냐믄.}

10339 # 요만:큼이라두 자기라 버리는 사라믄 요걸 농사 지어서 자기가 다 머그니까. {요 만큼이라도 자기가 버는 사람은 요걸 농사 지어서 자기가 다 먹으니까.}

10339 # 애들 공부시키면서. (@ 그리) 탄탄헐게 사는데. {애들 공부시키면서 (@ 그리) 탄탄하게 사는데.}

10339 # 나메 도질 논하는 사라믄 요거를 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지를 전체 주다가.{남의 도지를 논하는 사람은 요것을 한 농사를 지어서 도지를 전체(를) 주다가.}

10339 # 이걸 내가 산:다라고 하는 목썬계서 상화내클 분끼시작해그니까. {이것을 내가 산다고 하는 목적에서 상환액을 분끼 시작해 그러니까.}

10339 # 거:의다드러가고나가명은건벼랑업썬썬. {거의 다 들어가고 나가 먹는 것은 별로 없어요.}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그래서이거슬 그때멘넌분거는모르겠쎄요멘넌똥안이걸부엌쎄요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몇 년 부은 것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이걸 부었어요 다.}

10339 # 다부:니까 상환등끼라구해서그때 땅등끼가 나오더라구요. {다 부으니까 상환 등기라고 해서 그때 땅등기가 나오더라고요.}

10339 @ 네네. {네네.}

10339 # 이래서땅을다산거거든뇨? {이래서 땅을 다 산 것이거든요?}

10339 # 이거시인제 소장농인데. {이것이 인제 소작농인데.}

10339 @ 소:장농이그 도:지를 주고 헬퍼게가 소:장농이지요. {소작농이 그 도지를 주고 할적에가 소작농이지요.}

1033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9 # 그래구인제. {그리고 인제.}

10339 @ 이제자자기되. {이제 자작이 되.}

10339 # 땅을 살쓸 경우는 인제 내 땅이 댕쓰니까 이제 자기가. {땅을 샀을 경우는 인제 내 땅이 댕쓰니까 이제 자기가.}

10339 # 자장농. (@ 예.) 이제 자기 자기 다 자기 땅이다 그러케 될쎄요. {자작농. 이제 자기 자기 다 ‘자기 땅이다’ 그렇게 됐지요.}

10339 @ 그 도지 이게 이제 땅이 주이네 따라서 전체 저그로 일률 찌근 아니언쎄 잔켄쎄니까? {그 도지 이게 이제 땅이 주인에 따라서 전체 적으로 일률적은 아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10339 # 엔나레:는 엔나레는 그거 보르는 그 마르미래는 사라의 농가니 그 그 부자된 게 뭐냐 하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것을 보면 그 마름이라는 사람의 농가니, 그, 그 부자된 게 뭐냐 하면.}

10339 @ 아 게 채김자? {아, 그 책임자?}

10339 # 예. {예.}

10339 # 이 동네서 어느 논짜린 조:타. 어느 싸라몬 나쁘다 하는데 따라서 인제 음마에 해라 이게형성돼 가지고. {이 동네에서 어느 논자리는 좋다, 어느 사람은 나쁘다 하는데 따라서 인제 ‘얼마에 해라’, 이게 형성돼 가지고.}

10339 # 갈따 주는데 중가네서 마지니 마니 인뎡거 가태요. {가져다 주는데 중간에서 마진 이 많이 있던 거 같아요.}

10339 @ 그런 그런켄네요. {그렇, 그렇겠네요.}

10339 # 어려서 똑빠로는 모르는데. {어려서 똑바로는 모르는데.}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근데 지금 와서 또 소장농 도지 노니다 하는 거슨. {근데 지금 와서 또 소작농 도지 논이다 하는 것은 }

10339 # 내가 이 노늘 모 타게쓰니 니가 해라 그래쎄 제 줄쎄게 대:개가 마지기당 한가마루 통상이에여기. {‘내가 이 논을 못 하겠으니 니가 해라’ 그랬을 때, 줄 적에 대개가 마지기당 한 가마로 통상이에요 여기.}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거진다 그러케인제 마지기당 한 가마. {거의 다 그렇게 인제 마지기당 한 가마.}

10339 @ 한 가마씩? {한 가마씩?}

10339 # 예. {예.}

10339 @ 그러면 그게 완저니 그 백미 한 가마?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 백미 한 가마?} 10339 # 예. {예.}

10339 @ 그러케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10339 # 그게 인제 도 도지지요 싸. 인제 논 또지. {그게 인제 도, 도지지요. 싸. 인제 논 또지.}

10339 @ 예. {예.}

10339 # 그러케 해는데. {그렇게 했는데.}

10339 # 지끄른 머 그거 때메 머 직뿔그미니 머니 해서 왕창 왕창 하구. (@ 예.) 그래 그래는 그게 그게 그건데. {지금은 뭐 그거 때문에 뭐, 직불금이니 뭐니 해서 왕창 왕창 하고. 그래 그러는 그게 그게 그것인데.}

10339 # 그래요 그 소장농이다 하는 거슨 지끄른 마:른 업써진 마린데. {그래요. 그 소장농이다 하는 것이 지금은 말은 없어진 말인데.}

10339 # 그 저네 인제 나메 땅 지어 멩는 걸 그런 얘기를 헐쥌. {그전에 인제 남의 땅 지어 먹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헐쥌.}

10339 @ 네네. {네네.}

10339 @ 요즘 쌀한가마가 얼마나 되합니까? {요즘 쌀 한 가마가 얼마나 합니까?}

10339 @ 여기. {여기}

10339 # 갑:쓰로 이:천쌀로는 이:십이:마닐까지 갠쥌요. {값으로 이천쌀로는 이십이만원까지 갠쥌요.}

10339 @ 그 단 말입니까? {그 단 말입니까?}

10339 # 여 아니 여기는 저기 저 대두배기룬단 마린데 소두로는 열말짜림니다 팔썽키로짜리. {여, 아니, 여기는 저기 저, 큰 말 이룬다는 말인데, 소두로는 열말짜리입니다. 팔썽키로짜리. }

10339 @ 예예. {예예.}

10339 # 네 그거를 이시비마닐 하기 때메. {네 그것을 이십이만원 하기 때문에.}

10339 # 지금 저 절라미 가튼 거 나오는 거 보른 마안늑 심육마닐 이러케 나오근데. {지금 저 전라미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만육, 심육만원 이렇게 나오겠데.}

10339 # 거기하구 여기하군 쌀값 차이가 좀 마니다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쌀값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033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9 @ 예. {예.}

10339 # 근데 평상 한이십마닐썩근. {그런데 평상 한 이십만원썩은.}

10339 # 그냥 머 저기 저 일팔 나누어여 친척뜨른 저 여기 쌀 한 가마 줘 이럼 한 이십마닐 줘라 그래 구주:고. {그냥 뭐, 저기 저 일팔 나누어요. 친척들은 저, ‘여기 쌀 한 가마줘’ 이러면 ‘한 이십만원 줘라’ 그래서.}

10339 # 또 인자 친구들한테 하머는 머 쪼끔 더 받는 수도 일꾸 그래니까. {또 인제 친구들한테 하면 뭐 조금 더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339 # 가을게 이시비마닐 이십마닐 이러캔는데 요즈른 농여베서 파는 건 조끔 떠러진 거 가태요. {가을에 이십이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농업에서 파는 건 조끔 떨어진 것 같아요.}

10339 # 이게 다: 나가질 모태 가지고. {이게 다 나가지를 못해서.}

10339 @ 예예. {예예.}

10339 # 뭐 조금 뭐 팔쳐널인가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조금 뭐 팔쳐널인가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0339 @ 그러든 노:는 한 마지기 여기서 저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논은 한 마지기 여기서 저 얼마나 합니까?}

10339 # 갑쓰리요? {값을이요?} 10339 @ 예갑쓰로. {예. 값으로.}

10339 # 갑쓸 잘: 받는다고 하머는 한시보마넌 쟁도? {값을 잘 받는다고 하면 한 십오만원 정도?}

10339 @ 한마지기요? {한 마지기요?} 10339 # 예. {예.}

10339 @ 그그러머는. {그, 그러면.} 10339 # 아니지요. {아니지요.}

10339 # 한평에. {한 평에.} 10339 @ 아 평 평당 시보마뉘니지요. {아, 평, 평당 십오만원이지요.}

10339 # 예예 예예예 평에. {예예, 예예예, 평에.}

10339 @ 예 이백평이니까. {예, 이백평이니까.}

10339 # 예 평에 한시보마넌 쟁도? {예, 평에 한 십오만 원 정도?}

10339 @ 삼백 마넌? {삼백 만원?}

10339 # 한 삼백마넌가네요. {한 삼백만원 가네요.}

10339 @ 2네? 이백평이면 삼천마뉘니지요. {네? 이백 평이면 삼천만원이지요.}

10339 # 그래그러치요 {그래, 그렇지요.}

10339 @ 이시보마넌이지요. {십오만 원이지요.}

10339 @ 어 논 한마지기 삼천마넌. {아, 논 한 마지기 삼천만원.}

10339 # 예. {예.}

10339 @ 어 그 저 한 한마지기 삼천 궁까 여기는 이쳐니니까 비싸지요. 노니. {어 그 저 한 한 마지기 삼천, 그러니까 여기는 이천이니까 비싸지요. 논이.}

10339 # 아니예요. 여기가 제일싸요 이천쌀. {아니예요. 여기가 제일 싸요. 이천 쌀.}

10339 @ 아니이 이 이천서싸도. {아니. 이 이천에서 싸도.}

10339 @ 저 이천노니니까 삼천마뉘니지. {저 이천 논이니까 삼천만원이지.}

10339 # 아 그 지방에는 그러치요. {아, 그, 지방에는 그렇지요.}

1033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9 # 지방에는 그런데. {지방에는 그런데.}

10339 # 이:천짜여기나 모 요 주벼늘 봐가지고는 여기가 쟈 썩 겁니다. {이천 지역이나 뭐 요 주변을 봐서는 여기가 제일 썩 것입니다.}

10339 @ 예그런네요. {예 그렇네요.}

10339 # 그지끔. {그 지금.}

10339 # 시보마뉘는 내가 썩끔 마니 바바 불튼건데. {십오만원은 내가 조금 마니 봐서 부른 것인데.}

10339 @ 네네.

10339 # 복평방에서 시보마넌 이러케 얘기하는데. {복덕방에서 십오만우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339 # 현 판매대는 거는 십만나넌 쟁도 매매대구 그래요 거서. {현 판매되는 것은 십만

원 정도 매매되고 그래요. 거기서.}

10339 # 안 십삼마냥 십싸마냥 시보마냥. {한 십삼만 원 십사만 원 십오만 원}

10339 @ 이백 이백평삼천. {이백, 이백 평 삼천.}

10339 @ 바튼 이백평 하트는 훨:씬 더 비싸지요? {밭은 이백 평 하면 훨:씬 더 비싸지요?}

10339 # 반까튼 거:는 매매 되는 걸 잘 모르젠는데. {밭 같은 것은 매매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10339 @ 그냥. {그냥.}

10339 # 대 대중이업쎄요. {대, 대중이 없어요.}

10339 # 엽작 길깨루 나가게 대른 한 삼십마냥너치하구 더 들구. {이쪽 길가로 나가게 되면 한 삼십만 원어치하고 더 들고.}

10339 # 이리 드러오며는. {이리 들어 오면.}

10339 @ 평당삼십마냥? {평당 삼십만원?}

10339 @ 그러치요?

10339 # 이 길깨로 나가며뇨. (@ 네네.) 그랜는데. {그렇지요? 이 길가로 나가면요. 그랬는데.}

10339 # 이리 드러오며는 그러케 시세는 정화칸 시세는 잘 몰르게쎄요 팔리는 게 금이구 그래니까 아마. {이리 들어 오면 그렇게 시세는 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팔리는 게 금이고 그러니까 아마.}

10339 @ 예예. {예예.}

10339 # 아무캐도 십마냥 너머 갈게요. {아무래도 십만 원 넘어 갈 거예요.}

10339 @ 평당 십마냥. {평당 십만 원.}

10339 # 한시보마냥 쟁도 가구. {한 십오만 원 정도 가고.}

10339 # 논 깎은 나오겐쎄요. {논 값은 나오겠지요.}

10339 @ 오 그런네. {오 그러네.}

10339 # 그래 이 논농사는 그러쎄니다. {그래 이 논 농사는 그렇습니다.}

10339 # 내가 인제 아무 건뚜 업는데서 두 내우가 손 잡꾸 일하면서 인제 노늘. {내가 인제 아무 것도 없는 데서도 내외가 손 잡고 일하면서 인제 논을.}

10339 # 만드러 가꾸 먹꾸 살면서 그걸 애들 공부 가르키고 사련는데.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것을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살았는데.}

10339 @ 예. {예.}

10339 # 도회지만 크든 안 올란쎄도. {도회지만큼은 안 올랐어도.}

10339 # 쌀 두되 주구 살쎄요 지금 싼까로 보며는 두되므는 을맙니까 사배권. {쌀 두 되 주고 샀어요. 지금 시가로 보면 두 되면 얼마니까? 사백 원.}

10339 # 사배권인가요? 사처워닌가? 살 두대든 사처워니지? {사백 원인가요? 사천 원인가? 쌀 두 되면 사천원이지?}

10339 @ 사처닐대겐따. {사천 원 되겠다.}

10339 # 사처닐 주고 산 거시 지금 시보마냥 쟁도? {사천 원 주고 산 것이 지금 십오만 원 정도?}

10339 # 마냐게 십쌌마냥늘 준다고 해도 그 감씨 그 십빼이십 이리 이러케 올른거자나요? {만약에 십삼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 값이 그 열 배, 이십, 이리,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그런데 그 올:르는 동시에 내가 농사 지른 일러네 거기서 싸리 한 한 삼십서른 다설 까마나 이러케 나오거는뇨 계:속. {그랬는데, 그 오르는 동시에 내가 농사지으면 일 년에 거기서 쌀이 한 한 삼십 서른다섯 가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그래든 농사 지어서 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애들 가리키고 먹:꾸 살면서. {그러면 농사 지어서 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면서.}

10339 # 사라 완는데 땅 갑싼 땅 갑 췌뜨로 올턴쓰니까. {사라왔는데 땅값은 땅값 세트로 올렸으니까.}

10339 @ 예. {예.}

10339 # 안:전췌이라는 건 최고거든요 내가 보는 건 그래요. 난 촌짜라미니까. {안전성이라는 것은 최고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그래요. 난 촌사람이니까.}

10339 @ 사실 그런췌니다. {사실 그렇췌니다.}

10339 # 예, 그런데. {예, 그런데.}

10339 @ 땅이. {땅이.}

10339 # 우리 지배는 팔자는 거래요 지금 비수기니까 아 파라가지고. {우리 집 애는 팔자는 거예요. 지금 비수기니까 팔아서.}

10339 # 현차를 가지고 인따 업따 뭘 사야 아 이게 도니릅니다 그래요. {현찰을 가지고 있다 없다 뭘 사야, 아 이게 돈이 듭니다 그래요.}

10339 # 그래서 내가 야 이 느른 정말 땅을 파라 머글 너미다 내가 지금 생가글 하고 이 췌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은 정말 땅을 팔아먹을 놈이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339 # 나 아주 그 안존 생가글 하고 인따고 나는 마으를 먹꼬 인꺼든뇨? {나 아주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10339 @ 네. {네.}

10339 # 근데 나는 유기오를 본대든지 멀보든지 사람 사는 사람 사라가는 덴 뽀니리 이러 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나는 욱이오를 본대든지 무엇을 보든지 사람 사는, 사람 살아가는 데에는 뽀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0339 @ 예예. {예예.}

10339 # 최대하네 농초네 살몬 맘 편하고 안정췌 인꼬. {최대한테 농촌에 살면 맘 편하고 안정성 있고.}

10339 @ 예. {예.}

10339 # 실패췌이라는 건 저년 업췌요. {실패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10339 @ 그런췌니다 예. {그렇췌니다, 예.}

10339 # 그래니간 보췌요. {그러니까 보췌요.}

10339 # 그때 그때 요 쌀 두 되 가지고 땅 살 췌게. {그때, 그때요, 쌀 두 되 가지고 땅 살 적에.}

10339 @ 예. {예.}

10339 # 그때 쌀 한마를 갑따 머그른 내가 오:일뽀아늘 가서 이를 해야 주야 대요. {그때 살 한 가마를 가져다 먹으면 내가 오일 동안을 가서 일을 해 주어야 돼요.}

10339 # 그래구 고 뒤에 췌끔 지나니까 쌀 한마레 품 췌 이러케 파랴꺼든뇨? {그리고 그 뒤에 췌끔 지나니까 쌀 한 말에 품 췌, 이렇게 팔았거든요?}

10339 # 근데 쌀한마레 품 세시면 쌀 한 말 가지고 노를 다섯평을 산다라고 새 생가글하면. {그런데 쌀 한 말에 품 셋이면 쌀 한 말 가지고 노를 다섯 평을 산다라고 새, 생각을 하면.}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그때 품 세신데 지금 품 세시르는 장정드른 지금 팔나뉘받는다고 그랜는데 여차는데 나가든. {그때 품 셋인데 지금 품 셋이면 장정들은 지금 팔만 원 받는다고 그랜는데 괜찮은데 나가면.}

10339 # 팔마뉘니나 십마뉘 바드른 세시면 한삼십마뉘 받는 거 거든요. {팔만 원이나 십만 원 받으면 셋이면 한 삼십 만원 받는 거거든요.}

10339 @ 예. {예.}

10339 # 그때나 이때나 땅 사는 건 마찬가지요. {그때나 이때나 땅 사는 건 마찬가지지요.}

10339 # 아 아무리 떠든다 하더래두 일:력 가지구는 내가 열:씨미 일해서 일련 일련 버러가지구. {아,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인력 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 년 일 년 벌어서.}

10339 # 이거슬 하겐따고 하는데는 별 차이가 업썬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요.}

10339 @ 네. {네.}

10339 # 근데. {근데.}

10339 # 지금 사람드리 부푸러 난 그 저건만 가지고 물량만 예상을 해서 타악 떠드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부풀어 난 그 저것만 가지고 물량만 예상을 해서 탁 떠드는 거지.}

10339 # 신:중아게 사라가는 데 내용은 아니예요. {신중하게 살아가는데 내용은 아니예요.}

10339 @ 그러게요. {그러게요.}

10339 # 도니라는 건 내가 이 열씨미 하:면 대 채곡채곡 근데 자꾸 그래요. {돈이라는 건 내가 이 열심히 하면 다 차곡 차곡, 근데 자꾸 그래요.}

10339 # 가정이라는 북쭈머니에 두리 자:꾸 버러서 지버너서. {가정이라는 북쭈머니에 둘이 자꾸 벌어서 집어넣어서.}

10339 # 내가 사가서 노후에들 바라다 볼 켜 나는 이 만남 땀:따라는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사 가서 노후에들 바라다 볼 때 나는 이만하면 땀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10339 # 지금 이걸 저걸 눈 뜨고 땀:데 보고 쪼쳐 땀:겨 가지고 이 동네서 파:라 가지고 이자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눈뜨고 땀 데 보고 쫓아 다녀서 이 동네에서 팔아서 이자를 가지고.}

10339 # 여기보더 더 잘 싸는 사라미 인느냐? 그거 아니예요. {여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 아니예요.}

1033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9 @ 예. {예.}

10339 # 내 칭구드리 여기서 한 한이십년가치 한:동갑네가 한열파션 넘꾸. {내 친구들이 여기서 한 한 이십년 같이 한 동갑네가 한 열다섯 (명이) 넘고.}

10339 # 어 한살 더 머근 사람드라구 한 이십년니 커서 나가는데. {한살 더 먹은 사람들과 한 이십년이 커서 나가는데.}

10339 # 그 때 아버지들 잘 만나서 공부한 사람드른 다 서울 가서 대학교 나오고. {그때 아버지들 잘 만나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대학교 나오고.}

10339 # 그 유기오 지나가지고 대학생 쥔 마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 그랜썬썬. (@ 예.) 마니가리썬는데. {그 육이오 지나서 대학생이 제일 많은 동네가 이 동네라고 그랬었어요. 많이 가르썬는데.}

10339 # 지금 보면 그 사람드라고 나하고 차이가 난 엄:썬나게 안 난 난 안난다고 바요.  
10339 @ 네네. {지금 보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난 엄썬나게 안 난, 난 안난다고 바요.}

10339 # 그리구두 그 사람드른 인제 세상저긴 사람드리구. {그리고도 그 사람들은 인제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10339 # 난 썬:낭이루 영썬그루 썬가글 하구 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무네. {난 신앙으로 영적으로 썬각을 하고 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10339 # 난 어:디 가두 이르게 그 내가 느그들만 모다단 썬가근 상당이 아내요. {난 어디를 가도 이렇게 그 내가 너희들만 못하다는 썬각은 상당히 안 해요.}

10339 @ 네네네. {네네네.}

10339 # 다만 자라날 썬 그 사람들 공부하고 나는 그 사람들 서울서 놀러올 썬 난 그 지비 가서 그 아부지들 하구 일해주야 대거든. {다만 자라날 때 그 사람들 공부하고 나는 그 사람들 서울에서 놀러올 때에 난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들하고 일해 주어야 되거든.}

10339 @ 예예. {예예.}

10339 # 그때는 참 안 조터라구요. 아:주 기분 나쁘더라구요. {그때는 참 안 썬터라고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10339 # 근데 지그른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10339 @ 그거게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10339 # 그래 애들 보고두 어트케 지드리 살른진 몰라두. {그래 애들 보고도 어떻게 지들이 살른지는 몰라도.}

10339 # 하튼 사람 사는 방버블 잘하면 건뚜 이상하게 얘기가 하하. {하여튼 사람 사는 방법을 잘 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이야기가. 하하.}

10339 @ 아니오 거 아주 조은 말썬입니다, 예. {아니요. 그거 아주 썬은 말썬입니다, 예.}

10339 @ 그 다텔. {그 다텔.}

10340 @ 썬마썬이 이 이르 지그른머 어 예저네는 썬마썬라는 게 상당히 썬요썬썬썬썬썬?  
{썬맛이 이 일을 지금은 뭐 어 예전에는 썬맛이라는 게 상당히 썬요했지 않썬썬썬썬?}

10340 # 예 그제 인제 썬마썬가 아니른 농사를 몰썬얼썬썬. {예, 그제 인제 썬맛이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지었어.}

10340 @ 예. {예.}

10340 # 인제 그제 썬마썬가 아니고 썬물 산다. {인제 그제 썬맛이가 아니고 썬을 산다.}

10340 # 그러케 대몬 이제 내가 나이가 만코 절몬 사람드리 이:를 하니까 그 방버비 안 조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썬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 방법이 안 썬아요.}

10340 # 그때는 인제 겨울게 술먹꾸 머뵙하구 이래게 대몬. {그때는 인제 겨울에 술 먹고 뭐 뵙하고 이렇게 되면.}



10340 @ 예. {예.}

10340 # 비절 지게 대는데 가정엔 도니 업쓰니까 품갑쓸 내쓰는 거거든요. {빛을 지게 되는데 가정엔 돈이 없으니까 품갑을 내 쓰는 것이거든요.}

10340 @ 예. {예.}

10340 # 일 일하는 사람더리 그래믄 한 가마를 주:고. {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 가마를 주고.}

10340 # 이러케서 그걸 바더서 이러:케 부리기두 하고 그래느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그러느, 그러는데}

10340 # 그건 이제 일관저그로 사는 거지요. {그건 이제 일관적으로 사는 거지요.}

10340 @ 네. {네. }

10340 # 사는건데. {사는 것인데}

10340 # 보:통 이 동네가 절믄 사람드리 네나들기 너머 가는 거는. {보통 이 동네가 젊은 사람들이 나홀이 넘어 가는 것은}

10340 # 어젠가 아깁가 얘기한 대루. {어젠가 아깁가 이야기한 대로.}

10340 # 이 동네가 한 사십명 댜다 해믄 거진 하루에 세지비나 네 집 쟁도가 일나를 자동저그로 이러케 잡게대요. {이 동네가 한 사십명 댜다 하면 거의 하루에 세 집이나 네 집 정도가 일하는 날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게 돼요.}

10340 # 누구네가 며칠날 한대 며칠날 한대. {누구네가 며칠날 한대, 며칠날 한대.}

10340 @ 예예예. {예예예.}

10340 # 이러케 자브면. {이렇게 잡으면}

10340 # 모자라는 과정두 일꾸 인저 벼인은 과정두 일꾸 그래믄서 하게 대믄 나를 잡게 대믄 일:꾸늘얻쨌요. {모자라는 과정도 있고 인제 비어 있는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하게 되면 날을 잡게 되면 일꾼을 얻지요.}

10340 # 그라믄 머 빠리 뽀들타는 거지요. {그라믄 뭘 뽀기 뽀듯 하는 거지요.}

10340 # 그 지비 가서 해주고 이 지비가 해주고 해서 한반 쟁도 아 댜기믄 아:서 노쿠. {그 집에 가서 해주고 이 집에 가서 해 주고 해서, 한 반 정도 아, 다니면 잡아 놓고}

10340 # 또 바:는 생무:지를 어:든 걸 이제 지구. {또 받은 생무지를 얻은 것을 이제 지고.}

10340 @ 네. {네.}

10340 # 이래 가지구 이 더이 이:를 하구 진 거는 가파 가파야 대구. {이래서 이 더위에 일을 하고 진 것은 갇아, 갇아야 되고.}

10340 # 이래닌깐 계:속 고드래떨마냥 너머 댜기머 푸마씨를 해야 대지요. {이러니까 계속 고드래들마냥 넘어 다니면서 품앗이를 해야 되지요.}

10340 @ 근데 푸마씨 할려머는 이제 그 상대저그로 차이가 이 이쉴 쑤 일짬습니까? {그런데 품앗이를 하려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차이가 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340 @ 그 한쪼근 예를 들면 논 스무마지기다. {그 한 쪽은 예를 들면 논 스무 마지기다.}

10340 # 예. {예.}

10340 @ 한 쪼근 열마지기 다 하믄. {한 쪽은 열 마지기 다 하면.}

10340 # 예. {예.}

10340 @ 이 배:를 해야 대지 안쑈니까? 그건 기주늘 멀 가지고 합니까? {이 배를 해야 되

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10340 # 그거는 관계가 업썬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10340 # 열마지기 열마지기 가진 지비이:를 가게 대몬. {열 마지기, 열 마지기 가진 집에를 가게 되면.}

10340 # 열마지기 모 심는 거는 한 마지기에 일꾸늘 세슬 너어야 댁니다. {열 마지기 모 심는 것은 한 마지기에 일꾼을 셋을 넣어야 됩니다.}

10340 @ 예예. {예예.}

10340 # 그럼 열마지기 대몬 이주이니 그날 일꾸늘 삼십명을 어더야 대요. {그럼 열 마지기 되면 이 주인이 그 날 일꾼을 삼십명을 얻어야 돼요.}

10340 @ 네. {네.}

10340 # 그 날 자기 바페다 매겨 가면서 모 심는데 그날 다: 시머야 대니깐뇨. {그 날 자기 밭에다 매겨 가면서 모 심는데 그 날 다 심어야 되니까요.}

10340 @ 네네. {네네.}

10340 # 나르른 널 나에 일 가야 델 텐데 골:치 아프자나요. {남으면 내일 낮에 일을 가야 될 텐데 골치 아프잖아요.}

10340 @ 그런네요. {그러네요.}

10340 # 아:주 몹씨 그래니깐 그날 일꾸늘 다 채워 노쿠. {아주 몹시 그러니까 그 날 일꾼을 다 채워 놓고.}

10340 # 암:만 켜여두 델 쭈 이쓰른 이리 오라구 인제 음 너 그러몬 안덴다 그래몬서 인저 마구 그래 가지구 해서 이 심꾸. {아무리 켜여도 될 수 있으면 이리 오라고 인제. 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인제 마구 그래 가지고 해서 이 심고.}

10340 # 단:: 마지기 하는 사라몬 단 마지기 일꾼만 으:더 하니까. {다섯 마지기를 하는 사람은 다섯 마지기 일꾼만 얻어 하니까.}

10340 # 머 더 시머지고들 시머지고 그러는 건 업썬요. {뭐 도 심어지고 델 심어지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10340 @ 그런습니까? {그렇습니까?}

10340 # 그러몬뇨. 그건 아주 공평해요. {그럼은요. 그건 아주 공평해요.}

10340 # 2한마지기당 세명이라는 게 딱 정해진. {한 마지기당 세 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10340 # 예예 대:개 인제 도라가는 게 그래 가지고. {예예. 대개 인제 돌아가는 게 그래서.}

10340 # 혹씨나 푸미췌:여서 열마지기 삼십명을 으더야 대는데 스무일곱 마지기다 그러몬. {혹시나 품이 췌여서 열 마지기 삼십명을 얻어야 되는데 스물일곱 마지기가 다 그러면.}

10340 # 일꾼드리 여 오느른 일꾸니 적따 그러몬 먹꼬 좀 덜시구 드러가구 좀 서두러요. (@ 예예.) 예 그래서. {일꾼들이 ‘여, 오늘은 일꾼이 적다.’ 그러면 먹고 좀 덜 쉬고 들어가고 좀 서둘러요. 예, 그래서.}

10340 # 어트게서든지 다 시믈라꼬 애를 쓰지요. (@ 아.) 이 푸몬 농촌 풍경은 그제 조썬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심으려고 애를 쓰지요. 이 품은, 농촌 풍경은 그제 좋습니다.}

10340 @ 그러니까 막 시가늘 가지고 다투거나 이런 거 업꼬? {그러니까 막 시간을 가지고 다투거나 이런 것이 없고?}

10340 # 가이 그런 거는 업썬요. {가이 그런 것은 업썬요.}

10340 @ 예예. {예예.}

10340 # 그리구 애가 오던 노인네가 오던 머 일자래는 장정이 오던 이젠 차이 업썬니다.  
{그리고 애가 오든 노인네가 오든 뭐 일 잘하는 장정이 오든 차이가 업썬니다.}

10340 @ 네. {네.}

10340 # 그거는 업꼬. 순:짜만 채서 그날 딱:차른 그 순:짜에 의해서. {그것은 업고. 숫자만  
차서 그 날 딱 차면 그 숫자에 의해서.}

10340 # 여러시 공동으로 노동이:를 하게 대른 그 날일:하는 그 불량은 거:의 가타요. (@  
예.) 예. {여러이 공동으로 노동 일을 하게 되면 그 날 일하는 그 분량은 거의 같아  
요. 예.}

10340 # 아니 농초는 그거마는 참:풍성하고 조썬. {아니 농촌은 그것만은 참 풍성하고 좋  
썬.}10340 @ 그런네요. {그렇네요.}

10340 @ 그른 그 푸맛씨 하기 이 하는 과정에서 일꾸늘 얻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품앗  
이하기 이 하는 과정에서 일꾼을 얻기도 하지요?}

10340 # 예. {예.}

10340 @ 소니 딸리며는. {손이 딸리며.}

10340 # 그 예. {그 예.}

10341 @ 그럴 때는 그 식싸와 간식근 하루 중에 이제 어떠케 주게담니까? {그럴 때는 그  
식사와 간식은 하루 중에 이제 어떻게 주게 됩니까?}

10341 # 식싸는 그저네: 보며는 인제 대:개 노 이:르 하는 사람드른 농주를 마니 먹꾸 인  
제 소기 켄켄하게 대는데. {식사는 그 전에 보면 인제 대개 노, 이를 하는 사람들은  
농주를 많이 먹고, 인제 속이 켄켄하게 되는데.}

10341 # 아:침 먹꾸 일곱씨썬 가서 모이게 대며는 모시믈 경우. {아침 먹고 일곱씨썬 가서  
모이게 되면, 모 심을 경우.}

10341 @ 예. {예.}

10341 # 논 논 땀 때나 이런데 모이게 대며는. {논, 논 땀 때나 이런 데 모이게 되면.}

10341 # 이자 이를 시작하자나요 일꾼드리 거진 거진 다 나왓쓰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잖  
아요. 일꾼들이 거의 거의 다 나왓으니까.}

10341 # 이제 거 거진 공정해 시가니 서로 애기 아넬씨도. {이제 거, 거의 공정해 시간이.  
서로 이야기 안 했어요.}

10341 # 게 드러가서 이를 하믈 건 그거는 한 아홉씨썬 대른 술빵구리가 나옵니다 안주하  
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건, 그것은 한 아홉 씨썬 되면 술방구리가 나옵니다.  
안주하고.}

10341 # 그래서인제. {그래서 인제.}

10341 @ 아 머가 나온다구요? {아, 뭐가 나온다고요?}

10341 # 수리요 술. 술빵구리가 나와요. 막걸리가. {술이요 술. 술방구리가 나와요. 막걸리  
가.}

10341 @ 아 예예예. {아 예 예 예.}

10341 # 막걸리가 인제 나오는데 안주를 이제 점 두보라든가 인제 일해는 지비니까 점 얼  
큰하게 해서 가지고 나오면. {막걸리가 인제 나오는데 안주를 이제 좀 두부라든가 인  
제 일하는 집이니까 좀 얼큰하게 해서 가지고 나오면.}

10341 # 이제 나와서 그걸뜨를 한잔씩 막 먹쪼요. {이제 나와서 그것들을 한잔씩 막 먹쪼요.}

10341 @ 네네. {네네.}

10341 # 그래구 인제 담배들 한대씩 피구선. {그리고 인제 담배들 한 대씩 피고서는.}

10341 # 혀:서 다시 드러가 이를 하게 대면. {해서 다시 들어가 일을 하게 되면.}

10341 # 열한시쪼: 대게 대른 바비 나옴니다. {열 한시쪼 대개 되면 밥이 나옴니다.}

10341 @ 네. {네.}

10341 # 네 그때는 인제 그게 점시미루다 인제 바비 나와서 그걸 인제 빼잉 둘러 안자서 느러 노쿠 인제. {네, 그때는 인제 그게 점심으로다 인제 밥이 나와서 그것을 인제 뺑 둘러앉아서 늘어 놓고 인제.}

10341 # 이제 잔뜩 덜 먹꼬 나서 이제 쪼 쉬어 가지고. {이제 잔뜩들 먹고 나서 이제 쪼 쉬어서.}

10341 # 이래 가지고 다시 이를 해든 거:의 한시쪼 대서 수리 또 나와요. {이래서 다시 일을 하면 거의 한시쪼 되서 술이 또 나와요.}

10341 @ 예예. {예예.}

10341 # 그래서 인제 그때 수를 먹꾸 또 쉬어서 또 드러가서 인제 이:를 하게 대른. {그래서 인제 그때 술을 먹고 또 쉬어서 또 들어가서 인제 일을 하게 되면.}

10341 # 저녁 때 국쪼가 나오던지 아니면 바비루 나오던지. {저녁 때 국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밥으로 나오든지.}

10341 # 저녁 싸이가 또 쪼 나와요. {저녁 사이가 또 쪼 나와요.}

10341 @ 네네. {네네.}

10341 # 세시쪼 해서. {세 시쪼 해서.}

10341 # 게 세시 인가? 하 이러케 해서 나와요. {그거, 세 시인가? 하, 이렇게 해서 나와요.}

10341 # 건 그때 그걸 먹꾸 이:를 하게 대른 해실비:태서 술뺑구리가 또 함번 나옴니다. {그건 그때 그것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해가 슬핏해서(=저물 무렵) 술방구리가 또 한 번 나옴니다.}

10341 # 그래서. (@ 예.) 수를 세:번 먹꾸 나제 바블 두:번 먹꾸. {그래서 술을 세 번 먹고 낮에 밥을 두 번 먹고.}

10341 # 그래서 바쁜 아침 저녁 꺼지 네:버늘 명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아침 저녁까지 네 번을 먹는 거예요.}

10341 # 그래 저:: 건너 거 어떤 개가늘 헐는데 어떤 사라미 추수로기래는 사라미. {그래 저 건너 거 어떤 개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추수룩이라는 사람이.}

10341 # 와서 녁천 싸람 너머 머 머 머거서 몬 싹다고 그랜때요. {와서 농촌 사람 너머, 머, 머, 먹어서 못 산다고 그랜대요.}

10341 # 그땐 농촌 싸라든 명는 게 일해는 겁니다. {그때는 농촌 사람은 먹는 게 일하는 것입니다.}

10341 # 그리키 머거두 업뜨려서 기대든. {그렇게 먹어도 업뜨려서 기대면.}

10341 @ 금방이지요. {금방이지요.}

10341 # 금방이리. 그러든요. {금방 일이. 그럼은요.}

10341 # 이거이 이게그 지금마냥 이제 지끄든 사랑에서들두 그래요. {이것이 이게 그 지금

마냥 이제 지금은 사랑에서들도 그래요.}  
 10341 # 뭘 가따취두 몬 먹짜나요인제. {무엇을 갖다 주어도 못 먹잖아요. 인제.}  
 10341 @ 예. {예.}  
 10341 # 소게소기차서. {속에 속이 차서.}  
 10341 # 근데 그때는 그냥 소:화대는 건만 머그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소화되는 것만 먹으니까.}  
 10341 # 채소하고 밥만 머그니까 그냥 금방 내려가요 그래니깐 그냥 멍는게요. {채소하고 밥만 먹으니까 그냥 금방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이예요.}  
 10341 # 지금 절른 사람들엔 나레 머근 애기 하른 놀래 자빠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 옛날에 먹은 이야기하면 놀라서 자빠져요.}  
 10341 # 밥싸바리 이런 게 저 아니니깐. {밥사발이 이런 것이 저, 아니니까.}  
 10341 @ 이 무슨 밥싸발만 해두. {이 무슨 밥사발만 해도.}  
 10341 # 유기 예 유:기그른. {유기 예, 유기 그릇.}  
 10341 @ 믿겨지지가 안쥬. {믿겨지지가 않쥬.}  
 10341 # 이런 건데. {이런 것인데.}  
 10341 # 여기다 바블 다르든 우터케 담나 해든 위:에 바비 또 밥싸말만치 올라와요. {여기 에다 밥을 담으면 어떻게 담나 하면 위에 밥이 또 밥사발만큼 올라와요.}  
 10341 @ 고봉으로 예예. {고봉으로 예예.}  
 }10341 # 예. {예.}  
 10341 # 그거시 운제 멍냐른. {그것이 언제 먹느냐 하면.}  
 10341 # 가:을 마당질 할제 일곱끼를 먹다가 사:네 가선 남구해는 그 가: 나르를 하게대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게 대거드노. {가을 마당질 할 때 일곱 끼를 먹다가 산에 가서는 나무하는 거기로 가서 나무를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게 되거든요.}  
 10341 @ 예. {예.}  
 10341 # 그러든 저녁 머글때 보며는 그러케 수북칸 거를 이제 가으레는 콩을 노코 어 저 그를 하게 대 청국장을 마:니 하게대요 이제. {그러면 저녁 먹을 때 보면 그렇게 수북한 것을 이제 가을에는 콩을 놓고, 어, 저것을 하게 돼, 청국장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10341 @ 예예. {예예.}  
 10341 # 새 새콩덜 가지고 그림 그 가지고 두부는 가지고 위에서부터 삭: 비비며는 다 뭇는 거예요. {새, 새 콩들 가지고 그림 그것을 가지고 두부는 가지고 위에서부터 싹 비비면 다 먹는 거예요.}  
 10341 # 그래구도 막걸리 한사발씩 다 먹꾸 이러나고 그래자나요. {그리고 또 막걸리 한 사발씩 다 먹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10341 @ 그러치요 예예. {그렇지요. 예예.}  
 10341 # 그러케 머거요. {그렇게 먹어요.}  
 10341 # 근데 그사라미 소나그 뿌리를 캐:가며 개가늘 좀 해터니 몬견딘단 다는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소나무 뿌리를 캐 가며 개간을 좀 하터니 못 견딘단, 다는 거지요.}  
 10341 #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래미 환경에 처해서 우터케 생활하느냐 따라서. (@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10341 # 자기가 그래서 머 요거 머거라 저거 머거라 지금 머 벼 병위네서 떠들고 그래.

{자기가 그래서 뭐. 요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지금 뭐 베퍼, 병원에서 떠들고 그래.}

10341 # 참 모 우리하고는 말찌 안는 소리예요. {참 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소리예요.}

10341 # 그러하며. {그러하며}

10341 @ 그. 그런쓰 그런네. {그. 그렇습, 그렇네.}

10341 # 일 열씨미 해든 소화 잘대구 밥 찹먹꾸두 하는 거지. {일 열심히 하면 소화 잘 되고 밥 잘 먹고도 하는 거지.}

10341 # 안그래요? 근데 일곱뼉 머거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일곱 번 먹어요.}

10341 # 그래서. {그래서.}

10341 @ 그러케머거도 머똥똥하거나이런사람업썸짜나요. {그렇게 먹어도 뭐 똥똥하거나 이런 사람 없었잖아요.}

10341 # 그러믄뇨. 그래니까 똥똥하거나그런사라믄업썸썸. {그럼은요. 그러니까 똥똥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10341 # 그 그래두 엔나렌 다 명 찹찌 안날썸썸? {그, 그래도 옛날에는 다 명이 찹지 않았어요?}

10341 @ 예예, 허허. {예예, 허허.}

10341 # 하하하. {하하하.}

10341 @ 아까 저 말씀하실때 해:설핀:태서. {아까 저 말씀하실 때 ‘해설핏해서’}

10341 # 예. {예.}

10341 @ 그 이제 저녁 먹게 대지 안썸니까? {그 이제 저녁 먹게 되지 않습니까?}

10341 # 예. {예.}

10341 @ 슬피:타다는 거지 무슨 뜨십니까? {‘설핏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341 # 해가 인제 거진 너머갈 때 대는 거지요 서강. {해가 인제 거의 넘어 갈 때 되는 것이지요. 석양.}

10341 @ 예. {예.}

10341 # 네 서강덜때 그때. {네, 석양 될 때 그때.}

10341 @ 예 저 야간 저 어두거독할때? {예, 저, 약간 저, 어둡어독할 때?}

10341 # 아니 저 어둡찌 아나요. {아니, 저 어둡지 않아요.}

10341 @ 어둡찌 안썸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10341 # 예 그라믄뇨. {예, 그럼은요.}

10341 # 저녁 칸 여름 해도 다 한 여서씨제나 일곱씨썸? 드러와도. {저녁 한여름 해도 다 한 여섯시 때나 일곱 시썸? 들어와도.}

10341 # 우썰든 해가 너머가야 드러오게 대:개 이:리 끝나지. 그러믄. 농초네는. {어썰든 해가 넘어 가야 들어오게, 대개 일이 끝나지. 그러면. 농촌에는.}

10341 # 논. {논.}

10341 @ 해 해 설핀:타다는 해가 인는 겹니까 너머가는 겹니까? {해, ‘해설핏하다’는 해가 있는 것입니까 넘어가는 것입니까?}

10341 # 너머가는 거지요 이제. 슬피타대는 건 해가 거진 뉘열뉘열 저 가는 거지요.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제. 설핏하다고 하는 것은 해가 거의 뉘엿뉘엿 저 가는 것이지요.}

10341 @ 아 아직도. {아, 아직도.}

10341 # 근데. {근데.}

10341 @ 해는 보이교? {해는 보이교?}

1034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41 @ 쪼끄민따가 이제 너머가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까?}

10341 # 네네. {네네.}

10341 @ 그러믄 해거름이라고 하는거타고 갇겠습니까? {그러면 해 거름이라고 하는 것과 갇겠습니까?}

10341 # 해거름. 그러쵸 해거름이 해거름두 인제 너머가는걸 얘기하는 거니까. {해거름, 그렇지쵸. 해거름이, 해거름도 인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10341 # 이제 해 떨어지자 일 떨어지자 그런다. (@ 예.) 해거름가치 동일한 애길하면서. {이제 해 떨어지자 일 떨어지자 그런다. 해거름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10341 @ 술빵구리 나온다고 할때 그 빵구리는 수저방우리 말하는 겁니까? 술. {술방구리 나온다고 할 때 그 방구리는 수저 방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10341 # 그 인제 그 술 술빵구리가. {그 인제 그, 술, 술방구리가.}

10341 # 큰:: 넓적칸능 자박찌고. {큰 넓적한 것은 자배기이고.}

10341 @ 예예. {예예.}

10341 # 물리구 땡기는 거는 물동이지 안습니까? {물을 이고 다니는 것은 물동이이지 않습니까?}

10341 @ 그런치요. {그렇지요.}

10341 @ 예. {예.}

10341 # 게 동이가튼 형태에다가 고고보다 자:근 양버트만 그르시 하나 일썤요. {게, 동이 같은 형태에다가 그것보다 작:은 양바름한 그릇이 하나 있어요.}

10341 # 요로:케 예쁘게 빠진 거. 오지 그르시루 만든 거. (@ 예.) 그게 인제 술빵구리라 그러지요. {요렇게 예쁘게 빠진 것. 오지 그릇으로 만든 것. 그게 인제 술방구리라 그러지요.}

10341 @ 그냥 그건만 술빼며는 그게 빵구리라 그럼니까 방구리라 그럼니까? 오지가튼 그르술. {그냥 그것만 ‘술’을 빼면 그게 ‘빵구리’라 그럼니까 ‘방구리’라 그럼니까? 오지 같은 그릇을.}

10341 # 야 그거 글 빼프는 머라구랴까 하. {야 그거 글 빼면 뭐라 그럴까 하.}

10341 # 대:게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에 평상시 우리가 마라기를 모 주전자 큰: 주전자나 이런대루 나오그데 나오구 구래두. {대게 나오는 것을 이제 그 에 평상시 우리가 마라기를 뭐 주전자, 큰 주전자나 이런 대로 나오고, 나오고 그래도.}

10341 # 술빵구리 나온다구 머 이러케 마리 통하는데. {술방구리 나온다고 뭐 이렇게 말이 통하는데.}

10341 @ 항상 수라고 부터서 나옵니까? {항상 ‘술’하고 붙어서 나옵니까?}

10341 # 예 고고 고래도. {예. 고고, 그래도.}

10341 # 그래도 지베서도 그거 방구리라고 불를 꺼예요. {그래도 집에서도 그것을 방구리라고 부를 거예요.}

10341 @ 방구리. {방구리.}

10341 # 예. {예.}

10341 @ 그 저네 그저 머야 그 대나무나 이게저 그걸 여쁜 거를 거신 줄 아란는데. {그전에 그저 뭐야, 그 대나무나 이게 저 그것을 얹은 것을 거신 줄 알았는데.}

10341 # 아니요. {아니요.}

10341 @ 오지 그르시군뇨. {오지 그릇이군요.}  
 10341 # 여긴 대나무 여꺼나 막때기루 맨든 통이거나 이런 거능 저년. {여기는 대나무 엮거나 막대기로 만든 통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10341 @ 업꼬. {없고.}  
 10341 # 쓰질 안쿠. {쓰지를 앓고.}  
 10341 # 나가 본 거는 거:이 다 오지 그르시지요. {내가 본 것은 거의 다 오지 그릇이지요.} 10341 @ 오지 그르시군뇨. {오지 그릇이군요.}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이 이 저 모과 재배는? {이, 이, 저, 목화 재배는?}  
 10401 # 모과 재배는. {목화 재배는.}  
 10401 @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10401 # 우리 어렸을 때는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했는데.}  
 10401 @ 예. {예.}  
 10401 # 나이 머거서는 내가 별또로 농사진 생가근 안: 나고. {나이 먹어서는 내가 별도로 농사를 지은 생각은 안 나고.}  
 10401 # 살림 나기 전 큰집에 이썰 짜는. {살림 나기 전 큰집에 있을 때는}  
 10401 @ 구경 구경만 하셔습니까? {구경, 구경만 하셨습니까?}  
 10401 # 네. {네.}  
 10401 # 그 모과를 심꾸 그랜씨니까. {그 목화를 심고 그랬으니까.}  
 10401 @ 언:제 심꼬 언제 그 거뒤 드리고 그랜 거는 어떻습니까? {언제 심고 언제 그, 거 두어 들이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10401 # 모과는 그게 별또로 심는 거는. {목화는 그게 별도로 심는 것은.}  
 10401 # 한 사월딸 지나서. {한 사월달 지나서.}  
 10401 # 거:의 오월딸가지 가는 거 가튼데요? {거의 오월달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10401 @ 예. {예.}  
 10401 # 예. {예.}  
 10401 # 그게 두더걸 지어가지고 자오글 치구선. {그게 두둑을 지어 가지고 자옥을 치고서는.}  
 10401 # 모과씨에는 특빠리 오주를 분꾸선. {목화씨에는 특별히 오즘을 붓고서는.}  
 10401 # 재를 부어서 버므려 가지고 거기다 거르를 이퍼서 갈따 꺾언꺼든요. {재를 부어서 버무려서 거기다 거름을 입혀서 가져다 꺾 없거든요.}  
 10401 @ 어. {어.}  
 10401 # 꺼든뇨? {꺼든요?}  
 10401 @ 예. {예.}  
 10401 # 그래 가지고 이걸 시머 노른 이게 씨가 나쁜. {그래서 이걸 심어 놓으면 이게 씨가 나쁜.}



10401 # 이상하게 인제 복판이 쪽: 뜨리개서 요로:케 해서 요로케 댜는 이파리가 두리 딱: 나와 가지고 크:게 되는데. {이상하게 인제 복판이 쪽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이파리가 둘이 딱 나와서 크게 되는데.}

10401 # 때로는 보리밭 복판 고오를 켜 가지고 비기 저네. {때로는 보리밭 복판 그것을 켜 가지고 베기 전에.}

10401 # 고를 켜 가지고 고기다 그러케서 뿌려 가지고 더퍼 노른. {그것을 켜서 고기에다 그렇게 해서 뿌려서 그것을 덮어 놓으면.}

10401 # 나머느 보리는 비구 인제 목카는 크고. {나면 보리는 베고, 인제 목화는 크고.}

10401 @ 네네. {네네.}

10401 # 그럴케도 키웠거든뇨? {그렇게도 키웠거든요?}

10401 # 그래가지구 이거시 인자 크므는. {그래서 이것이 인제 크면.}

10401 # 인저 바테서 이러케 꼬다리가 탁: 피엇쉴 짜게는. {인제 밭에서 이렇게 꼬투리가 탁 피엇을 적에는.}

10401 # 그 목화를 이러케 바테서 이러케. {그 목화를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10401 @ 뽀바 내. {뽀아 내.}

10401 # 따기도 따기도 하지마는. {따기도, 따기도 하지만은.}

10401 # 이게 인제 서리가 올 때쭈 대른 목화 꼬더리가 어얼머는 안대니까 이걸. {이게 인제 서리가 올 때쭈 되면 목화 꼬투리가 얼면 안되니까 이것을.}

10401 # 뽀버가지구 산짱 두대가 갠따 너려요. {뽀아서 산장 두대가 가져다 널어요.}

10401 @ 네네. {네네.}

10401 # 널:은 거기서 인제 말라가지구 이게 뽀뽀니다. {널면 거기서 인제 말라서 이게 뽀뽀니다.}

10401 @ 예예. {예예.}

10401 # 그라믄 이걸 제 빼: 오지요. {그러면 이것을 죄 빼 오지요.}

10401 # 그러케. {그렇게.}

10401 @ 아. {아.}

10401 # 거뒤 드리고. 그래구 목화 따렌 저 대공은 갠따 이제 때:는거지요. {거두어 들고, 그리고 목화 따레는 저 대공은 가져다 이제 때는 거지요.}

10401 @ 불 예예예. {불 예예예.}

10401 # 예. {예.}

10401 @ 근데 이게 목화:가 이제 그 숨 아네 들기 저네. {근데 이게 목화가 이제 그 숨 안에 들기 전에.}

10401 # 예. {예.}

10401 @ 뽀꺼. {뽀 것.}

10401 # 예. {예.}

10401 @ 이 몽우리 생기지 안썸니까? {이 몽우리 생기지 않습니까?}

10401 # 예. {예.}

10401 @ 고 아네 인는 거 저 그거 저 버러지지 아나쉴 때는 머라 그럼니까,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거, 그거 저, 벌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엇이라 그럼니까, 그것을?}

10401 # 버러지지 안코 전체저그로 복썸아 쪼끄만 복썸아는 이러케 이쉴 제 그게 모과 꼬 두리라 그래지, 뽀. {벌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복썸아 조그마한 복썸아는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목화 꼬투리라 그러지 뽀.}

10401 @ 꼬두리라 그럼니까? {‘꼬두리’라 그럼니까?}

10401 # 예. 예, 모카 꼬두리라. {예, 예, 목화 ‘꼬두리’라.}

10401 # 그런대요? {그런데요?}

10401 @ 다래란 말. {‘다래’라는 말.}

10401 # 네? {네?}

10401 @ 다래. {다래.}

10401 # 예. 모카 따래. {예. 목화 따래.}

10401 @ 다래가 내나 꼬두리 그말입니까? {다래가 내나 꼬투리, 그 말입니까?}

10401 # 예, 예, 모카 따래. {예, 예, 목화 다래.}

10401 # 모카 따래라고 해써써요. 모카 따래라고 쓰는게 조깸네요. {목화 다래라고 했었어  
요. 목화 다래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10401 # 근데 그게, 이게 인제 쇠기 저네:, 처어으메 나와서 요만하게 아조 말랑말랑할 제  
머그면 무섭게 다라요, 이느미. {근데 그게, 이게 인제 쇠기 전에, 처음에 나와서 요  
만하게 아주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무섭게 달아요. 이눔이.}

10401 # 그래니깐 배고플 때잉간 바테 땡기면 머 안 멍는 거 업썩간. {그러니까 배고플 때  
니까 밭에 다니면 뭐 안 먹는 거 없으니까.}

10401 @ 그때는 저 저희들도 그걸 따서 먹꼬 이랬거든요. {그때는 저, 저희들도 그것을  
따서 먹고 이랬거든요.}

10401 # 아 그랜썩니까? {아 그랬습니까?}

10401 @ 예. {예.}

10401 # 모카 따래, 예. 모카 따래가 만네요. {목화 따래, 예. 목화 따래가 많네요.}

10401 @ 그러며는, 거 인제 다 저 이제 말리며 피어서 이제 고거 뽀바 내면 씨가 부터 인  
썩습니까? {그러면 그거 인제 다 저, 이제 말리며 피어서 이제 그거 뽀바내면 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10401 # 예. {예.}

10401 @ 고런 처리는 어떠케 하는지 아시는지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지  
요?}

10401 @ 실, 거기서 실까지 뽀블 때까지. {실, 거기에서 실까지 뽀을 때까지.}

10401 # 씨를, 이걸이걸 바싹 말린저 그. {씨를, 이것을 이것을 바싹 말린 저, 그.}

10401 # 아:르목가튼 데다 이 노를 퍼: 노으른 이게 말라요. {아랫목같은 데에다 이눔을  
퍼 놓으면 이게 말라요.}

10401 @ 예. {예.}

10401 # 말르문, 여기 인는지 모르는데 씨:아라는게 인꺼든뇨? 씨:아. {마르면, 여기 있는  
지 모르는데 ‘씨아’라는 게 있거든요?}

10401 @ 예. {예.}

10401 # 예, 씨아라는게 거 순전히 건 쇠는 하나툽꾸 막때기로만 대어 인는 거거든뇨. (@  
예.) 근데 이게. {예, 씨아라는 게 거 순전히 그건 쇠는 하나도 없고, 막때기로만 되  
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0401 # 씨안끼를 까껴서 이러케서 팬드러가지고 여기 돌리문 이 지트라아케 인제 기아시  
그로 되가지고 이걸 여기서 돌리문 이게 도라가게 돼 인는데. {씨앗기를 깎아서 이러  
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 돌리면 이 기다랗게 인제 기아 식으로 돼서 이걸 여기에서 돌

리면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10401 # 이걸 돌리면서 인저 그 말린. (@ 모카.) 모카 소믈 지버너쿠 이러케 돌리면. {이  
걸 돌리면서 인저 그 말린. 목화 숨을 집어 넣고 이렇게 돌리면.}

10401 # 돌리든 소:몬 그 막대기니까 이게 도라 나가면서 저리 자바 나가는데. {돌리면 숨  
은 그 막대기니까 이게 돌아나가면서 저리 잡아 나가는데.}

10401 # 씨:는 아페 이리 떠러지자나요. {씨는 앞에 이리 떨어지잖아요.}

10401 # 그러케 해서 씨아를 다 뺏쪼요. {그렇게 해서 씨아를 다 뺏쪼요.}

10401 # 그리 모카씨 빼는 방법븐 씨:아니든 뺏또로 따로 빼는 다른 기계가 업쪼요. {그리  
목화씨 빼는 방법은 씨 아니면 별도로 따로 빼는 기계가 없어요.}

10401 @ 그거 그거 그러쪼입니다, 예. {그거 그거 그렇쪼입니다, 예.}

10401 # 예, 그러케 빼쪼요. {예, 그렇게 빼쪼요.}

10401 # 이러케 뺏:다메 그 말린 걸 가지구서, 말린 걸 가지고. {이렇게 뺏 다음에 그 말린  
것을 가지고서, 말린 것을 가지고.}

10401 # 숨:틀 쪼베 가서 소:믈 틀며는. (@ 예.) 이거시 이제 뭐가치 나올까, 하여튼. {숨  
틀집에 가서 숨을 틀면. 이것이 이제 무엇같이 나올까. 하여튼.}

10401 # 숨탄거로 돼: 이러케 나오자나요. {숨을 튼 것으로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401 # 근데 중가네는 그걸 이러케 저버서 탁탁탁탁 뚜드려가지구 이러케 마는 걸루다  
탁: 마라서 이불쪼에나 해구 이랜는데. {그런데 중간에는 그것을 이렇게 접어서 ‘탁탁  
탁탁’ 두드려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다 탁 말아서 이불쪼에나 하고 이랬는데.}

10401 # 옴나레는 그 숨:탄 등치를 그냥 가져오자나요. 지비루. {옛날에는 그 숨 튼 등치를  
그냥 가져오잖아요. 집으로.}

10401 @ 네네. {네네.}

10401 # 지비루 가져오면, 지비루 갈따가 인제 그. {집으로 가져오면, 집으로 가져다가 인  
제 그.}

10401 # 수수땅에 패: 나온 가느 가느따라코 매애:끈한 수숫때가 이쪼요. (@ 예.)

10401 # 고. {수수땅에 패서 나온 가느, 가느다랗고 매끈한 수숫대가 있어요. 고.}

10401 # 수수패:나온 그 대동기인들 그 으. {수숫대 나온 그 대동기인들 그 으.}

10401 # 수수패루다가 이제 소믈 요로케 뜨더서 기럭지:카게 노쿠서 여서 요로케 노쿠서  
이노를 뭉쳐가지구. {수숫대로다가 이제 숨을 요렇게 뜯어서 길게 놓고서 여기에서  
요렇게 놓고서 이눔을 뭉쳐서.}

10401 # 싹: 돌립니다, 이걸. 돌리든. {싹 돌립니다. 이걸. 돌리면.}

10401 # 인제 똥:그라케 따아 말리는데 해는데 이걸 이제. {인제 똥그랗게 다 말리는데, 하  
는데 이걸 이제.}

10401 # 고추라고 그래요, 고추. (@ 예, 예예.) 고추라 그랜는데. {고추라고 그래요, 고추.  
고추라 그랬는데.}

10401 # 그러캐구서 인제 이걸 쑥: 빼내게 되든 그 소믈. {그렇게 하고서 인제 이걸 쑥 빼  
내게 되면 그 숨을.}

10401 # 복판은 빈:거 가찌만 비:지는 안치요. 인제 이러케. {복판은 빈 것 같지만 비지는  
않지요. 인제 이렇게.}

10401 @ 네네. 인제 수미 주그니까. {네네. 인제 숨이 죽으니까.}

10401 # 예예, 인제. {예예, 인제.}

10401 # 소미 이제 이제 이자부터 신축쟁이 이쓰니까 이러케 되는데. {숨이 이제 이제 이제부터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10401 # 그러케 땡 걸 마니 해 노쿠서 그거슬 이제 무올래를 간따 노쿠. {그렇게 된 것을 많이 해 놓고서 그것을 이제 물레를 가져다 놓고.}

10401 @ 예. {예.}

10401 # 예, 물레를 간따 노코 물레 가라게다 인제 이걸 쪼끔 빼서 비벼서 부뜨러 매 노쿠선. {예, 물레는 가져다 놓고 물레 가락에다 인제 이것을 조금 빼서 비벼서 붙들어 매 놓고서는.}

10401 # 돌리면서 이 노를 자버 빼면. {돌리면서 이놈을 잡아 빼면.}

10401 # 이게 소미 똥그란 데 인는 거니까 이게 뱅뱅뱅뱅 도로마 가면서 이게 돌리면서 이게 빠져나와요, 이러케. {이게 숨이 똥그란 데 있는 것이니까 이게 뱅뱅뱅뱅 도로마 가면서 이게 돌리면서 이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10401 @ 예. {예.}

10401 # 그러면 이마:안큼 빼서 까끄루해따 이르으케 감꾸서. {그러면 이만::큼 빼어서 거꾸로 했다 이렇::게 감고서.}

10401 # 다시 이러케 재 자:서 이러케 해따가 다시 이러케 해 구래믄. {다시 이렇게 재, 자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

10401 # 인제 자안뜩 이제 시리 뽀퍼서 여기 나오거든노. {인제 잔뜩 이제 실이 뽀혀서 여기 나오거든요.}

10401 @ 그래 되요. {그렇게 돼요.}

10401 @ 예. {예.}

10401 # 그러케 해서 그 이 실가지고 인제. {그렇게 해서 그, 이 실을 가지고 인제.}

10401 # 점::부 인저 타레루 맨드러가지구 해서 이 격뿌를 노쿠, 이걸. {전::부 인제 타레로 만들어서 이, 결불을 놓고, 이걸.}

10401 # 풀치를 다: 해서 짜:르는 이제 무명이 나오는 거지요. {풀칠을 다 해서 짜면 이제 무명이 나오는 것이지요.}

10401 @ 예예. {예예.}

10401 # 예, 그러케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10401 @ 예. 그거또. {예, 이것 또.}

10401 # 그래 그 할머니드리 푸아씨를 해서 인저 물레를 함 방에 빼:앵 돌려 노쿠서. {그래 그 할머니들 품앗이를 해서 인제 물레를 한 방에 뽕 돌려놓고서.}

10401 # 거 다아: 그 저기 물레질을 해서 시를 뽀바서 실타래라 해노코, 이래지. {거 다 그 저기 물레질을 해서 시를 뽀아서 실타래라 해 놓고. 이렇게.}

10403 @ 그 대마, 삼. (# 네.) 삼:농사는 여기 이씨씀니까? {그 대마, 삼. 삼 농사는 여기 있었습니까?}

10403 # 그저네: 나 어린썰제는 그걸:해써서요. {그 전에 나 어렸을 때는 그걸 했었어요.}

10403 @ 어, 네. {어, 네.}

10403 # 해가지고. {해서.}

10403 # 그 내가 어린썰 때니까, 저런 데 보며는 그거를. {그 내가 어렸을 때니까, 저런 데를 보면 그것을.}

10403 # 이런 모시나 방죽가튼 데다 가따 당구더라구요. (@ 예예.) 근데그게이제. {이런

모시나 방죽같은 데에다 가져다 당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0403 # 엔나레는 여기 이러케 장마가 지면 드문드문 여기저기 패인 데가 마니 이썬꺼든  
 뇨?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장마가 지면 드문드문 여기저기 패인 데가 많이 있었거든  
 요?}

10403 @ 예예. {예예.}

10403 # 지금마냥 제방이 제대로 안대니까. {지금마냥 제방이 제대로 안되니까.}

10403 @ 네네. {네네.}

10403 # 거기다 가따 노쿠 도를 눌러 날따가 이게 무른 다메 끄내서. {거기다 가져다 놓고  
 돌을 눌러 났다가 이게 무른 다음에 꺼내서.}

10403 # 껌띠기 까는 거까지는 받는데. {껌띠기 까는 것까지는 봤는데.}

10403 # 여기서 벼를 짜거나 모실 짜거나 그런 건 저년 업썬썬 요기는. {여기서 벼를 짜거  
 나 모시를 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요기는.}

10403 # 무명만 해찌. {무명만 했지.}

10403 @ 예예. {예예.}

10403 # 벼 짜고 저기 모시 짜고 이런 건 업썬썬요. {벼 짜고 저기 모시 짜고 이런 건 없  
 었어요.}

10403 # 그 요새 텔레비에 나온 걸 보니까 인제 상당히 생생하더라. {그 요새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제 상당히 생생하더라.}

10403 @ 그걸 껌띠기 해가지고 내다 파:는 모양이군뇨? {그것 껌띠기 해서 내다 파는 모  
 양이군요?}

10403 # 그 씨 그건 처리는 으:른드리 한 거니깐 내가 어려서 봐서 잘 모르게썬요. {그 씨,  
 그것 처리는 어른들이 한 것이니까. 내가 어려서 봐서 잘 모르겠어요.}

10403 @ 모시 모시:이도 하는걸 보셨습니까? {모시, 모시도 하는 걸 보셨습니까?}

10403 # 네, 모시:두. {네, 모시도.}

10403 # 별또로 같고 이래는 건뚜 몰라요 그건 모시는. {별도로 같고 이러는 것도 몰라요.  
 그건 모시는.}

10403 @ 네네. {네네.}

10403 # 모시는 여기 워나게 어련썬 땐 난 알도 못태던 거거든뇨? {모시는 여기 워낙에  
 어렸을 때는 알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10403 @ 네네. {네네.}

10407 @ 그러면 저, 벼:틀가튼 거슨 여기도 이썬썬니까? {그러면 저, 벼틀같은 것은 여기  
 도 있었습니까?}

10407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07 @ 무명: 하니까? {무명을 하니까.} 10407 # 예. {예.}

10407 # 근데 배트리, 요분 요즘 그 데리비에 나오는 뭐 찌기 모시 짜구 이래는 거 나오는  
 그믐. {그런데 벼틀이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저기 모시 짜고 이러는 것 나  
 오는 거면.}

10407 # 그게 참, 상당히 깨열편데. {그게 참 상당히 깨였던데.}

10407 # 여기 뺨트른 재:래시기라. {여기 벼틀은 재래식이라.}

10407 # 쫘:꿈 점 여기 드 드르게 더디고 힘드런겐꾸나 하는 그런 생가기 나거든뇨. {조금  
 쫘 여기 드 들은 것이 더디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10407 @ 그:. {그.}

10407 @ 부분 부분 명칭이 기억나는게 이쥬니까? {부분 부분 명칭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10407 # 예, 벼트를. {예, 벼틀을.}

10407 # 어:, 맨:츠메 도투마리라는게 이쥬요. {어, 맨 처음에 도투마리라는 것이 있어요.}10407 @ 예예. {예예.}

10407 # 도투마리. {도투마리}

10407 # 도투마리라는 거는 인제 여기다 겹뿌를 노쿠 여기다 말뚝글 박꾸 도투마리를 여기다 간따노쿠서. {도투마리라는 것은 인제 여기에다 겹불을 놓고 여기에다 말뚝을 박고 도투마리를 여기에다 가져다 놓고서.}

10407 # 썰: 느린 거를 다: 여기 두고 풀치를 해서 감:는데. {실 늘인 것을 다 여기에 두고 풀칠을 해서 감는데.}

10407 # 감는데, 그냥 감는게 아니라 잉안때라고 그래가지구. {감는데, 그냥 감는 게 아니라 잉앗대라고 그래서.}

10407 # 아휴, 그게 잉안때가? 지금 오래되서 아리송하네. {아휴, 그게 잉앗대인가? 지금 오래돼서 아리송하네.}

10407 # 그 미류나무대: 끼워 가꾸 생한 거루 가따가. {그 미류나무대 끼워서 성한 것으로 가져다.}

10407 @ 예. {예.}

10407 # 중간 중간에 너으면서 이걸 감짜나요. {중간 중간에 넣으면서 이걸 감잖아요.}

10407 @ 네네. {네네.}

10407 # 짜악: 캄 감껴는뇨. 그래서 인제 이게 다 된다메. {짜 감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다 된 다음에.}

10407 # 벼트를 땅 논는데, 논는데 그 벼틀 뒤에다가 간따가 그걸 노쿠선. {벼틀을 딱 놓는데, 놓는데 그 벼틀 뒤에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놓고서는.}

10407 # 이 아페 사미 안께이 대거드뇨? {이 앞에 삼이 안까지 되거든요?}

10407 @ 네네. {네네.}

10407 # 그래 안즐게가 인는데 안저서 허리를 떠를 이러케 마지고 부뜨러 매가지구선 인자 하게 되믄. {그래 앓을개(=앓는 것)가 있는 데에 앓아서 허리를 떠를 이렇게 만지고 붙들어 매가지고서는 인제 하게 되면.}

10407 # 날쭈를 지버 넘는 거슬 부기라구래요. {날줄을 집어넣는 것을 북이라고 그래요.}10407 @ 네. {네.}

10407 # 북. {북.}

10407 @ 네. {네.}

10407 # 그걸 부기라구래구. {그것을 북이라고 그러고.}

10407 # 이러케 {이렇게} (@ 씨줄) {씨줄.} 예, 씨주를 예 그 이러케. {이렇게 (@ 씨줄) 예, 씨줄을 예, 그, 이렇게.}

10407 # 탁 드러갈 쭈 인포록 그러케 하는 거를, 그 그뚜 생가기 안나네요, 거기. {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제.}

10407 # 부까지는 생가기 나는데. {북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10407 # 그 잉안때하고, 그러케. {그 잉앗대하고 그렇게.}

10407 # 하이튼 그리케바께는 생가기 잘 안나네요. {하이튼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10407 @ 채 챙가요? 요 요리 요기 만나서 줄드리 그 사이로 이러케 나올꺼 아임니까?  
{채, 채인가요? 요, 요리, 요기 많아서 줄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나올 것 아십니까?}

10407 # 예, 예. {예, 예.}

10407 # 그래는데, 거기 거기 보면 이러케 새고배진 막때기에다가. {그랬는데, 거기, 거기 보면 이렇게 새곶해진(=구부러진) 막때기에다가.}

10407 # 이러케 새곶해진 데다 여기다 이러케 대:구 여기 막때기 드러 가서 중:가네 이게 딱: 끼어인꺼든뇨. {이렇게 구부러진 데에다 여기에다 이렇게 대고, 여기 막때기를 들어가서 중간에 이게 딱 끼어 있거든요.}

10407 @ 네. {네.}

10407 # 그래서 이게 가쌌모기저서 을 드려오게되믄 이노를 떠:다밀고. {그래서 이게 가쌌 목이 저서 을 들어오게 되면 이놈을 떼밀고.}

10407 # 이래구서는 저. {이렇게 하고서는 저.}

10407 @ 부글 함번. {북을 한 번.}

10407 # 이글 느쿠 일 치구. {이것을 넣고 이리 치고.}

10407 # 또 이리노쿠 이걸 치는데. {또 이리 놓고 이것을 치는데.}

10407 # 파:리 발, 바:래 집씨늘 싣꼬 집씨네서 그걸 부뜨러매서. {파리 발, 발에 쥘신을 싣꼬 쥘신에서 그걸 붙들어 매서}

10407 # 막때기가 이러케 하나 나와 이러케 자바댕기믄. {막때기가 이렇게 하나 나와 이렇게 잡아당기면.}

10407 # 이게 이 이게 뿌:쩍 올라가면서 딱 뿌러지믄 노쿠. {이게 이 이게 부쩍 올라가면서 딱 부러지면 놓고.}

10407 # 털킵 노믄 내려간 뒤에 또 드러가고 그 그러케 쳐꺼등뇨? {털킵 놓으면 내려간 뒤에 또 들어가고 그 그렇게 쳤거든요?}

10407 @ 아 예예예. {아. 예예예.}

10407 # 근데 이 텔레비에 나오는 건 보니까 그냥 머 아아 쉴새 업씨 치는데. {근데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보니까 그냥 뭐 아아, 쉴 새 없이 치는데.}

10407 # 암:만 볼라 그래도 암 보이더라고요, 거. 언제 이게 날쭈리 드러가는지 그게. 그 그러더라고요. {암만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 언제 이게 날줄이 들어가는지 그게. 그 그렇더라고요.}

10407 # 근데 그 이:르믄 점부 점 생가기 잘 안:나네요. {근데 그 이름은 전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10407 @ 그러캐씀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10407 # 그 그거를 아버지가 목쭈기때매 그걸 집집 만들기도 하고. {그 그것을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10407 @ 만드셔써요? {만드셨어요?}

10407 # 아이 뭐. {아이, 뭐.}

10407 # 무울레 만들구 이이거 만들구 그. {물레 만들고 이, 이거 만들고 그.}

10407 # 웨쟁:기 나와 처음 나와서 그거 만드는데. {외쟁기 나와서, 처음 나와서 그거 만드는데.}

10407 # 짓 짓는 거보다 그걸 마니 만드러서 그게 수:이비 창당히 더 조:안파라고도 그라구. {집 짓는 것보다 그걸 많이 만들어서 그게 수입이 상당히 더 좋았다라고도 그러고.}

10407 # 그랜써꺼든뇨? 그랜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10407 @ 아. {아.}

10409 # 그 무:명이나 삼베나. 네. {그 무명이나 삼베나, 네.}

10409 @ 모시이 합피리라고 할때. {모시가 한 필이라고 할 때.}

10409 @ 그 기리가 몇짜가 되는지 그거는. {그 길이가 몇 자가 되는지, 그거는.} 10409 # 그거는. {그거는.}

10409 @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10409 # 그거는 모르겠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10409 # 지끔두 점 뭐 뭐 한:마니 한:피리니 뭐니: 그래는 건 잘 모르켄는데. {지금도 좀 뭐, 뭐, ‘한 마, 한 필’이니 뭐니 그러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10409 # 대:개 그 시장에서 파는, 뭐지 그게? {대개 그 시장에서 파는, 뭐지 그게?}

10409 # 저기 지적 온감 가튼거. (@ 예예.) 그런 거를. {저기 지적 옷감 같은 거. (@ 예예.) 그런 것을}

10409 # 한:피리리라는 게 한 이십미터 정도 되는지 기 그런 정화키 난 그건 모:르게쎄요. {한 필이라는 게 한 이십 미터 정도 되는지 그, 그런 정확히 난 그건 모르겠어요.}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4 @ 그담, 누:에 치는 거슨 여기서. {그 다음, 누에치는 것은 여기서.}

10414 # 누:에는 천:는데. {누에는 쳤는데.}

10414 @ 인써썸니까? {있었습니까?}

10414 # 명주 짜:는 거는 별: 기어기 잘 안:나요. {명주 짜는 것은 별 기억이 잘 안 나요.}

10414 @ 예예예. {예예예.}

10414 # 명주도 한 사라미썰래나, 저 아래에 명저네 한 집 한:는진 모르는데. {명주도 한 사람 있으려나, 저 아래에 명전에 한 집 했는지는 모르는데.}

10414 # 누:에는 인저 그게 그걸 또 어려서 이러케, 누:에를 타:든 가서 번:데기는 무 지버 머건는데. {누:에는 인제 그게 그것 또 어려서 이렇게 누:에를 타면 가서 번:데기는 무, 집어 먹었는데.}

10414 @ 예. {예.}

10414 # 키우는 과정은 잘: 모르거든뇨. (@ 예.) 그런데 인제. {키우는 과정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제.}

10414 # 씨:는 그 양:잠회사에서 어테서. {씨는 그 양잠 회사에서 얻어서}

10414 @ 가지고. {가지고.}

10414 # 바다 바:더오는 거 가태요, 종자는. {받아, 받아 오는 것 같아요, 종자는.}

10414 # 그래가지구 인제 그걸 아구를 티어서. {그래서 인제 그것을 입구를 띄워서.}

10414 # 이러케 채반가튼 데다 쭈욱 느러 노쿠션. {이렇게 채반같은 데에다 쪽 늘어 놓고 서는.}



10414 # 처:으맨 그 노물 써:러 주대요, 뽕넙플 따다가? {처음엔 그 놈을 썰어 주대요, 뽕  
 앞을 따다가?}

10414 @ 예예. {예예.}

10414 # 그래서 엔:나레는 머 받따모기구 모구 이러케 익꾸, 받 전체에 다 시머서. {그래서  
 옛날에는 뽕 받 두둑이고 뽕고 이렇게 있고, 받 전체에 다 심었어.}

10414 # 그 재:래종 뽕이 큰: 거 이러케 크은 나무드리 마니 인는. {그 재래종 뽕이 큰 거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10414 # 지끔두 여기 다님 보른 받따모기 듸성듸성 이제 인는 게 이썬요. {지금도 여기 다  
 녀 보면 받따목이 듸성듸성 이제 있는 게 있어요.}

10414 # 그릉 글 따다. {그런 것을 따다.}

10414 @ 어디예요? {어디예요?}

10414 # 받따목가튼 데 이런데 드문드문 뽕나무가 이썬요. {받 두둑 같은 데, 이런데 드문  
 드문 뽕나무가 있어요.}

10414 @ 바 받. {바, 받.}

10414 # 다:목. {다목.}

10414 @ 받다목. {받다목.}

10414 # 예. {예.}

10414 @ 그게 멈:니까? {그게 뽕니까?}

10414 # 그래니게 받뚜기지요, 받뽕. {그러니까 받뽕이지요. 받뽕.}

10414 # 거기다 인제 뽕나무를 시머서. (@ 아, 네.) 인제 해구 전무니로 하는 사람드른 바  
 태두 심꼬 그래는데. {거기다 인제 뽕나무를 심어서 인제 하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은 받에도 심고 그랬는데.}

10414 # 그걸 따다 쓰:러서 즈음에 메기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크므는 양중에는 뽕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것을 따가 썰어서 처음에 먹여서 이게 어느 정도 크면 나중에는 뽕을  
 그냥 주더라고요.}

10414 @ 예예. {예예.}

10414 # 아니른 그냥 수내기를 그냥 찢:라다다 느:주고 그랜는데. {아니면 그냥 수내기(=  
 잎이 달려있는 가지)를 그냥 찢라다가 넣어 주고 그랜는데.}

10414 # 사:람 밥 찢 머그문 뽕 누에 먹든, 아이 누에 뽕 먹뜨탄다고 인제 그리대나요. {사  
 람 밥 잘 먹으면 뽕 누에 먹든, 아이 누에 뽕 먹뜨한다고 인제 그렇게 되나요.}

10414 # 예 그참, 버석버석 그래 멍는다고 그래면서 그래는데. {예 그것 참, 버석버석하게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랜는데.}

10414 # 그눔드리 멍는 소리가 대단하지 아나요. {그 놈들이 먹는 소리가 대단하지 않아  
 요.}

10414 # 근데 보니까, 겉뚜 한: 잠 잔네 두: 잠 잔네 그랜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한  
 잠 잤네, 두 잠 잤네 그랜는데.}

10414 @ 예예. {예예.}

10414 # 그 누에가 우뽕케 변:형돼: 가는걸 한 잠 잔따 두 잠 잔따 그래는 거슨 잘: 모르  
 게썬요. {그 누에게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 것을 한 잠 잤다, 두 잠 잤다, 그러는 것  
 을 잘 모르썬어요.}

10414 @ 네. {네.}

10414 # 우리 지비서는 그 누엘 안 치바꺼든뇨? {우리 집에서는 그 누엘을 안 쳐 봤거든요?}

10414 @ 네네. {네네.}

10414 # 그래구 인제 저: 아래 우리 사촌 누님네가 하구 동네 싸람드리 하는 걸 땡김 봐안는데. {그리고 인제 저 아래 우리 사촌 누님네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니면서 보아 왔는데.}

10414 # 그러캐서 이느미 지블 직꼬 드러가면. {그렇게 해서 이놈이 집을 짓고 들어가면.}

10414 # 인제 고치가 나오지요. 누에고치. {인제 고치가 나오지요. 누에고치.}

10414 @ 네네. {네네.}

10414 # 누에고치가 나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누에고치가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10414 # 요:마난: 그 소 소테다 냄비 비스터게 생겼는데. {요만한 그 소, 술에다 냄비 비스하게 생겼는데.}

10414 # 엔나레 보며는 꺼머스름한데 냄:비는 아니구, 그 술:까튼 거에다. {옛날에 보면 꺼무스름한데 냄비는 아니고, 그 술같은 것에다.}

10414 # 또 손또 아니더라고요. 꼬치 이러케 버러진 거이다. {또 술도 아니더라고요. 끝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다.}

10415 # 안처 노쿠 부를 조금 때:면서 뜨드::탄 데다 해가지구, 이러케 시:를 이러케 이러케 모아가지구 뿔는데. {얹쳐 놓고 불을 조금 때면서 따뜻한 데에다 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뿔는데.}

10415 @ 아. {아.}

10415 # 요로:케 되인는 데다가 요론: 게 두:리 요러케 든 걸려 인떠라고요. {요렇게 돼 있는 데다가 요런 게 둘이 요렇게 든, 걸려 있더라고요.}

10415 # 고기다 갱겨 가지구선 자바댕김 요게 토로록 토로록 돌면서. {거기에다 감겨 가지고서는 받아 당기면 요것이 토로록 토로록 돌면서.}

10415 @ 쪽쪽.{쪽쪽.}

10415 # 이 명주시리 나오더라고요. {이 명주실이 나오더라고요.}

10415 @ 예예예. {예예예.}

10415 # 예 거진 다:뽀퍼 나온 느른 이렇이러해서 건저 노른 인저 그 번디는 애드리 먹꾸. {예 거의 다 뽀퍼 나온 놈은 이렇이러해서 건저 놓으면 인제 그 번데기는 아이들이 먹고.}

10415 # 그진 풀써미루 나가믄. {그진 풀섬으로 나가면.}

10415 @ 예예. {예예.}

10415 # 엔나레 사:람 주그믄 인제 코막꾸 귀막꾸 그런 쪼그루 쓰구.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인제 코 막고 귀 막고 그런 쪽으로 쓰고.}

10415 # 애:기들 그 저기 날:꾸 저저 태 찢르믄 그런데 써먹고는 풀써미로 나가고. {애기들 그 저기 낳고 태를 자르면 그런데 써먹고는 풀섬으로 나가고.}

10415 # 명주시를 그러캐서 빼변찌요. {명주실을 그렇게 해서 뿔았지요.}

10415 @ 그 다음에. {그 다음에.}

### 1.4.3. 옷 만들기

10419 @ 지그몬 이제 그 양보기니 머 이런게 다 그 이 머니까 저. {지금은 이제 그 양복이니 뭐 이런 게 다 그 이, 뭘니까 저.}

10419 @ 모:를 가지고 만들다거나 화학 제푸드로 나오지마는. {모를 가지고 만들다거나 화학 제품으로 나오지마는.}

10419 # 예. {예.}

10419 @ 그저네는 온 만드는거야 뻔했잖습니까, 처니. {그 전에는 옷 만드는 거야 뻔했지 않습니까? 천이.}

10419 # 엔나레는 거:이 다 무명이구요. {옛날에는 거의 다 무명이구요.}

10419 # 쏜:꿈쑈 모라다해몬 광모글. {조금 쑈 ‘모’라고 하면 광목을.}

10419 @ 광목? {광목?}

10419 # 예. {예.}

10419 # 시장에서 파는 모기루 대인는거 이러케 너얼븐거. (@ 네.) 나오는 게 이썬요. 광 모기루 마니 해썬니다. {시장에서 파는 목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넓은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광목으로 많이 했습시다.}

10419 # 그리구 인제 여름 오시래야 특빠리 쑈 갠찬게 산다는 지븐 베를. {그리고 인제 여름 옷이라야 특별히 쑈 갠찬게 산다는 집은 베를.}

10419 # 쏜너다 인제 베잠뱅이. (@ 예예.)

10419 # 등걸 등거리를 해 입꼬. {쑤어다 인제 베잠뱅이, 등걸 등걸이를 해 입고.}

10419 # 그래구 웬마난 사라드른 인제 광모기나 그 우리나라 우리 우리 가 짠 그 볼목가튼 걸루 해 이부몬.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인제 광목이나 그 우리나라, 우리, 우리가 짠 그 볼목같은 것으로 해 입으면.}

10419 # 땀차구래몬 그게 찰 나가요. {땀이 차고 그러면 그게 잘 나가요.}

10419 # 내가 보기에 씨름하는 거 보몬 내가 맨날 그래 소기루. {내가 보기에 씨름하는 거 보면 내가 만날 그래 속으로.}

10419 # 참: 오시 조아서 그러치 엔:날가트몬 [웃음] 잘 찌저 지게썬요 그런대 {참, 옷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잘 찢어 지겠어요. 그런데.}

10419 # 지그몬 워:낙 오시 질기고. (@ 예예.) 조으니까는 다 그게 갠찬치. {지금은 워낙 옷이 질기고. 좋으니까는 다 그게 갠찬지.}

10419 @ 그럼 여름가튼 경우에는 인제 삼베. {그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삼베.}

10419 # 예. {예.}

10419 # 네, 여름가튼 텐 삼베가튼 거 이벼요. {네, 여름 같은 데에는 삼베 같은 거 입어요.}

10419 @ 모시. {모시.}

10419 # 예. {예.}

10419 # 모 모시가튼 건 입는 사람 베남 업썬썬요. {모, 모시같은 것은 입는 사람 별로 없었썬요.}

10419 @ 모시는 쑈 고그푸미지요? {모시는 쑈 고급품이지요?}

10419 # 그러치요. 아주 우짜다 한두 사람 이블 몰를까 머 이블 생각또 모타고. {그렇지요. 아주 어찌다 한두 사람 입으면 모를까 뭐 입을 생각도 못하고.}

10419 # 거 노는 사람드리 이버야 대니까아. (@ 예예.) 농군드른 모디브니깐요. {거 노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니까. 농군들은 못 입으니까요.}

10419 # 이 삼베두 그래두 여름처레 삼베온 넙꼬 가 오까 철처리 온까라 임는다 그런 사람 잘싼다는 얘기거든노. {이 삼베도 그래도 여름처럼 삼베 옷 입고 가 옷 갈, 철마다 옷 갈아 입는다 그러는 사람은 잘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10419 # 그러치, 이 며 삼베도 아무나 몬니번꾸. {그렇지, 이, 뭐 삼베도 아무나 못 입고.}

10419 # 대:개 인제 광목 아니른 무명이지요. {대개 인제 광목 아니면 무명이지요.}

10419 @ 무명. {무명.}

10419 # 예. {예.}

10419 # 무 무명은 그저니구, 고다맨 광모기 주종을 이뤘꾸. {무, 무명은 그 전이고 그 다음에는 광목이 주종을 이루었고.}

10419 @ 바지 저고리나 치마 저고리 그 부분 이름가튼 거 아시겠습니까? {바지 저고리나 치마 저고리 그 부분 이름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10419 # 바지 저고리요? {바지 저고리요?}

10419 # 바지 저고리로 부분 부분 그 온 다:네 이르른 잘 모르겐는데? {바지 저고리로 부분 부분 그 옷 다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10419 # 그 바지는 그냥 바지로 통하 통하 통하는데, 저고리는. {그 바지는 그냥 바지로 통하, 통하, 통하는데, 저고리는.}

10419 @ 바지:도 여쪽 여기가 이제 요리 매는데 여기도 익꼬. {바지도 이쪽 여기가 이제 요렇게 매는데가 여기도 있고.}

10420 @ 요기 앞 부분 더 이런 명칭이 안 인겐습니까? {요기 앞 부분 뭐 이런 명칭이 안 있겠습니까?} 10420 # 그런 명칭은 인는지는 모르는데 잘:몰라요. {그런 명칭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10420 @ 그런웁습니다. {그렇겠습니다.}

10420 # 그러 그러니까 거 바 바질까랑이다 그러는 소리는 해요, 이이이 바질까랑이다 그런 소리는 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거, 바, ‘바질까랑이’다 그런 소리는 해요. 이, 이, 이 바지 가랑이다 그런 소리는 하는데.}

10420 # 바지에 대한 부부네 대한 이르른 잘 모르겐꼬. {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

10420 @ 그 예 그 이런 걸뜨른 아주머니드리 잘 아실텐데. {그, 예, 그, 이런 것들은 아주머니들이 잘 아실 텐데.}

10420 # 예. {예.}

10420 # 인제 저고리가튼 경우는 온 저 소매니. {인제 저고리같은 경우는 옷 저 소매니}

10420 @ 예. {예.}

10420 # 소매니 까니면 여 동정이니. {소매니 아니면 여 동전이니}

10420 @ 동전. {동전.}

10420 # 예. {예.}

10420 # 이런 소리는 인제 드러. (@ 예.) 나오구 득꾸 헨는데. {이런 소리는 인제 들어. 나오고 듣고 했는데.}

10420 # 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겐쎄요. {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10420 # 허릿따니다 머 이리케는 얘기하쓸라는진 모리두. {허릿단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 했을라는지는 몰라도.}

10420 # 바지에 대해선 바진 찌고리에 대해선 잘: 모르고. {바지에 대해서는 바지저고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0422 @ 바느 바느질 도구:도 잘 모르시겜꾼뇨. {바느, 바느질 도구도 잘 모르시겠군요.}

10422 @ 바느질에 사용되는 도구. {바느질에 사용되는 도구.}

10422 # 바느질 또구는: 바누질 또구는 별 거이 업짜나요. {바느질 도구는, 바느질 도구는 별 것이 없잖아요.}

10422 # 바눌하구. (@ 예?) 바눌, 바눌, 바늘. {바늘하고. 바늘, 바늘, 바늘}

10422 @ 보통 바눌: 그럼니까? {보통 ‘바눌’ 그럼니까?}

10422 # 예 바누지레는 바눌이예요 바늘. {예, 바느질에는 ‘바눌’이예요. ‘바늘’.

10422 # 바눌인지 바늘인지 그건 모르게써요. 해튼 바눌:그래는데. {‘바눌’인지 ‘바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눌’ 그러는데.}

10422 @ 또. {또.}

10422 # 이제 실:가마 두는 실:패가 이써요. {이제 실을 감아 두는 실패가 있어요.}

10422 @ 실:패. {실패.}

10422 # 예. {예.}

10422 # 또 손끄를 찢르까바 끼는 골:무가 인썸니다. 골:무. {또 손끝을 찢을까봐 끼는 골 무가 있습니다. 골무.}

10422 # 그러케 대면 아마 바느지른 거진 델 꺼가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바느질은 거의 될 것 같은데.}

10422 @ 거의. {거의.}

10422 @ 대겐네요. {되겠네요.}

10422 # 이제 그 시:를 찢:르고 그래는 가:위가 인썸요. {이제 실을 자르고 그러는 가위가 있지요.}

10422 @ 거. {거.}

10422 # 거는 거기 저 저 저 엔나레 시지볼 제 필수푸므로 가지구 땡기는 거니까. {그것은 거기, 저, 저, 저, 옛날에 시집올 때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10422 @ 여기서는 가위라 그럼니까, 가새라 그럼니까? {여기서는 ‘가위’라 그럼니까, ‘가 새’라 그럼니까?}

10422 # 엔:나렌 가새라 그랜썸요. {옛날에는 ‘가새’라 그랬지요.}

10422 @ 가새? {‘가새’?}

10422 # 예. {예.}

10422 @ 그: 바늘, 실, 실:패 이런걸 지버너은 둔 두는 상자 인썸습니까, 그릇. {그 바늘, 실, 실패 이런 것을 집어넣어 둔, 두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릇.}

10422 # 그게 반진끄르신데. {그게 반진고리인데.}

10422 # 엔:나렌 아주 시:지볼 쩌 그거꺼정 해:가지고 완꺼드뇨. (@ 예.) 반지끄르슬. {옛날에는 아주 시집올 때 그것까지 해서 왔거든요. 반진고리를.}

10422 @ 반지끄르시라 그럼니까, 반지끄르이라 그럼니까? {‘반지끄르’이라고 그럼니까? ‘반지끄르’이라 그럼니까?}

10422 # 예 반진끄르시요. {예 ‘반진끄르’이요.}

10422 @ 예예. {예예.}

10422 # 그냥 그래 그래썬요, 반진끄른. {그냥 그래 그랬어요. ‘반진끄른’}

10423 @ 그 바느질:하는 데서 트키 꿰매는 그 방식기 좀 다르잔습니까? {그 바느질하는 데에서 크히 꿰매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423 @ 예를들면, 한쪼그로 넣어서 또 이러케 돌려서 하는게 익꼬, 요쪼그로 요쪼그로 그게 미틀 너코 위를 너코 이런 시그로 나가는 게 익꼬. {예를 들면, 한 쪽으로 넣어서 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있고, 요 쪽으로 요 쪽으로 그게 밑을 넣고 위를 넣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고.}

10423 # 그 이:르른 잘 모르게썬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10423 @ 그러켄썬요. {그렇겠지요.}

10423 # 여자드리 하는 거라, 그. {여자들이 하는 거라, 그.}

10423 # 호온다 고래던가? {‘혼다’ 그러던가?}

10423 @ 호온다, 누빈다 (# 예) 머 이런게. {‘혼다’, ‘누빈다’ (# 예) 뭐 이런 게.}

10423 # 근데 인제 대개 누빈다는 거는 재봉틀로 재:썰 이러케 꼬매는 거를 누빈다 그랜꺼 든뇨. {그런데 이제 대개 누빈다는 것은 재봉틀로 재썰 이렇게 꿰매는 것을 ‘누빈다’ 그랬거든요.}

10423 @ 예예예. {예예예.}

10423 # 근 꼬매는 거는 그 그 하여튼 머 누빈다 쏘리도 나오켄썬. {그 꿰매는 것은 그, 그, 하여튼 뭐 누빈다 소리도 나오겠지.}

10423 # 그 저 총총거려 이러거니까. {그 저 총총거려 이런 것이니까.}

10423 @ 호:고, 박:고, 감치고, 머. {호고, 박고, 감치고 뭐.}

10423 # 예예, 감치구. {예예, 감치고.}

10423 # 그게 그 하여튼 그냥 잘. {그게 그 하여튼 그냥 잘.}

10423 @ 여자드리 마니 쓰는 용어라. {여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

10423 @ 그러케 이렇 이렇거 때무네 이 아주머니 이가 이제 피료하거든요. {그러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10423 # 아아. {아아.}

10423 @ 거도 이렇 겐또 어 요즈믄 절믄 사람드른 모르니까요. {그것도 이런 것도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10423 # 예예.{예예.}

10425 @ 빨래도 모를썬꺼고. {빨래도 모르실 것이고.}

10425 @ 빨래를 말린 다으메 예 온까메 따라서 손질하는 겐또 이 여러 가지가 인썬 썬 인는데. {빨래는 말린 다음에 옷감에 따라서 손질하는 것도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0425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25 @ 이걸 이거하능거. {이것 이것 하는 거.}

10425 # 네. 밤 방맹이. {네, 방, 방맹이.}

10425 @ 흥두개에 이제 (# 네) 마라가지고 하는거. {흥두개에 이제 (# 네) 말아서 하는 거.}

10425 # 그게 인제 그게 인제 다디미지리라고 그래자나요, 다디미질. {그게 인제 그게 인제 ‘다듬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듬이질.}

10425 # 게 인제 그 다디미도:리 익꼬. {그게 인제 그 다듬이돌이 있고.}

10425 # 큰 그때도 인제 왜마난 집뜨른 나무루 다 이렇게 기:따라케. {그, 그때도 인제 웬만한 집들은 나무로 다 이렇게 기다랑케.}

10425 # 까꺼서 이러케 기둥가튼 걸 만드러서 해던 {까아서 이러케 기둥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던.}

10425 # 이 막때기로 만든 다디밋돌도 이써꺼든뇨. {이 막대기로 만든 다듬잇돌도 있었거든요.}

10425 @ 예예예. {예예예.}

10425 # 큰 다디미또리라곤 안 그러겠쥬요. {그것은 다듬잇돌이라고는 안 그러겠지요.}

10425 @ 홍두깨. {홍두깨.}

10425 # 아니 홍두깨 말구. {아니 홍두깨 말고.}

10425 @ 홍두깨 말고. {홍두깨 말고.}

10425 # 다디밋돌 형식글 돌. {다듬잇돌 형식을 돌.}

10425 @ 아 예. 나무를 가지고.{아, 예. 나무를 가지고.}

10425 # 예예. {예예.}

10425 @ 네네. {네네.}

10425 # 이 대추나무가튼 조:은 나무로 (@ 마썸니다, 예예) 가 삭:. 맨드러서 아주. {이 대추나무 같은 좋은 나무로써 (@ 맞습니다, 예예) 짝 만들어서 아주.}

10425 # 고:케 해논게 이써요. 인제 그걸 긴인 다디밋 도:른 이러케 대개 짤찌만, 막때기는 크:자나요.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긴인, 다듬잇돌은 이렇게 대개 짤지만, 막대기는 크잖아요.}

10425 @ 오오, 예. {오오, 예.}

10425 # 그:걸 이제 홍두깨로 마:라가지고 거기다 언저 노쿠. {그걸 이제 홍두깨로 말아서 거기다 얹어 놓고.}

10425 # 이제 두다려서 이 노를 인제 곱:게 만드는데. {이제 두드려서 이놈을 인제 곱게 만드는데.}

10425 # 대개가 그케 인제 저기 저 저. {대개가 그케 인제 저기 저, 저.}

10425 # 오:슬 빠:라가지고 오:슬 빠:라가지고 푸:를 해자나요, 풀. {옷을 빨아서 옷을 빨아서 풀을 하잖아요. 풀.}

10425 # 푸:를 해가지고 말려서 걸 마:라가지고 꺼다::카게 해서. {풀을 해서 말려서 그것을 말려서 뽀뽀하게 해서.}

10425 # 무를 이러케 견저가면서 해가지고 인제 두다려서 잘: 두다리면 이게 아주 차암 예쁘게 곱게. {물을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해서 인제 두드려서 잘 두드리면 이게 아주 참 예쁘게 곱게.}

10425 @ 네, 딱 퍼:고. {네, 딱 퍼고.}

10425 # 짹 퍼지고. {짹 퍼지고.}

10425 # 유 유니 나고 인제 그러케 대지요. {유, 윤이 나고 인제 그렇게 되지요.}

10425 @ 거 요 썸근 다 부인드리 하는 거니. {거, 요 쪽은 다 부인들이 하는 것이니.}

10425 # 아까 아까 그랜씨든 지베 좀 이쓰라랴겔 가따가. {아까, 아까 그랬으면 집에 좀 있으라 그럴 겐.}

10425 @ 아니 저. {아니 저.}

10425 # 지금 바테 나가 이썸텐데. {지금 밭에 나가 있을 텐데.}

10425 @ 네네 나중에 저 한번. {네네, 나중에 저 한 번.}

10425 # 예, 그랬썬유. {예, 그랬어요.}

10425 @ 예, 여쪽 요 부분, 예. 부인들 하는 건만 좀 따로해 {예, 요쪽 요 부분, 예. 부인들 하는 것만 좀 따로 해.}

10425 @ 주시면. {주시면.}

10425 # 집사람도 어려서뻘터 먼 썬 아파기를 해다지썬 한 사라미기 때무네. {집사람도 어려서부터 머, 저, 안팎 일을 하다지썬 한 사람이기 때문에.}

10425 @ 그러게요. {그러게요.}

10425 # 바느질 썬 이른 제법 잘 알거든요. {바느질 썬 일을 제법 잘 알거든요.}

10425 @ 거 이제 지금부터 인제 잘:하시는 거 나옴니다. {거, 이제 지금부터 인제 잘 하시는 것 나옴니다.}

10425 # 예. {예.}

## 1.6. 거주 생활

### 1.6.1. 집짓기

10601 @ 집 인제 지블 지을 때요. {집 인제 집을 지을 때요.}

10601 # 예. {예.}

10601 @ 집터:는 어떻게 선정하고 이제 어떤 시그로 다지는지. {집터는 어떻게 선정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다지는지.}

10601 @ 아까 말씀하썬는데 한번 더 말쓰매 주시썬. {아까 말씀하썬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썬.}

10601 # 예. {예.}

10601 # 집:터 선정이라는 거는 인제 대개가 정해: 인는 거자나요. {집터 선정이라는 것은 인제 대개가 정해져 있는 거썬아요.}

10601 # 대개가 자기가 살던 지에 지블 나쿠대니칸 혈구 그 자리에다가. {대개가 자기가 살던 곳에 집을 낙후되니까 혈고 그 자리에다가.}

10601 @ 그우에 진네. {그 위에 짓네.}

10601 # 진는거거든요. {짓는 거거든요.}

10601 # 근데인 방향 보는 거는. 방향 보는 거는 대개 풍수지리하는 사람드리 봐서 방향을 보는데. {그런데 방향을 보는 것은. 방향을 보는 것은 대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봐서 방향을 보는데.}

10601 # 이런 마을가튼 대선 문까네 길가통거 인는 데서 거이 다 방양이 인제 선정이 대 거드뇨? {이런 마을같은 데에서는 문간에 길같은 것이 있는 데에서 거의 다 방향이 인제 선정이 되거든요?}

10601 #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래니께.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10601 # 동남가니로 그게 진사방이라구 그래드라구요, 진사방이로다가 지:문. {동남간으로 그게 ‘진사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사방’으로다가 지으면.}

10601 # 제일 조타 구래요 그래니까 행뻘치 뜨면서 바더서 질 때꺼지 바드며서. {제일 좋



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면서 받아서 질 때까지 받으면서.}

10601 @ 다아. {다.}

10601 # 예, 서풍은 마 좀 마거지면서. {예, 서풍은 마 좀 막아지면서.}

10601 # 아주 상:당이 조타 그래요. {아주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10601 @ 예예. {예예.}

10601 # 근대. {그런데.}

10601 # 우리가 지어 바도 그런 지비 조커드뇨. {우리가 지어 봐도 그리 집이 좋거든요.}

10601 # 야:깐 요러케 틀틀려서 서감가니로. (@ 예.) 요러케 지어진지 아니 동남가니로 지어진 지비 참 조커드뇨. {약간 요렇게 틀려서 ‘서감관’으로 요렇게 지어졌는지, 아니 동남간으로 지어진 집이 참 좋거든요.}

10601 # 완작 서:쨌 서쨌그로 지걸 지:깨대믄. {왼쪽 서쪽 서쪽으로 집을 짓게 되면.}

10601 @ 저녁. {저녁.}

10601 # 저녁 때 해빼슬 바들 뿐더러도. {저녁 때 햇빛을 받을 뿐더러도.}

10601 # 서풍에 마니. {서풍에 많이.}

10601 @ 마썸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예.}

10601 # 그냥 팔뚝 바지가 대빠리구. {그냥 발뚝바지가 되어 버리고.}

10601 # 동쪽으로 아늘하게 대믄 아침해빼슬 잘:바다서 참: 조은데. {동쪽으로 안을 하게 되면 아침 햇빛을 잘 받아서 참 좋은데.}

10601 @ 저녁 때믄 또. {저녁 때면 또.}

10601 # 지비 좀 저거하게 대구 그래서 그 남양찌블 치는데 남양찌베두 동남가니루 이러케 익끄 대스끄. {집이 좀 저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향집을 치는데, 남향집에도 중남간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서.}

10601 # 진사방이루 인제 자치잉묘를 따지는 사람드리 그러케 해요. {진 사방으로 인제 자축인묘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10601 # 그러케 해서 대개 터를 잡는데. {그렇게 해서 대개 터를 잡는데.}

10602 # 터를 자브면 인제 지블 혈구 터를 다: 도더 노쿠 아까 말씀드린 대루. {터를 잡으면 인제 집을 혈고 터를 다 돌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02 # 건 이만해요, 이거 이거 한. {그건 이만해요. 이거 이거 한}

10602 @ 돌. {돌.}

10602 # 반쪽만 남니다. {반쪽만 남니다.}

10602 # 이마난 도를 동네 청년드리 모여서 동아주를 인제 트:러가지고. {이만한 돌을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동아줄을 인제 틀어서.}

10602 # 이러케 처으메는 날까튼데나 이런데나 인제그 지플 어깨서 물 물러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낫 같은 데나 이런 데나 인제 그 짚을 어깨에 물, 물려서.}

10602 # 한사래미 이러케 돌리며 나가면 이게 꼬이자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돌리며 나가면 이게 꼬이잖아요.}

10602 # 저어 꼬이머는 중가네 한사래미 탁 자바가지고. {저게 꼬이면 중간에 한 사람이 탁 잡아서.}

10602 @ 또. {또.}

10602 # 이러케 돌려주믄 이러케 냉겨주믄. {이렇게 돌려 주면 이렇게 남겨 주면.}

10602 # 동아주리 인제 딱: 꼬여지믄. {동아줄이 인제 딱 꼬여지면.}

10602 # 이걸 엄:처 마니 맨드러가지구 이걸 부뜨리 매가지구. {이것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걸 붙들어 매서.}

10602 # 여기다 빼앵:돌려 이 끄니사:방이로 마니 나오게 여러:개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서 뺄 돌려 이 끈이 사방으로 많이 나오게 여러 개 얼마 안됩니다.}

10602 # 그래구 인제 누구네 집터 당는다 하믄 그날 저녁에 솜뽕망이가 한 너더 대여개 인제. {그리고 인제 누구네 집터 닦는다 하면 그날 저녁에 솜방망이가 한 네댓, 대여섯 개 인제.}

10602 @ 아. {아.} 10602 # 그 지그 저저 부를 (@ 네) 이러케 저 서규를 찌겨서 이러케 발켜 주게 대구. {그 지금 저, 저, 불을 (@ 네) 이렇게 저 석유를 찍어서 이렇게 밝혀 주게 되고.}

10602 # 이래구서 인제 동네 청녀드리 모여서 그걸 하나씩 잡구선 인제. {이러고 인제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나씩 잡고서는 인제.}

10602 # 거 북치는 사라미 성:서리를 메겨요. {거, 북치는 사람이 성서리를 메겨요.}

10602 # 그래믄서 인제 이 집터를 다끄몬 머 인제 잘대게 해달라 머 이래면서 인제 그 노래를 하며. {그러면서 인제 이 집터를 닦으면 뭐 인제 잘 되게 해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하며.}

10602 # 이 사람드리 그때 그때마다 애:기허라 지게미호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애기허라 지게미호’라고 하면서.}

10602 # 여러신 버:쩍 땡기몬 이느미 이만큼 올라감따가 노으며는. (@ 털:씩) 텅::내려안꾸 또 [...]{여럿이 바짝 당기면 이놈이 이만큼 올라갔다 놓으면. (@ 털:씩) 턱 내려왔고 또 [...]}

10602 # 상:당하지요 그게 그러께 처으메 할 때는 이게 머 폭폭 드러가요, 처으메는. {상당하지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 폭폭 들어가요. 처음에는.}

10602 # 게 양중엔 맨 빠:꾸 돌면서 하게 대믄 완저니 싸악 다져지지요. {게 나중에는 몇 바퀴 돌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싸 다져지지요.}

10603 # 그라믄 그이튼날 목쭈가 와서. {그러면 그 이튿날 목수가 와서.}

10603 # 정애진 자리에다가 딱:딱:인제 주춧돌 간따 노쿠 이래구선 인제 기둥을 세우게 되지요. {정해진 자리에다가 딱딱 인제 주춧돌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인제 기둥을 세우게 되지요.}

10603 @ 그러며는 기둥 세우고 그담부터 절차가 어떠습니까? 기둥 세우고난 뒤에? {그러면 기둥 세우고 그 다음부터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둥 세우고 난 뒤에?}

10603 # 처으메 인제 처으메 인제 주춧돌을 노쿠선. {처음에 인제 처음에 인제 주춧돌을 놓고서는.}

10603 # 니구팅이를 바겨서 주를 딱 띠어가지고 주초노피를 싹: 자븐 다메. {네 귀퉁이를 박아서 줄을 딱 띠어서 주춧 높이를 싹 잡은 다음에.}

10603 # 주초를 이러케 놔아가지고 주초에 열십자로다 부시로다 싹: 그으 그으자나요. {주초를 이렇게 놓아서 주초에 열십자로다 붓으로다 싹 그으, 굿잖아요.}

10603 # 열십자로. 딱: 글쎄요. {열십자로 딱 굿지요.}

10603 # 그그 그선인제 그. {그, 그, 그리고서는 인제. 그.}

10603 # 아까 말씀드린 대루 기둥 사겨 신는 걸 이러케 간따 대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새겨 신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서는.}

10603 # 도리를 간따 대구선 쳐서 사:개를 딱:: 아서서 마쳐가지고. {도리를 가져다 대고서  
는 쳐서 사개를 딱 마쳐서.}

10603 # 이걸 버어쩍 이러케 이르켜 세워서. (@ 네) 기둥에다 탁 가따노:면. {이걸 번쩍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 네) 기둥에다 탁 가져다 놓으면.}

10603 # 열십자 간따 근 주초우에다 이 기둥을 턱 언저 노케 대든. {열십자 가져가 근 주  
초 위에다 이 기둥을 턱 얹어 놓게 되면.}

10603 # 기둥 네:군데 한복과네 먹쭈리 하나씩 딱딱 인짜나요. {기둥 네 군데 한복판에 먹  
줄이 하나씩 딱딱 있잖아요.}

10603 # 기둥 네군데 이러케덴 네군데 이 중간 중가네 아래서부터 우에꺼정 먹쭈를 하나  
씩 탁: 텅걸쓰이칸. {기둥 네 군데 이렇게 된 네 군데 이 중간중간에 아래서부터 위  
에까지 먹줄을 하나씩 탁 텅겼으니까.}

10603 # 이 먹쭈하고 주촌똥 먹쭈하고. {이 먹쭈하고 주춧돌하고 먹쭈하고.}

10603 @ 딱 맞끼네. {딱 맞네.}

10603 # 딱 간따 간따 마주니까 정화:카게 서지자나요? 그 인제 저짜게도 그걸 세워가지  
고. {딱 가져다 가져다 맞추니까 정확하게 서지잖아요. 그 인제 저쪽에도 그것을 세  
워서.}

10603 # 인제 사다리를 노코 올라가서 이짜게서 도리를 언저서 간따 언저 노쿠선. {인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쪽에서 엎어서 가져다 얹어 놓고서는.}

10603 # 여기가 쳐:서 드리가구 배까테는 물려 노으문 인제 오:지부동하케 하자나요. {여  
기가 쳐서 들어가고 바깥에는 물려 놓으면 인제 요지부동하케 하잖아요.}

10603 @ 네. 사가경이 딱. {네, 사각형이 딱.}

10603 # 예. {예.}

10603 # 그러케서 인제 그 트리 다: 짜지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제 그 틀이 다 짜지면  
이제.}

10603 # 저기 저 보를 거지 보를 걸자나요, 보. {저기 저 보를 거의 보를 걸잖아요 보.}

10603 @ 이이에. {이이에.}

10603 # 이제 보를 딱 점부 거러서 해서 인제 서까래를 거러 가지구 딱 만드려 노쿠.{이제  
보를 딱 전부 걸어서 해서 이제 서까래를 걸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10603 # 그 중가네 인제 중방이라구 해서 이거지요 이거.{그 중간에 이제 중방이라고 해서  
이거지요 이거.}

10603 # 이거를 구녀글 똥론데 이쪽 기둥은 좀 덜 파 더 파고 이쪽 기둥은 들:파서.{이것  
을 구멍을 뚫는데 이쪽 기둥은 좀 덜 파 더 파고 이쪽 기둥은 덜 파서.}

10603 # 이리 지버 넌:따 이리 빼: 가지구. (@ 아 예예) 여이 미테다 췌:걸 쳐서 딱: 부뜨  
러 매노쿠.{이리 집어넣었다 이리 빼어서 (@ 아 예예) 여, 이 밑에다 쇠기를 쳐서 딱  
붙들어 매어 놓고.}

10603 # 걷 먹쭈를 튀겨서 딱:판거니까이게 드리가서 딱:딱 맞짜나요. 틈새가 하:나업췌.  
{걸 먹쭈를 튀겨서 딱 판 것이니까 이게 들어가서 딱 딱 맞잖아요. 틈새가 하나 없  
이.}

10603 # 딱: 마자서 헨 다:매 그 인제 여기다가 이자 저걸 해는데 이거 하기 저네.{딱 맞  
아서 한 다음에 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것을 하는데 이것 하기 전에}

10604 # 그때 인제 지붕위에다가 동네싸라미 연날집찌른 대동해 하루모여야 대니까. (@

예예) 모여서.{그때 이제 지붕 위에다가 동네 사람이 옛날 집 지으면 대동해 하루 모여야 되니까. (@ 예예) 모여서.}

10604 # 그 서까래 위에다가 그 새끼줄을 이러케 드문드문드문 띄우구선, 그.{그 서까래 위에다가 그 새끼줄을 이러케 드문 드문 드문 띄우고선, 그.}

10604 # 수수농사진 수술때. 아니든 인제 그땐 머 나무도 벼랑업썩요. 드:래서해든 나무두 역:꾸 해:튼.{수수 농사 지은 수숫대. 아니면 이제 그땐 뭐 나무도 별로 없어요. 들에서 (나무를) 하면 나무도 없고 하여튼}

10604 # 거 혼:집뜨는 그 서까래가튼거 빠:갠거 이런거를 대:구서 역습니다.{거 험 집 뜨는 그 서까래 같은 거 뽕갠 거 이런 것을 대고서 역습니다.}

10604 # 저:언부 그걸 여꺼요.

10604 @ 예.{전부 그걸 여어요. 예.}

10604 # 그래든 지붕위가 싸악 여껴서 더퍼지자나요.{그러면 지붕 위가 싹 여여서 덮어지잖아요.}

10604 # 좀 자라는 사람드른 다 자라고 저 저런 저 강원도가튼데서 나오는 싸리로다 여꾼. (@ 네) 그렇게 인는데, 그걸가따가 치는데.{좀 잘 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고 저 저런 저 강원도 같은 데에서 나오는 싸리로다 엮은 (@ 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치는데}

10604 # 대개 여 이 이:천지여게서는 수술때로걸 자: 기 외:영는다는 데에 인제 여껴가지고 해서 더퍼노쿠선.{대개 여, 이, 이천 지역에서는 수숫대로 그것을 자, 그, 외(櫻) 엮는다는 데에 인제 엮어 가지고 해서 덮어놓고선.}

10604 # 그래가지구인제 광안마만큼 호글 이러케 개가지구선 동네사람드리모여서 인제 삼태미를 첨:부 하나씩들구 이래가지구인제 지붕위에 서서.{그래 가지고 이제 광안만큼 흙을 이러케 개 가지고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삼태미를 전부 하나씩 들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지붕 위에 서서.}

10604 # 삼태미를 원칙대로 들질 안쿠 이 삼태미를 두:지버서 드려요. {삼태기를 원칙대로 들질 았고 이 삼태기를 뒤집어서 들어요. 네.}

10604 # 그래든 삼태미가인제 신축쟁이인께 이러케 딱 대자나요.{그러면 삼태기가 이제 신축성이 있게 이러케 딱 되잖아요.}

10604 # 미테서 사비루하나 한:삼떠서 획 썩버 던지든 이 추녀끄테 인는사 래미 그걸 바다 가지고, 그우에 싸람한테루 주든 그 우에 싸라미 받꾸 그 우에 싸라미 받꾸 그래가지구.{밑에서 삼으로 하나 한 삼을 떠서 획 집어 던지면 이 추녀 끝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위에 사람한테로 주면 그 위에 사람이 받고 그 위에 사람이 받고 그래 가지고.}

10604 # 이제 한 구텅이서부터 싸악 더퍼 나오면 그게인제 왕:토하는 거지요, 왕:토.  
10604 @ 이 예예.{이제 한 구석에서부터 싹 덮어 나오면 그게 이제 왕토하는 거지요, 왕토. 이 예예.}

10604 # 게니까 인제 지붕 위가 와 안전히 질흐기로 싸악 데뽐니다.{그러니까 이제 지붕 위가 완전히 진흙으로 싹 덮힙니다.}

10604 # 그래구 이제 미테는 중방한테다가 이제 니 한카네 니:개씩 요로케 막때기를 대구서 여기다인제 외:를 여 역썩요. (@ 예예) 이견또.{그리고 이제 밑에는 중방한 데에다가 이제 이 한 칸에 네 개씩 이러케 막대기를 대고서 여기다 이제 외를 여 엮지요.

(@ 예예) 이것도}

10604 # 수수깡이다 싹: 여껴서 이제 흑 발르게 대구.{수수깡에다 싹 엮어서 이제 흑 바르게 되고.}

10604 # 이제 천장 그 흑 발른 그 호게다 부쳐서 천장을 부치게 대구. {이제 천장 그 흑 바른 그 흠에다 붙여서 천장을 붙이게 되고.}

10604 # 그래구선 이제 천장 발르구 이 벽 빨르구 다: 하게 대면 이제 구들 노케 대구.{그러고선 이제 천장 바르고 이 벽 바르고 다 하게 되면 이제 구들 놓게 되고.}

10604 # 그래구 문달구 이제 그러케대지요. {그러고 문 달고 이제 그렇게 되지요.}

10604 # 지금 진는 거는 한옥집 진는 걸 내가 가 받는데 차암 잘 진떠라구요.{지금 짓는 것은 한옥집 짓는 걸 내가 가 봤는데 참 잘 짓더라고요.}

10604 # 돈두 마니드려서 우리 논여페 진는 사라미 한오글 저서 내가 유난히 멍뻔 가봤꺼 드뇨? {돈도 많이 들여서 우리 논 옆에 짓는 사람이 한옥을 지어서 내가 유난히 몇 번 가봤거든요?}

10604 # 내가 칸:변도 안지어 받는데 한오근 지라면 질 쭉 이쉴 거 가태요. (@ 예) 지가요.{내가 한 변도 안 지어 봤는데 한 옥은 지으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예) 제가요.}

10604 # 그 그 그 집 찢는 겐또 인제 공시기 일꺼드뇨.{그, 그, 그 집 짓는 것도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10604 @ 그러켄네요. {그렇겠네요.}

10604 # 공식, 예.{공식, 예.}

10604 # 이 집까튼 거 이러케 구팅이 잠는거 인짜나요? 이러케 구팅이 잠는거.{이 집 같은 거 이렇게 구석에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석에 잡는 거.}

10604 # 구팅이 잠는거 지그른 머 레벨도 인꾸, 머 여러가지 방시기 머 이러케 구식 각 이러케 잠는게 딱 자피지만.{구석에 잡는 거 지금은 뭐 레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뭐 이렇게 구십 각 이렇게 잡는 게 딱 잡히지만.}

10604 # 옛날 아버지 보니까는 산시고라고 그래 일본말로 쓰는데, 산시고.{옛날 아버지 보니까 산시고라고 그래 일본말로 쓴는데, 산시고.}

10604 # 예 산시고라는 게 이게 머냐른 석자에. (@ 녀) 녀자에. {예, 산시고(=3, 4, 5에대한 일본어)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석 자에. (@ 녀) 녀 자에}

10604 @ 오 다섯.{오 다섯}

10604 # 다섯짜. {다섯 자.}

10604 # 이러케 모슬 여기다 딱 박꾸선 가글 맨드려서.{이렇게 못을 여기다 딱 박고선 각을 만들어서.}

10604 # 이러케 주를 탁 띠어 노쿠 이 여기다 복판에다 주를 띠어서 갈따 노쿠 탁 보든. {이렇게 줄을 탁 띠어놓고 이 여기다 복판에다 줄을 띠어서 가져다 놓고 탁 보든.}

10604 # 구시까느로랑은 아진 기:가 매키게 마자요. 머 쪼:금도 틀릴 쭈가 업썬요, 이거는.{구식간으로랑은 아직 기가 막히게 맞아요. 뭐 조금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10604 @ ‘산시고’가 머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딱 이리 나오는거.{‘3, 4, 5’가 뭐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딱 이리 나오는 거.}

10604 # 그게 그러케인제 그러 그런 공식이라든가 아니든 모터리 귀썬까래 언질 때 그 해언는 그런.{그게 그렇게 이제 그러 그런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구석에 귀, 서까래 없

을 때 그 하는 그런.}

10604 # 월막까까서 어떠케 하구 이래는 게 그 다: 그 그 저 공시기 인떠라구요, 보니까.  
{월막 깎아서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게 그, 다 그, 그, 저, 공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604 # 그러이 그 저 이런 중방도 부어케서 불 때는데 얼마 봐야 방이 나오고 메치 너머  
가고 이런거는 다: 그네들 머릿쏘게서 인는데.{그렇게 그 저 이런 중방도 부엌에서  
불 때는데 얼마를 놓아야 방이 나오고 뗏이 넘어가고 이런 것은 다 그네들 머릿속에  
서 있는데.}

10604 # 근 보니까 기둥이 뒤에서부터 가나다로 나가면서, 이러케 써:서 다 해가지고 (@  
예예) 해 마쳐서 그러케하고 그래더라구요.{그 보니까 기둥이 뒤에서부터 가나다로  
나가면서, 이렇게 써서 다 해가지고 (@ 예예) 예, 예. 해 맞혀서 그렇게 하고 그러더  
라고요.}

10604 @ 그 저어 하오글 지어도 안쫓근 이제 구조는 아파트시그로 하겐쫓?{그 저 한옥을  
지어도 안쫓은 이제 구조는 아파트식으로 하쫓쫓?}

10604 @ 저 부어까튼 거는 업쫓 걸 아님니까?{저 부엌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님니까?}

10604 @ 요즈믄.{요즘은.}

10604 # 지그미요?{지금이요?}

10604 # 지그믄 지그믄 그러케 하더라구요. 저:기 진는거 가보니까.{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10604 # 아파트시그로웨글지. 요:짜게도 자알 진는 지비 인편데 그 아:는 내부는 몸뜨려가  
보고.{아파트식으로 되쫓지. 이쪽에도 잘 지어진 집이 있던데 그 안은 내부는 못 들  
어가 보고.}

10604 # 이짜지븐 새로진는 지블 가 보니까 그 주방을 해 노코.{이쪽 집은 새로 짓는 집을  
가 보니까 그 주방을 해 놓고.}

10604 # 주방 여페다 허접쓰레기 논는 그거를 해놓떠라구요, 특별리.{주방 옆에다 허접 쓰  
레기 놓는 그것을 해 놓더라고요, 특별히.}

10604 # 그래구서 인제 응접씨를 해난:는데 빼:치까를 해 날떠라구요 요 그 마루에다. (@  
어) 불두 좀 때려구.{그리고서 이제 응접실을 해 놓았는데 벽날로를 해 놓았더라고요.  
여기 마루에다. 어. (@ 어) 불도 좀 때려고.}

10604 # 그래구 엽짜그로 드러가니까는 화장실르 인는데 화장실 드러가기 저네, 세탁소노  
코 이런거슬 또 따로 좀 뺏떠라구요.{그리고 옆쪽으로 들어가니까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세탁소 놓고 이런 것을 또 따로 좀 뺏더라고요. 예.}

10604 # 예 그래구, 엽:짜기로 가니까 컴퓨터시린데. 조:끔 좀 무니 두엇 열구 드러가요.  
아 이거 컴퓨터가 이러케 기피드러가서야 이렇게.{예 그리고, 옆쪽으로 가니까 컴퓨  
터실인데 조금 좀 문을 두엇 열고 들어가요 아 이거 컴퓨터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어  
야. 이러니까.}

10604 # 이견점 비밀스런거니까아 좀 기피 드러가야 되지 안켄씨유 그래믄서.{이건 좀 비  
밀스러운 것이니까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쫓어요 그러믄서.}

10604 # 그 주이니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행:는데 드러뉘: 인떠니 이제 내가 가니까 가,  
댕기면서 집 애기틀. (@ 예예) 해주면서 그러케 보여주고.{그 주인이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들어 누워 있더니 이제 내가 가니까 가, 다니면서 집 이야기를 (@ 예  
예) 해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10604 # 이래구인제 여짜방에는 광:이루 쓰구 고작 행:낭을 지언는데 거 행:낭에는인제 방  
이 하나또 인꾸.{이러고 이제 이쪽 방에는 광으로 쓰고 그쪽 행랑을 지었는데 그 행  
랑에는 이제 방이 하나 또 있고.}

10604 # 접짜기루 인제 텐:데 마루 노치 안쿠 바람썰면서 설쭈 인또록 이러케 지언는데.  
{저쪽으로 이제 터인데 마루를 놓지 않고 바람을 썰면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는  
데.}

10604 # 그 지형 형태가 접짜 남:쪼게서 북쪼그루 버더내린 산꼭대기다 진는 바라메 북췌  
이 돼:인췌요.{그 지형 형태가 저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꼭대기에다 짓는  
바람에 북향이 돼 있어.}

10604 # 게서 우리지비 부캇이라 내가 가:장 시러하는 기기때메 참: 도는 마니 드러서 잘  
지언는데 부캇이라 영:: {그래서 우리 집이 북향이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  
문에 참 돈은 많이 들여서 잘 지었는데 북향이래 영,}

10604 @ 그게 부캇은. {그게 북향은.}

10604 # 예 나미지비이라두 내가보이게 쪼:꿈 쪼쪼해더라고요. 그래서.{예 남의 집이라도  
내가 보기에 조금 쪼쪼해더라고요.}

10604 # 부캇을 질꾸 이췌 행낭을 지은 데다 안채를 질꾸 이러케 행낭을 크리 질꺼나 이  
리 지언쓰면 조은데.{북향을 짓고 이쪽 행랑을 지은 데에다 한채를 짓고 이렇게 행랑  
을 크게 짓거나 이리 지었으면 좋은데.}

10604 # 이 사람드리 산뿌랭이라 이런 이런 도:를 다냥인가 어디서 시러왈때는데 도를 간  
따 견추로싸:서 이러케 해가지고 마당을 도:두어서 거기다 진는데 아이 도는 상당히  
마이 들더라고요.{이 사람들이 산 밑이라 이런, 이런 돌을 단양인가 어디서 실어 왔  
다는데 돌을 갖다 견추 쌓서 이렇게 해서 마당을 돌우어서 거기에다 짓는데 아이, 돈  
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10604 # 그래구 개와는 조선개와예요.{그리고 기와는 조선기화예요.}

10604 @ 예예. {예예}

10604 # 아까 여기 나왔던 그 조선개와로 해서 이편씨니깐.{그래도 개와는 조선기화예요.  
예예. 아까 여기 나왔던 그 조선기와로 해서 입혔으니까.}

10604 # 절때루 그건 머 새거나 이런 염려는 업씨 완:벼카게 한는데. {절대로 그건 뭐 새  
거나 이런 염려는 없이 완벽하게 했는데.}

10604 # 엔:날 집뽀더 지금 지비 조은 게 머냐문 서까래 위:를 송파니로 마루노튼 해떠라  
구요. {옛날 집보다 지금 집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서까래 위를 송판으로 마루 놓듯이  
했더라고요.}

10604 # 그 저 왕토하구 머 발르구 이러케 업씨 성과니루 해서 딱: 해날쓰니깐 아:주 오지  
부동 못태게 자꾸 해날는데. {그 저 왕토하고 뭐 바르고 이런 게 없이, 성판으로 해  
서 딱 해 났으니까 아주 요지부동 못하게 자꾸 해 놓았는데.}

10604 # 이 벼:기 벼기 이거 얼마나 저:시우 그렇게 이월엔가 운제씨부터 그랜는데 여선  
따를 이를 한따 그래요. (@ 네.) 근데 지비 완공이 안뵈:는데. {이, 벽이, 벽이 이거  
얼마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월인가 언제서부터 그랬는데 여섯 달을 일을 했다 그래  
요. (@ 네.) 그런데 집이 완공이 안 되었었는데}

10604 # 벼글 한 절문사라미 자:꾸 발라서 이러케 가서 애길 슬:슬:해면서 해보니까. {벽을  
한 젊은 사람이 자꾸 발라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슬슬 하면서 해보니까.}

10604 # 이거 땀:땀 발루:그래니까 여섯땀 일곱땀 발른다구 그래요 벼글. {‘이거 몇 번 바르오?’ 그러니까 여섯 번 일곱 번 바른다고 그래요. 벼글.}

10604 @ 네에. {네에.}

10604 # 엔나렌 아까 말씀드린 대루 그 여물 쓰러 너쿠 쿡쿡쿡쿡 발본 거 떠가구져 척:.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물 쓸어 넣고 쿡, 쿡, 쿡, 쿡 밟은 것을 떠서 척.}

10604 @ 그러쵸. {그렇쵸.}

10604 # 척 발라서 싹 발른다메. {척 발라서 싹 바른다며.}

10604 # 위에는 하얀네 발르구 아래는 꺼른해 발르구 이 잘 진는집. {위에는 하얀 애 바르고 아래는 검은 애 바르고, 이 잘 짓는 집.}

10604 @ 네. {네.}

10604 # 아니른 웬마난 집뜨른 그냥 그 거테 함번 다시 싸:악 발르른 그걸로 끈나자나요. {아니면 웬만한 집들은 그냥 그 길에 한번 다시 싹 바르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10604 # 근데 지금 사람드른 그거를 한번 발러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발라도.}

10604 # 그래 왜 이리케 여러번 발루 그래~이까 여러번 발라야 갈라진 데를 또 발르구 또 발르구 그래야 안 갈라진대는거여 안 터진대는거여. {그래 ‘왜 이렇게 여러 번 바르오?’ 그러니까 여러 번 발라야 갈라진 데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야 안 갈라진다는 거야. 안 터진다는 거야.}

10604 @ 예. {예.}

10606 # 근데 호글 그 사람드른 아까 마란 대로 흑장판하는 거처럼. {그런데 흙을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흙장판하는 것처럼.}

10606 # 호글 처:가지구 느:쿠 물느쿠션 드:리 꼬테다 이런 저거를 개:능걸 맨드러가지구 느:션 지어가지고. {흙을 쳐서 넣고 물을 넣고서는 드리 끝에다 이런, 저것을 개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서 지어서.}

10606 # 뽁뽁카게 해서 싸:악 아주 그 사람드리 그 마:침마게 개는 방뽁대로 개가지구. {뽁뽁하게 해서 싹 아주 그 사람들이 그 마침 맞게 개는 방법대로 개서.}

10606 # 싸악싸 싸발른 게 그 흑손두 똥그란친 안쿠 꼬치 네모반드타더라고요. {싹싹 싸서 바른 것이 그 흙손도 똥그랑지는 않고 끝이 네모반듯하더라고요.}

10606 @ 네. {네.}

10606 # 그래서 그 구팅이다 가따 대구그냥 싹:싹: 밀어가지구 땀:땀해서 말르니까 {그래서 그 귀통이에다 가져다 대고 그냥 싹싹 밀어서 몇 번 해서 말리니까.}

10606 # 흑장판한 거처럼 이리케 기대두 등허리에 묻지 아늘 정도로 그러케 나오더라고요. (@ 네.) 안:파끼. {흙장판한 거처럼 이렇게 기대도 등허리에 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네.) 안팍이.}

10606 # 게니까 완전 흑찌빈데 채목찌브로 해서 흑찌빈데, 차:암 조터라고요. 그리구 내가 보니까 야아 진짜. {그러니까 완전 흙집인데 채목집으로 해서 흙집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야아, 진짜.}

10606 # 왜 그러냐 해믄, 여기서 질면 채목찢 재래시기루 딱: 지어 노으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짓던 채목집 재래식으로 딱 지어 놓으면.}

10606 # 한:번 발르구 그냥 세면 발르거나 이래서 거테 발른지븐. {한번 바르고 그냥 시멘



트 바르거나 이래서 곁에 바른 집은.}

10606 # 요트미 새:가 떠서 아:무케두 기울게 취:요 이게. 이게 취:서. {요 틈이, 새가 떠서 아무래도 겨울에 추워요. 이게 이게추워서.}

10606 # 내 생가겐 벼게다 가꾸모글 조븐 가꾸모글 대:고 흘글 양조게다 발르른 조켄파 이런 생가글 내 머릿쏘게는. (@ 네네.) 생각카고 인는데. {내 생각에는 벽에다 각목을, 좁은 각목을 대고 흙을 양쪽에다 바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는. (@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10606 # 그 사람드른 그 틈:업씨 그냥 하:도 발르니까 완전 발러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 틈 없이 그냥 하도 바르니까 완전 발라지는데.}

10606 # 이 흑찌비래는 게 기대믄 등허리가 문게 마련인데. {이 흙집이라는 게 기대면 등허리가 문게 마련인데.}

10606 # 그 처가지브로케서 맨뻔 발러서 소니로 내문대 보니깐 흐기. {그 초가집으로 해서 몇 번 발라서 손으로 내문대 보니까 흙이.}

10606 @ 암나온다는, 예. {안 나온다는, 예.}

10606 # 등허리에 안묻떠라구요. {등허리에 안 묻더라고요.}

10606 # 그래서 종이를 발르는 사람두 인꼬, 안 발르고 그냥 사람 사람들도 이썬요. 그러케 애길해떠라구요. {그래서 종이를 바르는 사람도 있고, 안 바르고 그냥 사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606 @ 아. {아.}

10606 @ 요:거는 옛날시긴 모양인데. 기초를 다지고, 기다늘 싸코, 기단 쌓는거는? {요것은 옛날 식인 모양인데, 기초를 다지고 기단을 쌓고, 기단 쌓는 것은?}

10606 # 기:단 쌓는거는 잘모르겐는데요. {기단 쌓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0606 @ 그다메 주춧돌 논는거. 바심질. {그 다음에 주춧돌 놓는 거. 바심질.}

10606 # 바심지리요? {바심질이요?}

10606 @ 네. {네.}

10606 @ 바심지른 원모:기나 그 {바심질은 원목이나 그.}

10606 @ 저 나무 이제 나무 제제소가서 제제한 재모글 마름질, 엉매김, 바심질, 치장, 먹쭈치기 머 이런거 한다고 되어인는데. {저 나무, 이제 나무 제제소에 가서 제제한 재목을 마름질, 엉매김, 바심질, 치장, 먹쭈치기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606 # 이저 그게. {이제 그게.}

10606 # 그제 인제 그 목쭈가 하는 이리:지요. 말씀하시는 게 목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제 인제 그 목수가 하는 일이지요. 말씀하시는 게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607 # 아이고, 옛날엔 이런 두리모글, 두리모글 가져오른 대자구라고 이썬요 대자구.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두리목을, 두리목을 가져오면 대자귀라고 있어요. 대자귀.}

10607 @ 자귀 짜구. {자귀, 짜구.}

10607 # 예, 자군데 대자구에요 대자구. {예, 자귀인데 대자귀예요. 대자귀.}

10607 @ 예예예. {예예예.}

10607 # 그제 꼬테쇠가요로케 요:만큼 이썬서 보파네 구녕이 뿔려서. {그제 끝에 쇠가 요렇게 요만큼 있어서 보판에 구멍이 뿔려서.}

10607 # 막때기가 이리 드러가구 꼬테 나를 선썬니다. {막대기가 이리 들어가고 끝에 날이 썬습니다.}

10607 @ 예예. {예예.}

10607 # 그래서 바꾸서 여기다 구녀글 파:서 자루를 너가지고 이게 기:따래요 자루가. {그  
래서 바꿔서 여기다 구멍을 파서 자루를 넣어서 이게 기다랗요 자루가.}

10607 @ 예. {예.}

10607 # 이러케 해서 이러케 까:꺼가지고 ‘사:개’를 아십니다,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서 ‘사개’를 아십니다. 나무를.}

10607 # 그러케 해서 인제 사먹끼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제 사먹 기둥을 만들고.}

10607 # 또 한가지는 가센모글 이러케 지어가지고 이러케 해서 기둥을 여기다 노코 먹쭈  
를 쳐서. {또 한 가지는 가센목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여기에다 놓고  
먹줄을 쳐서.}

10607 # 기인 토블 가지고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이썬면서 타:가지고 맨드는 거시 사머글  
맨드런는데. {긴 톱을 가지고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있으면서 타 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먹을 만들었는데.}

10607 @ 네. {네.}

10607 # 이제 중가네는 인제 제제소에 가서 인제 켜:가지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제제소  
에 가서 인제 켜서.} 1

0607 @ 켜 가지고. {켜서.}

10607 # 나오거더뇨. {나오거든요.}

10607 # 그래든 인제 여기 와서 어 마름개지를 하는데, 목쭈가 마름개지를 하는데. {그러  
면 이제 여기 와서 어 마름질을 하는데, 목수가 마름질을 하는데.}

10607 # 그때 인제 기력찌를 재:서 이제 먹쭈를 쳐서. {그때 인제 길이를 재서 이제 먹줄  
을 쳐서.}

10607 @ 예. {예.}

10607 # 이래서 인제 사:개를 아:서서 그러케 해서 도리를 끼워가지고 이르켜 세워서 기둥  
이 되는, 그 과정이거드뇨. {이래서 인제 사개를 깎아내어 그렇게 해서 도리를 끼워  
서 일으켜 세워서 기둥이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10607 @ 예예. {예예.}

10607 # 근데 그 바심지리라나, 이건. {그런데 그 바심질이라나, 그건.}

10607 @ 바심지른 멩메기, 머글갑따 메기고 어 저 끝난. {바심질은 목매기, 먹을 가져가  
메기고 어, 저 끝난.}

10607 # 아아. {아아.}

10607 @ 부:재. 인제 그 이걸 자르고 까까버리거나 파:내는 이를 바심지리라 그러합니다.  
{부재. 인제 그 이걸 자르고 깎아 버리거나 파 내는 일을 바심질이라 그러합니다.}

10607 # 예. {예.}

10607 # 아, 그거를 바심지리라구려네요. {아, 그것을 바심질이라고 그러네요.}

10607 # 그 특빠리 이르른 몰르구 그게시 인제 뭐냐든 기둥에 요롱거 드러갈 자리. {그 특  
별히 이름은 모르고 그것이 인제 뭐냐하면 기둥에 요런 것 들어갈 자리.}

10607 @ 예예. {예예.}

10607 # 요론 요롱거 드러갈 짜리, 저: 우에 인제그 사:개하실짜리 이러거를. {요런 요런  
것 들어갈 자리, 저 위에 인제 사개하실 자리 이런 것을.}

10607 # 인제 요기 요기 인제 가:에 일변 나에 이:번 이러케서 이 뒷벽 기둥을 딱 만드려  
노코. {인제 요기 요기 인제 끝에 일변 나에 이번 이렇게 해서 이 뒷벽 기둥을 딱 만

들어 놓고.}

10607 # 요기요기 드러갈 꺼를 요마난 송파네다가 그 도며늘 맨드러 노터라구요. {요기 요  
기 들어갈 것을 요만한 송파네다가 그 도면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10607 @ 네. {네.}

10607 # 그래구선 고기다 하나 이러케 이저 먹카리라 해가지고 대까지를 요로:케 까껴서  
꼬트메기를 요로케. {그리고서는 거기에대 하나 이렇게 이, 저, ‘먹카리’라 해서 땃가  
지를 요렇게 깎아서 끝을 메기를 요렇게.}

10607 @ 예예예. {예예예.}

10607 # 쪽쪽쪽 짜개면. {쪽쪽쪽 쪼개면.}

10607 # 요느미 머게다 찌그른 이 서 새에 모기 드러가지고. {요 놈이 먹에다 찍으면 이  
서 새에 목이 드러서.}

10607 # 이제 이게 시가 자대고 끝:꾸 이제 다 써먹는 거거드뇨 이게. {이제 이게 시가 자  
대고 굵고 이제 다 써먹는 거거든요 이게.}

10607 @ 네네네. {네네네.}

10607 # 그러케 해든 인제 요고 드러갈 치:수가 기둥이 사:먹끼둥이면 네치짜리든 중방에  
인제 두:치므는 요건논는데. {그렇게 하면 인제 요 것이 들어갈 치수가 기둥이 사먹  
기둥이면 네 치짜리이면, 중방에 인제 두 치면 요것은 놓는데.}

10607 # 널벽짜가 인제 저기 세츠른 요고 인제 딱 채:서 그:리는 거자나요 이 먹칼로다요.  
{넓이가 인제 저기 세 치면 요게 인제 딱 채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 먹칼로다요.}

10607 @ 네.그 {네. 그.}

10607 # 딱: 그리는거 그랜는데 이 그:리는거 이래는 건만 받찌 그 이:름. {딱 그리는 것  
그랬는데 이 그리는 것 이러는 것만 봤지 그 이름.}

10607 @ 예예예. {예예예.}

10607 # 자겹 자체 이르든 난 모르지요 그게. {작업 자체 이름은 난 모르지요. 그게.}

10607 @ 그 바심지리라 한답니다. {그 바심질이라 한답니다.}

10607 # 야: 그래쥬요. {야, 그랬쥬요.}

10607 @ 네. {네.}

10607 # 아하 바심질. {아하, 바심질.}

10607 @ 그: 지붕인는거. {그 지붕 잇는 거.}

10607 # 예. {예.}

10608 @ 이게 대들뽀를 언짢습니까? {이게 대들보를 얹지 않습니까?}

10608 # 네. {네.}

10608 @ 그다메 서까래를 또 언쪼? {그 다음에 서까래를 또 얹쪼?}

10608 # 걸:쪼. {걸쪼.}

10608 @ 예 걸고. {예, 걸고.}

10608 # 예. {예.}

10608 @ 그러고 그러면 대들뽀하고. {그리고 그러면 대들보하고.}

10608 @ 요러케 이제 위로 이걸 머라고 그럼니까? {요렇게 이제 위로 이걸 뭐라고 그럼니  
까?}

10608 @ 이게 서까래하는 건가요? {이게 서까래 하는 것인가요?}

10608 # 예. {예.}

10608 @ 그러며는 요게 저 뭐니까 도리잔습니까? {그러면 요게 저 뭐니까 도리잔습니까?}

10608 # 예. {예.}

10608 @ 위에 도:뤄예. {위에 도리에.}

10608 # 예. {예.}

10608 @ 요쪼그로도 이제 요걸 언즐꺼쥬? {요쪽으로도 이제 요것을 얹을 것이쥬?}

10608 # 예. {예.}

10608 @ 요기다가 이게 저 대들뽀고. {요기에다가 이게 저 대들뽀고.}

10608 # 예. {예.}

10608 @ 가운데. {가운데.}

10608 # 예. {예.}

10608 @ 금 여걸 언:쑈. {그럼 이것을 얹고.}

10608 @ 요 부분하고 이제 요부분하고 연결은 어떠케 시킵니까?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하고 연결은 어떻게 시킵니까?}

10608 # 요거시 인제 지비 네모 반드타다자나요. (@ 네네.) 요로케. {요것이 인제 집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 네네.) 요렇게.}

10608 # 그러케 네모 반드태면 복판네 이제 서까래를 이러케 언는데. {그렇게 네모 반듯하면 복판에 이제 서까래를 이렇게 얹는데.}

10608 # 요고시 딱 한:카네만 이루어지는 거거드뇨. (@ 네.) 복복판네 보 하나걸리는거는. {요것이 딱 한 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 네.) 복, 복판에 보 하나 걸리는 것은}

10608 # 그래구 요기 퇴가 이쥬 경우는, 퇴가 이쥬 경우는. {그리고 요기 퇴가 있을 경우는, 퇴가 있을 경우는.}

10608 # 요고시 중간 도리가 일꾸 이 아:폐 퇴도리가 일꾸 그래니깐. (@ 아) 요기서 이러케 걸리게 되는데. {요것이 중간 도리가 있고, 이 앞에 퇴도리가 있고 그러니까, (@ 아) 여기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10608 # 대:개 대:개 요기서요 반쪼기니깐 서까래가 다 나가자나요. {대개 대개 요기서요, 반쪼이니까는 서까래가 다 나가잖아요.}

10608 @ 그니까. {그러니까.}

10608 # 추녀꺼지 다 나가게 대지요. {추녀까지 다 나가게 되지요.}

10608 @ 그래그래 예예예. {그래그래, 예예예.}

10608 # 그래니깐 중가네 걸리는 그런거능 업꾸. {그러니까 중간에 걸리는 그런 것은 없고.}

10608 # 대:청마루라고 그래가지구 크으케 이러케 빠지는 마루가 이쥬요. (@ 네.) 대:청마루. {대청마루라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빠지는 마루가 있어요. (@ 네.) 대청마루.}

10608 # 대청마루가 나오는건 이제 이런집뽀다 넓게 대니까 여기 보가 두:리 드러가요 이러케. {대청마루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런 집보다 넓게 되니까 여기 보가 둘이 들어가요. 이렇게.}

10608 @ 네예. {네예.}

10608 # 근데 이 둘 드러간 대신 이제 대청뽀라고 해서 위:나게 이러케 굴:근노를 이제 가따. {그런데 이 둘 들어간 대신 이제 대청보라고 그래서 위:나에 이렇게 굵은 놈을 이제 가져다가.}

10608 # 언끼도 하는데 그러케 해가지고 만들게 대문 요로케텐데 요골 사령찌비라고구래요. {엇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요렇게 된 데에 요걸 사령집이라고 그래요.}

10608 # 예 사령찌비라그래구. 요기요기 약작보에서 또 한번 올라가지구 꼭때기에다 인제. {예, 사령집이라 그러고, 요기 요기 약작보에서 또 한번 올려서 꼭때기에다 인제.}

10608 # 저기 상:낭을 해가지고 보를 요로케 언:는걸 그걸 오:령찌비다 그러케 해는 하거드뇨. {저기 상낭을 해서 보를 요렇게 엇는 것을 그걸 요령집이다, 그렇게 하는 하거드뇨.}

10608 #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세:내가 잘 모르게써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세, 내가 잘 모르겠어요.}

10608 # 그게 서까래하고 보하고 이거 대들뽀하고 저 도:리하고. {그게 서까래하고 보하고 이거 대들보하고 저 도리하고.}

10608 # 거:는거는 그냥 서까래 건다고 그냥 그래거드뇨. {거는 거는 그냥 서까래 건다고 그냥 그랬거든요.}

10608 @ 그런 네. {그런 네.}

10608 @ 그러면 요로케 덴거슨 이: 저 뭇니까 도:리 위에다 그냥 안치는 겁니까? {그러면 요렇게 된 것은 이, 저, 뭇니까, 도리 위에다 그냥 얹히는 것입니까?}

10608 # 아니지요. 그. {아니지요, 그.}

10608 # 도:리 우에다가 요고마난 촛때가튼 게 하나 사:개하싱 게 또 이러케 서:자나요 양짜게 {도리 위에다가 요것만한 촛대같은 게 하나 사개 하신 게 또 이렇게 서잖아요. 양쪽에.}

10608 @ 아아. {아아.}

10608 # 그래가지구 요기다. {그래서 여기에다.}

10608 @ 그 소게다. {그 속에다.}

10608 # 그 보를 언저서 서까래가 여프루 걸리는 거지요. {그 보를 엇어서 서까래가 옆으로 걸리는 것이지요.}

10608 @ 그 그러쿤뇨. {그 그렇군요.}

10608 # 예. {예.}

10608 @ 그담 벽채 꾸미기. 기둥과 기둥 또는 벽 서네 가로질러 그: {그 다음 벽채 꾸미기, 기둥과 기둥 또는 벽 선에 가로질러 그.}

10608 @ 이게 뭐야. 심뻬글하고 진흐글 친다. 이 벼글. {이게 뭐야. 심벽을하고 진흙을 친다. 이 벽을.}

10608 # 그 웨 영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웨 영는거. {그 ‘외’ 영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외 영는 것.}

10608 @ 만드는 모양이군요, 웨:영는거. {만드는 모양이군요. 외 영는 것.}

10608 # 웨 영는 거 그거시 그거시 아까 바로 얘기헸 대루 요로케 한:칸일 경우 엔:날 지븐 일쫓짜. {외 영는 것 그것이 그것이 아까 바로 이야기한 대로 요렇게 한 칸일 경우 옛날 집은 일쫓자.}

10608 # 인제 잘 진는 찌븐 낭중에 나온 거는 나물 쫓 조은걸 사드려다가 하는 거는 인제 아홉잔데. {인제 잘 짓는 집은 나중에 나온 것은 나무를 쫓 좋은 걸 사들여다가 하는 것은 인제 아홉자인데.}

10608 # 아홉짜 방 안카늘 노케대면 요기다가 가꺼머글 네:개를 내요 요로케. {아홉짜 방 한 칸을 놓게 되면 요기다가 가꾸목(=사각 기둥의 목재)을 네 개를 내요. 요렇게.}

10608 # 가:생이 두 개 대구 복파네 두 개 대구. {끝에 두 개 다고, 복판에 두 개 대고.}

10608 @ 예. {예.}

10608 # 이래구선 이 막:때기를 기초로 사마서 수수짱을 대구 역:씹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 막대기를 기초로 삼아서 수수짱을 대고 엮습니다.}

10608 @ 아 수수. 예예. {아 수수, 예예.}

10608 # 역꾸선 요 막때기처럼 또 내려 대구 또 여꺼요. {엮고서는 요 막대기처럼 또 내려서 대고 또 엮어요.}

10608 # 그래믄 이느미 수수짱이 이러케 열십파로 딱: 여꺼지자나요? {그러면 이놈이 수수짱이 이렇게 열십자로 딱 엮어지잖아요.}

10608 @ 예예. {예예.}

10608 # 그런데다 여기다 인제. {그런데다 여기에다 인제.}

10608 @ 흘글. 그 흘글.{흠을, 그 흠을.}

10608 # 한 쪼게서 치믄 초배가 대믄 반대 방향이루 호기 나가서 마르거든요. {한 쪽에서 치면 초배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흠이 나가서 마르거든요.}

10608 # 그럼 인제 그 마른 쪼게다 또 발라서 벼기 대는 거지요. {그러면 인제 그 마른 쪽에다 또 발라서 벽이 되는 것이지요.}

10608 @ 아그러쿠나. {아 그렇구나.}

10608 # 거 외 여꺼서. {거, 외 엮어서.}

10608 @ 대나무:가 인는 데는 외를 이제 대를 가지고 이러케 역떠라구요. {대나무가 있는 데는 외를 이제 대를 가지고 이렇게 엮더라고요.}

10608 # 그제 글썸 아까 아까 그 저기 저 새로 집 찢는 데는 데를 가 받떠니요. {그제 글썸 아까 아까 그 저기 저, 새로 집 짓는 데는, 데를 가봤더니요.}

10608 @ 예. {예.}

10608 # 내가 그 가:생이가 바라미 드러 와서 옴날 찢븐 그랜짜나요. {내가 그 끝이 바람이 들어와서 옴날 집은 그랜잖아요.} }

10608 #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걸 가받떠니.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것을 가 봤더니.}

10608 # 벽 가생이다 대구선 벽 저 벽까생이가 아니라 기둥에다 대구선. {벽 끝에다 대고서는 벽 저 벽끝이 아니라 기둥에다 대고서는.}

10608 # 가꾸머글 댜는데 거기다 대구 모슬 천떠라구요. {가꾸머를 댜는데, 거기다 대고 못을 쳤더라고요.}

10608 # 그래구 중가네다 이러케 그 저거를 댜:는데. {그리고 중간에다 이렇게 그 저거를 댜는데.}

10608 # 댜까지가 요로케 널븐 요고보다 조금 저글까 요런 댜까지를 일:매지게 똑 가트게 짜:개가지고.{댜까지가 요렇게 널븐 요것보다 조금 적을까요, 댜가리를 이리 매지게 똑같이 쪼개서.}

10608 # 똑:까지 딱 찢러서. {똑같이 딱 잘라서.}

10608 # 요 널벽찌 우에 찢라서 간파대구. {요 널벽지 위에 잘라서 가져다 대고.}

10608 # 지끔 그 저기 저 저 후향인가 멀루 부:러서 썸 방는걸루다. {지금 그 저기 저, 저 후향인가 뒤로 붙어서 징 박는 것으로다가.}

10608 @ 탁탁 방 쪼 찌거서. {탁탁, 팡 쪼 찌어서.}

10608 @ 예예. {예예.}

10608 # 그걸루다 색:바거서 또옥 가치 싸악 뺏는데 기:가매키더라구요. {그것으로다가 색을 박아서 똑같이 싹 뺏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0608 @ 예예. {예예.}

10608 # 그래니까머 벽뚜 조을 뽀더러 일꺼리도 조을 뽀더러 머 마랄 쭈 업씨 그러케 해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벽도 종을 뽀더러 일거리도 종은 뽀더러 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0608 # 여기는 대가웁는 데라. {여기는 대가 없는 곳이라.}

10608 @ 그래 그러겐 그래서. {그래 그러겠, 그래서.}

10608 # 옴나레도. {옴날에도.}

10608 @ 수수깡이구나. {수수깡이구나.}

10608 # 운송이두 가져올 쭈도 읍꾸. (@ 네네) 돈두 읍꾸. {운송이도 가져올 수도 없고. (@ 네네) 돈도 없고.}

10608 # 대개 집 찐는 거냥 올:려기루 그냥 그러케 지니깐. {대개 집 짓는 것은 그냥 완력으로 그냥 그렇게 지으니까.}

10608 # 다:수 땅 쫌비해서 하구. {다수 땅 준비해서 하고.}

10608 # 내 수당이 모자르믄 나메 징 거 인제 징꾸 이래서 다 쫌꾸 그랜씨요. {내 수당이 모자르면 남의 지은 거 인제 짓고 이래서 다 짓고 그렸어요.}

10608 @ 마루 까는 거슨 그냥 마루 까는 거요. {마루 까는 것은 그냥 마루 까는 거요.}

10608 @ 이제 마루 까는 거슨 그냥 그 판자를 노코. {이제 마루 까는 것은 그냥 판자를 놓고.}

10608 # 마루 까는 거:슨 인제 그. {마루 까는 것은 인제 그.}

10608 # 마:루 가리 가리 이 칸 대청이다 해믄 이 마리가 상당히 꽤 커요. {마루 가리, 가리, 이 칸 대청이다 하면 이 마리가 상당히 꽤 커요.}

10608 # 이: 칸 방에 넘찌요. 그래니까. {두 칸 방에 넘지요. 그러니까.}

10608 # 한 삼 칸 쪼도 대요. 퇴가. {한 세 칸 쪼도 돼요. 퇴가.}

10608 # 반 칸짜리가 둘:이 끄이는 데다. {반 칸짜리가 둘이 끄이는 데에다.}

10608 # 양짜게 한칸썩기니까 한 세칸쪼도 대는 마루를 이러케 탁 놀래믄. {양쪽에 한 칸 썩이니까 한 세 칸 쪼도 되는 마루를 이렇게 탁 놓으려면.}

10608 # 마루 상가네 근 한 일 메타나 이러케 대게끔. {마루 상가네 근 한일 메타나 이렇게 되게끔.}

10608 # 총총히 이러케 도를 가따 넌씁니다. (@ 네) 주초를. {총총히 이렇게 돌을 가져다 넣습니다. (@ 네) 주초를.}

10608 # 그 인제 주초마냥 그런 건 아니고. {그 인제 주초마냥 그런 건 아니고.}

10608 # 하여튼 땅에다: 서 썩찌 안케끔 끼우는 도를 간따 드문드문 노쿠서. {하여튼 땅에다 서, 썩지 않게끔 끼우는 돌을 가져다 드문 드문 놓고서.}

10608 # 고기 만는 막때기를 조:옥 찢러서 이러케 대구선. {거기에 맞는 막대기를 쭉 잘라서 이렇게 대고서는.}

10608 # 그래구 이중방을 거러요. 이러케. {그렇게 하고 이중방을 걸어요. 이렇게.}

10608 @ 네. {네.}

10608 # 저어 주중방을 거리나갑시다. {저어 주중방을 걸어나갑시다.}

10608 # 그래구선 인제 거기다 마루 송파늘 대:게 마려니지요. {그렇게 하고서는 인제 거기에다 마루송파늘 대게 마련이지요.}

10608 # 금 마루 송파늘 대:구선 그 이십매 이십매가 이게 짝: 뜨라 붙찌를 모타니까. {그러면 마루 송파늘 대고서는 그 이십매, 이십매가 이게 짝 들어 붙지는 못하니까.}

10608 # 여기다 인제 꺾새를 하나 바거서 이러케 바거 노쿠. {여기에다 인제 꺾쇠를 이렇게 박아 놓고.}

10608 # 어신:타게 나무를 까껴서 여기다 기리질르믄. (@ 네.) 이느미 배:짝 드러 마시믄 모슬 치구 그래는데. {어슷하게 나무를 깎아서 여기에다 길이 지르면, (@ 네.) 이놈이 바짝 들어 마시면 못을 치고 그러는데.}

10608 # 짐 우리 교회 먼척 뜨든 거 교육관 뜨든 거 이런 건 첨:부 내가 후러림 갈따 저언부 마루 노코 도배. {지금 우리 교회 먼저 뜯은 거, 교육관 뜯은 거 이런 건 전부 내가 후러림 가져다가전부 마루 놓고 도배.}

10608 # 그 천장하구르래는 건 천:부 내 소니루 다 진꾸 다 그랜썬요. {그 천장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내 손으로 다 짓고 다 그랬어요.}

10608 # 삼:우리 교해 진는 마루 논는 거머 이런 거 후어림 가지구 해는 건 했는데. {삼우리 교회 짓는, 마루 놓는 것이며 이런 거 후어림 가지고 하는 건 했는데.}

10608 # 엔:날 마루 판때기는 그래도 새가 떨어라구요. 그러케 해두. (@ 예예.) 그러캐두 새가 뜨구. {옛날 마루 판자는 그래도 사이가 뒹터라고요. 그렇게 해도 (@ 예예.) 그렇게 해도 새가 뜨고.}

10608 # 그리 그 마루 논는거는 마:루 그 이르믄 점부 모르케썬요. {그리고 마루 놓는 것은 마루 그 이름은 전부 모르겠어요.}

10608 # 그 해튼 마루 바침 그 기둥을 쪼끄믄 기둥드를 해서 찰러서 대:구. {그 하여튼 마루 받침, 그 기둥을 조금은 기둥들을 해서 잘라서 대고.}

10608 # 미테다 그저기 주초를 노쿠 해서 바쳐가지구. {밑에다 그 저기 주초를 놓고 해서 바쳐서.}

10608 # 중방을 크다걸구 그우에다 {중방을 거기에다 걸고. 그 위에다.}

10608 @ 마를. {마루를.}

10608 # 마를 낵는데. {마루를 낵는데.}

10608 # 그쎄 그 조목조모기 이르믄 잘 모르젠네요. {글쎄 그 조목 조목이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10608 # 그러케 하세요. 동바를 대구 중방을 걸구. {그렇게 하세요. 동방을 대고 중방을 걸고.}

10608 @ 예. {예.}

10608 # 우에다 송파니루 마를 논는다. {위에다 송파으로 마루를 놓는다.}

10608 @ 집 그 엘랄레 이제 그 집뜰 하눅뜨른 우선 한채하고 그 가:에 또 둘리 막찌요? {집, 그 옛날에 이제 그 집들 한옥들은 우선 한 채하고 그 가에 또 둘리 막지요?}

10608 @ 울. {울.}

10608 # 예 울타리. {예. 울타리.}

10608 # 예툽 그거슬 흘:기루 해썬 썬게는 다미라구래구. {예, 툽, 그것을 흙으로 했을 적에는 ‘담’이라고 그러고.}



10608 @ 담. {담.} 10608 # 예 담. 다미라구래구. {예, 담 담이라고 그러고.}

10608 # 인제 그 나무나 머 이런 머허섭쓰레기로다 이르:케 해쓸 쟈 인제 울타리라 그래구.  
{인제 그 나무나 뭐 이런 뭐 허섭쓰레기로다 이렇게 했을 때 인제 울타리라 그러고.}

10608 @ 그 울타리 예. {그 울타리 예.}

10608 # 인제 개나리나 이렇 거 시면썰 쟈 사:눌타리다 이러케 얘길. {인제 개나리나 이런  
것 심었을 땐 산울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10608 @ 사:눌타리? {산울타리?}

10608 # 예. {예.}

10608 # 산:나물해:썰 쟈 사눌타리. {산나물했을 때 산울타리.}

10608 @ 그 다메 이제 문가튼 거요. 문. {그 다음에 이제 문 같은 거요.}

10608 @ 옌나레는 그 정식 그 문 말고. {옛날에는 그 정식 그 문 말고.}

10608 @ 이이 나 나무를 이러케 여껴서 그냥 슬쩍 닫꼬 하는 그런 무니 안 인썸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그냥 슬쩍 닫고 하는 그런 문이 안 있습니까?}

10608 # 예 그:게 인제 삼:짱무니지요. {예, 그게 인제 삼장문이지요.}

10608 # 삼짱문. {삼장문.}

10608 @ 삼짱문. {삼장문.}

10608 # 그 대개 옌나레그 아까 얘기헸 대루 짜리까지루 이러케 여:끈 걸 이러케 대:구서.  
{그 대개 옛날에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짜릿가리로 이렇게 엮은 것을 이렇게 대고  
서.}

10608 # 트:를 문트를 이러:케 짜서 그걸 대:구서 부뜨리 매서.{틀을 문틀을 이렇게 짜서  
그걸 대고서 붙들어 매서.}

10608 # 다닫따 여런따 하는 삼짱무닌데. {닫았다, 열었다 하는 삼장문인데.}

10608 # 대:개 짜린무니라구 그래요. {대개 짜릿문이라고 그래요.}

10608 @ 짜린문? {짜릿문?}

10608 # 네. {네.}

10608 @ 집 진:는데 사용되는 이 연:장가튼 거슨 어떤 거시 인썸니까? {집 짓는데 사용되  
는 이, 연장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608 # 하:. {하.}

10607 # 집 쥘는 데 사용대는 연장은.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연장은.}

10607 # 아까 말씀드린 대루 이제 대자구가 인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자귀가  
있잖아요.}

10607 # 고 다메 대토비 인썸니다 크은 톱. {그 다음에 대톱이 있습니다. 큰 톱.}

10607 @ 아, 큰 토비요? {아, 큰 톱이요?}

10607 # 고 다메 칼토비 인썸니다. {그 다음에 칼톱이 있지요.}

10607 @ 칼톱. {칼톱.}

10607 # 예 썸 요즘 목쭈드리 마니 쓰는 칼톱. {예, 식, 요즘 목수들이 많이 쓰는 칼톱.}

10607 # 고 다메 지그문 다 기계로 합니다마는 대:패가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기계로 합니다마는 대패가 두 가지예요.}

10607 # 그게 거친 대패로 해가지고 고운 대패로 사악 미는 대패가 인썸니다. (@ 네.) 대  
패가 이꾸. {그게 거친 대패로 해서 고운 대패로 썸 미는 대패가 있습니다. 대패가  
있고.}

10607 # 고 다메 인제 기둥 저기 저 중방 구멍 파는 꼬:리 인썸니다 끝.{그 다음에 인제 기둥, 저기 저 중방 구멍 파는 끝이 있습니다. 끝.}.

10607 # 고 다메 인제 손:자구가 인썸요. 쪼꼬만 거 예민할 때. {그 다음에 인제 손자귀가 있썸요. 조그마한 것, 예민할 때.}

10607 @ 자구. {자귀.}

10607 # 까꺼나 그래는 자구. {까꺼나 그러는 자귀.}

10607 # 고마 데 엔:날 집 찢는 데는 이 꺾쇠가 꼭 피료헨꺼드뇨 꺾쇠. {그게 더 옛날 집 찢는 데는 이 꺾쇠가 꼭 필요했거든요. 꺾쇠.}

10607 @ 예예예. {예예예.}

10607 # 이 기둥가튼 거 이러켜 세워서 막때기 대구 찌거 노쿠선 올라가서 해구 빼는 꺾쇠. {이 기둥같은 거 일으켜 세워서 막대기 대고 찍어 놓고서는 올라가서 하고 빼는 꺾쇠.}

10607 # 해이고. 그래구 인제 장지 파는 그 호리가 파는 게 이썸는데 그거는 이르믄 몬지 모르켄꾸. {아이고. 그러고 인제 장지를 파는 그 호리(=‘구멍’을 뜻하는 일본어)를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

10607 # 그래구 인제 기억자가 목쭈드른 꼭:카나. (@ 예.) 틀림 틀리몹씨 그게 인떠라구요. {그리고 인제 기억자자가 목수들은 꼭 하나. (@ 예.) 틀림, 틀림없이 그게 있더라고요.}

10607 # 그리구 그리구 인저 먹:통이 이썸요. 먹통. {그리고, 그리고 인제 먹통이 있어요. 먹통.}

10607 @ 먹통예. {먹통 예.}

10607 # 예. {예.}

10607 # 그게 인제 지꼬믄 머 조은 나와서 지금 내가 하나 사다 뵈는데. {그게 인제 지금은 뭐, 좋은 (게) 나와서 지금 내가 하나 사다 뵈는데.}

10607 # 그 저네 아버님 씨던 쓰던 거는 요런 막때기 다 하나 찢라가지고. {그 전에 아버님 쓰던, 쓰던 거는 요런 막대기 다 하나 잘라서.}

10607 # 요기다 구녀글 파:서 소믈 지버 너쿠 명무를 부어요. {여기에다 구멍을 파서 숨을 집어 넣고 먹물을 부어요.}

10607 @ 명물 너코. {먹물 넣고.}

10607 # 그래구 인제 요기는 요기는 장구실패마냥 까:꺼서 막때길 느쿠. {그리고 인제 여기는 장구실패마냥 꺾아서 막대기를 넣고.}

10607 # 쇠를 하나 바겨서 여기서 돌리믄 이게 장실패가튼 게 돌러라지구 실감꾸. {쇠를 하나 박아서 여기서 돌리면 이게 장실패같은 게 돌아가지고 실 감고.}

10607 # 노므는 여기서 가지가 나가믄 나가면서 명무리 쭈웅 무더 나가 먼저 짜게서 갈따 대구. {놓으면 여기서 가지가 나가면 나가면서, 먹물이 쭈 묻어 나가면 저 쪽에서 가져다 대고.}

10607 # 탁. 치므는. {탁 치면.}

10607 @ 예예예. {예예예.}

10607 # 채개이 때때 하는 먹:통이 인꾸. {채개이 때문에 하는 먹통이 있고.}

10607 # 그래구 인제 그 먹통을 이러케 그:리구 하는 먹카리 인꾸. {그리고 인제 그 먹통을 이렇게 그리고 하는 먹칼이 있고.}

10607 @ 예예. {예예.}

10607 # 예. {예.}

10607 # 그리구 그지끔 그 사개부리라구 지끔 그래는 건데 이게 옰나옰 특빠리 그게 옰는 거시. {그리고 그 지금은 그 사개불이라고 지끔 그리는 것인데, 이게 옰날옰는 특별히 그게 옰는 것이.}

10607 # 그 먹:통을 복판넰다 철싸 이러케 꾸부려 가지고 딱: 바가지구 까막씨를 하나 부뜨리매끼 때매. {그 먹통을 복판넰다가 철사 이렇게 꾸부려서 딱 박아서 까막씨를 하나 붙들어 매었기 때문에.}

10607 # 옰:마난 기둥 마름 마름개질할 췌는 타: 그거가지고 먹통가지고. {옰만한 기둥 마름, 마름개질할 때는 다 그것을 가지고 먹통을 가지고.}

10607 # 이러케 해가지구 자 대구선 호글 이 먹통을 여기다 찌거서 썩: 글꾸. {이렇게 해서 자를 대고서는 옰을 이 먹통을 여기에다 찌어서 썩 곳고.}

10607 # 대:개 그러케서 벨또로 사개버니 쓰는 거는 못 받꺼든요. (@ 넰넰.) 게서 그거는 그러케 쓰고. {대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사개번이 쓰는 것은 못 봤꺼든요, (@ 넰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쓰고.}

10607 # 어지가니 나온거 가태요. {어지간히 나온 것 같아요.}

10607 @ 그런넰요. {그렇넰요.} 10607 # 내가 지끔. {내가 지끔.}

10607 # 옰청 아수하능 게 아버님 연단통 이마:난 거 하나 지구선. {옰청 아쉬워하는 게 아버님 연단통 이만한 거 하나 지고서는.}

10607 # 한 해 보매 누 집 찌러 가면 그걸 한달췌 나매 지베 가서 지무시며 지블 한 채 지어 주고옰래 그래 가서.

10607 @ 예. {한 해 봄에 누 집 지러 가면 그걸 한달췌 남의 집에 가서 주무시며 집을 한 채 지어주고 옰래. 그래서 가서.}

10607 # 그 연장이 아직 거기 일췌는데. {그 연장이 아직 거기 옰었넰데.}

10607 # 큰:지베 애들도 그런코 형님들두 그런코 그 귀중한지를 몰라서 분시래가지구 내 지끔두 악마옰를 아파하거든요, 아주. {큰집에 애들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그 귀중한지를 몰라서 분실해서 내 지끔도 악 마옰을 아파 하거든요. 아주.}

10607 # 그 옰:날 목수 연장드리 아주 옰청 한귀짜게 이췌는데. {그 옰날옰 목수 연장들이 아주 옰청 한 췌쪽에 옰었넰데.}

10607 @ 아. {아.}

10607 # 그 다: 소멸땡췌요. {그것이 다 소멸땡어요.}

10607 @ 그게 다 그게. {그게 다 그게.}

10607 # 그 쓰레기장에 갇떠니 우터케 볼, 우리 받 뒤디에 볼릴 보러 갇떠니 보니까 기억 짜자가 하나 거기 내: 버려서 내 그 지버다 뒤서 우리 지베 그건 일꺼든요. {그 쓰레기장에 갇떠니 어떻게 볼, 우리 받 뒤에 볼일 보러 갇떠니 보니까 기억자 자 하나가 거기, 내어버려서 내가 그것을 집어다 두어서 우리 집에 그건 옰거든요.}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벼라고
20102	이삭	20102	이사기
20103	별씨	20103	베씨
20104	못자리	20104	모자리
20105	모판	20105	모파니라구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보스비고
20108	벧	20108	벼치라고
20108-0-1	-이	20108-0-1	*
20109	극쟁이	20109	극징이라고
20110	씨레	20110	씨레라고
20111	번지	20111	번지
20112	모내기	20112	모지내비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땡어리
20114	고무래	20114	거물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거물개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거물개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소시랑이라고
20116	곡괭이	20116	꼬괭이
20117	괭이	20117	화전괭이
20118	삽	20118	사비라고
20119	호미	20119	호미
20120	농기구	20120	연장이라구
20121	김	20121	김:
20122	김매다	20122	김:맨다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시맨다
20123-1	두벌 매다	20123-1	이듬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세:벌
20124	논두둑	20124	논뚜랑이라고
20124-1	논두렁	20124-1	논뚜랑
20125	밭둑	20125	바뚜기
20126	밭두둑	20126	바뚜러기라고
20127	밭고랑	20127	바꼬랑이라고
20128	밭이랑	20128	*
20128-1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20128-1	밭꼬랑 킨다
20128-2	이랑밟기	20128-2	밟는다
20129	보리	20129	보린데요
20129-1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20129-2	봄보리	20129-1	갈보리
20130	보리쌀	20130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추경친다
20132	깜부기	20132	깜부기
20133	두엄	20133	두어미라고
20134	거름	20134	거름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빈다
20202	벧단	20202	베탄
20202-1	벧단(한 줌정도)	20202-1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20202-2	*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20202-3	*
20203	가리(積)	20203	베까리
20204	가리다(積)	20204	싼는다
20205	벧가리	20205	베까리
20206	난가리	20206	*

20207	타작	20207	타:자칸다고
20208	벼훑이	20208	*
20208-1	그네	20208-1	쪼끼개
20209	개상	20209	채:질
20209-1	자리개	20209-1	*
20209-2	자리개질	20209-2	*
20210	도리깨	20210	도리깎니다
20210-1	도리깎장부	20210-1	도리깨 장치
20210-2	도리깎열	20210-2	도리깨 아드리라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
20211	벧죤	21211	집판
20211-0-1	-을	21211-0-1	지플
20211-0-2	-에	21211-0-2	지페
20212	새 떼기	20212	괘:기
20213	죽정이	20213	죽쟁이라고
20214	티	20214	타분대기 티개비
20215	까끄라기	20215	까래기
20216	풍구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7	원두마기라고
20218	허수아비	20218	정애비
20219	흥년	20219	흥년
20220	머슴	20220	머스미라고
20221	놉	20221	*
20221-0-1	-을	20221-0-1	*
20221-1	(놉을) <u>사다/얼다/부리다</u>	20221-1	*
20222	폼앗이	20222	푸마시
20223	폼샷	20223	폼깎
20223-0-1	-으로	20223-0-1	폼까브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2	디딜땡아라고
20303	방앗공이	20303	*

20304	방아확	20304	절구확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8	*
20309	절굿공이	20309	절구쟁이
20310	절구질	20310	절구질한다
20311	겨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2	보리겨
20313	왕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4	쌀겨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6	겉질	20316	겉절

####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씨글
20402	참쌀	20402	참쌀
20403	멥쌀	20403	메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10	조이삭
20406	차조	20405	조
20407	메조	20405	서서기라고
20408	좁쌀	20406	차조
20409	작다	20407	메조
20410	조이삭	20408	좁쌀
20411	수수	20409	찰다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2	장목쭈수
20411-3	찰수수	20411-3	찰쭈수
20411-4	메수수	20411-4	메쭈수
20412	수수깡	20412	수수깡
20413	옥수수	20413	옥쭈수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찰옥쭈수

20413-2	메옥수수	20413-2	옥썬수
20414	귀리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5	메밀
20416	콩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7	콩깍찌
20418	메주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19	매단다
20420	떡우다	20420	띠운다
20421	곰팡이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25	고소하다

### 2.1.5. 채소

20501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1	*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2	*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3	*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4	*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5	*
20502-6	나물(산, 반찬)	20502-6	*
20503	푸성귀	20503	푸장구
20504	다듬다	20504	다듬는다
20505	반찬	20505	반찬 정거니
20506	무	20506	무
20507	썰다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09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1	장아리
20512	배추	20512	배추
20513	고깁이	20513	고깁이
20514	오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6	오이속 빼기
20517	가지(茄子)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0-1	*
20521	우엉	20521	*
20522	파	20522	파
20523	고추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6	부:추가
20527	상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0	나생이
20531	달래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33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3	조반죽밥

20604	누룽지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5	누룽지
20606	송농	20606	송농
20607	뜨물	20607	뜯물
20608	김(蒸氣)	20608	김:
20609	갱죽(羹粥)	20609	*
20610	싱겁다	20610	심심해다
20611	국수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u>기계국수/틀국수</u>	20612-1	*
20613	견더기	20613	장:견디기
20613-1	국물	20613-1	장:꿇물
20614	고명	20614	*
20615	꾸미	20615	꾸미
20616	미역	20616	미역꼭
20617	김(海苔)	20617	김:
20618	수제비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19	끼니
20620	미음	20620	미음
20620-1	(미음을) <u>끓이다/쭈다/삶다</u>	20620-1	끄린다
20621	옛기름	20621	길금
20622	식해(食醢)	20622	감주
20623	식해(食醢)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달다
20625	가루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1	가루에다
20625-0-2	-을	20625-0-2	밀가루를
20625-0-3	-도	20625-0-3	밀가루도
20626	밀가루	20626	밀가루
20627	밀기울	20627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숫가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2	된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고추장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배추김치
20707	김장	20707	김장 당군다
20708	깍두기	20708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	김장한다
20710-0-1	-고	20710-0-1	*
20710-0-2	-어라	20710-0-2	*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린다
20713	버섯	20713	버서시
20713-0-1	-이	20713-0-1	*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20714-2	숙쭈 숙쭈나물
20715	두부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8	가래떡기라고
20719	시루떡	20719	시루떡기라고
20720	송편	20720	송퍼니라고
20721	빻다	20721	송편 만든다
20722	흰떡	20722	흰떡기자나요
20723	고물	20723	고무리라고
20724	팔죽	20724	파쭈기네요
20725	새알심	20725	옹시미
20726	백설기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7	뽕튀기
20728	술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29 막걸리  
20730 소주지요  
20731 부치기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냄파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소치라  
20802-0-2 가마소테  
20802-0-1 가마소츨  
20803 아궁이  
20803-0-1 아궁이가  
20804 끄으름  
20805 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냉골래가 든다  
20807 끄으러따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사비라구  
20810 냄파  
20811 양은 냄비라고  
20812 밥끄르기  
20812-0-1 밥끄르글  
20813 뚜껑  
20814 바끄룩 뚜껑  
20815 \*  
20816 소두박  
20817 주걱  
20818 수까리라고  
20819 저까리라고  
20820 종지  
20821 탕:끼  
20822 투가리라고  
20823 접씨  
20824 조:리라고  
20825 이남바기라고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로  
 20833 화롯불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불순가락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26 들빠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군다 행군다  
 20829 설거지  
 20830 자신물  
 20831 \*  
 20832 화:루  
 20833 화:룻뿌리  
 20834 부저까리라고  
 20834-0-1 \*  
 20834-1 \*  
 20835 구멍쇠라고  
 20836 적썰  
 20837 \*  
 20838 바구니라고 둥구니  
 20839 뒤지  
 20840 \*  
 20841 \*  
 20842 쪽쌍이라고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짚  
 20907-2 수짚

20901 안빵이라고  
 20902 바람빼기요  
 20903 다라근  
 20904 벽짱  
 20905 감춘다  
 20906 흙쩍  
 20907 기두리  
 20907-1 암끼두리  
 20907-2 수끼두리

20908	미달이	20908	미달이
20909	여달이	20909	여다지문
20910	덧문	20910	덤문
20911	열다	20911	연:다
20912	문고리	20912	문꼬리
20913	자물쇠	20913	자물쇠
20914	간히다	20914	가쳐따
20915	열쇠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6	장근다
20917	구멍	20917	몽꾸멍
20917-1	취구멍	20917-1	취구멍
20918	찢다	20918	찢는다
20919	구들	20919	구들짱
20920	흙받기	20920	흑빠끼
20921	흙손	20921	흑쏘니에요
20922	흙칼	20922	*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
20923	바르다	20923	바른다
20924	장판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6	되배
20927	구석	20927	구서기라고
20928	굽도리	20928	굽뚜리
20929	깨끗하다	20929	깨끄타게
20930	문지방	20930	문찌방
20930-0-1	-에	20930-0-1	문찌방에
20931	툼	20931	트미라고
20932	가장자리	20932	가생이
20933	가운데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4	실경
20935	살강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6	섬반
20937	서랍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39	거우리라고 채경을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40 거리노는다  
20941 등자너지

###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뗏돌  
21019-1 섬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01 지붕  
21001-0-1 지붕에  
21002 계와  
21003 계와지비라고  
21004 \*  
21005 \*  
21006 대들뿐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막싸리지비라고  
21011 초가집  
21012 영: 여꺼서  
21012-0-1 \*  
21013 용구세  
21014 추녀끄테서  
21015 낙순물  
21015-1 씨근써물  
21016 사다리  
21017 용구세  
21018 봉당이고  
21019-1 심방똥  
21019-1 뜰똥  
21020 마루  
21020-0-1 마루에  
21021 뒤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똥  
21023-0-1 주춧똥을  
21024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21101	뜨리라고
21102	마당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	널:따
21103-0-1	-어서	21103-0-1	널버서
21104	넓히다	21104	널핀다
21105	곳간	21105	고까니
21106	외양간	21106	오양까나라고
21107	마구간	21107	광:이라고
21108	광	21108	*
21109	헛간	21109	허간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가
21111	장독대	21111	장:뚝때
21112	장독 뚜껑	21112	장:뚝소래기
21113	변소	21113	뒤간
21113-1	똥장군	21113-1	장구나라구
21114	올타리	21114	올타리
21115	담	21115	다미라고
21115-0-1	-에	21115-0-1	*
21115-0-2	-도	21115-0-2	담두
21116	사립문	21116	싸리문
21117	뒤꼍	21117	두꼍
21117-0-1	-에	21117-0-1	*
21118	바깥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8-0-1	바까테
21119	모퉁이	21119	귀팅이가
21120	모서리	21120	*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동네
21202	윗마을	21202	위똥네
21203	이웃	21203	이우시라
21203-0-1	-이	21203-0-1	*



21203-0-2 -에	21203-0-2 이우제
21204 마을가다	21204 마실칸다
21205 우물	21205 움무리라고
21206 두레박	21206 두레바기라고
21207 샘(泉)	21207 옹달새미라고
21208 가(邊)	21208 가생이
21208-0-1 -을	21208-0-1 가생이를
21208-0-2 -에	21208-0-2 받까생이에
21209 물지게	21209 물찌겐테
21210 가게	21210 가게라고
21211 싸다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3 흥정이라고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4 흥정꾼
21215 잔돈	21215 잔저느로
21216 에누리	21216 까꺼달라고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8 거슬러 달라
21219 꾸다(借)	21219 궂:다
21219-0-1 -어야	21219-0-1 꾸워와야
21220 구두쇠	21220 노:랭이라고
21221 말기다	21221 마껴둔다고
21222 나머지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3 더:미라고
21224 뭉	21224 목시라고
21224-0-1 -을	21224-0-1 목슬
21225 빗	21225 빔만
21225-0-1 -을	21225-0-1 비슬
21225-0-2 -에	21225-0-2 비세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가시라고
21228-1 축	21228-1 한추미라고
21228-2 쾌	21228-2 한쾌
21228-3 접	21228-3 한접
21228-4 씹	21228-4 한싸미지요

21228-5 두름	21228-5 한두르미라고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6 한다니에요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7 한단
21228-8 툇	21228-8 한토시라고
21228-9 모숨	21228-9 한웅큼
21229 켄레	21229 한켄레
21230 마지기	21230 한때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이백평
21231 꾸러미	21231 한꾸러미
21232 그루	21232 한그루라고
21233 포기	21233 한포기
21234 저울	21234 대저우리라고
21235 자루(包袋)	21235 자루
21235-0-1 -을	21235-0-1 *
21235-0-2 -에	21235-0-2 자루에
21236 하나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 세
21238-1 세-개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 네
21239-1 네-개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1	여서개
21241-2	여섯-되	21241-2	여선뵈
21241-3	여섯-말	21241-3	여선말
21242	일곱	21242	일고
21242-1	일곱-개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2	일곱뵈
21242-3	일곱-말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	여덜
21243-1	여덟-개	21243-1	여덜개
21243-2	여덟-되	21243-2	여덜뵈
21243-3	여덟-말	21243-3	여덜말
21244	아홉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2	아홉뵈
21244-3	아홉-말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2	열:뵈
21245-3	열-말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2	스무뵈
21246-3	스무-말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뵈
21247-3	서른-말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2	마흔뵈
21248-3	마흔-말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2	쉰:뵈
21249-3	쉰-말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	이른
21251-1	일흔-개	21251-1	이른개
21251-2	일흔-되	21251-2	이른되
21251-3	일흔-말	21251-3	이른말
21252	여든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
21254-2	백-되	21254-2	백뵈
21254-3	백-말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5	*
21256	한들	21256	*
21256-1	한두-개	21256-1	한두어개
21256-2	한두-되	21256-2	*
21256-3	한두-말	21256-3	*
21257	두셋	21257	*
21257-1	두세-개	21257-1	*
21257-2	두세-되	21257-2	*
21257-3	두세-말	21257-3	*
21258	두서넛	21258	*
21258-1	두서너-개	21258-1	*
21258-2	두서너-되	21258-2	*
21258-3	두서너-말	21258-3	*
21259	서넛	21259	*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개
21259-2	서너-되	21259-2	*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말

21260	네댓	21260 *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덕깨
21260-2	네댓-되	21260-2 너덜뵤
21260-3	네댓-말	21260-3 *
21261	대여섯	21261 *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섯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섯뵤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 *
21262-1	예닐곱-개	21262-1 여:닐곱깨
21262-2	예닐곱-되	21262-2 여:닐곱뵤
21262-3	예닐곱-말	21262-3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 *
21263-1	일여덟-개	21263-1 이려덜깨
21263-2	일여덟-되	21263-2 일여덜뵤
21263-3	일여덟-말	21263-3 *
21264	여덟아홉	21264 *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
21265	여남은	21265 *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나문개
21265-2	여남은-되	21265-2 여남은뵤
21265-3	여남은-말	21265-3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2	기럭찌
21303	저고리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니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매기
21310	의복	21310	의보기라고
21311	구겨지다	21311	구겨진다
21312	옷고름	21312	옥꼬름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정
21315	겉	21315	거치라고
21315-0-1	-에	21315-0-1	거테
21315-0-2	-을	21315-0-2	거치다
21316	홀옷	21316	호돈
21317	겹옷	21317	겨보시지
21318	잠방이	21318	잠:뱅이
21319	누더기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0	그:지
21321	구걸	21321	구걸한다
21322	조끼	21322	쫓끼
21323	내의	21323	송냉이
21324	껴입다	21324	껴:임는다고
21325	소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6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21327	호주머니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띠지요
21329	댕기	21329	댕기

21330	도포	21330	*
21331	삿갓	21331	사깁
21331-0-1	-에	21331-0-1	새까세
21332	고깔	21332	꼬깔
21333	사모	21333	사모
21334	유건	21334	유거니라는
21335	대님	21335	쟁님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집씨기
21338	미투리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u>삼다/만들다/트다/겉다</u>	21338-1	삼는다
21339	나막신	21339	나박썬
21340	설피	21340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시리라고
21402	목화	21402	모과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과 따래
21403	무명	21403	*
21403-1	무명실	21403-1	무명실
21404	씨아	21404	씨아
21405	자새	21405	영깁개
21406	물레	21406	물레
21407	베	21407	베
21408	길쌈	21408	길쌈미라는
21409	골무	21409	골미
21410	반질고리	21410	반지끄르시
21411	가위	21411	가새 가위
21411-0-1	-을	21411-0-1	*
21411-0-2	-에	21411-0-2	가위에 가새에
21412	마르다(裁)	21412	마름개질
21412-0-1	-고	21412-0-1	마른다
21412-0-2	-어라	21412-0-2	말라라

21413 형걸  
 21413-0-1 -을  
 21413-0-2 -에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0-1 -고  
 21415-0-2 -어라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8 끈  
 21419 노끈  
 21420 참바  
 21421 매듭  
 21421-1 (매듭을) 맷다/짓다/엮다/묶다  
 21422 보자기  
 21423 이불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6 홉이불  
 21427 겹이불  
 21427-1 솜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0-1 -에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3 방석  
 21434 담요  
 21435 빨래하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리질  
 21440 인두

21413 형거비  
 21413-0-1 \*  
 21413-0-2 형거베  
 21414 바늘  
 21415 꿰맨다 꼬맨다  
 21415-0-1 꼬이고 있다  
 21415-0-2 꼬여라  
 21416 바느질  
 21417 재동틀  
 21418 꼬나라고  
 21419 노끈  
 21420 바  
 21421 매드비라고  
 21421-01 매드블지어야  
 21422 보재기  
 21423 이불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6 혼니불  
 21427 겹니부리라고  
 21427-1 솜:니부리자나요  
 21428 누비이부리라고  
 21429 비개라고  
 21430 비개싸개 비갠넙또  
 21430-0-1 비갠니페  
 21431 목치미라고  
 21432 \*  
 21433 방서기라고  
 21434 담:논데  
 21435 빨래한다  
 21436 빨래빵치  
 21437 빨래터  
 21438 발랜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리미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41 방망이 하면  
21442 다디미또리라고  
21443 다디미질 한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단둥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1 설:라리라고  
21502 구:정  
21503 서딸 그믐날  
21504 무근세배한다  
21505 올해  
21505-0-1 올해는  
21505-1 장녀니라고  
21505-2 재:장녀니라고  
21505-3 내녀니라고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녀니라고  
21506 까:치서리라고  
21507 유시라고  
  
21507-1 윤:노리  
21508 유:까치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윤  
21508-5 모  
21509 \*  
21509-1 한동구니  
21509-2 두동구니  
21509-3 세동구니

21509-4	넉동무니	21509-4	네:동구니
21509-5	막동	21509-5	마깰다
21509-6	단동무니	21509-6	혼두 몬나구 저따
21510	보름	21510	선보루미라
21510-1	삭망	21510-1	*
21511	추석	21511	추서기라고
21512	망월	21512	망:우리
21513	쥐불놀이	21513	쥐불노리
21514	자치기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메:뚜기라고
21514-2	긴막대	21514-2	자:막때기라고
21515	수수께끼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6	호미씨세
21517	팽과리	21517	팽가리
21518	장구	21518	장구
21519	결두리	21519	새:참
21520	무당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0-1	남자 무당이라고
21521	고수레	21521	고시네
21521-1	고수레!	21521-1	고시네
21522	점쟁이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3	상여
21524	굴건	21524	굴거니라고
21525	제사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6	제:기라구
21527	귀신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1	고뽕이라고
21602	굴레	21603	명예
21603	명예	21602	굴레
21604	길마	21604	길마

21605	부리망	21605	임명
21606	구유	21606	소구영
21607	작두	21607	작뚜
21608	꼴	21608	꼴빈다
21609	여물	21609	여무리라고
21610	쇠죽	21610	소주기라고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소죽빠가지
21612	수레	21612	마차
21613	끌다	21613	마차 끈:다
21613-0-1	-고	21613-0-1	끌구
21614	바퀴	21614	빠꾸
21615	새끼(繩)	21615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
21616	망태기	21616	망태기
21617	떡등구미	21617	등구니
21618	거적	21618	거적
21619	가마니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트리라고
21620	돛자리		
21621	자리틀	21621	자리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견다</u>	21621-1	자리 맨:다
21622	왕골	21622	왕고리요
21623	삼태기	21623	삼태미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삼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싸리 삼태미지요
21624	명석	21624	명석
21625	어레미	21625	얼게미
21625-1	고운체	21625-1	고운체
21625-2	굵은체	21625-2	거친체
21626	대장장이	21626	대장쟁이
21627	대장간	21627	대장간
21628	폴무	21628	폴:무
21629	모루	21629	*
21630	모루채	21630	*
21631	갈퀴	21631	갈:키
21632	집게	21632	집게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3-1	*
21634	툽	21634	토비요
21634-0-1	-에	21634-0-1	토베는
21635	도끼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	자루
21636-0-1	-을	21636-0-1	*
21636-0-2	-에	21636-0-2	도끼짜루에
21637	갈고리	21637	갈고라지
21638	썰기	21638	썰:기
21639	송곳	21639	송:고시
21639-0-1	-에	21639-0-1	송고세
21640	뽕죽하다	21640	뽕:주캐다
21641	숫돌	21641	수돌
21641-0-1	-에	21641-0-1	수또레다
21642	맷돌	21642	매돌
21642-1	수쇠	21642-1	순노미라고
21642-1	암쇠	21642-2	암노미라고
21643	지게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4	쏘고리
21645	지게 작대기	21645	작때기
21646	막대기	21646	*
21647	몽둥이	21647	몽둥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비짜루
21702	광주리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4	함지
21705	폴비	21705	폴삐
21705-1	귀알	21705-1	*
21706	독	21706	도그로
21706-0-1	-에	21706-0-1	도게다
21707	물독	21707	물뚝

21708 향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변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08 향아리  
 21709 \*  
 21710 물땡이  
 21711 땡:리  
 21712 옹기  
 21713 \*  
 21714 키  
 21716 다식파니  
 21715 떡싸리고  
 21717 시루  
 21717-0-1 시루를  
 21717-0-2 시루에  
 21718 시루미테  
 21718-0-1 \*  
 21719 시루빠늘  
 21720 부시톨  
 21720-0-1 부시또를  
 21721 부시  
 21722 \*  
 21723 담배  
 21724 담배때  
 21725 대지요  
 21726 땡배 꼬바리  
 21727 물쭈리  
 21728 담:배싸미라  
 21729 부채  
 21730 토씨  
 21731 벼루톨  
 21732 가락찌  
 21733 비녀  
 21734 참빔  
 21734-0-1 \*  
 21734-0-2 비세  
 21735 열기비시예요  
 21736 세수때와지요 노때와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38 도투마리  
 21739 \*  
 21740 잉:아때  
 21741 \*  
 21742 도랭이

## 2.6. 인 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01 이마  
 21802 마:빠구니  
 21803 \*  
 21804 꺼먼자구  
 21805 혼자구  
 21806 능꺼푸리에요  
 21807 \*  
 21808 눈썹  
 21808-0-1 순썹비  
 21809 \*  
 21809-0-1 송눈썹비  
 21810 눈뚱  
 21811 안:경  
 21812 양경집  
 21813 뚝빼기  
 21814 주름쌀  
 21814-0-1 주루미  
 21815 애:때 보인다  
 21816 시염  
 21817 구웬나루  
 218170-1 구웬나루를  
 21818 코  
 21818-0-1 코가 크다  
 21819 코시어미라

21820	코딱지	21820	코따덩이
21821	콧구멍	21821	코꾸멍
21821-0-1	-을	21821-0-1	코꾸멍을
21821-0-2	-에	21821-0-2	코꾸멍에서
21822	콧물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3-0-1	입쭈레
21824	다물다	21824	다무르라
21825	어금니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6	던니
21827	휘파람	21827	헤파람
21828	침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29	생킨다
21830	가래(痰)	21830	가래
21831	빨다	21831	밴는다
21832	혀	21832	세빠다기
21833	혓바늘	21833	세빠늘
21834	꿇불	21834	귀뿌리요
21835	귀고리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5-1	귀거리
21836	귀지	21836	귀청
21837	귀이개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21838	소리
21839	엮듣다	21839	열뜬는다
21840	귀청	21840	귀청
21841	귀밑	21841	귀미테
21841-0-1	-을	21841-0-1	*
21842	관자놀이	21842	관진노리
21843	기미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6	시어미
21847	뺨	21847	빠미라
21847-1	볼	21847-1	보리라고
21848	가름하다	21848	개름:해다
21849	보조개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
21851	비듬	21851	비듬 비늘
21852	기계총	21852	기계총
21853	정수리	21853	장수리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5	뽑쓸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르마 탄다
21856-1	가르마 <u>타다/가르다/하다</u>	21856-1	*
21857	가마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1	가마손
21857-2	가마(轎)	21857-2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가마라고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마라고
21858	뒤통수	21858	뒤통시
21859	뒗덜미	21859	목덜미
21860	목	21860	모글
21861	먹살	21861	먹쌀 자바따

## 2.6.2. 상 체

21901	어깨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2	띠다 미냐
21903	겨드랑	21903	겨드랑이
21904	등	21904	등
21905	가슴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6	절린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8	심통
21909	쓸개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	콩과치지
21910-0-1	-에	21910-0-1	콩과체
21910-0-2	-을	21910-0-2	*
21911	팔	21911	파리라고
21912	팔꿈치	21912	팔꾸머리
21913	팔짱끼다	21913	팔짱 꺾따



21914	손톱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	틀린다
21917-0-1	-아서	21917-0-1	*
21917-1	틀리다	21917-1	*
21918	왼손잡이	21918	왼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꾸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장지송꾸락
21922	약손가락	21922	*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새끼송꾸락
21924	생인손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5	사:마구
21926	손아귀	21926	소나구
21927	손목	21927	손목
21928	뺨	21928	뺨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1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4	*
21935	근육	21935	*
21936	배꼽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7	등모캔다

###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복상뼈
22002	발가락	22002	발꼬락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꼬랑내
22006	고린내	22005	냄새

22007	굳은살	22007	뚝쌀
22008	정강이	22008	정강이뻘
22009	종아리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	무릅
22012-0-1	-을	22012-0-1	*
22012-0-2	-에	22012-0-2	무르베
22013	오금	22013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22014	엉텅이
22015	궁둥이	22015	궁덩이
22016	볼기	22016	볼:기
22017	명	22017	명든다
22018	명울	22018	명우리가
22019	가랑이	22019	가랭이
22020	사이	22020	새이
22021	살	22021	사치
22021-0-1	-이	22021-0-1	사치라고
22021-0-2	-을	22021-0-2	사출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타구니
22023	가래툑	22023	가래토시
22023-0-1	-을	22023-0-1	*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찌
22025	넓적다리	22025	넙:쩍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책쌍다리한다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u>	22026-1	*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강:기
22102	기침	22102	기침헨다
22103	재채기	22103	재채기
22104	사레	22104	사:레 들리다
22104-1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22104-1	*
22105	딸꾹질	22105	딸꾹쩔
22106	트림	22106	그:트름

22107 곱보  
 22108 천연두  
 22109 여드름  
 22110 학질  
 22110-1 하루거리  
 22110-2 이틀거리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1 홍역  
 22112 볼거리  
 22113 땀띠  
 22114 두드러기  
 22115 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22115-3 도장 버짐  
 22116 문둥이  
 22116-1 문둥병  
 22117 부스럼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9 곱기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2 언청이  
 22123 소경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5 눈곱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07 곱보  
 22108 마마  
 22109 여드름  
 22110 하루거리  
 22110-1 \*  
 22110-2 이틀거리  
 22110-3 \*  
 22111 호덕  
 22112 볼거리  
 22113 땀띠  
 22114 두두레기  
 22115 버짐  
 22115-1 마른 버짐  
 22115-2 진버짐  
 22115-3 도장부시럼  
 22116 문:당이  
 22116-1 문둥뺨  
 22117 부시럼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9 공긴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2 어챙이  
 22123 소:경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누나라고  
 22125 농꼽  
 22126 다리끼  
 22126-1 장따리끼  
 22126-2 \*  
 22127 질뚝빠리  
 22128 곱추  
 22129 귀머거리  
 22130 밤병어리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리다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22132 장꾸러기  
 22133 졸:렘파  
 22134 하품  
 22135 \*  
 22135-0-1 조르물  
 22135-0-2 \*  
 22136 잠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 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22216 방귀  
 22216-1 꺾다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22201 입뽀난다  
 22201-0-1 입떠슬  
 22202 간난애기  
 22203 어린아이  
 22204 경끼한다  
 22205 눅킨다 눅운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수바래기  
 22209-1 아수본다  
 22209-2 \*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이라고  
 22214 기저귀  
 22215 뉘킨다  
 22216 방:구  
 22216-1 방구 꺾파  
 22217 쿠린네  
 22218 쿠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킨다

22220-1	기지개를 <u>켜다/하다/쓰다/펴다</u>	22220-1	*
22221	거짓말	22221	고:진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남부끄럽따
22223	겁쟁이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해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지암지암
22226	곤지곤지	22226	찌경찌경
22227	따로따로	22227	따루따루 장:사장:사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29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22231	거르마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3	너머진다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두박쩔
22235	안기다	22235	앙긴다
22236	바람개비	22236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22237	호돌기
22238	숨바꼭질	22238	숨바꼭찌리자나요
22239	소꿉놀이	22239	소꿉장낭
22240	사금파리	22240	갸:파리
22241	연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1	방:패여니라
22241-2	가오리연	22241-2	오징어연
22242	걸리다	22242	연 걸리듯
22243	고누	22243	*
22244	땅뺨기	22244	땅뺨끼
22245	팽이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6	딱찌치기
22247	구슬	22247	다마치기
22248	그네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u>뛰다/타다/구르다</u>	22248-1	그네 뛴다
22249	밑신개	22249	안질개
22250	굴렁쇠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	굴:리구 간다
22251-0-1	-고	22251-0-1	*

22251-0-2 -어야	22251-0-2 굴:려야
22252 자전거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3 무등 세운다
22254 말타기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5 다름박질
22256 썰매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u>지치다/타다</u>	22256-1 *
22256-2 송곳	22256-2 꼬챙이
22257 엄살	22257 엄:쌀 한다
22257-1 (엄살) <u>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u>	22257-1 엄:쌀 부린다
22258 부아	22258 부아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1-1 아버지
22302 어머니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2-1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22303 하라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1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4-1 할머니
22305 남편	22305 남편이라고
22305-1 남편(호칭)	22305-1 여보
22306 아내	22306 집사람
22306-1 아내(호칭)	22306-1 *
22307 형	22307 형니미라고
22307-1 형(호칭)	22307-1 *
22308 아우	22308 동생이라고
22308-1 아우(호칭)	22308-1 *
22309 누나	22309 누니미지요
22309-1 누나(호칭)	22309-1 *
22310 누이	22310 *
22310-1 누이(호칭)	22310-1 여동생

22311	자식	22311	우리집 애들
22312	맡아들	22312	크내
22313	맡딸	22313	큰따리라구
22314	막내	22314	망내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4-1	*
22315	오빠	22315	오빠라구
22315-1	오빠(호칭)	22315-1	*
22316	언니	22316	언니라구
22316-1	언니(호칭)	22316-1	*
22317	아비	22317	애비라구
22317-1	아비(호칭)	22317-1	애비야
22318	어미	22318	에미
22318-1	어미(호칭)	22318-1	에미야
22319	손자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손녀딸
22321	사위	22321	우리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1-1	*
22322	외손자	22322	외손주
22323	외손녀	22323	외손녀딸
22324	꾸짖다	22324	*
22324-0-1	-고	22324-0-1	혼내구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물랜다
22325	총각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	겨론, 장개, 시집간다
22327-1	혼인식	22329-1	시집간다
22328	혼인 잔치	22328	겨론 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장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22329-1	*
22330	혼숫감	22330	혼수감
22331	함	22331	함:
22332	겹사돈	22332	겹싸돈
22333	새색시	22333	새대기라고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
22334	시아버지	22334	아버니미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

22335	시어머니	22335	어머니미라고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1	시어머니라고
22336	비위	22336	보비우한다 비위를 마춘다
22337	아주버니	22337	*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버님
22338	서방님	22338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서방님미라
22339	도련님	22339	되런니미라고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
22340	형님	22340	형수니미라고
22340-1	형님(호칭)	22340-1	아주머니
22341	시누이	22341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
22341-2	아가씨	22341-2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
22342	올케	22342	올케
22342-1	올케(호칭)	22342-1	*
22343	매형	22343	매형
22343-1	매형(호칭)	22343-1	*
22344	매제	22344	매부
22344-1	매제(호칭)	22344-1	*
22345	큰아버지	22345	큰아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둘:째 크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세:째 크나버지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
22347	큰집	22347	큰지비라고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자근아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자근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
22350	삼촌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0-1	*



22351	아저씨	22351	당수기라고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아저씨
22352	아주머니	22352	당송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아주머니
22353	조카	22353	조카라고
22354	조카딸	22354	조카딸
22355	고모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5-1	*
22356	고모부	22356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
22357	고종	22357	고종사춘
22358	이모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
22360	이종	22360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22361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
22362	외숙모	22362	외삼촌 아주머니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
22363	외종	22363	외사춘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
22365	외할머니	22365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
22366	장인	22366	장인
22366-1	장인(호칭)	22366-1	*
22367	장모	22367	장모님
22367-1	장모(호칭)	22367-1	*
22368	처남	22368	처나미라고
22368-1	처남(호칭)	22368-1	*
22369	처남댁	22369	처나메대기라고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
22370	홀아비	22370	호래비
22371	홀어미	22371	과:부
22372	계모	22372	새엄마

22372-1 계부	22372-1 *
22373 아저씨	22373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
22375 사나이	22375 장:정
22376 영감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6-1 저너머 할미
22377 나이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7-0-1 나이를
22378 환갑	22378 황가비레는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황갑잔치
22379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라고
22402 민물고기	22402 민물꼬기라고
22403 피라미	22403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22404 지느러미라고
22405 아가미	22405 아가미라고
22406 창자	22406 창자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8 후엄친다
22409 메기	22409 미:긴데요
22410 자라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1 거북기자나요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꾸런가봐요
22413 개구리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5 두꺼비
22416 거머리	22416 거머리

22417	다슬기	22417	*
22418	우렁이	22418	우렁이
22419	고둥	22419	*
22420	달팽이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	새운데 새뱅이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
22421-4	새우(바다 소)	22421-4	*
22422	새우젓	22422	*
22422-0-1	-이	22422-0-1	*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등아
22426	가오리	22426	*
22427	가자미	22427	*
22428	멸치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	*
22429-1	동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4	부게
22429-5	생태	22429-5	*
22430	조기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1	*
22432	뱀장어	22432	뱀장어
22433	낙시	22433	낙씨
22434	미끼	22424	미끼
22435	낙싯대	22435	낙씨때
22436	얼레	22436	영깡개
22437	조개	22437	조개비
22438	소라	22438	*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2	날파리
22503	파리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4	쉬:시러따
22505	가시	22505	구:테기
22506	진딧물	22506	진땀물
22506-1	(진딧물) <u>끼다/얹다/생기다</u>	22506-1	진땀무리 끼어따
22507	잠자리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	*
22508-1	암컷	22508-1	항가치
22508-2	수컷	22508-2	때:까치
22509	메뚜기	22509	메띠기
22510	여치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1	영:가시
22512	벌	22512	버:리
22512-1	(벌) <u>치다/기르다/키우다</u>	22512-1	친다
22513	땅벌	22513	굴:땡뻐
22514	나비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22516	풍뎅이
22517	모기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
22519	매미	22519	매:미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1	반디뿌리네요
22522	거미	22522	거미
22523	굼뽕이	22523	굼:뽕이
22524	구더기	22524	구:테기
22525	노래기	22525	노내기
22526	그리마	22526	구루마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쌀빠구니

22530	진드기	22530	진드기
22531	벼룩	22531	벼룩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서캐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충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귀뚜라미
22535	누에	22535	누에
22536	고치	22536	누에꼬추
22537	번데기	22537	번디기
22538	지렁이	22538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22539	거시
22540	소금쟁이	22540	소금쟁이
22541	방개	22541	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축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네:미
22605	황소	22605	황소
22606	길들이다	22606	길드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고삐를 땡긴다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22606-4	어디어디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무러
22607	쇠고기	22607	쇠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기
22609	돌치	22609	돌소돌토시
22610	꼬리	22610	꼬리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귀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돼: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돼:지
22615	주둥이	22615	주둥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돼:지머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돼:지 우간
22617-1	오래오래	22617-1	오래오래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수캐
22618-2	암캐	22618-2	암캐
22619	강아지	22619	강아지
22620	염소	22620	염소
22621	고양이	22621	고엥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코엥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코엥이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거우
22624	암탉	22624	암탁
22625	병아리	22625	병아리
22626	모으다	22626	모으는
22627	수탉	22627	수타기
22627-0-1	-이	22627-0-1	*
22628	벼슬(鷄冠)	22628	벼슬
22629	부리	22629	주둥이
22630	모이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0-1	모이를
22630-1	모이다	22630-1	모이지요
22631	닭털	22631	닥털
22632	닭똥	22632	닥똥
22633	어리	22633	달기둥우리
22634	닭장	22634	닥짱
22635	둥우리	22635	달기 둥우리
22636	날개	22636	날개
22637	깃	22637	*
22637-0-1	-을	22637-0-1	*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호:랭이
22702	살쾡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루가
22706-0-1	-이	22706-0-1	*
22706-0-2	-를	22706-0-2	노루를
22707	고슴도치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3	독싸
22714	생쥐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6	까꾸로
22717	다람쥐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8	새:
22719	꿩지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1	독쭈리
22722	제비(燕)	22722	제:비
22723	두루미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4	소쩍새
22725	평	22725	꿩
22726	장끼	22726	쟁끼
22727	까투리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7-1	꿩에 병아리
22728	종달새	22728	종달새
22729	빼꾸기	22729	빼꾸기
22730	기러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차우  
 22735-0-1 \*  
 22736 옹매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씌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01 창꼬시네요  
 22802 철쭉꼬시라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래미  
 22805 봉숭아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꼬뽕우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  
 22810-2 \*  
 22811 빼리기  
 22812 비듬  
 22813 쇠비르미라고  
 22814 씌바구  
 22815 고들뽕이  
 22815-1 \*  
 22815-2 \*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풀  
 22819 \*



22820	억새	22820	억새풀
22821	갈대	22821	갈:때
22822	이끼	22822	바우오시라고
22823	아주까리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4	담쟁이 넝쿨
22825	수세미	22825	쭈세미
22826	덩굴	22826	넝쿨
22827	덤불	22827	*
22827-1	가시덤불	22827-1	*
22828	잔디	22828	잔디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소나무지요
22902	솔방울	22902	솔뽕우리라고
22903	관솔	22903	광:솔
22904	솔가리	22904	솔까루
22905	그리모오다	22905	글거몬:다
22906	뽕나무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0	*
22911	웃	22911	오시자나요
22911-0-1	-으로	22911-0-1	*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	수피라고
22915-0-1	-을	22915-0-1	수풀
22915-0-2	-에	22915-0-2	수폐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하다
22917	절레	22917	절레
22918	취	22918	치기라고

22918-0-1 -에	22918-0-1 *
22919 가지(枝)	22919 가지
22920 끝	22920 꼬치라고
22920-0-1 -이	22920-0-1 *
22920-0-2 -에	22920-0-2 꼬칠
22920-0-3 -을	22920-0-3 그테
22921 삭정이	22921 삭쟁이
22921-1 삭정이를 <u>따다/꺾다/하다</u>	22921-1 꺼끈다
22922 나무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1 나무를
22922-0-2 -에	22922-0-2 나무에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한다
22924 그루터기	22924 고지바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베끌그렁이
22925 등걸	22925 *
22926 장작	22926 장자기라고
22927 패다	22927 팬다
22928 부스러기	22928 부스러기
22929 숯	22929 숯
22929-0-1 -이	22929-0-1 수시라고
22929-0-2 -을	22929-0-2 수슬
22929-0-3 -에	22929-0-3 수체
22930 불잉걸	22930 등그럭뿌리라고
22931 싹	22931 싸기
22932 잎	22932 이피
22932-0-1 -을	22932-0-1 이플
22932-1 잎사귀	22932-1 입싸구
22933 가랑잎	22933 가랑입
22934 뿌리	22934 뿌리기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
23002 돌배	23002 돌빼
23003 복숭아	23003 복숭아

23004	곶감	23004	꼬:감
23005	홍시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2310	*
23010-0-1	-을	22310-0-1	*
23011	석류	23011	성뉴
23012	모과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4	꼭찌
23015	밤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2	푼밤
23015-3	알밤	23015-3	아람
23015-4	쌍동밤	23015-4	쌍밤
23016	보늬	23016	속껍질
23017	호두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8	가래
23019	개암	23019	개감
23020	머루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1	*
23022	청미래덩굴	23022	*
23023	으름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4	차:메
23025	딸기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산딸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
23026	뱀딸기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27	마름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삼뽕오리
23102	기슭	23102	산끼슬기라고
23102-0-1	-에	23102-0-1	산끼슬게
23103	골짜기	23103	상꼴
23104	메아리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	고함친다
23105-1	(고함) <u>치다/지르다/하다</u>	23105-1	*
23106	묘	23106	모이
23107	뗏자리	23107	산짜리
23107-1	광중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09	비탈지다
23110	가파르다	23110	*
23111	언덕	23111	*
23112	낭떠러지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	들:
23113-0-1	-에	23113-0-1	드:레
23114	벌	23114	벌판
23115	갈림길	23115	갈래길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어진다
23117	바위	23117	바우
23117-0-1	-을	23117-0-1	*
23117-0-2	-에	23117-0-2	돌바우에
23118	돌(石)	23118	돌멩이
23118-0-1	-을	23118-0-1	도:를
23118-0-2	-에	23118-0-2	도:레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0-0-1	모레를
23121	진흙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21-1	차진 흐기라고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무를
23202	거품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3	개온해다
23204	도랑	23204	또랑
23204-1	봇도랑	23204-1	보또랑
23205	둑	23205	제방 개뚝
23206	잠기다	23206	쟁겨따
23207	개울	23207	보메 개울
23208	내(川)	23208	개울
23209	미역 감다	23209	미역 감는다
23210	발가숭이	23210	빨개덩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목요칸다
23212	수채	23212	수채꾸녀기라고
23213	개골창	23213	뜰방이라고
23214	시궁창	23214	수채
23215	웅덩이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6	진흑탕
23217	늪	23217	*
23217-0-1	-에	23217-0-1	느페 빠절따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나루
23220	돛	23220	도치
23220-0-1	-에	23220-0-1	도채
23221	돛대	23221	도때
23222	돛배	23222	도판배
23223	돛 줄	23223	*
23224	돛 줄	23224	*
23225	거루	23225	*
23226	상앗대	23226	*
23227	개(펄)	23227	*
23228	물	23228	*
23228-0-1	-으로	23228-0-1	*
23229	밀물	23229	*
23230	썰물	23230	*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1 가라 안는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01 새벽게  
23302 새벽뺨  
23303 아침  
23304 아침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슬뺨:타다  
23308 노을  
23308-0-1 \*  
23309 불구스르한거시가  
23310 \*  
23311 땅:꺼미 진다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우  
23315 추위  
23316 가으리  
23316-0-1 가으레  
23317 겨우리  
23317-0-1 겨울게  
23318 어름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래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꼬저께

23327	훗날	23327	먼: 훈날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루
23329	이튿날	23329	초이틀
23330	사흘날	23330	초사흘
23331	나흘날	23331	초나흘
23332	닷셋날	23332	초다째
23333	엿셋날	23333	초여째
23334	이렛날	23334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레
23337	열흘날	23337	여를
23338	하루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2	다째
23343	엿새	23343	여째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아레
23347	열흘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2	지금
23353	이미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4	요즘
23355	금방	23355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	해뻘테
-------	---	-------	-----

23401-0-1 -이	23401-0-1 *
23401-0-2 -을	23401-0-2 해빼슬
23402 따스하다	23402 따뜨태다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랭이
23404 응달	23404 음달
23405 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6 비
23407 가랑비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2 쏜:내기
23413 갑자기	23413 베랑간
23414 홍수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6 천둥	23415 번개
23417 벼락	23417 베락
23418 무섭다	23418 무섭따
23419 함박눈	23419 함:뽕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23421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23422 진눔깨비
23423 우박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4 고두름
23425 햇무리	23425 해무지개
23426 달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7 둥굴다
23428 은하수	23428 으나수
23429 금성	23429 새빨
23430 가뭄	23430 가무리드러따
23431 마르다	23431 말른다
23431-0-1 -어서	23431-0-1 말라서
23432 위	23432 위를
23433 아래	23433 아래쪼글
23434 왼쪽	23434 왼쪽



23435 오 른 쪽

23436 결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35 바른쪽

23436 \*

23436-0-1 여페

23437 회: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쫄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를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틀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털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글씨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걸: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
31012-0-1	취(蠅卵)-이/가	31012-0-1 취
31012-0-2	취(蠅卵)-보다	31012-0-2 *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쇠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외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놈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0-1 쉰다
31016-0-2	쉬:다(休)-보다	31016-0-2 *
31017-0-1	쇠:다(설을~)-이/가	31017-0-1 쉰다
31017-0-2	쇠:다(설을~)-보다	31017-0-2 *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베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떡메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

31023-0-1	매:다(擔)-이/가	31023-0-1	매:고
31023-0-2	매:다(擔)-보다	31023-0-2	*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0-1	맨:다
31024-0-2	매:다(繫)-보다	31024-0-2	*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0-1	뎌:다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5-0-2	*
31026-0-1	때:다(炊)-이/가	31026-0-1	뎌:다
31026-0-2	때:다(炊)-보다	31026-0-2	*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0-1	빈:다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7-0-2	*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0-1	뱌:다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8-0-2	*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0-1	센:다
31029-0-2	세:다(算)-보다	31029-0-2	*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0-1	센:다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0-0-2	*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뒤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되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게: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
31034-0-1	개:(犬)-이/가	31034-0-1	개:
31034-0-2	개:(犬)-보다	31034-0-2	*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결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이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계획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규칙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쉬일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통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이리나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2 *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3-0-3 *
31044-0-1	궤:(絜)(櫃)-이/가	31044-0-1 궤:
31044-0-2	궤:(絜)(櫃)-보다	31044-0-2 *
31044-0-3	궤:(絜)(櫃)-을/를	31044-0-3 *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1 헛때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2 *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0-3 *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망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권투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의:논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늬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왕
31051-0-2	왕(王)-보다	31051-0-2 *
31051-0-3	왕(王)-을/를	31051-0-3 *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과자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2 *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3 *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이리
31053-0-2	일(一)-보다	31053-0-2 *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일:하러
31054-0-2	일:(事)-보다	31054-0-2 *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질
31055-0-2	매(鞭)-보다	31055-0-2 *
31056-0-1	매:(鷺)-이/가	31056-0-1 매:꼬
31056-0-2	매:(鷺)-보다	31056-0-2 *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7-0-2 *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미
31058-0-2	밤:(栗)-보다	31058-0-2 *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니
31059-0-2	눈(眼)-보다	31059-0-2 *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니
31060-0-2	눈:(雪)-보다	31060-0-2 *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1-0-2 *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리
31062-0-2	말(斗)-보다	31062-0-2 *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니
31064-0-2	손(客)-보다	31064-0-1	*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리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부:리가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부:리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구
31079-0-1	달-(懸)-더라	31079-0-2	달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구
31080-0-2	달-(甘)-더라	31080-0-2	달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2	달더라
31081-0-2	달:-(熱)-더라	31081-0-1	달구
31082-0-1	갈-(換)-고	31082-0-1	간:다
31082-0-2	갈-(換)-더라	31082-0-2	가러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간:다
31083-0-2	갈-(磨)-더라	31083-0-2	가러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간:다
31084-0-2	갈:-(耕)-더라	31084-0-2	가러라
31085-0-1	걸-(收)-고	31085-0-1	거꾸
31085-0-2	걸-(收)-더라	31085-0-2	거떠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거:꾸
31086-0-2	걸:-(步)-더라	31086-0-2	거:떠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저꾸
31087-0-2	적-(書)-더라	31087-0-2	적떠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저:꾸
31088-0-2	적:-(小)-더라	31088-0-2	적:떠라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마꾸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거두
32002-0-1	흐르-(流)[ㅡ]-지	32001-0-1	*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흘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흘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흘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러두
32003-0-1	오-(來)[ㅓ]-지	32003-0-1	*
32003-0-2	오-(來)[ㅓ]-고	32003-0-2	오구
32003-0-3	오-(來)[ㅓ]-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32003-0-5	와두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드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드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러두
32005-0-1	많:-(多)[ㄴᄃ]-지	32005-0-1 *
32005-0-2	많:-(多)[ㄴᄃ]-고	32005-0-2 망:꾸
32005-0-3	많:-(多)[ㄴᄃ]-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ᄃ]-으니까	32005-0-4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32005-0-5 마:너두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마꾸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4 마트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마타두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꾸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터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러두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감:꾸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3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가무니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5 가머두
32009-0-1	벗-(脫)[ㅍ]-지	32009-0-1 버꾸
32009-0-2	벗-(脫)[ㅍ]-고	32009-0-2 *
32009-0-3	벗-(脫)[ㅍ]-더라	32009-0-3 버떠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32009-0-4 버스니까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32009-0-5 버서두
32010-0-1	옳-(可)[ㄹᄃ]-지	32010-0-1 *
32010-0-2	옳-(可)[ㄹᄃ]-고	32010-0-2 올꾸
32010-0-3	옳-(可)[ㄹᄃ]-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옳-(可)[ㄹᄃ]-으니까	32010-0-4 오르니까

32010-0-5	옴-(可)[ㄹ] -아/어(왔/었다)	32010-0-5 오라두
32011-0-1	입-(着衣)[ㅂ] -지	32011-0-1 *
32011-0-2	입-(着衣)[ㅂ] -고	32011-0-2 입꾸
32011-0-3	입-(着衣)[ㅂ] -더라	32011-0-3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 -으니까	32011-0-4 이부니까
32011-0-5	입-(着衣)[ㅂ] -아/어(왔/었다)	32011-0-5 이버두
32012-0-1	바꾸-(換)[ㅌ] -지	32012-0-1 *
32012-0-2	바꾸-(換)[ㅌ] -고	32012-0-2 바꾸구
32012-0-3	바꾸-(換)[ㅌ] -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ㅌ] -으니까	32012-0-4 바꾸니까
32012-0-5	바꾸-(換)[ㅌ] -아/어(왔/었다)	32012-0-5 바꿔두
32013-0-1	덮-(覆)[ㅍ] -지	32013-0-1 *
32013-0-2	덮-(覆)[ㅍ] -고	32013-0-2 덕꾸
32013-0-3	덮-(覆)[ㅍ] -더라	32013-0-3 덮떠라
32013-0-4	덮-(覆)[ㅍ] -으니까	32013-0-4 더푸니까
32013-0-5	덮-(覆)[ㅍ] -아/어(왔/었다)	32013-0-5 더퍼두
32014-0-1	묻:- (問)[ㅁ 변] -지	32014-0-1 *
32014-0-2	묻:- (問)[ㅁ 변] -고	32014-0-2 무:꾸
32014-0-3	묻:- (問)[ㅁ 변] -더라	32014-0-3 무떠라
32014-0-4	묻:- (問)[ㅁ 변] -으니까	32014-0-4 무르니까
32014-0-5	묻:- (問)[ㅁ 변] -아/어(왔/었다)	32014-0-5 무러두
32015-0-1	낫:- (癒)[ㅅ 변] -지	32015-0-1 *
32015-0-2	낫:- (癒)[ㅅ 변] -고	32015-0-2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 -더라	32015-0-3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 -으니까	32015-0-4 나:니까
32015-0-5	낫:- (癒)[ㅅ 변] -아/어(왔/었다)	32015-0-5 나:두
32016-0-1	닫-(閉)[ㄷ] -지	32016-0-1 *
32016-0-2	닫-(閉)[ㄷ] -고	32016-0-2 다꾸
32016-0-3	닫-(閉)[ㄷ] -더라	32016-0-3 다떠라
32016-0-4	닫-(閉)[ㄷ] -으니까	32016-0-4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다두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꾸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츠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32017-0-5 쫓차두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비:구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비:더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비:니까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비어두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구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니까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두
32020-0-1	펴-(伸)[펴]-지	32020-0-1 *
32020-0-2	펴-(伸)[펴]-고	32020-0-2 피구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3 피더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4 피니까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32020-0-5 펴:두
32021-0-1	밝-(明)[ㄹ]-지	32021-0-1 *
32021-0-2	밝-(明)[ㄹ]-고	32021-0-2 바꾸
32021-0-3	밝-(明)[ㄹ]-더라	32021-0-3 박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32021-0-4 발그니까
32021-0-5	밝-(明)[ㄹ]-아/어(왔/었다)	32021-0-5 발가두
32022-0-1	삶:-(烹)[ㄹ]-지	32022-0-1 *
32022-0-2	삶:-(烹)[ㄹ]-고	32022-0-2 삼:꾸
32022-0-3	삶:-(烹)[ㄹ]-더라	32022-0-3 삼:떠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32022-0-4 살무니까

32022-0-5	삶:- (烹)[ㄹ] -아/어(왔/었다)	32022-0-5	살머두
32023-0-1	음:- (吟)[ㄹ] -지	32023-0-1	*
32023-0-2	음:- (吟)[ㄹ] -고	32023-0-2	을꾸
32023-0-3	음:- (吟)[ㄹ] -더라	32023-0-3	을떠라
32023-0-4	음:- (吟)[ㄹ] -으니까	32023-0-4	을푸니까
32023-0-5	음:- (吟)[ㄹ] -아/어(왔/었다)	32023-0-5	을퍼두
32024-0-1	밟:- (踏)[ㅍ] -지	32024-0-1	*
32024-0-2	밟:- (踏)[ㅍ] -고	32024-0-2	발:꾸
32024-0-3	밟:- (踏)[ㅍ] -더라	32024-0-3	밟:떠라
32024-0-4	밟:- (踏)[ㅍ] -으니까	32024-0-4	발부니까
32024-0-5	밟:- (踏)[ㅍ] -아/어(왔/었다)	32024-0-5	발버두
32025-0-1	하:- (爲)[ㅏ 변] -지	32025-0-1	*
32025-0-2	하:- (爲)[ㅏ 변] -고	32025-0-2	하구
32025-0-3	하:- (爲)[ㅏ 변] -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 (爲)[ㅏ 변] -으니까	32025-0-4	하니까
32025-0-5	하:- (爲)[ㅏ 변] -아/어(왔/었다)	32025-0-5	해두
32026-0-1	맺:- (結)[ㅈ] -지	32026-0-1	*
32026-0-2	맺:- (結)[ㅈ] -고	32026-0-2	매꾸
32026-0-3	맺:- (結)[ㅈ] -더라	32026-0-3	매떠라
32026-0-4	맺:- (結)[ㅈ] -으니까	32026-0-4	매즈니까
32026-0-5	맺:- (結)[ㅈ] -아/어(왔/었다)	32026-0-5	매저두
32027-0-1	없:- (無)[ㅂ] -지	32027-0-1	*
32027-0-2	없:- (無)[ㅂ] -고	32027-0-2	옵:꾸
32027-0-3	없:- (無)[ㅂ] -더라	32027-0-3	옵:떠라
32027-0-4	없:- (無)[ㅂ] -으니까	32027-0-4	옵쓰니까
32027-0-5	없:- (無)[ㅂ] -아/어(왔/었다)	32027-0-5	옵써두
32028-0-1	앉:- (坐)[ㄴ] -지	32028-0-1	*
32028-0-2	앉:- (坐)[ㄴ] -고	32028-0-2	안지꾸
32028-0-3	앉:- (坐)[ㄴ] -더라	32028-0-3	안지더라
32028-0-4	앉:- (坐)[ㄴ] -으니까	32028-0-4	안지니까

32028-0-5	앉-(坐)[ㅅ]-아/어(앉/었다)	32028-0-5 안저두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앉/었다)	32029-0-5 비벼두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앉/었다)	32030-0-5 꺼두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꺾꾸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3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꺾끄니까
32031-0-5	꺾-(折)[ㄱ]-아/어(앉/었다)	32031-0-5 꺾꺼두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신:꾸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신:느니
32032-0-5	신:-(履)[ㄴ]-아/어(앉/었다)	32032-0-5 신:너두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구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보니까
32033-0-5	보-(視)[ㅇ]-아/어(앉/었다)	32033-0-5 봐:두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구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왔다)	32034-0-5 추어두
32035-0-1	피우-(吸煙)[ㅈ]-지	32035-0-1 *
32035-0-2	피우-(吸煙)[ㅈ]-고	32035-0-2 피:구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32035-0-3 피: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32035-0-4 피니까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왔다)	32035-0-5 피두
32036-0-1	서-(立)[ㅈ]-지	32036-0-1 *
32036-0-2	서-(立)[ㅈ]-고	32036-0-2 서구
32036-0-3	서-(立)[ㅈ]-더라	32036-0-3 서더라
32036-0-4	서-(立)[ㅈ]-으니까	32036-0-4 서니까
32036-0-5	서-(立)[ㅈ]-아/어(왔/왔다)	32036-0-5 서두
32037-0-1	기-(匍腹)[ㄱ]-지	32037-0-1 *
32037-0-2	기-(匍腹)[ㄱ]-고	32037-0-2 기구
32037-0-3	기-(匍腹)[ㄱ]-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ㄱ]-으니까	32037-0-4 기니까
32037-0-5	기-(匍腹)[ㄱ]-아/어(왔/왔다)	32037-0-5 겨:두
32038-0-1	이-(戴)[ㄴ]-지	32038-0-1 *
32038-0-2	이-(戴)[ㄴ]-고	32038-0-2 이구
32038-0-3	이-(戴)[ㄴ]-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ㄴ]-으니까	32038-0-4 이니까
32038-0-5	이-(戴)[ㄴ]-아/어(왔/왔다)	32038-0-5 여두
32039-0-1	아니-(否)[ㄴ]-지	32039-0-1 *
32039-0-2	아니-(否)[ㄴ]-고	32039-0-2 아니구
32039-0-3	아니-(否)[ㄴ]-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ㄴ]-으니까	32039-0-4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ㄴ]-아/어(왔/왔다)	32039-0-5 아녀두
32040-0-1	되-(升)[ㄴ]-지	32040-0-1 *
32040-0-2	되-(升)[ㄴ]-고	32040-0-2 되구
32040-0-3	되-(升)[ㄴ]-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ㄴ]-으니까	32040-0-4 되니까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32040-0-5 되:두
32041-0-1	있-(有)[쓰]-지	32041-0-1 *
32041-0-2	있-(有)[쓰]-고	32041-0-2 이꾸
32041-0-3	있-(有)[쓰]-더라	32041-0-3 이떠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32041-0-4 이쓰니까
32041-0-5	있-(有)[쓰]-아/어(왔/었다)	32041-0-5 이써두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꾸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놔:두
32043-0-1	훔-(拔)[ㅈ]-지	32043-0-1 *
32043-0-2	훔-(拔)[ㅈ]-고	32043-0-2 훔꾸
32043-0-3	훔-(拔)[ㅈ]-더라	32043-0-3 훔떠라
32043-0-4	훔-(拔)[ㅈ]-으니까	32043-0-4 훔투니까
32043-0-5	훔-(拔)[ㅈ]-아/어(왔/었다)	32043-0-5 훔터두
32044-0-1	굽:-(麗)[ㅂ 변]-지	32044-0-1 *
32044-0-2	굽:-(麗)[ㅂ 변]-고	32044-0-2 고:꾸
32044-0-3	굽:-(麗)[ㅂ 변]-더라	32044-0-3 굽:떠라
32044-0-4	굽:-(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고우니까
32044-0-5	굽:-(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와두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니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쥐어두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구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니까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32046-0-5 가두

##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CY      32047-0-1 먹떠라

32047-0-2 먹-(食)-아Y      32047-0-2 머거두

32048-0-1 뜯-(摘)-CY      32048-0-1 뜨떠라

32048-0-2 뜯-(摘)-아Y      32048-0-2 뜨더두

32049-0-1 갇-(如)-CY      32049-0-1 가떠라

32049-0-2 갇-(如)-아Y      32049-0-2 가터두

32050-0-1 얹-(淺)-CY      32050-0-1 야떠라

32050-0-2 얹-(淺)-아Y      32050-0-2 야트먼

32051-0-1 흘-(散)-CY      32051-0-1 헤치더라

32051-0-2 흘-(散)-아Y      32051-0-2 헤쳐두

32052-0-1 날:-(飛)-CY      32052-0-1 날르더라

32052-0-2 날:-(飛)-아Y      32052-0-2 날러두

32053-0-1 울:-(泣)-CY      32053-0-1 울:더라

32053-0-2 울:-(泣)-아Y      32053-0-2 우러두

32054-0-1 일:-(淘)-CY      32054-0-1 일:더라

32054-0-2 일:-(淘)-아Y      32054-0-2 이러두

32055-0-1 얼:-(凍)-CY      32055-0-1 얼:더라

32055-0-2 얼:-(凍)-아Y      32055-0-2 어러두

32056-0-1 넘:-(越)-CY      32056-0-1 넘떠라

32056-0-2 넘:-(越)-아Y      32056-0-2 너머두

32057-0-1 숨:-(隱)-CY      32057-0-1 숨떠라

32057-0-2	숨:-(隱)-아Y	32057-0-2 수머두
32058-0-1	쉽:-(易)-CY	32058-0-1 쉽:떠라
32058-0-2	쉽:-(易)-아Y	32058-0-2 쉬워두
32059-0-1	눅:-(臥)-CY	32059-0-1 눅떠라
32059-0-2	눅:-(臥)-아Y	32059-0-2 누어두
32060-0-1	깁:-(縫)-CY	32060-0-1 기:떠라
32060-0-2	깁:-(縫)-아Y	32060-0-2 기어두
32061-0-1	밉:-(憎)-CY	32061-0-1 밉떠라
32061-0-2	밉:-(憎)-아Y	32061-0-2 미워두
32062-0-1	높:-(高)-CY	32062-0-1 높떠라
32062-0-2	높:-(高)-아Y	32062-0-2 노파두
32063-0-1	짓:-(作)-CY	32063-0-1 지떠라
32063-0-2	짓:-(作)-아Y	32063-0-2 지어두
32064-0-1	붓:-(腫)-CY	32064-0-1 부:떠라
32064-0-2	붓:-(腫)-아Y	32064-0-2 부어두
32065-0-1	웃:-(笑)-CY	32065-0-1 우:떠라
32065-0-2	웃:-(笑)-아Y	32065-0-2 우:서두
32066-0-1	짓:-(吠)-CY	32066-0-1 지떠라
32066-0-2	짓:-(吠)-아Y	32066-0-2 지저두
32067-0-1	꽂:-(插)-CY	32067-0-1 꼬떠라
32067-0-2	꽂:-(插)-아Y	32067-0-2 꼬저두
32068-0-1	낱:-(産)-CY	32068-0-1 나터라
32068-0-2	낱:-(産)-아Y	32068-0-2 나아두
32069-0-1	땅:-(辮)-CY	32069-0-1 따터라

32069-0-2	땅:-(辯)-아Y	32069-0-2	따아두
32070-0-1	끊-(切)-CY	32070-0-1	끈터라
32070-0-2	끊-(切)-아Y	32070-0-2	끄너두
32071-0-1	괜찮-(無妨)-CY	32071-0-1	괜찬터라
32071-0-2	괜찮-(無妨)-아Y	32071-0-2	괜차너두
32072-0-1	읽-(讀)-CY	32072-0-1	익떠라
32072-0-2	읽-(讀)-아Y	32072-0-2	일거두
32073-0-1	떨-(漈)-CY	32073-0-1	떨떠라
32073-0-2	떨-(漈)-아Y	32073-0-2	떨버두
32074-0-1	옴-(遷)-CY	32074-0-1	옴떠라
32074-0-2	옴-(遷)-아Y	32074-0-2	올머두
32075-0-1	똥-(貫)-CY	32075-0-1	똥떠라
32075-0-2	똥-(貫)-아Y	32075-0-2	똥버두
32076-0-1	꿍-(跪)-CY	32076-0-1	꿍떠라
32076-0-2	꿍-(跪)-아Y	32076-0-2	꾸러두
32077-0-1	닿-(扨심이)-CY	32077-0-1	달터라
32077-0-2	닿-(扨,심이)-아Y	32077-0-2	다러두
32078-0-1	달:-(煎)-CY	32078-0-1	달터라
32078-0-2	달:-(煎)-아Y	32078-0-2	다러두
32079-0-1	짜-(鹽)-CY	32079-0-1	짜터라
32079-0-2	짜-(鹽)-아Y	32079-0-2	짜두
32080-0-1	말-(捲)-CY	32080-0-1	말터라
32080-0-2	말-(捲)-아Y	32080-0-2	마러두
32081-0-1	쓰-(書)-CY	32081-0-1	쓰터라

32081-0-2	쓰-(書)-아Y	32081-0-2	써두
32082-0-1	오르-(登)-CY	32082-0-1	올르더라
32082-0-2	오르-(登)-아Y	32082-0-2	올러두
32083-0-1	바쁘-(忙)-CY	32083-0-1	바쁘더라
32083-0-2	바쁘-(忙)-아Y	32083-0-2	바빠두
32084-0-1	고프-(餓)-CY	32084-0-1	고푸더라
32084-0-2	고프-(餓)-아Y	32084-0-2	고파두
32085-0-1	쏘-(射)-CY	32085-0-1	쏘:더라
32085-0-2	쏘-(射)-아Y	32085-0-2	썩:두
32086-0-1	꾸-(夢)-CY	32086-0-1	꾸더라
32086-0-2	꾸-(夢)-아Y	32086-0-2	꿔:두
32087-0-1	머무르-(留)-CY	32087-0-1	따듬떠라
32087-0-2	머무르-(留)-아Y	32087-0-2	다드머두
32088-0-1	다듬-(整)-CY	32088-0-1	*
32088-0-2	다듬-(整)-아Y	32088-0-2	*
32089-0-1	견디-(忍)-CY	32089-0-1	견디더라
32089-0-2	견디-(忍)-아Y	32089-0-2	견더두
32090-0-1	말리-(裁)-CY	32090-0-1	말리더라
32090-0-2	말리-(裁)-아Y	32090-0-2	말려두
32091-0-1	끼-(烟鎖, 안개가)-CY	32091-0-1	끼이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Y	32091-0-2	끼어두
32092-0-1	마시-(飮)-CY	32092-0-1	마시더라
32092-0-2	마시-(飮)-아Y	32092-0-2	마셔두
32093-0-1	세:-(强)-CY	32093-0-1	세더라

32093-0-2	세:-(强)-아Y	32093-0-2	세:두
32094-0-1	포개-(重疊)-CY	32094-0-1	포개더라
32094-0-2	포개-(重疊)-아Y	32094-0-2	포개두
32095-0-1	두드리-(敲)-CY	32095-0-1	두드리더라
32095-0-2	두드리-(敲)-아Y	32095-0-2	두드려두
32096-0-1	켜-(點燈)-CY	32096-0-1	키더라
32096-0-2	켜-(點燈)-아Y	32096-0-2	켜두
32097-0-1	쌌:-(바람을)-CY	32097-0-1	쌌더라
32097-0-2	쌌:-(바람을)-아Y	32097-0-2	쌌:두
32098-0-1	쇠-(老)-CY	32098-0-1	쉐더라
32098-0-2	쇠-(老)-아Y	32098-0-2	쉐:두
32099-0-1	쉬:-(饅)-CY	32099-0-1	쉬:더라
32099-0-2	쉬:-(饅)-아Y	32099-0-2	수여:두
32100-0-1	희-(白)-CY	32100-0-1	히더라
32100-0-2	희-(白)-아Y	32100-0-2	히어두
32101-0-1	볶-(炒)-CY	32101-0-1	복떠라
32101-0-2	볶-(炒)-아Y	32101-0-2	보꺼두
32102-0-1	안:-(抱)-CY	32102-0-1	안:떠라
32102-0-2	안:-(抱)-아Y	32102-0-2	아너두
32103-0-1	묻-(埋)-CY	32103-0-1	무떠라
32103-0-2	묻-(埋)-아Y	32103-0-2	무더두
32104-0-1	불:-(吹)-CY	32104-0-1	불:더라
32104-0-2	불:-(吹)-아Y	32104-0-2	부러두
32105-0-1	빨-(洗濯)-CY	32105-0-1	빨더라

32105-0-2	빨-(洗濯)-아Y	32105-0-2 빠러두
32106-0-1	죽-(死)-CY	32106-0-1 죽떠라
32106-0-2	죽-(死)-아Y	32106-0-2 주거두
32107-0-1	걸:-(步)-CY	32107-0-1 거:떠라
32107-0-2	걸:-(步)-아Y	32107-0-2 거러두
32108-0-1	가물-(旱)-CY	32108-0-1 가물더라
32108-0-2	가물-(旱)-아Y	32108-0-2 가무러두
32109-0-1	졸:-(睡)-CY	32109-0-1 졸:더라
32109-0-2	졸:-(睡)-아Y	32109-0-2 조러두
32110-0-1	쓸-(掃)-CY	32110-0-1 썰:더라
32110-0-2	쓸-(掃)-아Y	32110-0-2 씨러두
32111-0-1	감:-(捲)-CY	32111-0-1 감떠라
32111-0-2	감:-(捲)-아Y	32111-0-2 가머두
32112-0-1	더듬-(摸)-CY	32112-0-1 더듬떠라
32112-0-2	더듬-(摸)-아Y	32112-0-2 더드머두
32113-0-1	굽:-(炙)-CY	32113-0-1 굽떠라
32113-0-2	굽:-(炙)-아Y	32113-0-2 구어두
32114-0-1	무겁-(重)-CY	32114-0-1 무겁떠라
32114-0-2	무겁-(重)-아Y	32114-0-2 *
32115-0-1	잇:-(連)-CY	32115-0-1 여:떠라
32115-0-2	잇:-(連)-아Y	32115-0-2 여:두
32116-0-1	빗-(梳)-CY	32116-0-1 비떠라
32116-0-2	빗-(梳)-아Y	32116-0-2 비서두
32117-0-1	까맣-(黑)-CY	32117-0-1 까마터라

32117-0-2	까맣-(黑)-아Y	32117-0-2	까매두
32118-0-1	넣-(入)-CY	32118-0-1	너터라
32118-0-2	넣-(入)-아Y	32118-0-2	너:두
32119-0-1	고:-(煮)-CY	32119-0-1	고:더라
32119-0-2	고:-(煮)-아Y	32119-0-2	과:두
32120-0-1	엎-(載)-CY	32120-0-1	언떠라
32120-0-2	엎-(載)-아Y	32120-0-2	언저두
32121-0-1	귀찮-(囁)-CY	32121-0-1	귀찬터라
32121-0-2	귀찮-(囁)-아Y	32121-0-2	귀차너두
32122-0-1	바르-(剔, 빼를)-CY	32122-0-1	발르더라
32122-0-2	바르-(剔, 빼를)-아Y	32122-0-2	발라두
32123-0-1	맑-(淸)-CY	32123-0-1	막떠라
32123-0-2	맑-(淸)-아Y	32123-0-2	말거두
32124-0-1	굶:-(膿)-CY	32124-0-1	곰떠라
32124-0-2	굶:-(膿)-아Y	32124-0-2	골머두
32125-0-1	굴:-(太)-CY	32125-0-1	국떠라
32125-0-2	굴:-(太)-아Y	32125-0-2	굴거두
32126-0-1	얇:-(薄)-CY	32126-0-1	얄떠라
32126-0-2	얇:-(薄)-아Y	32126-0-2	얄버두
32127-0-1	쑤-(春)-CY	32127-0-1	썰:더라
32127-0-2	쑤-(春)-아Y	32127-0-2	씨러두
32128-0-1	잃-(失)-CY	32128-0-1	일터라
32128-0-2	잃-(失)-아Y	32128-0-2	이러두
32129-0-1	핥-(舐)-CY	32129-0-1	할떠라



32129-0-2	핥-(舐)-아Y	32129-0-2	핥더두
32130-0-1	짧-(短)-CY	32130-0-1	짧떠라
32130-0-2	짧-(短)-아Y	32130-0-2	짧버두
32131-0-1	놀라-(驚)-CY	32131-0-1	놀래더라
32131-0-2	놀라-(驚)-아Y	32131-0-2	놀래두
32132-0-1	자-(宿)-CY	32132-0-1	자더라
32132-0-2	자-(宿)-아Y	32132-0-2	자두
32133-0-1	못:하-(不爲)-CY	32133-0-1	모타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Y	32133-0-2	모태두
32134-0-1	모르-(不知)-CY	32134-0-1	모르더라
32134-0-2	모르-(不知) -아Y	32134-0-2	몰라두
32135-0-1	아프-(痛)-CY	32135-0-1	아푸더라
32135-0-2	아프-(痛)-아Y	32135-0-2	아퍼두
32136-0-1	크-(大)-CY	32136-0-1	크더라
32136-0-2	크-(大)-아Y	32136-0-2	커두
32137-0-1	꼬-(索, 새끼를)-CY	32137-0-1	꼬더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Y	32137-0-2	파:두
32138-0-1	쭈-(造粥)-CY	32138-0-1	쭈더라
32138-0-2	쭈-(造粥)-아Y	32138-0-2	쭈어두
32139-0-1	맞추-(組合)-CY	32139-0-1	마추더라
32139-0-2	맞추-(組合)-아Y	32139-0-2	마춰두
32140-0-1	데우-(煑)-CY	32140-0-1	데우더라
32140-0-2	데우-(煑)-아Y	32140-0-2	데워두
32141-0-1	이:-(盖, 지붕을)-CY	32141-0-1	해여떠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Y	32141-0-2	해여:두
32142-0-1	갈기-(打)-CY	32142-0-1	갈기더라
32142-0-2	갈기-(打)-아Y	32142-0-2	갈겨두
32143-0-1	기다리-(待)-CY	32143-0-1	기다리더라
32143-0-2	기다리-(待)-아Y	32143-0-2	기다려두
32144-0-1	세:-(算)-CY	32144-0-1	세:더라
32144-0-2	세:-(算)-아Y	32144-0-2	세:두
32145-0-1	빼-(拔)-CY	32145-0-1	빼:더라
32145-0-2	빼-(拔)-아Y	32145-0-2	빼:두
32146-0-1	켜-(톱을)-CY	32146-0-1	키더라
32146-0-2	켜-(톱을)-아Y	32146-0-2	켜두
32147-0-1	되:-(硬)-CY	32147-0-1	되더라
32147-0-2	되:-(硬)-아Y	32147-0-2	되:두
32148-0-1	쉬:-(休)-CY	32148-0-1	쉬:더라
32148-0-2	쉬:-(休)-아Y	32148-0-2	쉬여:두
32149-0-1	할퀴-(搔)-CY	32149-0-1	할키더라
32149-0-2	할퀴-(搔)-아Y	32149-0-2	할켜두
32150-0-1	눈:-(焦)-CY	32150-0-1	눌떠라
32150-0-2	눈:-(焦)-아Y	32150-0-2	누러두
32151-0-1	깨닫-(覺)-CY	32151-0-1	깨달터라
32151-0-2	깨닫-(覺)-아Y	32151-0-2	깨다려두
32152-0-1	마렵-(오줌이)-CY	32152-0-1	마렵떠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Y	32152-0-2	마려워두
32153-0-1	부끄럽-(恥)-CY	32153-0-1	부그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아Y	32153-0-2 부끄러워두
32154-0-1	가깝-(近)-CY	32154-0-1 가깝떠라
32154-0-2	가깝-(近)-아Y	32154-0-2 가차워두
32155-0-1	깊-(深)-CY	32155-0-1 깊떠라
32155-0-2	깊-(深)-아Y	32155-0-2 기퍼두
32156-0-1	긋-(劃)-CY	32156-0-1 그:떠라
32156-0-2	긋-(劃)-아Y	32156-0-2 그어두
32157-0-1	씻-(洗)-CY	32157-0-1 씻:떠라
32157-0-2	씻-(洗)-아Y	32157-0-2 씻어두
32158-0-1	찝-(搗)-CY	32158-0-1 찌:터라
32158-0-2	찝-(搗)-아Y	32158-0-2 찌어두
32159-0-1	잡-(搔)-CY	32159-0-1 극떠라
32159-0-2	잡-(搔)-아Y	32159-0-1 글거두
32160-0-1	굶-(飢)-CY	32160-0-1 굶:떠라
32160-0-2	굶-(飢)-아Y	32160-0-2 굴머두
32161-0-1	닮-(似)-CY	32161-0-1 닮:떠라
32161-0-2	닮-(似)-아Y	32161-0-2 달머두
32162-0-1	싫-(厭)-CY	32162-0-1 싫터라
32162-0-2	싫-(厭)-아Y	32162-0-2 시러두
32163-0-1	끓-(𩪖)-CY	32163-0-1 끓:터라
32163-0-2	끓-(𩪖)-아Y	32163-0-2 고려두
32164-0-1	붓-(注)-CY	32164-0-1 부:떠라
32164-0-2	붓-(注)-아Y	32164-0-2 부어두
32165-0-1	타-(乘)-CY	32165-0-1 타터라

32165-0-2	타-(乘)-아Y	32165-0-2 타두
32166-0-1	마르-(乾)-CY	32166-0-1 말르더라
32166-0-2	마르-(乾)-아Y	32166-0-2 말라두
32167-0-1	쓰-(苦)-CY	32167-0-1 쓰더라
32167-0-2	쓰-(苦)-아Y	32167-0-2 써두
32168-0-1	슬프-(哀)-CY	32168-0-1 슬푸더라
32168-0-2	슬프-(哀)-아Y	32168-0-2 슬퍼두
32169-0-1	기쁘-(喜)-CY	32169-0-1 기뻐더라
32169-0-2	기쁘-(喜)-아Y	32169-0-2 기뻐두
32170-0-1	쏘-(蜚, 벌이)-CY	32170-0-1 쏘더라
32170-0-2	쏘-(蜚, 벌이)-아Y	32170-0-2 쏘:두
32171-0-1	주-(與)-CY	32171-0-1 주더라
32171-0-2	주-(與)-아Y	32171-0-2 줘:두
32172-0-1	키우-(飼育)-CY	32172-0-1 키우더라
32172-0-2	키우-(飼育)-아Y	32172-0-2 키워두
32173-0-1	가두-(囚)-CY	32173-0-1 가두더라
32173-0-2	가두-(囚)-아Y	32173-0-2 가둬두
32174-0-1	부수-(碎)-CY	32174-0-1 부시더라
32174-0-2	부수-(碎)-아Y	32174-0-2 부서두
32175-0-1	나누-(分)-CY	32175-0-1 노나더라
32175-0-2	나누-(分)-아Y	32175-0-2 노나두
32176-0-1	속이-(欺)-CY	32176-0-1 소기더라
32176-0-2	속이-(欺)-아Y	32176-0-2 소겨두
32177-0-1	끼-(插)-CY	32177-0-1 끼더라

32177-0-2	끼-(插)-아Y	32177-0-2 끼:두
32178-0-1	튀-(跳)-CY	32178-0-1 튀더라
32178-0-2	튀-(跳)-아Y	32178-0-2 튀어두
32179-0-1	괴:-(滄)-CY	32179-0-1 고이더라
32179-0-2	괴:-(滄)-아Y	32179-0-2 고여두
32180-0-1	여위-(癯)-CY	32180-0-1 여위더라
32180-0-2	여위-(癯)-아Y	32180-0-2 여여두
32181-0-1	맵-(辛)-CY	32181-0-1 맵떠라
32181-0-2	맵-(辛)-아Y	32181-0-2 매투
32182-0-1	뀌:-(屍)-CY	32182-0-1 꾸더라
32182-0-2	뀌:-(屍)-아Y	32182-0-2 꺾:두
32183-0-1	고치-(改)-CY	32183-0-1 고치더라
32183-0-2	고치-(改)-아Y	32183-0-2 고쳐두
32184-0-1	싣:-(載)-CY	32184-0-1 싣:떠라
32184-0-2	싣:-(載)-아Y	32184-0-2 시러두
32185-0-1	얻:-(得)-CY	32185-0-1 얻:떠라
32185-0-2	얻:-(得)-아Y	32185-0-2 어:더두
32186-0-1	빻-(粉碎)-CY	32186-0-1 빠터라
32186-0-2	빻-(粉碎)-아Y	32186-0-2 빠:두
32187-0-1	파랑-(碧)-CY	32187-0-1 파라터라
32187-0-2	파랑-(碧)-아Y	32187-0-2 파래두
32188-0-1	다르-(異)-CY	32188-0-1 달르더라
32188-0-2	다르-(異)-아Y	32188-0-2 달려두
32189-0-1	푸-(汲)-CY	32189-0-1 푸더라

32189-0-2	푸-(汲)-아Y	32189-0-2 퍼두
32190-0-1	누-(尿)-CY	32190-0-1 누터라
32190-0-2	누-(尿)-아Y	32190-0-2 누어두
32191-0-1	더:럽-(汚)-CY	32191-0-1 더:럽떠라
32191-0-2	더:럽-(汚)-아Y	32191-0-2 더:러워두
32192-0-1	거두-(收)-CY	32192-0-1 거두더라
32192-0-2	거두-(收)-아Y	32192-0-2 거뒤두
32193-0-1	끓-(沸)-CY	32193-0-1 끌터라
32193-0-2	끓-(沸)-아Y	32193-0-2 끄러두
32194-0-1	이기-(勝)-CY	32194-0-1 이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Y	32194-0-2 이겨두
32195-0-1	부시-(照)-CY	32195-0-1 부시더라
32195-0-2	부시-(照)-아Y	32195-0-2 부서두
32196-0-1	자빠지-(後倒)-CY	32196-0-1 자빠지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Y	32196-0-2 자빠저두
32197-0-1	일으키-(使起)-CY	32197-0-1 *
32197-0-2	일으키-(使起)-아Y	32197-0-2 *
32198-0-1	당기-(引)-CY	32198-0-1 *
32198-0-2	당기-(引)-아Y	32198-0-2 *
32199-0-1	버리-(捨)-CY	32199-0-2 버려라
32199-0-2	버리-(捨)-아Y	32199-0-1 버리더라
32200-0-1	훔치-(盜)-CY	32200-0-1 *
32200-0-2	훔치-(盜)-아Y	32200-0-2 *
32201-0-1	지-(負)-CY	32201-0-1 지더라

32201-0-2	지-(負)-아Y	32201-0-2 저두
32202-0-1	외:-(暗誦)-CY	32202-0-2 오여라
32202-0-2	외:-(暗誦)-아Y	32202-0-1 오이더라
32203-0-1	사귀-(交際)-CY	32203-0-2 사겨라
32203-0-2	사귀-(交際)-아Y	32203-0-1 사귀더라
32204-0-1	씩-(腐)-CY	32204-0-1 썩떠라
32204-0-2	씩-(腐)-아Y	32204-0-2 썩거두
32205-0-1	질-(泥)-CY	32205-0-1 질더라
32205-0-2	질-(泥)-아Y	32205-0-2 지러두
32206-0-1	까불-(箕)-CY	32206-0-1 까불더라
32206-0-2	까불-(箕)-아Y	32206-0-2 까부러두
32207-0-1	드물-(稀)-CY	32207-0-1 드물더라
32207-0-2	드물-(稀)-아Y	32207-0-2 드무러두
32208-0-1	줄:-(縮)-CY	32208-0-1 줄:떠라
32208-0-2	줄:-(縮)-아Y	32208-0-2 주러두
32209-0-1	심:-(植)-CY	32209-0-1 심:떠라
32209-0-2	심:-(植)-아Y	32209-0-2 시머두
32210-0-1	쓰다듬-(撫)-CY	32210-0-1 쓰다듬떠라
32210-0-2	쓰다듬-(撫)-아Y	32210-0-2 쓰다드머두
32211-0-1	사:납-(猛)-CY	32211-0-1 사:납떠라
32211-0-2	사:납-(猛)-아Y	32211-0-2 사:나워두
32212-0-1	가볍-(輕)-CY	32212-0-1 개볍떠라
32212-0-2	가볍-(輕)-아Y	32212-0-2 개벼워두
32213-0-1	젓:-(撈)-CY	32213-0-1 저:떠라

32213-0-2	젓:- (撈)-아Y	32213-0-2 젓:두
32214-0-1	두껍-(厚)-CY	32214-0-1 두껍더라
32214-0-2	두껍-(厚)-아Y	32214-0-2 두꺼워두
32215-0-1	무르-(軟)-CY	32215-0-1 무르더라
32215-0-2	무르-(軟)-아Y	32215-0-2 물러두
32216-0-1	분지르-(折)-CY	32216-0-1 분지르더라
32216-0-2	분지르-(折)-아Y	32216-0-2 분질러두
32217-0-1	배우-(學)-CY	32217-0-1 배우더라
32217-0-2	배우-(學)-아Y	32217-0-2 배워두
32218-0-1	다리-(屣)-CY	32218-0-1 다리더라
32218-0-2	다리-(屣)-아Y	32218-0-2 다려두
32219-0-1	후비-(空, 귀를)-CY	32219-0-1 후비더라
32219-0-2	후비-(空, 귀를)-아/어	32219-0-2 후벼두
32220-0-1	아리-(痛)-CY	32220-0-1 아리더라
32220-0-2	아리-(痛)-아Y	32220-0-2 아려두
32221-0-1	그리-(畫)-CY	32221-0-1 그:리더라
32221-0-2	그리-(畫)-아Y	32221-0-2 그:려두
32222-0-1	저리-(癡)-CY	32222-0-1 저리더라
32222-0-2	저리-(癡)-아Y	32222-0-2 저려두
32223-0-1	불리-(增)-CY	32223-0-1 불리더라
32223-0-2	불리-(增)-아Y	32223-0-2 불려두
32224-0-1	뜨시-(溫)-CY	32224-0-1 *
32224-0-2	뜨시-(溫)-아Y	32224-0-2 *
32225-0-1	끓이-(使沸)-CY	32225-0-1 끓리더라



32225-0-2	끓이-(使沸)-아Y	32225-0-2	끄러두
32226-0-1	누비-(縫)-CY	32226-0-1	누비더라
32226-0-2	누비-(縫)-아Y	32226-0-2	누벼두
32227-0-1	구기-(皺)-CY	32227-0-1	구기더라
32227-0-2	구기-(皺)-아Y	32227-0-2	구겨두
32228-0-1	비:-(空)-CY	32228-0-1	비:더라
32228-0-2	비:-(空)-아Y	32228-0-2	벼:두
32229-0-1	식히-(使冷)-CY	32229-0-1	시키더라
32229-0-2	식히-(使冷)-아Y	32229-0-2	시켜두
32230-0-1	매-(除草)-CY	32230-0-1	매:더라
32230-0-2	매-(除草)-아Y	32230-0-2	매:두
32231-0-1	매:-(結)-CY	32231-0-1	*
32231-0-2	매:-(結)-아Y	32231-0-2	*
32232-0-1	뛰-(走)-CY	32232-0-1	뛰더라
32232-0-2	뛰-(走)-아Y	32232-0-2	뛰어두
32233-0-1	담:-(盛)-CY	32233-0-1	담:떠라
32233-0-2	담:-(盛)-아Y	32233-0-2	다머두
32234-0-1	가렵-(癢)-CY	32234-0-1	가렵떠라
32234-0-2	가렵-(癢)-아Y	32234-0-2	가려워두
32235-0-1	때리-(打)-CY	32235-0-1	*
32235-0-2	때리-(打)-아Y	32235-0-2	*
32236-0-1	어둡-(暗)-CY	32236-0-1	어둡떠라
32236-0-2	어둡-(暗)-아Y	32236-0-2	어두워두
32237-0-1	잡-(執)-CY	32237-0-1	잡떠라

32237-0-2	잡-(執)-아Y	32237-0-2 잡버두
32238-0-1	차-(蹴)-CY	32238-0-1 차더라
32238-0-2	차-(蹴)-아Y	32238-0-2 차두
32239-0-1	모자라-(不足)-CY	32239-0-1 모자라더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Y	32239-0-2 모잘러두
32240-0-1	부르-(呼)-CY	32240-0-1 부르더라
32240-0-2	부르-(呼)-아Y	32240-0-2 불러두
32241-0-1	따르-(注)-CY	32241-0-1 따루더라
32241-0-2	따르-(注)-아Y	32241-0-2 따뤄두
32242-0-1	쫌:- (啄)-CY	32242-0-1 쫌:더라
32242-0-2	쫌:- (啄)-아Y	32242-0-2 쫌:두
32243-0-1	두-(置)-CY	32243-0-1 두더라
32243-0-2	두-(置)-아Y	32243-0-2 뒹:두
32244-0-1	시키-(使)-CY	32244-0-1 시키더라
32244-0-2	시키-(使)-아Y	32244-0-2 시켜두
32245-0-1	지리-(漏)-CY	32245-0-1 지리더라
32245-0-2	지리-(漏)-아Y	32245-0-2 지려두
32246-0-1	던지-(投)-CY	32246-0-1 던지더라
32246-0-2	던지-(投)-아Y	32246-0-2 던저두
32247-0-1	모이-(集)-CY	32247-0-1 모이더라
32247-0-2	모이-(集)-아Y	32247-0-2 모여두
32248-0-1	만지-(搯)-CY	32248-0-1 만지더라
32248-0-2	만지-(搯)-아Y	32248-0-2 만저두
32249-0-1	쪼:- (曬)-CY	32249-0-1 쪼이더라

32249-0-2	쪼:- (曬)-아Y	32249-0-2 쪼여두
32250-0-1	비틀-(捻)-CY	32250-0-1 비틀더라
32250-0-2	비틀-(捻)-아Y	32250-0-2 비:트러두
32251-0-1	돕:- (助)-CY	32251-0-1 돕떠라
32251-0-2	돕:- (助)-아Y	32251-0-2 도와두
32252-0-1	썹-(咀)-CY	32252-0-1 썹떠라
32252-0-2	썹-(咀)-아Y	32252-0-2 씨버두
32253-0-1	미끄럽-(滑)-CY	32253-0-1 미끄럽떠라
32253-0-2	미끄럽-(滑)-아Y	32253-0-2 미끄러워두
32254-0-1	닿-(接)-CY	32254-0-1 다:떠라
32254-0-2	닿-(接)-아Y	32254-0-2 다:두
32255-0-1	누르-(壓)-CY	32255-0-1 놀르더라
32255-0-2	누르-(壓)-아Y	32255-0-2 놀러두
32256-0-1	주무르-(揉)-CY	32256-0-1 주물르더라
32256-0-2	주무르-(揉)-아Y	32256-0-2 주물러두
32257-0-1	메우-(填)-CY	32257-0-1 메우더라
32257-0-2	메우-(填)-아Y	32257-0-2 메워두
32258-0-1	꼬시-(香味)-CY	32258-0-1 고소하더라
32258-0-2	꼬시-(香味)-아Y	32258-0-2 고소해두
32259-0-1	내리-(降)-CY	32259-0-2 내리니
32259-0-2	내리-(降)-아Y	32259-0-1 내리더라
32260-0-1	구르-(轉)-CY	32260-0-1 굴:르더라
32260-0-2	구르-(轉)-아Y	32260-0-2 굴:러두
32261-0-1	만들-(作)-CY	32261-0-1 맨들더라

32261-0-2	만들-(作)-아Y	32261-0-2 맨드러두
32262-0-1	늡-(老)-CY	32262-0-1 늡떠라
32262-0-2	늡-(老)-아Y	32262-0-2 늡거두
32263-0-1	앓-(痛)-CY	32263-0-1 앓터라
32263-0-2	앓-(痛)-아Y	32263-0-2 아러두
32264-0-1	따르-(隨)-CY	32264-0-1 따루더라
32264-0-2	따르-(隨)-아Y	32264-0-2 따러두
32265-0-1	사-(買)-CY	32265-0-2 사니까
32265-0-2	사-(買)-아Y	32265-0-1 사구
32266-0-1	치우-(除)-CY	32266-0-1 치우더라
32266-0-2	치우-(除)-아Y	32266-0-1 치워두
32267-0-1	부러지-(被折)-CY	32267-0-1 부러지구
32267-0-2	부러지-(被折)-아Y	32267-0-2 부러저두
32268-0-1	다치-(傷)-CY	32268-0-1 다치더라
32268-0-2	다치-(傷)-아Y	32268-0-2 다쳐두
32269-0-1	느리-(緩)-CY	32269-0-1 느리더라
32269-0-2	느리-(緩)-아Y	32269-0-2 느려두
32270-0-1	무치-(和,나물을)-CY	32270-0-1 *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Y	32270-0-2 무치니까
32271-0-1	죄:-(締)-CY	32271-0-1 조이구
32271-0-2	죄:-(締)-아Y	32271-0-2 조여라
32272-0-1	팔-(賣)-CY	32272-0-1 팔더라
32272-0-2	팔-(賣)-아Y	32272-0-2 파러두
32273-0-1	뽑-(選)-CY	32273-0-1 뽑떠라

32273-0-2	뽑-(選)-아Y	32273-0-2 뽑버두
32274-0-1	뒤지-(索)-CY	32274-0-1 *
32274-0-2	뒤지-(索)-아Y	32274-0-2 뒤지니까
32275-0-1	마치-(終)-CY	32275-0-1 마친다
32275-0-2	마치-(終)-아Y	32275-0-2 *
32276-0-1	절이-(鹽)-CY	32276-0-1 저린다
32276-0-2	절이-(鹽)-아Y	32276-0-2 *
32277-0-1	휘-(曲)-CY	32277-0-1 후인다
32277-0-2	휘-(曲)-아Y	32277-0-2 *
32278-0-1	줍:-(拾)-CY	32278-0-1 줍떠라
32278-0-2	줍:-(拾)-아Y	32278-0-2 주서두
32279-0-1	빼앗-(奪)-CY	32279-0-1 빼:떠라
32279-0-2	빼앗-(奪)-아Y	32279-0-2 빼서두
32280-0-1	기울-(傾)-CY	32280-0-1 기울더라
32280-0-2	기울-(傾)-아Y	32280-0-2 기우러두
32281-0-1	아깝-(惜)-CY	32281-0-1 아깝떠라
32281-0-2	아깝-(惜)-아Y	32281-0-2 아꺼워두
32282-0-1	반갑-(歡)-CY	32282-0-1 반갑떠라
32282-0-2	반갑-(歡)-아Y	32282-0-2 반가워두
32283-0-1	찌-(蒸)-CY	32283-0-1 찌더라
32283-0-2	찌-(蒸)-아Y	32283-0-2 찌두
32284-0-1	노랑-(黃)-CY	32284-0-1 노라더라
32284-0-2	노랑-(黃)-아Y	32284-0-2 노래두
32285-0-1	푸르-(靑)-CY	32285-0-1 푸르더라

32285-0-2	푸르-(靑)-아Y	32285-0-2 푸러두
32286-0-1	서두르-(忙)-CY	32286-0-1 서둘더라
32286-0-2	서두르-(忙)-아Y	32286-0-2 서둘러두
32287-0-1	서투르-(不熟)-CY	32287-0-1 서툴더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Y	32287-0-2 서툴르먼
32288-0-1	게으르-(怠)-CY	32288-0-1 게을러더라
32288-0-2	게으르-(怠)-아Y	32288-0-2 게을러두
32289-0-1	따뜻하-(溫)-CY	32289-0-1 따드타더라
32289-0-2	따뜻하-(溫)-아Y	32289-0-2 따드태두
32290-0-1	춡-(寒)-CY	32290-0-1 춡떠라
32290-0-2	춡-(寒)-아Y	32290-0-2 추워두
32291-0-1	뜨겁-(極熱)-CY	32291-0-1 뜨겁떠라
32291-0-2	뜨겁-(極熱)-아Y	32291-0-2 뜨거워두
32292-0-1	미지근하-(微溫)-CY,	32292-0-1 미지근하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Y	32292-0-2 *
32293-0-1	차갑-(寒)-CY	32293-0-1 차겁떠라
32293-0-2	차갑-(寒)-아Y	32293-0-2 차거워두
32294-0-1	부럽-(羨)-CY	32294-0-1 부럽따
32294-0-2	부럽-(羨)-아Y	32294-0-2 *
32295-0-1	얕밋-(憎)-CY	32295-0-1 얕밋따
32295-0-2	얕밋-(憎)-아Y	32295-0-2 *
32296-0-1	비슷하-(類似)-CY	32296-0-1 비스타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Y	32296-0-2 *
32297-0-1	새롭-(新)-CY	32297-0-1 새롭떠라

32297-0-2	새롭-(新)-아Y	32297-0-2 새로워두
32298-0-1	서:럽-(悲痛)-CY	32298-0-1 서럽따
32298-0-2	서:럽-(悲痛)-아Y	32298-0-2 *
32299-0-1	까다롭-(難)-CY	32299-0-1 까다롭따
32299-0-2	까다롭-(難)-아Y	32299-0-2 *
32300-0-1	외롭-(孤)-CY	32300-0-1 외롭따
32300-0-2	외롭-(孤)-아Y	32300-0-2 *
32301-0-1	아쉽-(不滿)-CY	32301-0-1 아쉽따
32301-0-2	아쉽-(不滿)-아Y	32301-0-2 *
32302-0-1	단단하-(固)-CY	32302-0-1 단단하다
32302-0-2	단단하-(固)-아Y	32302-0-2 *
32303-0-1	늦-(晚)-CY	32303-0-1 느떠라
32303-0-2	늦-(晚)-아Y	32303-0-2 느저두
32304-0-1	남:-(餘)-CY	32304-0-1 남떠라
32304-0-2	남:-(餘)-아Y	32304-0-2 나머두
32305-0-1	남기-(使餘)-CY	32305-0-1 냉기더라
32305-0-2	남기-(使餘)-아Y	32305-0-2 냉겨두
32306-0-1	넘어뜨리-(使倒)-CY,	32306-0-1 너머트린다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Y	32306-0-2 *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CY	32307-0-1 찌볼티리더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Y	32307-0-2 찌볼티려두
32308-0-1	견주-(比)-CY	32308-0-1 견주더라
32308-0-2	견주-(比)-아Y	32308-0-2 견줘두
32309-0-1	외우-(誦)-CY	32309-0-1 *

32309-0-2	외우-(誦)-아Y	32309-0-2 *
32310-0-1	문지르-(摩)-CY	32310-0-1 문질르더라
32310-0-2	문지르-(摩) -아Y	32310-0-2 문질러두
32311-0-1	가리키-(指)-CY	32311-0-1 *
32311-0-2	가리키-(指)-아Y	32311-0-2 가리켜라
32312-0-1	가르치-(敎)-CY	32312-0-1 가리킨다
32312-0-2	가르치-(敎)-아Y	32312-0-2 *
32313-0-1	겨누-(照準)-CY	32313-0-1 겨누더라
32313-0-2	겨누-(照準)-아Y	32313-0-2 겨눠두
32314-0-1	겨루-(競)-CY	32314-0-1 겨루다
32314-0-2	겨루-(競)-아Y	32314-0-2 *
32315-0-1	달래-(慰撫)-CY	32315-0-1 달래더라
32315-0-2	달래-(慰撫)-아Y	32315-0-2 달래두
32316-0-1	본받-(效)-CY	32316-0-1 본바떠라
32316-0-2	본받-(效) -아Y	32316-0-2 본바다두
32317-0-1	어지르-(散)-CY	32317-0-1 어질른다
32317-0-2	어지르-(散)-아Y	32317-0-2 *
32318-0-1	달리-(走)-CY	32318-0-1 달리더라
32318-0-2	달리-(走)-아Y	32318-0-2 달려두
32319-0-1	우기-(拗)-CY	32319-0-1 우기더라
32319-0-2	우기-(拗)-아Y	32319-0-2 우겨두
32320-0-1	중얼거리-(獨言)-CY,	32320-0-1 중얼거린다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Y	32320-0-2 *
32321-0-1	지껄이-(騷)-CY	32321-0-1 지꺼리더라



32321-0-2	지꺠이-(騷)-아Y	32321-0-2 지꺠려두
32322-0-1	다니-(行)-CY	32322-0-1 땡기터라
32322-0-2	다니-(行)-아Y	32322-0-2 땡겨두
32323-0-1	떨어뜨리-(使落)-CY,	32323-0-1 떠리킨다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Y	32323-0-2 *
32324-0-1	깨-(覺)-CY	32324-0-1 깨터라
32324-0-2	깨-(覺)-아Y	32324-0-2 깨:두
32325-0-1	시-(酸)-CY	32325-0-1 시터라
32325-0-2	시-(酸)-아Y	32325-0-2 셔:두
32326-0-1	쑈-(湧)-CY	32326-0-1 소떠라
32326-0-2	쑈-(湧)-아Y	32326-0-2 소사두
32327-0-1	쑤:- (好)-CY	32327-0-1 조:터라
32327-0-2	쑤:- (好)-아Y	32327-0-2 조와두
32328-0-1	빨강-(赤)-CY	32328-0-1 빨가터라
32328-0-2	빨강-(赤)-아Y	32328-0-2 빨개두
32329-0-1	끌:- (曳)-CY	32329-0-1 끌터라
32329-0-2	끌:- (曳)-아Y	32329-0-2 끄러두
32330-0-1	얹:- (薄)-CY	32330-0-1 *
32330-0-2	얹:- (薄)-아Y	32330-0-2 *
32331-0-1	하얗-(白)-CY	32331-0-1 하야터라
32331-0-2	하얗-(白)-아Y	32331-0-2 하애두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다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또
32333-0-1	논(沍)-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沍)-을/를	32333-0-2	노늘
32333-0-3	논(沍)-에(서)	32333-0-3	노네
32333-0-4	논(沍)-으로	32333-0-4	*
32333-0-5	논(沍)-도	32333-0-5	논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도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믈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다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블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브로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또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슬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세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스로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또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에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
32339-0-5	낮(晝)-도	32339-0-5	날또
32340-0-1	낮(顔)-이/가	32340-0-1	나시
32340-0-2	낮(顔)-을/를	32340-0-2	나출
32340-0-3	낮(顔)-에(서)	32340-0-3	나체
32340-0-4	낮(顔)-으로	32340-0-4	*
32340-0-5	낮(顔)-도	32340-0-5	*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부어키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부어케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부어크로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부엌또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치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슬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테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또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다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플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푸로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또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너기라고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너글 녍슬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
32344-0-5	넋(魂)-도	32345-0-5	*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흐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흐글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흐게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흐그로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여더리다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여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여더레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여덜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도리다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갑씨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가블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
32348-0-5	값(價)-도	32348-0-5	*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글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게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또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늘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로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이산찌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메다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블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베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부로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시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슬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세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스로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또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에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도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저지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저즐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저제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
32356-0-5	젓(乳)-도	32356-0-5 저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시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출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체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또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시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출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체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스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또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피다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플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페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푸로
32359-0-5	옆(側)-도	32359-0-5 *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1 품싸기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2 품싸슬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3 *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4 품싸쓰로
32360-0-5	샅(賃金)-도	32360-0-5 품싸또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글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달게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달그로

32361-0-5 닭(鷄)-도

32361-0-5 닭또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끌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께

32362-0-4밖(外)-으로

32362-0-4 바끄로

32362-0-5 밖(外)-도

32362-0-5 박또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3 나
40101-0-4 나-에 게	40101-0-4 날:
40101-0-5 나-와	40101-0-5 나하구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1-0-7 나두
40102 저/제-가	40102 지:가
40102-0-1 저-가	40102-0-1 *
40102-0-2 저-의	40102-0-2 *
40102-0-3 저-을/를	40102-0-3 *
40102-0-4 저-에 게	40102-0-4 *
40102-0-5 저-와/과	40102-0-5 *
40102-0-6 저-는	40102-0-6 *
40102-0-7 저-도	40102-0-7 *
40103 우리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4 저이
40105 너	40105 너
40105-0-1 -가	40105-0-1 니가
40105-0-2 -의	40105-0-2 네
40105-0-3 -을/를	40105-0-3 너
40105-0-4 -에 게	40105-0-4 너한테
40105-0-5 -와/과	40105-0-5 너하구
40105-0-6 -는	40105-0-6 너는
40105-0-7 -도	40105-0-7 너두
40106 자네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7 당신  
40108 너 어르신네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제  
40111 \*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요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  
40112-0-3 누구  
40112-0-4 누구  
40112-0-5 누구하구  
40113 뭐유  
40113-0-1 뭐니  
40113-0-2 무슨  
40113-0-3 뭐  
40113-0-4 뭐

#### 4.1.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결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떠케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0	이거
40121	그것	40122	저거
40122	저것	40121	그거
40123	여기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5	저기	40124	거기
40126	이리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7	고리
40128	저리	40128	저리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40201	갑씨
40202	-이/가	40202	소가
40203	-을/를	40203	귀를
40204	-을/를	40204	무를
40205	-에 게/게	40205	사람한테
40206	-보고/더러	40206	누구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7	너보구
40208	-에	40208	지베
40209	-에	40209	야중에
40210	-에 서	40210	큰지베서
40211	-에 서	40211	서울서
40212	-에 서	40212	여기서
40213	-으로	40213	참쌀로
40214	-으로	40214	지부루
40215	-으로	40215	새끼루
40216	-으로	40216	어디루
40217	-와/과	40217	수:바과 차메
40218	-와/과	40218	나하구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19 형보다  
 40220 돼:지가치  
 40221 너만큼  
 40222 머글거만큼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영수야  
 40226 누님  
 40226-1 \*  
 40227 하라버지  
 40227-1 \*  
 40228 수라구 고기하구  
 40229 마뉘는 커녕

####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머거두 담배는 안 피워  
 40231 딸만  
 40232 키두 크구  
 40233 날마다  
 40234 오늘부터  
 40235 내일까지  
 40236 너조차  
 40236-1 \*  
 40237 마:리야 잘하지  
 40238 그런 소리 해지마  
 40239 태사니래두  
 40240 너배끼  
 40241 싸가지고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지부로 오라구 한다  
 40243 아라서유  
 40244 뭐:지유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파리 자바라  
40302 파리좀 잡게  
40303 파리좀 자바유  
40304 파리 자바유  
40305 \*

#### 4.3.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40306 비베 가자  
40307 지베 가세  
40308 지베 가유  
40309 지베 가유  
40310 \*

#### 4.3.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11 어디 가니  
40312 어디 가나  
40313 어디 가유  
40314 \*  
40315 \*  
40316 뭐잡니  
40317 뭐잡나  
40318 뭐자바유  
40319 \*  
40320 \*

####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파리 잡는다
40322	-네	40322	파리 잡네
40323	-오	40323	파리 자버유
40324	-습니다	40324	*
40325	-네요	40325	*
40326	-다	40326	이방이 조타
40327	-네	40327	이방이 존네
40328	-소	40328	이방이 조아유
40329	-으십니다	40329	*
40330	-으세요	40330	*

#### 4.3.5. 반말

40331	-아	40331	어디 아파
40332	-지	40332	병위네 갈꺼지

#### 4.3.6. -이다

40333	-이다	40333	생이리다
40334	-이니	40334	생이리니
40335	-이네	40335	생일일쎄
40336	-인가	40336	생이런가
40337	-이오	40337	생이리유
40338	-이오	40338	생이리유
40339	-입니다.	40339	생이리유
40340	-입니까	40340	생이리유
40341	-이시지요	40341	*
40342	-이시지요	40342	*
40343	-이냐?	40343	그게 뭐냐
40344	-인가?	40344	뭔가
40345	-이오?	40345	뭐유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46 \*  
40347 \*  
40348 뭐여  
40349 뭐여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만네유  
40351 만테유  
40352 멍는구나  
40353 멍는구먼  
40354 오랜마닐쎄  
40355 줄께  
40356 해주겐네  
40357 다친다 조:심해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바블머꼬  
40402 보면서  
40403 추위:서  
40404 뜨트태니까  
40405 먼이리킬레  
40406 오다가  
40407 만나걸랑  
40408 먹떠래두  
40409 나눠머글라구  
40410 죽뚜룩  
40411 노폴수록  
40412 물쓰드시  
40413 연속꿈만 보지

## 4.5. 주체 존대

40501 -서  
40502 -셨소

40501 오세유  
40502 시무셔썌유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고 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7 왔었다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40610 만나는 친구  
40611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컸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01 운는다  
40602 겨: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오구이따  
40606 밤머건니 잡썌썌유  
40607 가썌썌  
40608 먹떠라  
40609 먹떠냐  
40610 만나는 칭구  
40611 만난 칭구  
40612 만나편 칭구  
40613 만날 칭구  
40614 큰아이  
40615 크던애  
40616 커편 아이  
40617 먹찌 앙케따  
40618 오게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1 몬머거썌  
40702 안조타 조치안타  
40703 앙개끄타다  
깨그타지안타  
40704 장가 앙가따 장:가 가지 아나따

40705 만나 보지 았았다/안 만나 보았다/ 만나 안 보았다	40705 안만나봐:따 만나보지 아나따
40706 먹지도 았고 자지도 았고	40706 밥뚜 암머꾸 밥뚜 먹찌 앙쿠
40706-1 먹도 았고	40706-1 밥뚜 먹뚜 앙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마셔 마시지 모탄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마자찌 마찌아나씨

## 4.8. 피동과 사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린다
40802 늘리다	40802 늘군다
40803 말리다1	40803 말린다
40804 말리다2	40804 말린다
40805 얼리다	40805 얼군다
40806 녹이다	40806 녹인다
40807 신기다	40807 신킨다
40808 보이다	40808 보인다
40809 알리다	40809 알군다
40810 입히다	40810 이핀다
40811 앉히다	40811 안춘다
40812 벗기다	40812 베킨다
40813 옷기다	40813 우긴다
40814 썩히다	40814 썩긴다
40815 숨기다	40815 숨긴다
40816 굶기다	40816 궁긴다
40817 깨우다	40817 깨운다
40818 돌우다	40818 도둔다

###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자핀다
40820 깎이다	40820 까긴다



40821 끼이다  
 40822 떤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얹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꿇기다  
 40834 굽히다

40821 끼워진다  
 40822 떤인다  
 40823 채인다  
 40824 다친다  
 40823 들린다  
 40826 어핀다  
 40827 바껴따  
 40828 씹핀다  
 40829 언친다  
 40830 찌킨다  
 40831 놀린다  
 40832 실린다  
 40833 꿇킨다  
 40834 글킨다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1 머꾸 십따  
 40902 멍는거 가떠니 멍는거 십떠니  
 멍는거 해떠니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3 이버 봐라 이버 보세유  
 40904 머거 버런네  
 40905 \*  
 40906 올꺼가따 올라나봐  
 40907 잠드런나 봐 자나봐  
 40908 추운가 봐

##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1 실컨 머거라  
 41002 마:니 머그먼  
 41003 너무 마니 마시먼  
 41004 쪼끔  
 41005 채주 가는

41006	빨리	41006	발리완네
41007	얼른	41007	얼른 머거라
41008	기어코	41008	기어코 가더니
41009	가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0	먼저 가거라
41011	나중에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3	몽탕
41014	모조리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6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히	41017	똑띠기 바라
41018	겨우	41018	간시니 제우
41019	늘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0	제절루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3	자치태쓰면
41024	함께	41024	가치 간따
41025	걸핏하면	41025	자치타면
41026	공연히	41026	공여니
41027	그냥	41027	그냥 와따
41028	매우	41028	되:게
41029	곤장	41029	고짱
41030	벌써	41030	발써
41031	가장	41031	제:일
41032	가만히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4	이따금씩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	----	-------	----

41102	여보세요	41102	여보세유
41103	들어가요	41103	끄늘께유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하세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랜마니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안녕이 주무셔썬유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안녕 하셔썬유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여기썬니다
41109	예	41109	예
41110	아니	41110	아:니유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아무러치두 안는데유
41112	내버려 뒀	41112	가만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누구나

#### 4.11.2. 속담

41114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미빠진 도게 물부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두기 소도둑 똬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안땀 굴뚝게 영기나라

###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he dialect survey which has been made in Icheon-si area(in Gyeonggi-do, Korea) from 18th August to 2nd September in 2009.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has conducted the nationwide project to survey all Korean dialects since 2004, and this report shows how the survey was conducted in Gyeonggi-do area.

The report includes natural conversation or narrative discourse, local words, phonological aspect and grammatical expressions of Icheon-si area through which we expect to understand the linguistic aspect of southeast area of Gyeonggi-do.

Two informa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whom Younggyu Choi gave much information at lexical,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discursive levels as a main informant.

The surve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for about 51 hours, and especially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was put into transcription, which covers ge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region and private and traditional way of life of the main informant.

**Key Words :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dialect survey, Icheon-si, Gyeonggi-do, phonological, grammatical, discourse, local word, transcription**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